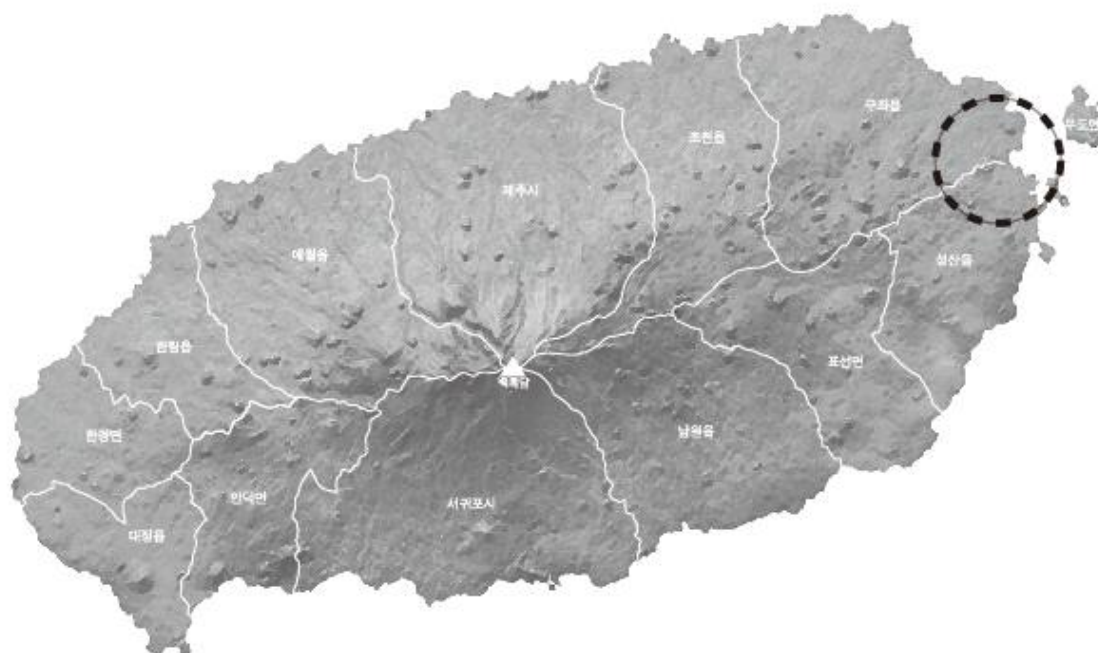


79-6500000-000288-01

4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승연
조사지점 성산읍 고성리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4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9

제2장 성산읍 고성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0
2.2. 조사 기간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10
2.4. 전사	12
2.5. 장비	12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3	2. 제보자 일생	24
3. 밭일	42	4. 들일	76
5. 바다일	103	6. 의생활	125
7. 식생활	149		

제2절 어휘

1. 인체	205	2. 육아	211
3. 친족	218	4. 의복	221
5. 음식	227	6. 가옥	235
7. 생업	240	8. 수와 단위	252
9. 민속	255	10. 신앙	258
11. 자연	258	12. 동물	266
13. 식물	275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낙관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돈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돈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성산읍 고성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김두하(남, 1934년생)

정계춘(여, 1933년생)

김학수(남, 1927년생)

2.2. 조사 기간: 2014. 10. 28.~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김두하	00:26:00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 일생	김두하	00:45:28	○
	구술 2. 제보자 일생	김두하	00:20:55	○
3. 밭일	구술 3-1. 보리 농사1	김두하	00:22:44	○
	구술 3-1. 보리 농사2	김두하	00:10:59	○
	구술 3-2. 조, 콩 농사	김두하	00:39:41	○
	구술 3-3. 밭벼 농사	김두하	00:22:47	○
	구술 3-4. 고구마 농사	김두하	00:20:05	○
4. 들일	구술 4. 들일1	김두하	00:51:29	○
	구술 4 들일2, 땀감	김두하	00:11:31	○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	정계춘	00:55:45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	정계춘	00:43:42	○
	구술 6. 의생활	정계춘	00:43:02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1	정계춘	01:15:42	○
	구술 7. 식생활2	정계춘	01:31:19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1	김두하	01:10:40	×
	구술 8. 주생활2	김두하	01:25:37	×
9. 신앙	구술 9. 신앙	정계춘	00:07:38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김두하	01:02:28	×
11. 놀이	구술 11. 놀이1	김두하	01:15:47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	김두하	01:10:20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정계춘	00:44:00	×
14. 경험담	구술 14. 경험담	김두하	00:04:28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1	정계춘	01:00:26	○
	어휘 1. 인체2	정계춘	01:09:59	○
2. 육아	어휘 2. 육아	정계춘	02:25:05	○
3. 친족	어휘 3. 친족	김두하	01:10:34	○
4. 의복	어휘 4. 의복	정계춘	01:15:22	○
5. 음식	어휘 5. 음식	정계춘	01:27:17	○
6. 가옥	어휘 6. 가옥	김두하	01:43:53	○
7. 생업	어휘 7. 생업	김두하 김학수	02:22:34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김두하 김학수	00:54:27	○
9. 민속	어휘 9. 민속	김두하	00:29:00	○
10. 신앙	어휘 10. 신앙	정계춘	00:15:16	○
11. 자연	어휘 11. 자연1	김두하	00:41:16	○
	어휘 11. 자연2	정계춘	00:01:32	○
	어휘 11. 자연3	김두하	00:17:42	○
	어휘 11. 자연4	김두하	00:09:05	○
12. 동물	어휘 12. 동물1	김두하	00:45:51	○
	어휘 12. 동물2	김두하	01:51:53	○
13. 식물	어휘 13. 식물	김두하 김학수	01:38:27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 김승연, #: 김두하, ##: 정계춘)

1. 조사 마을

101001 @ 저예, 저가 저기 그, 이 마을이예. 어떻 텔 헤그네 만들어져신고마씨?

101001 # 아 그거야 뭐. 요요 책에 거 보면은 알아져 갈테주. 아, 계난예.

101001 @ 들어진 데로예. 들어진 데로.

101001 # 어떻연, 어떻연 만들어져 진거는 뭐 나도. 이제 그 촌. 한 삼백 년 이상 돼니까. 여기 그 조성현, 므을 만들어 진디가 혼 삼백 년 이상 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주게.

101001 @ 예예, 맞추다게 오레 텔 거라부난예.

101001 # 예예.

101001 @ 그 곁에 대해서 연구허거나 뭐 허는 것도 아니고예. 들은데로예, 들은 데로 혼 삼 백년 됐다. 저기 이 말이구나예.

101001 # 응.

101002 @ 그, 이 마을에는 이 마을에 성씨, 성씨는 무슨 성씨로 성씨들이 막 한 고예?

101002 # 아, 계난 아, 성씨가 고성에는 지금 현재로는 정씨가 제일 하.

101002 @ 예예, 정씨예.

101002 # 뭐 정씨 촌이엔 혈 수도 있고, 그 다음은 김씨. 예, 오씨. 이렇게 해서 그 뭐 또 으라가지 성덜이. 사름이 이 떼까지 살다 보니까. 육지부에서 육지에서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지금 뭐 데충. 어디 조사 해 놓은 거 잇을테주. 아 그것도.

101002 @ 그, 그 처음에는 이 마을에 저기 어느 하르버지 성씨 성씨 가진 하르버지가 왓텐 현 말은 들어본 도레가 잇수과?

101002 # 아, 여기 현씨가 제일 먼저 왓젠 허여.

101002 @ 현씨가 아.

101002 # 응.

101002 @ 그 다음에는.

101002 # 예 현씨. 김씨. 그다음에 정씨. 텔 거라.

101002 @ 지금은 뭐 마을이 워낙 번창 해 부니까.

101002 # 예, 어디가 잘 모르고.

101002 @ 맞추다.

101002 # 오씨도 이제, 오씨도 정씨보다는 먼저 왓실 거라이?

101002 @ 으음. 오씨도예. 정씨보단 예. 먼저. 아, 소리가

101003 @ 그, 이이 이 마을은 고성리난예. 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서 주로 무슨 일들을 허멍 살아 와 신가마씨?

101003 # 아 계난게.

101003 @ 멘 처음부터.

101003 # 어, 거이가 거. 농사도 짓곡게. 바당에도 텅기곡. 계난 남자덜토 옛날엔 거 뭐 이 어선이나 뭐 이런 게 시원치가 아녜주. 터베라고나 이제 거 뭐 쪼그만 그 베덜 해 가지고 그거 가져서 고기 낙끄레도 다니고, 주로 여자들은 해녀를 해서 이제 그 해조류라든가 이제 그 안에 구쟁기나 그 이 어페류. 이런 거 잡는 거 잡아서 살아 왔주게.

101003 @ 예예.

101003 # 게고 농사엔 험거머 옛날에야 무슨 농사가 머 쫄도 안 돼고 흐니카조, 보리, 감자 요런거 그자, 흐면서 잘 돼지도 아녀는거.

101003 @ 그 옛날엔 경 허다가 그 다음엔 지금은 과수원 일을?

101003 # 계난 거 과수원 난지도 흔 스십 년 돼기도 뵈는데예. 이제 밀감이영. 계난 저것도 으라 가지로 지금 흐는데. 저거 뭐 돈이 안돼니까, 지금도 이 밀감. 금년도 지금 풀지 못헿 난린게.

101003 @ 저기 밀감허기 전에 감자허고 보리허고 조가 대부분이라나신가마씨?

101003 # 예.

101003 @ 어, 유채도, 유채도 뭐 도중에 허다가 도중에 헿 설러불고?

101003 # 으, 중간에.

101003 @ 으, 조, 보리.

101003 # 보리 다음, 감자 다음에 이제 유채는 뭐 갑작허게.

101003 @ 예예 허다가 설러불고,

101003 # 허다가 유채가 뵈짝 해 낫주게. 거 돈도 좀 가고.

101003 @ 맞수다.

101003 # 거 유채 갈안에. 그 새마을 운동허멍 그 스투트 다 올리고 헿주.

101003 @ 아 유채 갈안에.

101003 # 응.

101003 @ 거문 돈이 돼신게마씨.

101003 # 응, 감자, 감자허고 감자 빼떼기헿곡. 유채헿곡 해서.

101003 @ 감자는 고구마 전분 얘기 허는 거 아니우파?

101003 # 응, 거난 그 전분으로 흘 걸로 그 늘감자로 씻거가 가는 거는 전분허는 거고. 그 푼는 거는 그 걸 다 그 빼떼기로 썰어게. 그 절간기로 헤여게.

101003 @ 절간기 헤여 가지고, 빼떼기는 헤어나민그 밧에서 바로.

101003 # 아이고 저 테역밧디 이 이런데 그 널어야지게. 그냥 흑밧디 널민 세카망 헿 흑 물어비영. 그거 값이 돼질 안 허주게.

101003 @ 그 절간긴 허면은 절간기는 집집마다 잇질 아니 허고. 빌어당도 허고 순 놀어그네.

101003 # 아이, 으응, 동네에서 샷, 으 동네에서 이제 그거를 구입헤영 흐면은, 이제 멧집이 이제 공동으로 구입허영 흐는 수도 잇고. 기자 흐 사름 사당 흐는 사람도 잇고.

101003 @ 게문 옛날에 방에랑 돌방에영 흐끔 비슷헌게마씨.

101003 # 아니 돌방에가 아니고 절간기엔 헌거 그. 이, 동글랑 헌 걸로 칼 붓저 그네 감저 노왕 돌르면은 팍팍 썰어지영 나오는 거주게.

101003 @ 예예, 게민 돌방에도 흐 몇 집이서 모여그네 방에 허곡허지 안헤수과?

101003 # 아 거 건 동네서.

101003 @ 동네서 허는 거고예.

101003 # 응.

101003 @ 예 거문 삼춘도 이제 저기 빼떡이 널레 가곡 들이레 가고 헤납디가?

101003 # 어 헤낫주게.

101003 @ 예. 이것도 물리민 흐 며칠 걸려신고마씨? 흐 보름.

101003 # 한 일주일 이상 걸려서. 보름 깃장은 안 걸려서.

101003 @ 응, 일주일? 비 맞을 쥔 어떻 헤신고마씨예?

101003 # 비 맞을 쥔. 다들영 이제 놀여야주게. 덮어서 비 안 맞게 덮영. 비 맞으면 세카망 행 다 썩어비여.

101003 @ 맞수다. 삼춘 그 저기 들어난 일. 한번 골아줍서. 삼춘이 경험 헤시난 예. 그 빼떡이 널고.

101003 @ 아-게, 널곡. 널민 그거. 다 넣어 놓으면은 흐 사흘정도 물리민. 그거를 또 뒗싸야 뒗여. 아, 뒤집어 놓아야. 이제 그 다시 그 뒤으로 몰릴거 아니라게.

101003 @ 맞수다. 예, 그 뒤집을 쥔 다 흐나흐나 뒤집어신가마씨?

101003 # 아니 살살 이렇게 흐면서.

101003 @ 왔다갔다 허면서.

101003 # 응.

101003 @ 그것도 보면은 그냥, 흐 그 마지기로 험니까? 그거? 몇 평으로 험니까. 몇 평 그?

101003 # 아 게난게, 그 평당, 그 다. 그 전에는 이저. 감자를 심어도오. 이게 뒗 백 평, 이백 평만 심는 게 아니고 흐 천평 이렇게 그 잇는 밧딘, 다 심을 수도 잇고 다른 농사 흐다가 나며진 다 험 수도 있는 거니까. 경 경 행 흐면은 그거.

101003 @ 경 테역 밧이 경 하신가? 집집마다 널젠 허민.

101003 # 경 허난 테역 밧이 엇이므로 이제 그, 집집에서도 허고. 여기저기 게 난 그, 그 당시에는 이거 테수산봉도, 이 나무가 저렇게 이제는 팍 들어챇주만은 그 옛날에는 이제 쉼들 질르멍 쉼 맥이고 뒗허고, 목장허고, 불도 놓곡 헤 낫주게. 그

펜 나무가 엇인 때는 다 잔디밭.

101003 @ 아 잔디밭. 테엃밭이난예 거기도 널고예 맞수다.

101003 # 게난 그디 다 간. 지여다그네.

101003 @ 지금 허고는 지금 상황으로 저기 형편으로 생각해서는 도테체가 이해가 안돼쿠다 예.

101003 # 응, 게난 지금은 그걸 허쟁 해도 널데가 없어. 이제는 이제는그 망사들 많이 나오니까. 그런거 사다그네. 싹 우이 헤그네. 널면은 돼졌지만은 그 펜 그렇게 없으니까. 이 저 테역 밧 뱃기 의존 헐디가 없어.

101003 @ 맞수다 그때도.

101003 # 게난 그 우의 출비는 밧. 이 부락 뱃깃디 나가서도 그 마차로 다 싹꺼가그네. 거기서.

101003 @ 돌려그네 절간기로 놔 기네예?

101003 # 곁아그네.

101003 @ 거 혈때는 곁체엔 헨거 들러그네. 곁체로 받아그네.

101003 # 으, 곁체로 헤그네 널곡. 들일 펜 또 다 모두 왕 그거.

101003 @ 맞수다. 테역도 막 붙으곡. 헤 가지곡 경 해도 밧이서. 흑 우이 넌것 보다는 낫으큰게마씨. 낫으쿠다.

101003 # 응, 게난 그 때도 비오는 게 문제주게.

101003 @ 비와 낭 덮으는 거는 모다 낭 느람지로 헤그네

101003 # 느람지로 덮으든지. 그 때는 비니루도 별로 엇어 노니까이.

101003 @ 예 엇어 노니까. 맞수다. 거난 조 허고 보리 허고 고구마 거 크게 생 각허는 게. 그게 큰 농스고예,

101003 # 응.

101003 # 경 해도 조 허고 보리 허고 고구마 중에서, 여기서 뵈는 거는 무슨 농사가 뵈코마씨? 제일 뱃친거.

101003 # 아, 여긴 조도 잘 뵈고, 보리도 잘 뵈여.

101003 @ 아, 조 허고 보리?

101003 # 응.

101003 @ 거문 조는? 조도 막 저 여러 잇지 안우파?.

101003 # 아 으라, 흐린조, 모인조

101003 @ 흐린조, 모인조.

101003 # 이렇게 이시난에 이. 뵈 ㄱ랑조엔 헨 것도 잇고이. 으라 가지 그.

101003 @ ㄱ랑조? 흐린조, 모인조, ㄱ랑조. 또 노랑, 노랑?

101003 # 게난 조는 다 노랑 헨 거 난게.

101003 @ 다 노랑헨거.

101003 # 응.

101003 @ 검정 거는 흐린거.

101003 # 응.

101003 # 보리는 또 두불보리. 무슨 막 허지 안 됩니까? 보리.

101003 # 게난 보리는 예 종류가 그것도, 놀우리, 술우리.

101003 @ 아 술우리 놀우리.

101003 # 뭐, 또 그 나중에는 종자가 막 좋은 것들이 나와 낫주이.

101003 @ 맥주맥이여. 무시거여 헤그네예,

101003 # 응.

101003 @ 그거는 나중에 나온 거 아니웃과예?.

101003 # 응, 그거 종자가 자꾸 개량이 돼어가니까 나와 낫는다.

101003 @ 예 그건 뵈고예,

101004 @ 그러면은 이 아까 테수산봉도 있고 경 헛주만은 오름허고 내허고 바위.

101004 # 아, 출왓덜.

101004 @ 바위. 아까 농사는 저기 저 넘어가고예. 그 다음에 이 마을 주변에 오름이나 내나 바위 굴 같은 거 잇이민 굴아줍서.

101004 # 아, 이 동네는 내는, 지금은 다 고수천 헤 가지고 알로 파가지고 헤부니까. 내엔 없는데 옛날은 남제긴네 허면서.

101004 @ 남제긴내.

101004 # 남제긴네 허면은. 고성 바로 중간으로 이 동남더레 막 흘러가는 넌데. 저게 오게 뵈민. 평장이 크주게. 막 주워 다 휩쓸어 가곡. 거게 저 성읍리로 부터 시작해서 쭉욱 오는 넌디이.

101004 @ 예. 남제긴내예.

101004 # 응, 건디 지금은 남제긴네가 엇어 저시난예. 이제 전부다 알르로그. 고수천 사업을 헤그네.

101004 @ 아, 물어 부런마씨 물어와부런?

101004 # 아니 그, 것 굴아 뵈엔 곤느니? 저, 뵈헛주게. 그 네귀 방정헛게 행 다 파네. 다 공그리 가운디 평장이 크게 밀으로 물 흘르게.

101004 @ 덮어부런 마씨?

101003 @@ 덮은게 아니고 정비를.

101004 # 응.

101004 @@ 덮으면 정비를 해서 네창 정비를.

101004 @ 남제긴내예, 경 허고 그 이외에는 내는 엇수과?

101004 # 네예?

101003 @ 예, 남제긴넨 말고.

101003 # 아, 그건 뵈 고성 중간으로도 큰거도.

101004 @ 큰거, 작은 것도 막 굴아줍서.

101004 # 작은게, 작은 거는.

101003 @ 무슨 내, 무슨 내.

101003 # 어, 소소히 오는 거야 그거 머. 길 우이로 흐르는건, 헌데이

101004 @ 음.

101004 # 거 비가 많이 와서 크게. 수산으로 해 가지고. 성읍으로 해 가지고 오는 네가 굉장하.

101004 @ 아, 유명하고 크구나예.

101004 # 으, 컨 헨디.

101004 @ 물도 크고.

101004 # 게서 그 저쪽. 그 양어장쪽으로 행 막. 물이 다 바다로 내려가 부러. 내려가 버리는데 그제 흐르는 동안에 굉장이 피해가 많주게.

101004 @ 피해가 많아예.

101004 # 으, 밧 ㄴ쁜 거, 거 옆에 밧. 자갈로 다 묻어 불고 흑 다 파가 불곡.

101004 @ 보통 여름에, 저기 하수다예.

101004 # 아 게난 비가 많이 올때. 게난 일 년에 한 두 번은 와 그 네가. 게민 피해가 크주게.

101004 @@ 사람도 쓸어나수과? 사람도 쓸어나수과?

101004 # 아, 사람도 죽어났주.

101004 @ 그 오름은.

101004 # 오름은 여기 그 저, 큰 물막, 작은 물막 허주.

101004 @ 아, 물막예?

101004 # 응, 물막 오름이엔 허주게, 큰 물막는 요 테수산 봉이고, 작은 물막는 저 소 수산봉. 저기 신양 그, 요 들어가는 입구에 잇인 작은 물막.

101004 @ 테수산봉?

101004 # 그제 고성에 이신, 고성 저 방뒤라고, 이 신양리가 방뒤주게 옛날. 게 고성 이 리로 허단. 이제 신양리로 해서 행정구역이 바뀌난게.

101004 @ 바뀌난안.

101004 # 거 신양리로 헛주. 옛날은 고성 이 구.

101004 @ 고성 이 구?

101004 # 응, 신양리가. 게난 그 섭지에 가면은.

101004 @ 그 옛날에는예. 옛날엔 경 허고. 거면은 굴 같은 거는 엇수과?

101004 # 굴?

101004 @ 응.

101004 # 굴이 수산엔 가민 이서도.

101003 @ 고성엔?

101003 # 고성엔 엇어.

101004 @ 굴은 없고예, 거문 이거는 넘어가고.

101005 @ 그다음에예 이 마을에 기관이엔 헌거 잇지 안우과?

101005 # 아, 기관, 옛날. 이 고성 성이 잇언. 그 뭐여 정의현 현 청이. 고성 잇엇주게. 아주 옛날은. 게 허다가 성읍리로 옮긴 다음에 이 현청이 엇어지고. 예- 그 후에, 그 후에- 멘 사무소가 이 고성에 잇어나서.

101005 @ 면사무소가예.

101005 # 쪼끔 이. 잇어 낫는데 그게 허다가 또 자꾸 이동털. 이제 성산에 갔다가 또 고성에 오고.

101005 @ 아, 성산에 갔다가 고성에 오고. 지금은 고성에 잇인거라예.

101005 # 응, 지금은 읍 사무소난예.

101005 @ 예, 지금 고성에 있고. 계문 우체국은?

101005 # 우체국은 예, 중간에 성산에만 있다가 예, 중간에 고성 우체국으로 해서.

101005 @ 거문 성산도 있고. 고성도 있고 우체국은 지금은? 현재에.

101005 # 응, 신산도 있고.

101005 @ 거문, 예 파출소, 지서는 어떻 해수와 옛날은 지서엔 헛주예?

101005 # 응 옛날엔 파출소가 고성도 잇어낫주. 성산은 옛날은 스구 경찰서라고 해서. 그 스삼 사건 때는 스구 경찰서랏주. 그 디가.

101003 @ 아.

101003 # 여기가, 저 일구는 제주시고, 이구는 서귀포. 삼구는 모슬포, 스구경찰서는 성산포라. 경찰서가 경 텃단. 그게 그 스삼 사건이 넘고 육이오사변이 그 후에 경찰서가 엇어져서. 경 해서 지서하고 동남엔 또 파출소 잇어나고.

101005 @ 응, 동남에는 파출소 잇어나고예. 계난에 경찰서는 성산에 잇어낫다는 거구나예.

101005 # 응.

101005 @ 그 때는 성산하고 고성이 저기, 경 분리 될 때라 나신가마씨?

101005 # 아 이 고성리 하고 성산이 부락이 틀리잔여게.

101005 @ 그 처음서부터?

101005 # 응.

101005 @ 아, 경 헛구나예. 그 다음에 경찰서 하고, 그 다음에 리사무소 하고.

101005 # 아, 리사무소야 뭐. 메 동네마다, 리마다 리사무소야 다 잇주. 잇인 거난.

101005 @ 예, 그 다음에 경노당 잇고.

101005 # 아, 이 경노당은 이거 멧 해 안돼서.

101005 @ 멧 해 안 돼고예,

101003 # 응.

101003 @ 이거 분회는 이거는, 이거는 성산읍 분회데. 이것도 멧 해 안 돼수과?

101005 # 예, 아니 돼기야 이거 혼 십여 년 돼긴 텃주게. 텃주만은 뭐 분회나 이거 소위 대한 노인회. 그 조직상으로 그 하는 거난. 이제 제주도는 연합회고, 게

난 처음은 남군, 북군, 서귀포, 제주시 해서 이 노인회 지회도 네 군데 있다가. 그 특별자치도로 뭐 할 때 바빠지니까. 이제 합병이 돼 가지고 우린 서귀포 하고 남제주군이 하나가 돼버리고, 제주시 하고 북군이 또 하나가 돼버리고. 이렇게 하니깐 지금 우린 서귀포시에 속해 있는 거주.

101005 @ 거문 이제 학교하고, 학교는 초등학교 하고 옛날은 국민학교주만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101005 # 아 이 중학교도 여기 잇섯고. 고등학교도 요 고성에 있다가 요요 지금 동남으로 성산으로 들어가는 그 동산에 있다가. 저 짝 오지리로 수고가 이전을 했주게.

101005 @ 아, 원래는 고성에 잇었다가.

101003 # 응 으.

101003 @ 아 그, 경 하고 그 또 파출소하고 또 기관이엔 헌 건 국가에서 운영 허는거 아니파? 경 하고 또 다른 기관은 잇인가마씨?

101005 # 다른 기관이사, 이 촌에 그런 건 잇을수가잇주. 뭐 읍사무소 안에 무신 각. 어, 옛날에 그 은행 해도이. 성산안네 금융조합 하나 잇어났고 경 허다가 나중에 농협이라든가 수협. 이런거 다 이제 나중에 그거는 그 후에 다 만들어 진거니까.

101005 @ 그 제주은행도 일찍 잇어나수게예?

101005 # 응, 제주 은행도 동남에 좀 오랫동안.

101005 @ 오랜, 조합 같은 경우는 뭐 농협조합.

101005 # 응, 농협도 옛날은 이 고성에. 이 동부리, 이 성산읍에 동부쪽에 조합 하고 서부리 조합하고 양쪽에 잇엇주. 서부리 조합은 신산이 잇엇고. 동부리는 이제 고성에 잇엇고. 경 허단 이제 나중에 합병이 돼 가지고 성산농협협동조합으로 성산농협 경 허단 이제 일출봉 협동조합으로 이제 막 개편 허멍 지금.

101005 @ 예, 거문예. 그거는 고성이 워낙 큰 큰디난마씨게예.

101005 # 고성이 읍 소재지 난게. 읍 소재지 난.

101006 @ 그 조금 전에 저기 한 두 번, 세 번째 질문에 그 바다일 같은 거 막 헛텐 허면서예?

101003 # 응.

101003 @ 남자 어른도 헛텐 허니까는, 이 마을에 계예. 계엔도 하고 접이엔도 허는디예.

101006 # 접.

101006 @ 게 하고 접이나 그튼 말인거 님은디. 어떤 것들이 잇어나신고예? 뭐 꽃 접.

101006 # 계엔 헌건 소위 말 허면은 접, 접 이, 걸 그냥 접이엔 허주게 거, 동네 별로 장사가, 이제 영장이 나도이. 그 동네서 이제 그찌해서 운상. 옛날에야 그 사름다. 다 어께로 메어가고 뭐 허지 안 해사게,

101006 @ 예.

101006 # 계난 동네집으로 해서 그 사름덜은 꼭 그 때는 나와서 그 장사 지네
는데 ㄱ찌 참여 허도록 허는 이런 점들이 이섯주. 계난머 으라가지 점들이 많주.
많주만은 그거 일일이.

101006 @@ 화단 점.

101006 # 어.

101006 @@ 땀들민.

101006 # 응, 땀케, 요런 것도 잇엇고.

101006 @ 거문 아까는 상 상 난다. 그 메영가는 거는 화단이엔 험니까?

101006 # 응 화단 점.

101006 @ 화단 점? 화단점이엔 허고 그걸 다른 말로 동네엔도 험니까?

101006 # 아 게메, 그게 동네가 영 이웃 한, 게 고성도 골이 잇어서 골. 그 영
돌아가명. 예- 소위 뽕땀가름 동네, 성안동네, 남문동네, 웃도릉 웃동네 흥문, 장만
이 동산, 아 요런 동네별로 허문은 거이 점이나 게가 다 그 동네별로 이루어지주게.
그 뭐 서로 ㄱ찌 다 협조해서 항상 보면서 사는 사람끼리 이게 점을 허는 거주. 무
신 어디 뭇판디서 와서 허는 게 아니니까.

101006 @@ 여기도 동네별로 몇 반 몇 반 잇어나지 안헤수파?

101006 # 응, 땀 반 땀 반 다 잇주게.

101003 # 응.

101006 @@ 계난 반별로 뭇 십 반, 옛날에는 그 뭇, 쉼 땀이레 갈 때도 ㄱ찌 헤
그넹에.

101006 # 계난 그 쉼 땀이레 가는 것도. 동네에서 소 길르는 사름끼리. 아침에
그 춤 쉼막에 땀땀. 쉼 아침에 네 땀. 일찍 흥며는 오늘은 누게가 갈 츠레여, 쉼
꺾그레 갈 츠레여. 허민 그 다 몰아 아정 가그네 땀이당. 저녁엔 또 땀양 들어오는
거라.

101006 @ 그거는.

101006 # 그것도 게 그것도 흥 가지 점이나 마찬가지인거라.

101006 @ 뭇, 저 쉼 땀이고 뭇 땀이고 허는 것도 점이고예. ㄱ레 아까 땀방에
허는 것도.

101006 # 아, 땀방에.

101006 @ 거문 땀방에 점이엔 험니까.

101006 # 것도게, 땀방에 그 동네 땀방에 흥니까 점이나 그 흥민은 초집 지영
니까 집 일레 다, 점들이 나가서 집도 일곡, 그 파손 땀민 고점도 허곡.

101006 @ ㄱ찌 헤야웨는 거난예. 거문 큰일 흥 때 집에서 뭇 지어 나르곡 허는
것도 집에서 헤신가마씨?

101006 # 아, 거 동네서 허메게, 동네에서 점 아니라도, 큰일 나든지 불이 나든
지 흥문 동네사름들이 다 허땀이 지영. 다 나사주게. 거 뭇 불 화재 나도, 겐디 이

젠 그런 걸 볼 수가 없어.

101006 @ 예 맞수다. 거문 이거는 그냥 경 허고 그 다음에.

101007 @ 그 다음에 그 풍습 잊지안우파?, 이 마을에 독특한 풍습, 독특한 특징이라든가 그 옛날서부터.

101007 # 여기 풍습이영 헌게.

101007 @ 으, 혹시 정월달에?

101007 # 거 옛날에는이 그 우리 고성사람덜이 상당히 연극도 잘 허여서. 연극 ㄴ쁜 것도 해 가지고 그 리사무소에서 으, 춤 이런 행사를 많이 허곡. 소위 걸궁. 걸궁 해서 막 쟁과리 치명. 그 통수 불명 행. 막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액 맥이라든가 이 춤 정월 들 댜민 막 헛는데. 요즘 그게 짝 없어져가지고 원 이제 구경을 못 허니까.

101007 @ 그 걸궁 헐 때는 집이도 집안에 강도 가서 마루에 가서 해주고 마당에 가 가지고.

101007 # 응 거기 입담 좋은 사람덜이 이. 막 가서 뒤편 곤곡게.

101007 @ 그 사람덜은.

101007 # 경 허민 그 헛면은 쓸도 걸어다 주곡. 뭐 헛곡.

101007 @ 술도 맥이곡 예?

101007 # 예.

101007 @ 거 입담 좋은 사람은 특별나게 뭐 심방이 허는건 아니고예?

101007 # 으, 그자 동네사람덜.

101007 @ 마을에서 동네사람들이 허고예?

101003 # 응.

101007 @ 여기 마을에 보민. 옛날에 보문 우물 물이엔 허지 안헛니까예?

101007 # 응 것 곶아 거시기게. 예 통물이엔 허여 통물.

101007 @ 통물? 그 두레박 놔가지고 예.

101003 # 응.

101003 @ 거기도 가가네 막 영 돌고 경 해신가마씨?

101007 # 아 글썸, 뭐 넘어가당. 돌 수도 잇일 거난. 똑 그게 문세 그디강 올라 허는 거는 엇고. 그 자기네가 허고 싶은 데로 허는 거니까. 아 누게 시경 허는 것도 아니고. 으 헛면서 신이나면 끼가 생기면 지 허고저 헌데로 허는 거니까. 누게가 말릴 수도 엇곡.

101007 @ 경 해도. 정월이민 제일 큰 행사난에 마을에서 포제 곶은 것도 허곡.

101007 # 응, 포제 허주게.

101007 @ 포제허곡. 그다음 마을 곳도 해나지 안해수과?

101007 # 어?

101007 @ 마을에서 곶.

101007 # 어, 마을에서 해녀들은 영등곶 허주게.

101007 @ 해녀들은 영등굿으로 하고. 마을에서 하는 것은?
 101007 # 응, 마을에 서어.
 101007 @ 응 마을에서 하는거예.
 101007 # 응, 마을에 서어.
 101008 @ 그 이 특산물은 어떤 건고마씨? 고성리 허문 특산물.
 101008 # 특산물? 고성리에 특산물이엔 헌게. 일반 뭐 여기서 생산 되는거 뿐이
 주. 과이 특산물이 엇주게. 다 요센 밀감 뭐 한라봉 뭐 하는 건 다 하니까.
 101008 @ 옛날 농사도.
 101008 # 어.
 101008 @ 땅은 땅도 저기 좋은게마씨. 조 하고 보리 하고 잘 텃덴 허난예.
 101008 # 땅이이 고성 너레가 쥔 쥔찬허주. 게난 이쥔 간두니 지경영, 요요 이
 해안가 신양리로 영. 이쥔 오면은 거 성산더레 들어가는 이 간두니 지경은. 여기는
 보리가 잘 쥔나서. 거 웨 그런고 하니까. 듬북 ㄱ뽕거 이 해초, 저 듬북 ㄱ뽕거 앓
 어당 꺾앙 저 보리 갈면은 보리가 쥔장이 잘 쥔 나서.
 101008 @ 보리 예, 듬북으로예, 아, 듬북은 상당한 그 거름 아니짜?.
 101003 # 응, 걸름.
 101003 @ 아주 듬북이예? 듬북 헤드그네 밧을 거름을 쥔시난.
 101008 # 게난, 그 또 늘리는 땅이 이서이. 듬북을 놓으민, 땅도 듬북을 잘 맞는
 디가 잇고, 안 맞앙허민 땅이 늘려 부러가지고. 그 늘린다게 산성이 쥔부는지 뭐 허
 는지 모르주 마는 이. 게서 곡식이 잘 아니 쥔 수는 잇어 이 땅이 이제.
 101008 @ 늘린다는 것은 누뜨린 다는 말이짜?
 101008 # 아니아니, 늘려 늘려.
 101008 @@ 아니 뭐 늘린덴 허민
 101008 # 밧이 힘이 엇어져 가지고.
 101008 @@ 맞질 앓은덴 하는 거주 성질이.
 101003 @ 엇어진다고.
 101009 @ 이 마을에 그래도 자랑거리.
 101009 # 자랑거리?
 101009 @ 삼촌님이 생각허고 삼촌님도 경 생각허주마는 또 늬도 다른 삼촌들도
 생각 할 수있는 자랑거리. 쥔은 사람 입장이 아니고 삼촌네.
 101009 # 자랑거리나 마나 고성은 이, 옛날부터 양촌이라고 헤서이. 이제 춤 남
 자덜토 무신 그 욱심덜이 엇인 동네라 이딘. 게난 모든거 신양 곶은 디도 다 뺏겨
 버리고. 이 고성도 성 두엔 가면은 그 부락 젓긔띠 까지도 다 오조리 지경이라. 아,
 이래서 전연 뭐 이 욱심이 엇인 동네고. 기자 그 다 순박헌 사람덜만.
 101009 @ 아, 양보들 다 헐.
 101009 # 으 순헌 사름덜만 산덴 허주게.
 101009 @ 아, 그렇구나 예. 양촌이예.

101009 # 으.

101009 @ 계난 점잖다 이 말씀이구나예. 그게 예 그건 잘 들어수다. 이밖에 이 마을에 대해서예. 더 삼춘님이 생각허는거.

101009 # 아니 난 모르크라.

101009 @ 아니면은 사람덜이 똑똑허다. 양촌이난에 공부를 잘 시켜서.

101009 # 아니 뭐, 똑똑헌 사람도 많주게. 공부 해서 나가꼭 계난. 지금 그전에 살던 촌 우리 아덜덜토 두 계나 다 욱지 나가 부리니까. 나 혼자만 지금 늘근이가 살아. 계난 이제는 세끼덜 민영 살 수가 엇게 돼엇서게. 이젠 늙어 가며는. 겐 다 나가 부리니까. 아, 할망 하르방 살당 할망이나 하르방이나 헉나 이제 가불게 돼면은. 아 헉나만 이게 문제 아니라. 요즘 세상은 경헌 세상이라 노니까. 계난 노인회에서 아, 늙이들끼리 서로 보살피멍 살자고 허는 이런 그 시대가 돌아 왔서.

101009 @ 계난 그 똑똑험이 이제는 결국은 자랑거리는 아니 뵤신게예.

101009 # 계난 이 고성도 그전에 살던. 한 오륙십 프로가 다 나가 부럿서. 계난 이제 여기 들어왕. 살아 있는게 욱지 사람덜이. 거이 오십 프로는 못 뵤도 혼 사십 프로는 차지 허고 잇어. 웨부. 웨지인 으.

101009 @@ 외지사람.

101009 # 계난 우리 동네만 가도. 다 웨지사람이지. 우리 그전 그 토백이로 살던사람은 없어.

101009 @ 그 자제분들이 다시 돌아오거나는.

101009 # 아 계메 나간 사람덜 돌아올 건가. 안 돌아와.

101009 @ 그거는 예. 거는 생각 못 허는 바고예.

101009 # 계니 아 조금 아덜덜 헤어그네 잘 뵤와주멍 잘 낭 뵤두면은 다 나가 부니까. 아, 이 고성은 특히 젊은 사람도 없어.

101009 @ 젊은 사람도 없고예. 예에 그렇구나예. 그건 안타깝긴 허우다. 삼춘, 계문 물 한 모금 마시고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게마씨. 안타까운 것도 잇인게 마씨 자랑만이 아니다예. 안타까운 것도.

101009 # 아이, 그러니까. 가족이엔 현게 곶이 더불영 막 살아지면 얼마나 좋으리야만은. 건 그렇겐 못 허고 세대변천에 따라서 으라가지.

2. 제보자 일생

102001 @ 그 다음에는 이제는 삼춘에 대한 탐구예. 제보자, 삼춘이 일생에 대해서예. 저기 저 곶아줍서예. 삼춘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그거에 대해서 예. 한번 촌근촌근 촌근 곶아 주십시오. 우선에 우선에 삼춘님이 이름, 성함 성함 허고 나이 허고 주소 허고.

102001 # 이름은 김두하고.

102001 @ 예.

102001 # 나이는 갑술생. 지금.

102001 @ 여든 두 살 텔거고.

102001 # 팔십, 이제 을미년 허면은 팔십 둘 텔거주.

102001 @ 예. 지금 현재는 팔십 헝나고예? 아직 을미년이 안돼시난예.

102001 # 으 으,

102001 @ 으, 태어나고 태어난 집이 어느 지경이고 고성리에서.

102001 # 고성리. 예 일 사, 천사백구십오 번지에서 태어나긴 헛주.

102001 @ 아, 음.

102001 # 태어나고 지금 사는 거는 그 곁에주만은 일사이이오 번지. 게난 지금 도로 명으로 행은 고성 중앙로 육십오 다시 십일.

102001 @ 음.

102001 @@ 옛날 지경은?

102001 # 어?

101003 @@ 옛날?

102001 @ 아, 여기는 잇어.

101003 # 옛날 지경 일사이이.

101003 @ 천사백 이십 이 다시 오번지 음.

102001 # 옛날지경, 일사 이이. 게난 나가 어릴 적에는 똬게 고생을 많이 헛어. 우리 아버지가 나 다섯 설에 돌아가 버리니까. 우리어머니도 다른디 가버리고 헝니까. 나 할머니 하르버지 밋에서 헤명 살앗주게.

102001 @@ 아이고 고생 많이 헤수다.

102001 # 어, 그래서 춤. 일도 어릴 적에 많이 허고.

101003 @ 예.

101003 # 크면서 많이 고생도 허고 헛주만은 그자 그런데로 허면서 살아와시난예.

102001 @ 거문 할머니 하르버지 손에서 커신게예?

102001 # 으,

102001 @ 으, 그래도 할머니 하르버지 손에서 크고. 그, 그러면 두 번 어. 그래도 할머니 하르버지 손에서 허고, 할머니 하르버지가 여기서 조상 옷대로 부터 한 십대는 살앗텐 하셔시난. 여기서 고성리에 조상이 오신대가 몇 대가

102001 # 어 오신 대가. 여기 오신지가 예, 십. 헝 삼백 년 똬주게.

102001 @ 삼백 년예. 거이 똬 저기.

102001 # 우리 우리가 설촌,

102001 @ 설촌예.

102001 # 설촌, 우리 하르버지가. 이제 그 설촌 그 현씨. 여기 현씨가 제일 몬저 들어 왔는데. 여기 현씨 할망한테. 우리는 저 어디 위귀랏주게.

102001 @ 아 위귀?

102001 # 우리 그 경주 김씨 거기랴는데. 거기 그 헌마공신헌 만자 일자 하르버지가 잇는데. 그 하르버지 손자가, 이제 우리 하르버지주. 손손자가 우리 하르버지라.

102001 @ 아 손손자가 아. 여기 입도하신 분이 하르버지가 예?

102001 # 응, 여기 손손지, 우리고성 여기 고성에 온 하르버지 형은 수산에 오고. 우린 아시 동생은 이 고성에 왔주게.

102001 @ 응 동생은 고성.

102001 # 경 해서 지금ㄱ지

102001 @ 거, 한 십대, 십대를 잡어야 돼키여예. 십 대허고 경주김씨는 좀 전에 말씀 하였고. 자 그러면은 그 삼촌님이 다섯에 부친이 돌아가시킨 헛주만은 부,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넌 들읍디가?

102001 # 어, 우리 아버님은. 그 중간에 그 일본을 갔다가. 와가지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돌아와 가지고오. 여기서 춤 그 병으로 해서 돌아가셨주. 계난 나가 다섯 술 적에니까 우리 아버님은 에- 서른 전이 돌아가셨주게.

102001 @ 아.

102001 @@ 아파가지고.

102001 # 음, 계난,

102001 @ 아, 거문 일본에 다녀셨으면은 아버님께서는.

102001 # 계난 우리 고모님도 일본에 살았고. 해서 그 친척덜이 그 일본에 덜을 가낫주. 경 험니까. 우리 족은 아버지도 뭐 그 때부터 일본에 간 살아불고. 그러니까 실지 난 우리 원 난 이 하르버지 허고 할머니 손에서 춤 자라면서. 아 게고 우리 할머니나 하르버지가 기자 모든거 다. 잘 해줘서. 나 공부도 시켜주고. 아 경 험니까 큰거 난에게

102001 @ 예예, 맞수다. 맞수다게예.

102001 # 아버지 어머니 보단 낫주게.

102001 # 지금으로 보면 할머니 하르버지가 부모.

102001 # 어,

102001 @ 예 부모렌 해도 으, 나이가, 그 그렇게 뭐 허지도 아니허고예? 계민 형제분들은?

102001 # 아, 나 혼자 뱃기엇주,

102001 @ 예예.

102001 # 혼자니까 혼자 뱃기 잇을 수가. 그러니까 독자주.

102001 @ 아아.

102002 @ 계난 아버지는 뭐 특별히 뭐 기술을 해서? 아니면 학교 공부를 허러 그거는 아니고예?.

102002 # 아, 공부도 옛날은 한학을 헛주.

102002 @ 예예, 일본에 공부 허러 가신거는 아니고예.

102002 # 으.

102002 @ 으, 거문 어머니, 어머니도 기억은 잘 모르시쿠다마는.

102002 # 아, 어머니도 어머니도 이제 그. 예 여기서 살다가 혼자게 그 뭐 하니
까 개가를 해 가지고. 어디가서 살다가 예 늙은 또 못사니까. 이젠 또 나신디 올수
벧기 엇엇주우.

102002 @ 예.

102002 # 그래서 이제 끝이 살다가 돌아가셔서 늘근 후에.

102002 @ 어머니도 특별나게 뭐 물질을 하시거나 농.

102002 # 아, 물질도 헛을거고게 거 뭐.

102002 @ 농사도 해실거고

102002 # 농스도 해실거고 다 자기가 먹영 살젠 허민 누구나 다 노력해야 먹영
사는 거난예.

102002 @ 맞수다. 거문 하르버지는 저기 뭐 부모역할이지만은 하르버지는 농사
를 주로 이렇게 짓엇구나예. 엄청나게예.

102002 # 농사도 허고 그 옛날부터 이제 그 우리가 종순집이니까이. 나가 종순
이주. 쪽 나가 그 춤 우리 그 고성 온 하르버지로 부터 쪽 해서 네가 종순이라. 게
난 종순인디 지금 깎지는 종순가지는 큰대는 끈어져 보질 안 해서. 양제를 혼 번
데려보지 안 헛주. 지금 깎지는. 나도 아덜은 잇언. 육지간 살아도 쪽 벌문은 아니
레도 하나씩은 꼭 꼭, 상속은 하게끔 해 노왓주게.

102002 @ 예예, 아 하르버지가 정성이 뭐 예, 하르버지가 할머니가 기가 막히게
경 허니까 고등학교까지도 보내고

102002 # 어.

102002 @ 농사도 많고.

102002 # 나도 농스 많이 허고.

102002 @ 많이허고 예. 할머니도 물질 해 나신가마씨?

102002 # 아 거 할머니도 해나고

102002 @ 바당일예. 할머니도 허고 하르버지도 뭐. 그러면 할머니가 농스 바당
일도 허면은 그.

102002 # 하르버지도, 바다에서 고기 낙끄레도. 이 베 해서. 보제기 노릇도 헤
서. 고기도 잘 잡아 낫젠허여,

102002 @ 아.

102002 # 아이 난 모르는데 거 고기도 잡아당. 막 팔레도 텅기고.

102002 @ 아, 팔기도 하고예. 그 때는 고기 헐 때는 베는 어떻 베로, 테우로 헤
신가마씨?.

102002 # 아니아니 죽은 그 저 풍선.

102002 @ 예예 풍선예.

102002 # 돛 돌아오네 멀리가쟁 허민 돛 돌아가고 경 아니허민 네 젓엉 가곡 허명.

102002 @ 거문 이거 베 허젠 해도 경영 해도 상당히 능력 잇어사 베도 운영허곡 허주. 농사 짓곡. 경 헤시쿠다예?

102002 # 아 경 허난게 농사 안 짓을 펜 바다에 가곡, 농사엔 헌건 일 때가 잇는거 아니라게. 농번기를 지나면은.

102002 @ 하르버지는 풍류도 잘 알아 나신가마씨?

102002 # 에이.

102002 @ 일 일 해가지고예.

102002 # 그런거 잘 모를 거라 나도.

102003 @ 그 어머니는예, 마을이 어머니 고향, 어머니 친정이 어딘가마씨?

102003 # 고성 이구 저, 신양리 신양리.

102003 @ 아 신양리. 이 구. 신양리 출신이엔 허민 되쿠다예. 신양이고 신양에 성씨는 무신 어머니 성씨는?

102003 # 김씨.

102003 @ 김씨?

102003 # 광산김씨라.

102003 @ 아 광산김씨예.

102004 @ 어릴 적에, 삼춘 자랄 때 놀이를 노는 것들 많이 자치기여, 연날리기여, 막 많이 헤 실거 아니우파? 말 타기놀이여, 또 불 가져 그네도 헤나고 그런 것들 이시민 좀 곱아줍서.

102004 # 아 게난 그 놀이 헐 때는 자치기, 게난 그 당시에는 우리 두릴 때. 놀 때는 일제시대라 노난이 그, 소위 일본 말로 곱으민.

102004 @ 뭐 하시아다리마씨?

102003 # 어 그, 일본말들도 막 곱아 낫저마는 이젠.

102003 @@ 잇어변.

102004 @ 일본말 말고 제주말로만 곱아줍서.

102004 # 게 길거리에서 막 흐는 놀이덜 그자 잇주게.

102004 @ 뭐 술래잡기.

102004 # 자치기도 허고 또.

102004 @ 술래잡기도 허고.

102004 @@ 곱을락.

102004 # 곱을락 ㄴ튼거.

102004 @ 곱을락 ㄴ튼 거는 여자가 험니까?

102004 # 아이 남즈도 허주 곱을락 허게 뒤편 곱을락은 막 동네가 다 시끄럽주게. 스방이 돌아다 텅기멍 곱아 부니까 옆집이고 뭐.

102004 @ 어, 곱을락 말타기,

102004 # 응, 몰 탕 막.

102004 @ 말 타기엔 험니까 몰타기엔 험니까?

102004 # 거 요꼬마이엔 험거 일본말로 이신 건데 무시 건지 나도 모르크라.

102004 @@ 요꼬마이 요. 꼬마이엔험 요꼬마이라고 적영 나두라.

102004 @ 요것도 길거리에서 허는거마썸?

102004 # 응.

102004 @@ 사람 찾고 막 허는 것과 아니면, 그 영 터치 해 가지고 것도 아니
고?

102004 # 그 것도, 방치기 끝은 거주게. 방치기.

102004 @ 아 방치기. 거문

102004 # 거 놀곡, 그 계난. 그 옛날엔 우리 두린 때는이. 그 믱쉬 춤 흑교나 안
가게 돼민 믱쉬 ㄹ끄레 가야 돼거든.

102004 @ 예.

102004 # 계난 일요일 날. 우리가 무신 노는 게 아니라. 딱 허민 믱쉬 ㄹ끄레
갈 것도 공일날 어떻 허영 이제 안 가젠 허민. 나라도 보네젠 허젠 허면은 그날은
어떻 헤영 잡앙. 일요일 날은 믱쉬 ㄹ끄레 가는 거라. 게 믱쉬 ㄹ끄레 가민. 거 가
을에는 밧에 감자들 뭐 다 노앙 잇이민 그거 파당 구워도 먹곡.

102004 @ 응.

102004 # 어 경 허멍 거 믱쉬 ㄹ끄레 가민 재미 잇주게.

102004 @ 음 맞수다.

102004 # 가민 블레도 타 먹고.

102004 @ 응, 가을에예.

102004 # 봄에 가민 밧에 가시 탈 ㄹ뜬 것도 타 먹고,

102004 @ 아, 탈 타 먹고.

102004 # 아 그러면서 하루를 쉼 줄음에 조치멍 땡겨야주게.

102004 @ 그 저기 새로 헤서 영 소리 내는 거. 피리 풀피리엔 허는 것도 많이
불어 납디가?

102004 # 에이고 그런 건 안 해 낫져게.

102004 @ 삼춘 연날리긴 어떻 헤납디가? 연 만드는 건?

102004 # 아, 연 날리는 것 사게 게 것도.

102004 @ 것도 상당 헛을 거 아니웃과?

102004 # 그것도 가오리연도 잇고. 거 사각으로 땡겨 곶아. 거 무시거엔 현다마
는.

102004 @ 방패연.

102004 # 방패연 그거 다 만들어그네 그건 만드면은 게. 옛날에는 전주가 엇이
니까 아무데서나 날려져. 요즘은 전선이여 뭇 때문에 아무데서나 못 띄우주마는 게
난 연 날리는거 그거 재미 잇엇주게.

102004 @ 연은 누게가 어릴 적에 누게가, 스스로 만듭디가? 아니면 하르버지가 만들어 줍디가? 아니면 동네서 누게가 만들어 줍디가?

102004 # 아니 동네에서 다 만들주. 연 만들젠 허민 모여져서. 것도 창호지 사 오곡 데.

102004 @ 각으곡.

102004 # 홀트고 헤어그네 거 폴로 다 부치명.

102004 @ 동네서 모영예.

102004 # 아 게게.

102004 @ 그 싸울 때는, 연 싸움이엔 험게 잊지 아니우파?

102004 # 아, 게메 연 싸움이엔 험게. 줄 걸어그네, 줄 약헌거 지는 거난에 이건 뭐.

102004 @ 그 때 막 그 무시거.

102004 # 아, 그 때야 줄이 무신 요세 ㄱ추룩 씨원 허지 아녀. 실 ㄱ뜬거 허여 그네 연 띄웠주. 무신.

102004 @ 거기 유리 뺏아그네 칠 허고.

102004 # 아니, 그런 건 안 해 봤져.

102004 @ 아 그런 건 안 해 봤구나예. 그러면 연은, 보통 저 들어 보면은 띄와 불 때가 잊지 안읍니까? 보름 전에 띄운다든가. 집에 연을 놔두지 안 헛텐 해 가지고 그런 애길 들은.

102004 # 몰라 나 그런 말도 못 들고.

102004 @ 아 그런 건 안 해 가지고 그자 재미로 해가지고.

102004 # 재미로 허당. 아니 연 사게. 허당 날려볼민 말거주. 뭐 아니 그거 봉 그레도 강. 봉가도 다시 흙도 띄움도 허지마는. 그, 그 때도 썰로 허니까 줄이 약해 가지고 이 짝끔 허민 줄 찼라정.

102004 @@ 맞수다.

102004 @ 연, 게민 자치기, 이중에서 자치기 제일 많이 어릴 적에는 자치기도 많이 헤시크라예. 자치기 허는 냥은 대충 어떻 냥으로?

102004 # 아이 그냥 소나무도 허고. 이디 썬 나무도 허곡 뭐. 그냥 잡 남 해서 허면은 오히려 췌주게.

102004 @ 예, 잘 헤그네 잘 나그네. 그 팽이는예. 팽이는 많이 만들어봍디가?

102004 # 팽이? 팽이도 많이 쳐 봤주.

102004 @ 음, 팽이.

102004 # 그 팽이 만드는 건 뭐. 소나무 헤다그네 알만 까까붙어그네. 깡양 또 밋에 못 박아그네 둥굴 때 그 다이지 안허게 밑에 꼭지에.

102004 @ 꼭지에.

102004 # 못 박아그네.

102004 @ 아, 거기 팽이 잘 저기 돌려난 자리 잊지 안우파? 팽이가 어디 허민

은 어디에서는 이 뒤집어지지 안 해그네 형 잘 들었.

102004 # 아 게난 그 땅이 딱딱허민 잘 돌곡, 땅이 물렁물렁 허며는 안 돌곡 허는 거난에게,

102004 @ 거난 그런디 좇아 가그네 허곡 허지 아니우파예?

102004 # 그렇주게.

102004 @ 팽이채는 무시걸로.

102004 # 팽이채는 데에다가 그 형겼.

102004 @ 형겼으로.

102004 # 응, 형겅 못드던튼가 형겼으로 꼬앙,

102004 @ 예, 목꺼그넹에

102004 # 꼬아그네 밑에 짝끔 복삭허게 헤영 그 겉로 떼리주게.

102004 @@ 신사라도 안 해 나수과?

102004 # 아 게메 신사락도 뭇도 허고, 신사락도 노 꼬아사 허주게.

102004 @ 예 신사라예, 신사라 해 가지고예.

102005 @ 그 예, 저기 그 일제강점기엔 허면은 일제시대 때를 얘기 허는 건디. 공출 같은 거예. 그런 거 헐 때는 기억나는 거 잊이민 집에 와그네 무신거 가져가라 뭐 가져갔져.

102005 # 아, 옛날에 공출을 허젠 허면은. 공출을 말없이 해 부리면 이상이 없는데 이. 공출을 못 허잖아 게. 그 게고저고 네 노렌 허난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를 춤 일본놈들은 군량미사 허젠사. 그걸 아, 그 보리, 조 ㄱ뜯 거. 아 그걸 헤당. 뭇사허젠 경 밧지렌사 헛는지 모르지마는. 저게 아니 네면은 막 그 때는 면사무소 직원덜이-, 막 나와서 집을 다 쭈셔. 뭐 어디 곱진 게 없는가 해서. 그래서 막 좇아 네면은 막 메도 딱리고 곱져젠. 게난 아 옛날엔 게 먹영 살젠 허민 곱질 수도 잇는 거고. 아 경 이녀 먹을 거 ㄱ장 다 주워당. 빼어가젠 흥니까.

102005 @ 식겅 때, 이제 메 허젠도 허문 곤썰 같은 거, 해그네 곱정 놔두기도 허고 해실건디예. 곱지기도 해실거고.

102005 # 그렇주게. 아 제사 헐거는 우리 제주도 사람이야. 춤 제사는 어디 강뽕이라도 지네는게. 우리제주도 사람 맛음인디. 조상에 대한.

102005 @ 것도 곱져을 건디 그것도.

102005 # 게난 그거는 어디 가서라도 구허든지. 꾸든지 빗네든지라도 제사는 지네는 거라.

102005 @ 그것도 해그네 좇앙 가정 가 부러텐 허는거 말 아니웃과? 거문 공출 때는.

102005 # 그 제사 지네는 거야. 제삿날 가까왕 허면은. 그 때 꼭 왕. 그거, 아 것도 그 사름덜도 출장 나오면은 게. 거 멘날 나오는 게 아니난 뭐 무슨.

102005 @ 뉿그릇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다 그것도 가져,

102005 # 아 그거 다 가져갓주. 공출 다 해서 가져가서.

102005 @ 이 솟만 가져가지 안 해영 다 가져 갔구나예?

102005 # 아 계난 무췌는 필요가 없어. 저 동, 이 낫그릇덜 그 총알사 멘들젠 그거.

102005 @ 경 헛구나예 그거.

102006 @ 저기 삼춘은 경 해도. 사삼 사건 때에 그 경험이 잇었을거 아니우파. 나이가 때가예.

102006 # 중학교 때난.

102006 @ 그때 혹시 그 생활에 사삼사건도 길어 놓으니까는 경험했던 거는 있을 거라.

102006 # 아 우리도 중학곳 때 경찰관 허고 순찰을 돌앗젠 허난.

102006 @ 순찰예.

102006 # 거 웨 그런고 허니까. 이 그 각 부락마다 다 성을 쌓앗거든. 돌로 해서 높이. 넘어오지 못허게 허젠, 주위에 다 보춏막 다 멘들언. 여자고 남자고 다 이제 밤에는 와서. 그 늑덜 오는거를 막기 막진 못 허주만은 오는걸 알기 위해서. 경 행 보초를 상 허면은, 이제 각 부락마다 경찰관덜이 뭐 총덜 가정 오라그네. 그 각 부락마다 주둔소가 잇거든이. 그 경찰관덜 헛면은 아, 이제 중학생도 그 때도 나오렌 해 가지고. 밤엔 ㄴ짜 경찰관덜 ㄴ짜. 총 메곡 해여그네 쫓아댕겨서. 경 행 이덕구 그저 데천동서 죽을 때, 우리 그 디 토벌도 가 왔어.

102006 @ 으응, 학생들 허고 경찰들 허고.

102006 # 응, 하여튼 그 구좌로부터 표선 그 ㄴ지. 데천동 ㄴ지. 딱 일 열로 해연에 조근조근 훗아 올라가는 거라. 나머지 폭도를 훗기 위해서, 경 해도. 경 헛 그 디 간 헛긏 즈냐 잔. 해산 행 와벳져마는.

102006 @ 경 행 걸어그네 여기서 조근조근조근 올라가는가마씨?

102006 # 응, 다 연결 행. 각 부락 거시기로 다 연결 해서.

102006 @연결 해 가지고 야 대단허다예?

102006 # 그 데천동 거기ㄴ지 우리 가 와서.

102006 @ 계난에 삼춘은 중학교 학생 땡데도 경 허고. 마을에서는 나이든 남정네들은 다 ㄴ짜 해실거 아니우파? 그 그저 뭐 다 돌아 가명사 헛주만은예?

102006 # 아, 여자도 해서.

102006 @ 여자도 해그네예?

102006 # 응.

102006 @ 아, 그때 갈 때는 무시거, 막대기 쥔잉 가곡. 총 들고 가고 해신가마씨? 아까 이덕구헌 데천동까지 올라갈 때는.

102006 # 아, 그때는 그, 경찰관덜 허고 다 ㄴ짜. 이 청년 학생 헛것 없이 다 합동으로 가니깐 뭐 그자 우리는 산보검 가 온거주 거 무신.

102006 @@ ㄴ짜 딸라그넵에.

102006 # 예,

102006 @ 경 해도. 여기 고성은 중산간이 아니난예. 그 사삼에 대한예. 마을 불살라 불고. 집 불살라 불고 경 허문.

102006 # 뭐 그 오란에. 그 뭐 그런 그런거 해 본거는 별로 없어. 없는데 혼 사람 올라갔다 내려오라 가지고 나중예. 막 다 텔 춤에 그냥. 혼 이십팔 명을 혼꺼번에 갖다 오란 곱앗던 사람 좇아네 난. 누게누게 갖다왔젠 곱아부니까. 남노당 다 가담헌 사름 누게 누게엔 다 곱아 부니까. 다 심어단. 하루에 이십팔 명.

102006 @@ 어디, 성산 터진목에서.

102006 # 성산 터진목서.

102006 @ 거문 여기는 그래도 산에서. 그 수산사람덜이 여기 많이 피난 와신가 마씨? 그 때 소개해 가지고?

102006 # 아 그 수산 이 리.

102006 @ 수산이리?

102006 # 응, 수산 수산이리는 집을 다 소개 시켜부럿주. 그 펜.

102006 @ 수산사람덜이 여기는 해안이난예. 해안이난 예. 소개 와시난예.

102006 # 아, 여기도 오고 신양도 다 가고뒈. 아는데 좇앙 가시난.

102006 @@ 다 연고 잇는 디 좇안 가시난.

102007 @ 이젠 로맨스우다. 로맨스, 삼춘님이 로맨스, 젊을 때 한번 생각해 봄서예. 중매결혼 험디가 아니면 연애결혼 험디가?

102007 # 나?

102007 @ 예.

102007 # 아, 나 게 할머니하고 하르버지만 잇어부니까. 일찍 나 일찍 결혼 헛주. 나 스무살에 결혼 헛주게,

102007 @ 스무살? 스무살이민 일찍이파? 열일곱 살 때에도 허고 열여섯 살에도 허고 허난게.

102007 # 아, 게난게 뭐이냐 허민. 경 허난. 경 허난 우리할망 그자 아까움으로 그냥 계속 오래 산 거난.

102007 @ 하르버지가 정해쥬에?

102007 # 어.

102007 @ 아, 중매로,

102007 # 아이, 나 그 때 나는 흑교 땡길때 결혼 헛주게.

102007 @ 상당히 멋져실거우다. 학생이난게.

102007 # 아 멋진게 아니라. 나도 어쩔 수가 없이 나도 어쩔 수가 없주. 밥을 못 얻어먹으니까. 할머니도 이 늙어 불고이 뭐 허니까. 생활할 수가 없지아녀게. 할머니 하르버지가.

102007 @ 예.

102007# 아, 우리 집이 제사가 종손이라 노니까이. 일 년에 열두 번 이상을 제사를 지냈어. 경 현디 도무지. 나도 이거 사람은 사람이, 우선 사람이 우선이니까.

살젠 허민인.

102007 @ 예. 맞수다게. 게난 뭐 중매고예.

102007 # 응.

102007 @ 얼굴은 뵈 겹디가?

102007 # 아이 동네 동네.

102007 @ 알아지는 디이.

102007 # 동네 아주망이난 뭐 관계없지.

102007 @ 게난 맨 처음에 느, 장가가라 헛디가? 아니면.

102007 # 게난 안 가젠 헛주게, 난 장젤 나는 절데 안 간다고 해서. 집에서 어디 다른디 간. 살단도 오고. 장젤 안 가젠 막.

102007 @ 아 도망도 다니고.

102007 # 도망도 가고 헛다가 어쩔 수 없이 뭐.

102007 @ 게난 그 때 장가 가렌 헛 때 점찍은 그. 그니까 처녀허고 장개를 간 거 아니우파예?

102007 # 아 점찍은 것도 아니고.

102007 @ 누구헌티 가라. 저디 있져 허난?

102007 # 누구헌티 가라 허난. 난 뭐 그 당시엔 뭘 우린 연애엔 헛것도 몰르고 음, 그것도 몰르고 뭐 아, 이거 장계를 가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뭐 걱정 허단.

102007 @ 고민이 많았구나예. 장계에 대해서예.

102007 # 음.

102007 @ 여자에 대한. 이성에 대한 감정 보다도예. 집안 때문에.

102007 # 응.

102007 @ 집안 때문에.

102007 # 집안 때문에 이걸 어쩔 건가해서.

102007 @ 고민을 많이 헛구나예.

102007 # 걱정을 많이 허고. 고민도 많이 허고.

102007 @ 게민 되게 감정보다도 이성이 앞서신게예.

102007 # 난 몰라,

102007 @ 예예.

102007 # 게난 그래서 그 때 장계라도 가난. 나가 집이엔 헛게 지금 ㄱ지 헛지. 나 혼자 뭐 어디사 갈른지도 모른 형펜 아니라.

102007 @ 음.

102007 # 게난 혼 자니까. 그래서 춤 하르버지 할머니, 돌아가셔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주. 경 헛 허니까. 아, 그래서 그럭저럭 이제 살아 온 거주.

102007 @ 예예.

102008 @ 사주는 본거 아니우파예?

102008 # 응?

102008 @ 사주. 하르버지가 사주 판에 며느리 데려 온 것과?

102008 # 아이고 우리 하르버지가 그걸 아니 혜영은, 사주도 보곡. 텍일도 보고 다 해서 몇 칠날 갈거여 해.

102008 @ 집안에서 게민 그 요즘 유학이엔 현 그런 풍습은 막 깔려 잇인게마 씨. 집안 아버지도 뭐 한문.

102008 # 아.

102008 @ 저기 학문을 헛 덴허니까예. 하르버지도 그런거 허고예. 상당 헤시쿠 다. 그거? 게난 딱 맞으난 사주가 맞으난 장게도 보낸거고.

102008 # 응.

102008 @ 그 사주로 맞게 행 이제까지 돌아보면 잘 살아 신게 마씨. 건강 허시고예.

102009 @ 그 삼춘예? 결혼 혈 때는 옛날 예단이엔 현건 잇지 아니우파예?

102009 # 응.

102009 @ 그건 혈때는 어떻게 저기 마련해집디가?

102009 # 그 때는 이. 예단이엔 현게 없엇고. 예장이엔 현게 잇엇주. 예장 거 뭐냐면 흥세함.

102009 @ 아,

102009 # 가져 갈 때. 그 쏘굽에 광목 혼 필 놓고, 돈 얼마 놓고. 이제 여장. 시우맹춘이엔 혜영 썩는거이.

102009 @ 예예.

102009 # 그거 써서 그거 헤그네 노란 보제기에 쌍 앓어가면 다 웬거라.

102009 @ 아 그거 마썰? 그거는 남자가 허는 거는 되지만. 여자는 이불도 헤사 되고 옷도 헤사 되고 버선도 헤야 되고.

102009 # 아 게난 그거는 여자는 지네가 알안 허는 거난.

102009 @ 반지는 헤줍디가?

102009 # 안 헤 줘서 우리.

102009 @ 아, 반지는 안 허고예. 그 그러면은.

102009 # 아 우리사 지금 그 펜 몇 년도니?

102009 @ 어른들이 옷도 할머니가 해 줘실거우다.

102009 # 난 몰라.

102009 @ 저기 이 무시거나 허면 예, 삼춘이 그 시집 올 때 잇지아니우과? 저기 예물로 예물이이.

102009 ## 예물이 어디 시우파게 옛날에.

102009 @ 게난 보선도 잇꼭게. 거 어른덜 한테 일가들한테 허게웨면은 저기 허나라도 저.

102009 ## 우리 그런거 엇수다.

102009 # 보선 헛주 보선.
 102009 @ 보선 예.
 102009 ## 아이고.
 102009 @ 보선 몇 베씩 해가지고 어른들 한티 안네고 저기 어른 한티 그거 들어 보젠 해수다. 보선 허고, 그 결혼 할때 예물로 받은 거 무신거 잇수과. 신랑집에서 받은거.
 102009 ## 신랑한티 받은 거 무시것사 해신디 잊어변에 알아지쿠과? 하르방, 준거 튼네 곶아봅서.
 102009 # 나 안티나 줘서 우리 하르버지가.
 102009 @ 게메 하르버지가?
 102009 ## 하르방이 줘도 알아실 테주게.
 102009 # 할머니가
 102009 ## 하르버지가 줘도 알아실테주게 무시거 주켄 해영.
 102009 @ 그 옷을 할머니가 그 펜 저기 시어른이 안게셔버니깐 할머니가예 주장 해그네 해실 겨우다게. 경 허난 할머니가 며느리, 경 해도 며느리 아니우파? 며느리 허게 되면은 옷을 해줘신가마씨?
 102009 ## 아, 옷 흔 불 해 줍디다.
 102009 @ 옷 흔 불예?
 102009 ## 예,
 102009 @ 옷 흔 불이면 치마 허고 저고리예? 치마 저고리 이것도 멩지로 해신가마씨?
 102009 ## 멩지로 허질 아녀고 그 때 호박단 양단.
 102009 @ 아, 호박단 양단.
 102009 @ 호박단양단예.
 102009 ## 예, 치메 저고리.
 102009 @ 치메 저고리예. 예, 거면 치메저고리 할때는 보면은 이 속에 속치메도 다 ㄴ찌 허는거 아니?
 102009 ## 아니, 저고리 허고 치메.
 102009 @ 저고리 허고 치메예? 거문 저고리 허고 치메가 옷감이 다 똑같아 나수과? 다 호박단 양단?
 102009 ## 응, 호박단 양단으로.
 102009 @ 그 색깔은 어떻 해신고마씨?
 102009 ## 색 다 분홍거.
 102009 @ 분홍거예. 우 알 다 분홍거 예? 알아수다. 호박단 양단이엔 현 것도 여기서 처음 들어수다. 예 고맙수다예.
 102010 @ 결혼식은 어디서 헛디가?
 102010 # 집에서 헛주. 어디서 해.

102010 @ 집이서 마당에서 계민 신랑 각시가 사모관대 허고 그 다 쓰고 활옷 입곡 활옷 입고 예. 마당에 그 상 차려 놔그네.

102010 # 응.

102010 @ 절 허고 헤신가?

102010 # 아니 절 허고 헌거 아녀고.

102010 @ 그냥 강 상 받앙.

102010 # 상 받는게 결혼식이난.

102010 @ 사돈 잔치허곡. 계난 신부집이 강. 새각시 집이강 상 받고. 말 타그네 읍디가?

102010 # 응 말 타고.

102010 @ 새각시는 가마타고 아,

102010 # 응.

102010 @ 거 뵈서게 흥세함은 누계가 저수파?

102010 # 몰라. 그건.

102010 @ 건 기억 안남수파?

102010 # 응.

102010 @ 경 헤그네. 와그네 새각시 데령 와 불민 쫓이파?

102010 # 쫓이주게.

102010 @ 새각시 집에 다시 안 가고마씨?

102010 # 아, 가고 안가는 것사게 장게 가고 난 뒤니까게. 가고정 허민 가고 실 프면 마는 거지.

102010 @ 경 허난. 삼촌. 새각시 집이 강. 흐룻밤 자고 읍니까? 아니면 그냥 데령만 읍니까? 데령만 읍디가?

102010 # 아니 데령만 오주게.

102010 @ 아침에 가그네.

102010 # 응, 그 디 간. 상 받고. 뭐 헤그네 인사허곡 해서. 새각시 출리민 들앙. 해서.

102010 @ 잔치는 몇 칠 동안 헤신고예? 도세기 잡고 물 길어오고.

102010 # 그거 가문 잔치여. 그 제라헌 잔치전에 가문잔치 해서 일가덜이영. 막 다 동네사람덜 요즘도 경 허지 아녀게. 아시날 해서 그 듯날은 번거로우니까. 그 예 식허고 뭐 허젠 허문. 경허고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돈 잔치허레 가곡. 또 계난 우린 동네난. 그날그날 흐루에 다 영.

102010 @ 아, 동네난 예.

102010 # 응.

102010 @ 계난 잔치날 다음날에 사돈잔치 허렐 가는 구나예. 새각시 집에예?

102010 # 아, 그 사돈잔치 허레 갈 떼엔 뭐 도세기 다리도 흐나 놓곡 쓸도 혼 말놓곡 영 행. 가실거라.

102010 @ 예 이바지엔 헛거?

102010 # 경 허민 그 디 사돈칩 식구덜 모이꼭 헤그네. 혼 때 나뉘 먹어 아정 돌아 오는 거주.

102010 @ 그 때 결혼식 사진 찍읍디가? 그때는.

102010 # 안 찍어서.

102010 @ 여기는 경 해도 촌이라 부니까예. 시에 사름은 예. 저기 찍엇덴 허는 어른도 이십디다워. 시에 어른들은예.

102010 # 아 그 때 다 거이 찍는다. 사진사가 그 켜 경 없엇어.

102010 @ 볼르젠 허문 귀헤그네예?

102010 # 응, 요즘은 사진기가 막 하난 기자.

102010 @@ 맞수다.

102010 # 부수 찍어도 웨는디이. 그 때는 사진기가 경.

102010 @ 맞수다. 사진사를 불러야 주게예.

102010 # 응.

102011 @ 예. 신혼살림은 그냥 집이서 헛거 아니우과예??

102011 # 응, 집이서 죽은 방이서.

102011 @ 예.

102012 @ 거문 자제분은 어떻 뽕수과? 아들 둘 헛고.

102012 # 딸 으섯 게 으둡 팔 남매라,

102012 @ 아들 둘에 딸 으섯예. 아이고 아이고 다복 헛시우다.

102012 # 아 계난 그.

102012 @ 아이 대단 헛시우다.

102012 # 나는, 난 혼자지만은.

102012 @ 예. 완전.

102012 # 아 이거 자식이라도 많이 나서. 뽕 흘려구 헤 가지고 노력을 많이 헛 주게.

102012 @ 다 공부 시키꼭. 계난 아들은 몇 번째 뽕디가?

102012 # 계난 아들이 다섯 번째 뽕주게.

102012 @ 아들 다섯 번째.

102012 # 다섯 번째. 아니 아니 으섯 번째. 일곱 번째 그 다음은 또 아들 헛나 더 나지카부텐 허단 보난. 또 딸 나 저서. 경 허난 설러 부러주게. 으소 일곱. 계난 아들을 낳젠 허난. 계난 열심히 난 거주.

102012 @ 게 열심히 나고. 경 허난 여청 삼춘안티 잘 헤사큰게마씨? 아이고.

102012 # 아이고, 그 이상 나가 더 헛 수가 엇어. 요세도 아팜 막.

102012 @ 경 해도 완전 행복헛게마씨. 삼춘 건강도 헛시고마씨.

102012 # 계난 우리 할망도 건강허여.

102012 @ 예, 그만큼 헛 게 어딴과게 건강도 헛시고 경허니까. 이렇게 나완게

큰일도 허는 거주마는 자식.

102012 # 계난 나 지금도 건강은, 이거 이 녹음기 앞에선 곱을 말이 아니여마는.

102012 @@ 아니 어떻 안헤여마씨.

102012 @ 어수다게.

102012 # 나 병원에 강. 하루 입원 해 본적이 있어 지금까지. 영 모르면은 이거 늑들은 아, 그거 자만헌 소리 거 경 허민.

102012 @ 관리를 잘 했다는 거주 마씨게.

102012 # 으.

102012 @ 관리를 잘 했다는 거주마씨.

102012 # 아니 관리보다도 본래 건강은 헤여. 경 허난 난 지금 당뇨도 없지. 혈압도 없지. 아, 계난 지금 베 부른건만 문제지. 몸이 하나도 이상이 었주게.

102012 @@ 비결은 무시것과?

102012 # 응.

102012 @@ 비결? 건강 비결.

102012 # 비결, 아 비결이야 뭐, 네 뭐 열심히 돌아댕기곡. 그저. 뭘 허니까 거지. 뭐 애초부터 건강하게 태어난 모양이라.

102012 @ 그 건강검진은 받지 안옵니까?

102012 # 응.

102012 @ 건강검진에 혈압도 안 나오고 당뇨도 안 나오고? 건 대단헌.

102012 # 아 혈압은 백오십 까지 올라가웨. 네가 이년 뱃끼 안 웨서. 혈압약 먹은지가 백오십을 올라가니까. 혈압약 먹읍센 허는 거라. 뭐 그걸로 해서 혈압약 먹은 건 아니지마는 혈압약 먹은 것에 뭐 문제가 웨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먹는게 낫수다. 낫수다 허길레. 이제 그 혈압약 혼 알 먹엄서. 쫓그만 헌거 혼 알. 계난 뭘 혈압약 뭐 혼 들 두 들치 먹어도 스천 오백 원어치 뱃끼 안먹어. 겐디 작년도 저 세마음 어디니? 세세.

102012 @@ 병원?

102012 # 으.

102012 @@ 어디?

102012 @ 한마음마씨?

102012 # 아 한마음 병원, 거기 가서 종합검진 했더니. 돌아가실 때까지 큰걱정 었이쿠텐 허는거라. 아 경 허길레 아 계민 텃다고. 아 죽는 다음에야 뭐.

102012 @ 아 부럽수다게. 저도 이제 부모님이 삼춘 연세에 좀 헤 가지고 허긴 허니까는 참 많이 부러운게마씨.

102012 # 아 계난. 지금 까지 나사 뭐. 아, 병원에, 거 혼 번은 차 탕 땡기단. 하루 강 잔 왔는디. 차 탕 땡기단 바로 으으 입구에 서라. 난 절로 쫓장 이레 오는데. 하 절로 들려오단 그만 나 차를 옆으로 박아 붙엇어. 아 경 해서 죽은 길에서 죽은

길에 가니까. 나가 이쪽으로 쭉 넘어 완 박아도 하, 나가 잘못 헛 켜 허는 거라게. 이거 뭐 무신 소리냐고 게니까. 죽은 길에 사름이 항상 지는 거우다. 헛는 거라. 하 교차로 니까이 아, 게 병원에만 가 봄 켜 헛고 또 그 날 혼 아이도 나가 아는 아인데, 병원에 가 봄 켜. 허관테 병원에 간 헛난. 뭐 별 이상 엇수덴 허관테 그자 듯날 와 뵈주. 게난 그 때 혼 번 병원에 간 누워 뵈주. 아 뭐 이 동네 의원이사 감기도 걸령 가곡. 에 어디 뭐 허민 손도 가곡.

102012 @@ 손도 상처나민.

102012 # 손도 다쳐 가곡. 영 허는 거난. 그건 말 흘 필요도 없는 거고.

102012 @ 병이 없다는 거잖아. 건강허덴 허는거주마씨.

102012 # 응.

102012 @ 자식들은 참 좋으신게마씨.

102012 # 응?

102012 @ 부모가 건강허난에,

102012 # 부모 때문에 걱정 헛 필요가 엇어. 지금 깃지는.

102014 @ 자식들은 결혼은 어떻 어떻게 시킵디가? 딸허고 아들들 해서.

102014 # 아 우리는 본래 엇곡. 나도 뭐. 기자 지네 허고정 헌텐 허민 난 시켜서. 이 살름 헛고 결혼 허कु다 허민 난 시키고. 아들도 경 헛고, 딸도 경 헛고 네가 어디가 구헤여그네 어. 뭐 허지 안여고. 자기네 좋은 데로 난 다 시켰주.

102014 @ 게난 그 시절에 맞게 막 시집 안가키여, 장가 안가키여 헌거를 경 헤도 가라가라 헌 것도 아니고 그자 츠곡츠곡 헤그네.

102014 # 아니 뭐 그런 것도 엇곡, 츠레데로 다 츠근츠근 보네고.

102014 @ 풍습이 다르텐 아니면 뭐가 사주가 안 맞텐헌 그런 결격에 대해서.

102014 # 아니거 뭐 우린 그런 것도 생각 안허고. 이녀 좋텐 허민 사주고 뭐. 이거 필요없이.

102014 @ 예, 아이고예.

102014 # 아니 경 허주게 뭐. 지네 좋텐 헌디뭐 살다가 나빠지영 헤어지민 지네 팔자지 무신. 거 부모가 경 허렌 헌건 아니난게.

102014 @ 예 맞수다. 며느리 헛고 사위는 늬이 집이서 온 거 아니우파?

102014 # 겐디 며느리가. 우리 죽은 메누리 대전 여자고 큰메누리는 부산 여자주. 아 경 헛 허니까. 메누리도 아 이제 지네 허켄 헌데로 흘 수 뵈기. 난 윈, 허고 싶으면 허라. 아 너네가 좋아서 허는 거니까. 곳이 먼 결혼 헛 일이 없지 아녀게.

102014 @ 예예.

102014 # 좋아서 허는 일이니까 너네 허고저 허건 허라. 그래서 우린 막 지네 헌티 뵈겨 부니까. 아 거 게난 나 헌티 원망허지 아니허여 지금 깃지도.

102014 @ 예.

102014 # 네가 잘못 결혼 헛다거나. 뭐이거나 제집아이도 경 헛고. 여자덜도.

102014 @ 예, 여자덜도 사위들도 마찬가진게예?

102014 # 응. 게난. 지금 ㄱ지는 아 우린 다 헛자. 아무 일도 엇주. 으, 으둑 식구가 다 헛디. 아 겐디 요번에 우리 큰 사위가 나보다 먼저 죽어 벗어. 아 겐디 그기는 거기도 그 목감이여. 무슨 암 걸려가지고 헤 놓으니까. 이진 뭐 젊어도 어쩔 수가 없어.

102014 @@ 후두암인가?

102014 # 예, 후두암. 경 허단. 그건 다 수술 헨 나산 땡기단. 아 또 폐암으로 들어간. 그게 전이 된 모양이지 거기. 경 헨 혼 그 수술 헨. 이상 엇이 혼 오륙 년 살았는데.

102014 @ 전이 됐었구나 예.

102014 # 응. 폐암으로 돌아가, 죽어 부러데이 뭐. 팔자가 그러면 그것다 어쩔 수가 엇어 다 이녀 풀즈니까 그.

102014 @ 게민 다 주변이서 살았수과? 아니면 아들들은 육지 살았텐 허명.

102014 # 아들 딸 두 게 육지 살고 여기 네게 벗기 안살아. 딸 네게 사는데 세 화리 헛나 살고 표선이 헛나 살고 제주시에 헛나 살고 제주시에 둘이 살았구나. 큰 딸 ㄱ지 헤영.

102016 @ 그 이밖에 삼춘, 이진 삼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 헛곡. 가족에 대해 곧지 안 헤수과예? 여기서 더 곧고 싶은 거. 만약에 잇으민예. 삼춘 자랑이든 뭐 어떤 식으로 힘든 일을 어떻 극복 행 헛저. 교훈되는 이야기랑 그런 거 잇이민,

102016 # 게난 항상 나는 그 아이들이 건강 헛고 그자 잘 뵈으면 헛는 그 생각 벗기 엇이난.

102016 @ 삼춘네 건강헛고예. 좀 전에 곱아수게.

102016 # 나 건강헌 건 너미 건강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짐이 뵈까봐서 제일 겁이나. 응 늘거 가민 제기 죽을 뵈 제기 죽어 부러야 아이들이 뵈안허지.

102016 @ 이제 백세시댄 허는디 삼춘 앞으로 이십년 뒤에 걸 미리 걱정 험수과?

102016 # 아니 실지여게. 그 제기 죽어 부러야 아이들이 뵈안허지. 우리가 오레 살았시민 아 지금도 걱정 헛다 말이여. 아 우리 아버지는 어떻 험 신고 우리 어머니는 어떻 험 신고 해서. 아 이 스방이서 다 걱정 헤여그네 전화도 자꾸 오곡 허는디. 그런 부담을 지기가 나는 미안헤여. 게난 우리는 이제 늙은 사람은 어느 정도 이녀이. 나도 이 추룩 헤여그네 땡겨질 때는 관계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이것도 못 헛곡. 집애나 ㄱ만이 누워그네 뭐 헛 때 는 필요가. 인간으로서는 이진 상실뵈거 아니라게 어. 삶이 어느 정도 활동 헛 때 삶이지. 활동을 못 해서 요양원이나 가곡. 영 헛 때 는 그건 삶이 아니라. 그 뵈 죽어야 뵈는 거라. 누구든 막론 헛고. 경 헤야 즈식덜이 뵈안 혼 거주. 경 헛지 아니허여?

102016 @ 건강이 제일예. 자식들 건강헛고. 본인도 건강헛고 누구든지 건강이 생각헛고 몸이 같이 움직여지길 원하는게 제일예.

102016 # 아니 그러주게. 활동헛곡 이에기도 헛곡. 뭐 홀 때 사람이지. 치매나

걸리고 요양원에 가서 춤, 늬이 도움을 받을 정도가 돼어가민. 살 필요가 없는 거라. 사람은.

102016 @@ 경 해도. 자식들 막음은 경 안협주.

102016 # 아이. 게난 자식덜도이 오레 살아 가민 미와아 아방 어떻.

102016 @ 아니 건 아니우다게. 절대 안협니다게.

102016 # 아니 부모 오레 살민 미와. 걸으론 걸으론 하이 우리 아바지 오레 살 아시민. 우리 어머니 오레 살아시민 걸으론 해도. 속으론 제기 죽어 부러시민 원.

102016 @ 아 절대 경 안 협니다게.

102016 @@ 우리도 이제 으든셋?

102016 @ 이제 으든넷 될거.

102016 # 어, 나보단 두 나 우이로구나게.

102016 @ 건강을 잃언, 잃언. 좀 일찍 잃으션예, 경 헤그네 한 번 쓰러지시고 두 번까지 헤나부난예.

102016 # 아 뇌줄쫘.

102016 @ 예 걷는 건 우리는 항상 걱정 되어예. 경허고 집안에 어른이 잇어야 가풍도 유지되고 허는 거지예. 삼춘 이제 열두 시 반 쯤쯤 넘어서난예. 잠깐 쉬엇다가. 식사부터 먼저, 이거.

102016 # 에이 이제 그만 행 가라게.

102016 @ 삼춘 나 이거 봅서.

102016 @@ 그건 경 헤.

102016 @ 확 오분 만 잇다그네예. 헤그네 한 시간만 허면은예.

102016 # 오늘 하루 헌건 텔거냐? 이제.

102016 @@ 묻거든 튼 내는 건만 곱아줍서.

102016 @ 이제 까지는 삼춘 그 일생에 대해서 얘기 헤신디. 앞으로는 농사 짓던 일에 대해서. 이거는 삼춘 전문 아니우파예?

102016 # 게메 전문이나마나 뭐 기자 헤 온 거난.

102016 @ 예예.

3. 밭일

103001 @ 그 밭일인디예. 밭일이엔 허민 어떻 것들이 잇인고마씨?

103001 # 밭일 이엔 허면은 농사짓기 전에 이제 그 춤. 여기는 검질이 상당히 많주게. 이이 제주도 땅이. 이 저 화산회토가 돼어서 그런지. 검질이 검질 자라는 디는 이거 도가 튼 땅이라. 게난 거 우선 초불 갈앙. 또 검질 메고 두 불 갈아야. 거 잠데로 거 두 불을 갈아야. 이제 농사를 허게 돼주. 혼 불 만 갈앙은 안 돼주게. 게난 처음 갈곡 두 불 갈곡 해서. 농사철 돼서. 씨 흘 때 돼문. 그것도 다 철에 따

라서 농사를 짓는 거난. 아무때나 지어도 안 되고.

103001 @ 검질이 제일 큰 문제예.

103001 # 응.

103001 @ 밭일은 검질 메는거. 또 밭 가는거.

103001 # 응, 계난 농스 붓 흘 떼까지 두 불은 갈아야돼여. 흔 번 갈아그네. 그 땅을 자꾸 갈아주어야 땅이 되는 거니까게.

103001 @ 밭갈 때 사 뭐 저기 소, 황소로?

103001 # 응 소로도 갈아나고 들로도 갈아나서.

103001 @ 아 말로도예. 농쟁기 해 가지고 뭐엔 험니까? 농쟁기엔 험니까?

103001 # 무시거?

103001 @ 그 아, 잠대 험 험니까?

103001 # 뭐?

103001 @@ 잠대지 잠대.

103001 @ 아, 잠대 예. 잠대 허고예. 밭 허고 이거 허고 이건 농사에 따라 다르 주만은 그 다음에는 듬북 말 곧듯이.

103001 # 거름 돛거름.

103001 @ 돛거름 예.

103001 # 돼지 통쇄에서 그 깔아주던 그 쪼덜 뭐 막. 조촐도 담쪽 보리촐도 담 쪽 해서.

103001 @ 예.

103001 # 그 거 썩으면은 그걸 이제 해서 췌, 췌막에서 췌 그 메는 자리가 그 오줌 싸곡 똥 싸곡 허문 그거 다 거름이난.

103001 @ 예.

103001 # 그거 다 파 네어그네 깔아야주.

103001 @ 거름예. 췌막허고 이거허곡. 돛거름, 돛거름은 일 년에 몇 번 냅니까?

103001 # 거이 흔 번 낼거라.

103001 @ 한번 냅예.

103001 # 음, 흔 번 흔 번 네야주. 두 번 네 가민 그제. 것도 잘 베함이 돼야. 똥이영 오줌이영 잘 서꺼져야 돼야 되는 거난 .

103001 @ 거름은 내어 그네에 그 옛날에 보면 통시 옆에 막 쌓아두지 안읍니까? 바로 밭에 가지 안 해그네예?

103001 # 물려.

103001 @ 말려그네 예.

103001 # 물리우고 어떤 동네에서는 보면 거름에 보리씨를 뿌려가지고 그냥 가 그네.

103001 @@ 아.

103001 # 그걸 펼치면은 그제 경 행 갈면은 그제 씨 흔디 서꺼정 그걸 가는 수

도 있어. 그걸 서꺼정. 거 온평리 끝은디는 그렇게 허더군만.

103001 @ 아 온평리는예.

103001 @@ 거름에 씨를 섞엉. 섞어그네 갈아부러.

103001 @ 여기는 땅이 다르니까. 그거 그걸 거라예. 땅이 달라부니까는예.

103001 # 아니 계난 땅이 달른것 보다도 그게 씨가 그렇게 해야 골고루 가는지 몰라. 씨 뿌리는 것도 이제 그 춤 손으로 뿌리당. 이제 뿌리당 보민. 가는 디 안가는 디.

103001 @ 예.

103001 # 흙 수도 잇곡. 겐디 뚫거름에 씨를 뿌령 강. 훗 슬썩 씨가 즈곤즈곤 노민 씨가 골로르 갈거 아니라게.

103001 @ 응.

103001 # 막 그런 그 장점이 이실거라.

103001 @ 아, 그런 거를 혹시 방논덴 험니까? 방논덴?

103001 # 응?

103001 @ 골고루 씨가 간덴 허는거. 아 검질 땔 때로구나. 방 너르게 헌덴.

103001 # 아, 그거 검질 땔 때는 혼 사람이 어느 만큼 찻지해서 메어 가느냐에 따라. 그 방 넓게 혼다. 좁게 혼는 말이고.

103001 @ 아 그 말은 그 말이구나 예. 거문 씨 뿌리고 그다음에는.

103001 # 거름하고 씨 뿌려난, 다음에는 보리가 나민 땔 거주게. 게메 그건 겨울철이고 여름철에 조는 조 불릴 때는 저거 물로도 불리곡 쉼로도 불리곡. 사람으로도 불리곡. 소위 남테.

103001 @ 예.

103001 # 이제 거. 여러가지 기구를 해서 땅이 이 제주 땅은 복삭지므로 이제 검은 땅이 돼가지고 복삭지므로 이게 조가 잔뜩 불려줘야. 뿌리가 든든이 불려줘야 조가 여물지. 그냥 네 불민. 커 가당도 이제 그.

103001 @@ 넘어져 불곡.

103001 # 응.

103001 @@ 불려나 불지 ㅂ름에.

103001 @ 경 해난 다음에 수확을 햅구나예. 수확 허민은 이제 저기.

103001 @@ 아니 검질을 메야주.

103001 # 조 불릴 때는 검질 세 불을 메어야 돼여.

103001 @ 응, 검질예,

103001 # 응, 세 번. 세 불을 메어야주게. 초불 메고 두 불 메고 세 불 메어야. 조가 검질이 어느 정도 메어 불어야. 그 잡초가 엷어야 농사가 돼지. 잡초가 복삭해 불민 거뤄.

103001 @ 예예, 거문 밭일이엔 허민, 크게 검질메는 거. 밭 가는 거. 거름내는 거. 씨부리고 그 다음에 밭일이엔 허문 담 몰아져도 담을 다와야 되는 거. 소가 들

어와 버리면 헤나버리면 담 다우는 거예.

103001 # 아 담도 추려야 돼주게.

103001 @ 예 담 추리는 거예. 그리고 수확해 나면 마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그거는 허는 거니까예.

103001 # 아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은 이 그 게난 보리 겨울농사 허고 여름농사 허고 틀리주게. 그 형테도 그 가는 형테도 틀려. 그 여름 농사는 이제 그 조나 요런 거를 불리기 때문에 이제 그 알이 땅이 든든하게. 물로도 불리고 쉼로도 불리곡. 헤가지고 영 흐면은. 게난 그 여름 농사를 흐는디는 비료가 그저 걸름이 필요가 었어. 그냥 자라니까. 여름농스 헐 때는 그냥 비료나 잘 강 헤 주면은 돼는데. 그전에는 필요 없꼬. 그 거름을 못 흐는디에는 바령이엔 현거 있어. 바령.

103001 @ 예 바령.

103001 # 바령밭. 바령이엔 현게. 밤에 소영 물 소를 가두와. 그 농사 질 디를. 밭에 담 다그네 나오지 못 허게 해서 흐면은. 거기서 소가 밤 자곡 먹곡. 이제 흐다가. 이제 경 허문 막 거기에 똥도 싸노곡 오줌도 싸곡 흐면은 걸름이 돼는거라. 경 형 낮은 나 강 먹당 밭인 거기오라그네 가두와 노왕.

103001 @ 예예 허곡예.

103001 # 그래서 거길 또 걸름을 흐는거라.

103001 @ 모든 밭이 다 바령밭으로 허는 건 아니지 안읍니까예?

103001 # 아니, 아니 거름 못 흐는디.

103001 @ 예.

103002 @ 거문예, 이제부터 이제 이 저기 농사를 짓기 시작 허게예. 예 보리 농사는예.

103002 # 응.

103002 @ 농사를 짓젠 허문 준비를 어떻 해 갑니까?

103002 # 보리 농스는 거름을 잘 해야돼여.

103002 @ 거름예.

103002 # 거름허고. 밭 갈아서 뭘 허문은. 거름을 밧고랑 이라든가 여기 다 깔아 낱. 경 행 잠대로 또 갈양 씨뿌령 잠대로 갈양. 흐면은 뭘 보리 농스가 돼는 거고.

103002 @ 씨부터 먼저 뿌려 노코 잠대로 가는구나예.

103002 # 경 해야 그 잠대로 갈아야 흑이 덮어지난에게.

103002 @ 잠대로 갈고 그다음에 보리 밧디 검질 메는 거가.

103002 # 젠디 보리 밧디 검질은 겨울이난에 이.

103002 @ 예.

103002 # 별로 없는디. 그 봄 나면은 그자 쪼끔 메면 돼여.

103002 @ 봄에 쪼끔 허고예. 경 행 오뉴 월에 이제 수확허는 데에.

103002 # 경 허난 보리가 커 버리면 검질도 나지 못 허주게.

103002 @ 예예 여기도 저 보릿 고개엔 말 허여나수과?

103002 # 아 잇엇쫌게. 옛날이야 봄 돼면은 거 다 먹을게 다 떨어져 가지고.

103002 @ 봄에예. 보리 선 것도 갓다그네 다 툃다다 먹어나신가마씨?

103002 # 예, 선거는 보리 구워먹젠.

103002 @ 아 구워먹젠 예.

103002 # 응 거뵤 양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103002 @ 먹는게 아니라예.

103003 @ 보리밭 거름은 좀 전에 ㄴ른거 돛거름 허고.

103003 # 췌거름.

103003 @ 췌거름 허고 돛 허고 췌거름 허고

103003 # 듬북. 해조 해조류.

103003 @ 여기는 듬북예. 바당이 잇이난예. 해조류 해 가지고예. 듬북은 어느 정도 케신고마씨? 아니면 밭에 올라 오는거 아니면?

103003 # 아이 듬북은이. 늘 이제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늘 불잖아게.

103003 @ 예.

103003 # 늘 불민 자연이 이 해안가로 올라와.

103003 @ 예예.

103003 # 올라오민 그거 쫌엇당. 모엇당. 톨루와그네 밧디 가져당. 허는 거주게.

103003 @ 예예 그건 풍조엔 허잖아예? 풍조엔 예 풍조 감 뎡 헉니까.

103003 # 응 풍존지 뵤지 모르주만은 ㅼ름에 이제 그 해안가로 올라오는 거주. 바당 안에 잇던게.

103003 @ 거문 듬북은, 돛거름 췌거름은 다 이녁 집이서 허는거고예?

103003 # 응.

103003 @ 가져오는 거고 듬북은 바당 잇거난. 주인이 따로 잇지 잇는건 아녀지 아니우파?

103003 # 아 이녁이 주서지는데로 가져 올거난.

103003 @ 주워지는 데로예.

103003 # 응.

103003 @ 거문 이거허젠 허문. 바람이 불어나민. 난리가 나큰게 바당에예.

103003 # 게메 난리 거 흥는 사름이 잇곡. 아니허는 사름이 잇주게.

103003 @ 아, 경 헛구나예. 겐디 이쪽에는 보면 신양리 보면. 듬북 해 가지고 농사지어 보젠 신양리에 내려 왓젠 허는 들은 도레가 잇언 허난.

103003 # 아 게메 신양리 이 앞. 그 요 간둥이 지경이나. 저레가 다 듬북을 끌면은 농스가 잘 돼는 땅이라.

103003 @ 그 땅이예.

103003 # 신양리 그 땅이.

103003 @ 예.

103004 @ 보리는 어느 제. 누게가 어떻 갑니까? 어느 제. 보리 갈 때는.

103004 # 보리 갈 때는게. 예, 가을 넘어서 지금 보리 막 갈안. 이제 나그네 지금 흘 때주. 계난 경 행 오 월들에 그, 장마나 저 불민 보리 비여낭 다 적지곡.

103004 @ 예.

103004 # 옛날도.

103004 @ 예, 장마철.

103004 # 장마철 그 그 때 허는거주.

103005 @ 씨는 누게가 뿌리곡예?

103005 # 아, 씨는 밧 임제 그 농스짓는 사름이 뿌리주게.

103005 @ 그 남자가 잘 뿌릅니까?

103005 # 으.

103005 @ 남자가 예? 남자 어른이예.

103005 # 으 계난, 씨를 못 뿌리는 사름도 잇주게. 못 뿌리문 잘 뿌리는 사름도 빌어당도 뿌려. 겐디 다 이녁데로 뿌리주 거 무신.

103005 @ 보리도게. 허당 보민게 모두라져 불면은 또 못 허곡 허니까는예, 이 뿌리는 거가, 잘 뿌려사 빌어당 헐 때도 잇고 대부분 집안에서 가예.

103006 @ 그 보리종류예. 보리에도 종류가 막 하지 안옵니까예? 계난에 보리 종류가 뭐 인칙에도 곶아수다마는. 보리.

103006 # 응 계메 보리 일름도이. 으라 가지.

103006 @ 여러 가진디 예.

103006 # 잇어 낫는데. 나도 보리 테작 허레도 텅겨나고 허난에.

103006 @@ 맥주보리,

103006 @ 맥주보리는 나중예.

103006 # 으, 저, 놀누리, 술누리.

103006 @ 놀우리에.

103006 # 동보리엔 흐는가?

103006 @ 술우리 동부리?

103006 # 동보리, 아 그저, 바로 그 방울이 굴근거 딱딱헌 게 잇어. 것 곶아 뭐 엔사 곶는다.

103006 @ 동보리, 술보리, 두 줄, 두 줄이엔 헌 말은 나중예 나온 말이지예?

103006 # 무시거?

103006 @ 두 줄보리.

103006 # 응.

103006 @ 두 줄보리.

103006 # 두 줄보리엔 헛게. 저 뭐 맥주맥을 말흐는 거 아니?

103006 @ 예 두 줄은 맥주맥예. 보리 게고 술누리는? 흐끔 통통 헌거 아니우 파? 껍질이 없고예?

103006 # 응.

103006 @ 쫘, 빨그르릉 허고예, 가운데 줄 흐나 잇고. 통통 험거예.

103006 # 응.

103006 @ 요즘 애기 허는 찰보리 그런 거는 그 때는?

103006 # 찰보리 그런건 엇엇어. 그 때는 엇엇주. 요세 찰보리는 요세도 도시에 서나 경주에선 찰보리 찰보리허데 경주는.

103006 @ 예예 그렇구나예.

103006 # 젠디 여기는 찰보리 엇엇고.

103006 @ 솔우리.

103006 # 저 표선 남원테레 가면 보리도 안 돼곡 조도 안 돼여.

103006 @@ 아, 저쪽으로마씨?

103006 # 아.

103007 @ 보리밟기는 어떻 험니까?

103007 # 보리 밟기는. 거 땅이 겨울이 돼 가지고. 이 저 막 그저 뭐이냐.

103007 @ 서리.

103007 # 서리가 네렁 허민 막 고슬거 아니라게. 땅이 고스때 이걸 밟아주어야. 이게 들떠 잇거든 땅이.

103007 @ 예예.

103007 # 그 이게 추워가지고 들떠 잇는 거를 밟아 주어야. 그게 뿌리가 이 흑 허고.

103007 @ 예예.

103007 # 이제 잘 접촉이 돼어야 크게 아니라게.

103007 @ 보리밟기 험 때는 촌촌이 밟아가사 뿔건게예.

103007 # 어 밟아 가는데 옛날 그 이 저. 초등 학생덜토 그 늬의 밟. 그 밟으레 뎡겨 낫져.

103007 @ 예예.

103007 # 그거 헛지만은게. 요즘은 그런거 엇어젓주만은 요세 아이들은 보리밟 밟으레 허문. 거 무슨 말이넌 허주 거.

103007 @ 옛날엔 밟디 가그네 밟으라 허난 밟으당 보민 학교 선생네 밟이엔도 막 허곡 헤 낫젠 험디다마는 그런 기억도 잇수과?

103007 # 아니 그거는 겨고 그, 여기는 이. 이레는 뭐 별로 춥지 안허난. 혼엇이 안 블라도 뭐 충분이 보리가 돼여낫주.

103007 @ 아, 예 충분히.

103007 # 막 땅이 고상 험 켜 저 북군 더렌 잘 밟아야 돼주게.

103007 @ 잘 고스는 게 저 북군 허고는 다르니까예.

103007 # 응.

103007 @ 그 서리를예. 옛날에는 옛날 말로는 서리엔 해수과?

103007 # 옛날 말.
 103007 @ 밧 고샅다.
 103007 # 성에.
 103007 @ 성애엔, 서리 내렸텐도 안 허고 밧디.
 103007 # 거 무시거.
 103007 @ 얼음이엔 헤 나신가 마씨?
 103007 # 거 나도 모르키여.
 103007 @ 예에.
 103007 # 뤼엔 골아난 건 잇인거 ㄴ튼디 원.
 103008 @ 보리 밧디 검질은예. 몇 번 메는고마씨?
 103008 # 보리 밧디 검질은 봄 낭. 막 커사 텡기멍 데우리.
 103008 @ 데우리예.
 103008 # 응, 데우리 메불곡 헤 버리면 뤼는 거주. 겨겨 계난이 데우리 뭇 때는 봄 낭. 검질 날 때는 이 놈으 검질이 밧에서 데깅 헤 불민 밑에서 검질이 안 나와. 우에 보리가 무성 헤 불면은.
 103008 @ 아, 검질이 올라오지 안 허주예?
 103008 # 응 데우리는 올라와.
 103008 @ 데우리는 쭈쭈 올라 오민 그건 메 부러야.
 103008 # 메 불어야주.
 103008 @ 메고예, 보리밭 검질이엔 현거는 그렇게 막 특별나게 막 경예.
 103008 # 응 보리밧은 건 겨울에 허는 농스니까.
 103008 @ 그 사데 사데 현덴 허면서 사데소리 현덴 허면서 검질을 멘덴 허는 거는 여기서는 베랑 사데소리가 엇이큰게예?
 103008 # 아 사데 소리엔 현게 그 조팻 검질 뭇 때 허는 거 말 허는 거주게. 아 조팻은 검질을 세 번 메야뤼여. 막 땀 잘잘잘 나멍. 막 그 더위에.
 103008 @ 아 사데는 조팻이로구나예, 경 허문 조팻은 나중에 허곡.
 103010 @ 저기 보리 수확 헐 때는예. 어떻 험니까? 베는 거, 묶으는 거 또는 가 리엔 허는거.
 103010 # 아 계난, 그거를 보리를 비면은이. 베면은. 거 다 호뮈로 비어사주게. 그 전에는 요세는 뤼 트랙타여 뤼여 허난 흥주만은. 그 때는 다 호뮈로 비여그네. 쭈 널어놓아. 비멍 조근조근 놓아.
 103010 @ 예예, 조그조근 허멍.
 103010 # 베멍. 경 해서 뭇를거 아냐. 그게 보리쩍이 뭇라야. 이제 묶어야 허거 든게. (전화 벨소리) 여보세요. 어, 전나 으라뵤 헛주게. 아 겐디 어디 가 온 거라. 오늘, 오전이 차에 뵤 부런, 다르게 아니고 모리 골프대회 갈 때. 그 그저 골프체 허고 공 허곡 앳엇 가는 거. 숫자에 데로이. 거 잇어볼지 말곡 거 장소가 동흥초등 학교난에 그 세전가도 잇잖여. 응 세전 그기서 오십 메다 더 강. 이제 우회전 헤여

그네 혼 이백 메다 가면은 동홍초등 학교엔 험 신게. 으, 계난 나도 갈꺼. 겨 경 흐
고 이번은 차비가 엇어이. 어, 자 부탁 헐로고. 어.

103010 @ 묶어그네에 말.

103010 # 말려서 무경.

103010 @ 타작?

103010 # 응, 타작을, 옛날은 그저 머 그 타작허기 전에.

103010 @ 예.

103010 # 홀트기로 행 홀타주게.

103010 @ 예.

103010 # 홀타서 그 이삭만 모아가지고 타작을 헛주.

103010 @@ 크크클 클.

103010 # 으, 소위 홀테게.

103010 @ 홀테엔 헨거예?

103010 # 응, 홀테.

103010 @ 그 묶을 때는 어느 정도를 헤 가지고 묶으는고 마씨?

103010 # 아, 이 정도 해서 그, 보리를 이제 그 영 헤그네 영 싹 보리를 오그렁.

103010 @ 예.

103010 # 흐면은 그 무꿀 수 잇을 정도로 그거 양은 놓는 거난에. 계난 보리찍
이 길민은 영 두 게 허민 길민은 많이 낱 무꿀 수도 잇곡. 그게 보리찍이 짧으면
하영 무꾸쟁 헤도 그걸 영 껌트렁 찢르질 못 허니까.

103010 @ 예예. 그거 보리짚이엔 헉니까? 보리찍이엔 헉니까?

103010 # 보리짚이주게 무신.

103010 @ 보리짚? 보리짚.

103010 # 짚.

103010 @ 보리 짚으로 묶어그네에. 그거 허면은 경 행 보리 타작허는디.

103010 # 계난 타작은 그전에는 요세 이 뭐 그 무슨 기계가 나오기 전이 우리
헐 때는 홀트기로 다 홀타 낱. 그 이삭만.

103010 @ 이삭만.

103010 # 응, 그저 보리 고고리만.

103010 @ 아, 고고리만.

103010 # 보리 고고리만 모여가지고 탈곡기로 타작을 헛주.

103010 @ 아, 탈곡기로.

103010 # 응, 타작 허든지 도께로 두드리. 이제 마당에서 도께로 두드디드르던
지.

103010 @ 예.

103010 # 계난 타작기 엇일 때는 다 도께로 두드렸주.

103010 @ 도께로 두드려 그네 예.

103010 # 으.

103010 @ 이거 도깨면은 이 도깨예. 마께로 허진 안 허고예?

103010 # 마께로 그거 어떻 마께로 허여게. 그 많은 건디.

103010 @ 예 거문 밧디서 허면은, 묶어 논거를 저기.

103010 # 거 집이, 집이.

103010 @ 실러오든지.

103010 # 지어 오든지 마차로 실러 오든지.

103010 @ 마차로 실러오든지 해야.

103010 # 지어오든지 마차로 실러오든지 해 와서 마당에서.

103010 @ 예 마당에서.

103010 # 홀트곡. 나중에는 거시기가 나오니까 거 뭐 탈곡기가 나오니까. 그 집 이 와서 탈곡을 해 주었지. 그 탈곡기 엇일 때는 다 도께로 두드렷지게. 마당질 해서.

103010 @ 예 마당질 해가지고예. 마당에서 예. 그 저기 그 마차에 실으젠 허민 그 단위수가 잇인가마씨?

103010 # 바리.

103010 @ 바리아.

103010 # 흔 바리를 서른 단을 잡는 거 ㄴ뜬데. 몇 바리 싯그느냐 흔는거는 그 쉼마차는 쉼의 힘. 물의 힘에 따라서 무난하게 집에 ㄴ지 쫓아 갈 수 있는 양을 싯 거야돼지.

103010 @ 예, 맞수다.

103010 # 그 이상을 싯그면 쉼도 무리고 물도 무리고.

103010 @ 예 예 맞수다게.

103010 # 힘이 떨어지주게.

103010 @ 바리로 해그네 예. 아까 저기 보리타작은 헛고예. 홀트고 도리께질도 허고.

103012 @ 이 보리 쏘 장만 허는 거 잇지 안우파? 아까는 타작허는 거. 쏘 이 보리쏘 장만은 어떻? 무엇으로 어떻게 장만 해신고예?

103012 # 게난 그거를.

103012 @ 예 연자메도 잇고. 멧돌도 잇고.

103012 # 거 물려 가지고 걸보리 헛고 쏘보리 허고 두 가지 아니냐게. 것보리엔 현건 맥주맥을 것보리, 것보리 헛어. 그 영 헛는데. 그 맥주맥은 까끄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 위낙, 게난 그 술우리는 그 꺾떼기가 우의가 엇언 멘짝허게 벗어진 거주 게. 술우리엔 현건. 게난 그거는 다 그 물방앗간에 가그네. 그거 물에 킁 강. 이제 굴젠 허민 막 멀미헤여. 아 나도 막 멀미 헛네이. 아 거 빙빙 상 들. 졸멍 그걸 밀 령 돌아야 돼니까. 막 멀미 해 가지고 나도 혼나서.

103012 @ 아, 물방아는 물로 허는디이.

103012 # 아 젠디 몰로 흘 수도 잇곡. 그냥 사름으로도 밀령.
 103012 @ 아, 사름으로도 밀영?
 103012 # 응, 사름으로도 건 뭐. 둥굴게 웬거니까. 굴르게 웬거니까 밀령.
 103012 @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103012 # 응, 밀민 돌아가, 거 영.
 103012 @ 여기서 이거 보리장만 헐 떼. 이거 미는 사람허고, 쓰는 사람 허고, 치는 사람 허고 사람이 몇 사람이 들라 붙어야 이거 헤 신고예?
 103012 # 아 계난 그거 밀명도 빗자루질 헐 수 잇고.
 103012 @ 예.
 103012 # 그 과정은 나도 잘 모르크라.
 103012 @ 정 가는 사람. 삼춘은 그냥 밀기만 헛주만은 서넛은 서너이.
 103012 # 그거 해서 어떻 해영. 그렇게 해당. 그거를 또 헤 낫 당. 그걸 또 이 정ㄴ래에서이 이 돌 조그마헌 돌에서 정ㄴ래에서 굴아서 그걸 벌러네야 또 춤 몰방 에에서 ㄴ는 건 꺾덕 뻗끼는 거고, 꺾덕 뻗끼는 거고 그다음에는 ㄴ는 거은 쏘을 이 꺾는 거.
 103012 @@ ㄴ래 ㄴ래.
 103012 # ㄴ래에서.
 103012 @ 그 걸 정ㄴ래엔 헛니까? 뗏돌로예. 뗏돌로 굴앙예.
 103012 # 응.
 103012 @ 뗏돌 ㄴ는 거는 보통 어무니가 헤신게예.
 103012 # 응.
 103012 @ 어무니가 예. 맞수다 어무니가.
 103013 @ 저기 보리 쏘로는예. 무얼 헤신고예? 보리쏘로는 밥만 헤 먹어신가 마씨?
 103013 # 아, 보리쏘 ㄴ루 굴앙 떡도 헛곡 다 허주.
 103013 @ 밥 헛곡. 떡 허고.
 103013 # 응. 그 ㄴ래 굴앙. 그 ㄴ루 네면은 떡 헛는 거 아니라게.
 103013 @ 예 보리 쏘로 떡 헛곡, 친 떡도 허고마씨?
 103013 # 글썸 친떡 ㄴ지는 안 돼고.
 103013 @ 보리 쏘로는 그냥 개떡? 요즘 애기허는?
 103013 # 그저 ㄴ루 굴아그네. 다 보리 즈베기도 헤 먹곡. 뿔도 헛곡.
 103013 @ 조베기, 돌레 떡도 헤신가마씨?
 103013 # 돌레떡?
 103013 @ 응.
 103013 # 돌레떡도 해연 헤신테주.
 103013 @ 영장 밧디도 만약에 허젠허문.
 103013 # 그건 모물로 헛저게 모물.

103013 @ 모물로만, 미숫가루.

103013 # 응, 저 영장 밧디 돌레떡은 그 다 모물. 그 저, 다 심방안티 가는 돌레 떡도 다 모물.

103013 @ 모물허고예.

103013 # 응.

103013 @ 거문 보리 찰로는 떡을 허는데 친떡은 몰라도 다 조베기 허고 미숫궂루 허고.

103013 # 그 저, 뭘 여러가지 거. 멘들메 가는 거난 거. 난 멘들줄 모르는 사람 이난.

103013 @ 맞수다.

103013 # 아, 궂루 곶아 놓으민 멘들민. 멘드는 데로 뛴는 거난에 뭘.

103014 @ 보리겨, 보리짚. 보리 까그라기에. 보리겨, 보리짚 보리카끄라기는 어 떤? 저 헤 나면은 남은 거는 어떻.

103014 # 보리 까끄라기가 보리 궂스락을 말 허는 거라. 보리에 나오는 그 수염 잇주게. 그게, 그게 몸예 다민은 막 까슬까슬 현게. 거 영 궂어. 게난 그거 허카부 텐. 보리 궂스락 들어 가카 부텐 옷도 잘 입곡. 그 더위에도.

103014 @ 예.

103014 # 경 헤그네 마당질도 허곡허여. 그거 흥민 모욕 안 헤 불민 꺼스려왕. 살지 못허여.

103014 @ 보리 궂슬락은 불지드는 것 뵈기 안 헤시는가 마씨?

103014 # 무시거어?

103014 @ 불 지드는 거.

103014 # 궂시락?

103014 @ 예 궂시락으로.

103014 # 거뵈 궂시락은 모두아 뵈 뵈자. 불도 못 삼꼬. 불 붓정 뵈겨부는 거주 뵈.

103014 @ 불 붓져그네예.

103014 # 응.

103014 @ 보리 궂스락은 밧디서 어째든 집예는 가져 와신게. 보리 궂스락은예.

103014 # 응, 아 거 보리를 다 싣거 와시난.

103014 @ 거문 정지에 불 숨는 것 뵈기 못헛구나예.

103014 # 응. 궂시락은 안 숨나게,

103014 @ 아, 고시락은 안 숨아.

103014 # 보리짚이나 거 톨루왕 숨아도, 보리짚도 연기 낭 잘 숨지 못 헤여게.

103014 @@ 다닥다닥.

103014 @ 아, 보리짚도 잘 숨지 못허여.

103014 # 응, 여 여 연기나 잘 궂르지나 안허민이. 거 오월 장마예 쫘 축축 헤

노민 영 내만 팡팡 허고이.

103014 @ 연기 예, 거문 ㄴ스락 허곡 보리짚은 그 자리에서 그냥 테워 테워부러마씨?

103014 # 아이, 테우지는 안 헐다게. 그 걸름은 헤도게. 그거 다 흘타난 다음에는 그거 다 무꺼.

103014 @ 묶어그네 예.

103014 # 응, 무경. 다 놀엇당. 놀영. 우이 ㄴ람지 썩우곡 행. 비 안들게 놀엇당.

103014 @@ 쉼막에도 가곡.

103014 # 응, 쉼막에도 길곡.

103014 @@ 돛통시에도 길곡

103014 @ 어, 돛통시.

103014 @@ ㄴ시락은 굴묵에도 가끔 강으넝에 굴묵에 불 썰 떼.

103014 @ 아, ㄴ스락은 굴묵 예.

103014 @@ 굴묵에도 가끔 강. 영 뿌령 쉼똥이영 ㄴ찌 섞영.

103014 @ 거문 보리겨가 잇지 아녀우파? 보리 아간 쓸 헤난거.

103014 # 겨어?

103014 @ 이거는 양식?

103014 # 응?

103014 @ 돼지. 도세기 양식?

103014 # 어어. 그거.

103014 @ 도세기 양식 양석예.

103014 # 보리채.

103014 @ 예, 보리채. 보리채. 양석으로 허고예.

103015 @ 삼춘예. 보리농사 헤난 것 중에 추억이나예 경험. 재미난거나 고생시러워 난거나. 아이고 신경질 나나거나 이시민. 혼 꼭지나 곱아줍서.

103015 # 아니 제일 신경질 난 게이. 이 오월 장마에 보리 수확을 거이 허게 돼여게. 거 허당 보면은 철이 좀 앞뎡기거나 뒤뎡기거나 보리가 빌 떼 돼민 비가 잘 온다 말이여. 게민 그제 제일 성가신 거주.

103015 @ 비가 와서 예.

103015 # 응, 아 보리를 적저 노민 어떻 헐거니? 그거, 다시 물려야 돼고이. 헤가면은 또 그거. 헤 가면 자꾸 고구린 떨어져 불고.

103015 @ 애석 헤그네예.

103015 # 으, 그거.

103015 @ 맞수다. 안타까움이 그거다예.

조 농사

103016 @ 그러면은 예. 이제 조, 조 농사 지으레 가 보게예. 조도 농사이거 조

농사 짓젠 허민 준비가 어떻 됩니까?

103016 # 조는 여름 여름농사거든 저거. 게난 그 여름에니까. 풀이 많이 나. 밧 데이.

103016 @ 풀 예. 밧디예.

103016 # 게난 풀 메어뒤그네. 게난 옛날 요세 ㄱ추룩 제초제 잇이민 제초제 확 뿌려으네 허민 종주만은. 그전에는 제초제가 엇인 때라 노니까이. 그 걸 흐든지. 경 아녀면은 밧을 갈아그네 얹어 노으민 풀이 죽어이. 경 형. 헛다그네. 다시 혼 번 갈 주. 두 불.

103017 # 두 불 갈아가지고. 게난 별로 그 조 혈 떼 걸음이 필요엇나 여름이니까이. 여름 농스니까. 조 혈 때는 걸름이 필요가 없어서. 그 조 커 가면은. 요세는 그 비료 해당 혼 번씩 뿌렁그네 흐는 수가 잇엇주만은. 비료 나오기 시작 흐니까. 거 유한 ㄱ뜬 거이. 이런 비료 나온 때 그. 질소질 나온 때. 그 멀 헤그네 조가 나 민. 그것도 혼 세 불 검질 멘 다음에. 비료뿌리는 거어.

103017 @ 예.

103017 # 경 헤그네. 뭐 익으면은. 역시 그것도 비어노왕 무경. 조는 홀트지를 못허여. 홀테론 이게 안 뿌리저. 게니까 호미 세워 노왕에. 영 조근조근 고구리 심 영. 영 찼라.

103017 @ 예예 고구리로예.

103017 # 고구리로 찼라. 경 찼랑 흐면은. 저거 멩텅이라도 막 담양 낫당. 거 도 깨질을 해야웨여.

103017 @@ 멩텅이 써보라 멩텅이.

103017 @ 조 씨는예. 조 씨는 그냥 집에 저장 헛다그네 뿌리는 거 아니우파예?

103017 # 응, 작년 수확 헤여 흘 때 조씨는 딱로 보관을 헤여. 이 조는 이 고고 리로 헤영. 조는 고구리로 무경 돌아 메영 낫당 허든지. 그렇지 안 허문 조를 헤 가 지고 딱로 이제 곶앙 먹어불민 씨가 안웨니까. 곶지 안 행 잇어야 씨가 웨거든.

103017 @ 예예.

103017 # 경 흐니까 그.

103017 @ 그거를 무슨 단지 같은데?

103017 # 응.

103017 @ 아니면 담양 봐 뵈다그네예 단지에 헛다그네 허는거고.

103018 @ 조씨 가는 방법을 곶아줍서.

103018 # 경 허난 여름.

103018 @ 언제. 여름 어느 때 쫌인고예.

103018 # 유 월절이주 뭐.

103018 @ 유 월절예.

103018 # 유 월절 이 삼 일 바로 전에 가는 거난.

103018 @ 아, 이삼 일 전에예.

103018 # 으, 전부 유 월 전부엔 허면 저, 가시아방 봐도 또꼬망으로 절 헌텐소리 못 들었구나. 바쁜 때라이거여 그 때는 여름 농스허젠 허문. 거 요즘은 유월절 허문 별로 뭐 바쁜거 못 느끼는디. 그 때는 유월절 기준으로 허영 밧 불리고.

103018 @ 유 월절 전에 허고. 그 가는 거는? 그냥 밧을 그냥.

103018 # 으, 갈아 노왕.

103018 @ 예 갈아그네에.

103018 # 갈아 노와그네 이제 믱쉬 잇잖아 믱쉬 몰테. 그 테우리가 그 밧 하나 불리면은 천 평짜리 하나 불리면은 얼마 해서 그.

103018 @ 으, 샅이.

103018 # 얼마 받아 가지고 그 몰덜 때를 몰고 온다 말이여. 몰 몰앙 초불을 싹 싹 불을 갈아 논 거를 그 평메 지와노코. 그 다음 씨를 뿌리주게. 응, 씨를 싹싹 뿌려그네 다시 싹 불 불령 허면은 다 돼는거라. 게난 웨 불리느냐. 땅이 이제 북삭지므로 이걸 땅을 뒤흔게 만들엉. 강 하게 만들어그네 허젠. 경 해야 조씨가 잘 서곡 든. 씨가 여물어 여물고 조가 여물게 돼기 때문에 조가 불리는 거라.

103018 @ 아, 불리는 거라예. 거문 밧 불린텐 허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예.

103018 # 응.

103019 @ 그 조씨는 또 집안, 집 사람이 뿌리는 것과? 몰테우리가.

103019 # 아 게 뿌림도 허곡. 테우리가 온 때. 테우리가 잘 뿌리주게.

103019 @ 잘 뿌리고.

103019 # 으, 그 테우리 그 소위, 저 그 몰 몰앙 온 사름이, 아무래도 남자니까, 삭삭 잘 뿌리주. 게난 잘 뿌렸느니 안 뿌렸느니 허는건 나중에 보문 다 알아지는 거니까.

103019 @ 예예.

103019 # 씨 난거 보면은. 아이고 이 밧. 춤 씨 잘 뿌렸저. 영 행 다 그 밧 보면서 다 이예기 허거든게. 아이고 이건 다 씨엇언. 저딘 간. 떨어버시 허명.

103019 @ 이 잘 뿌리는 사름은 정씨엔도 험니까? 한씨엔도 험니까?

103019 # 아 아니.

103019 @ 잘 뿌리는 사름은?

103019 # 그 정씨로 뿌리느냐, 춤 좇게 뿌리느냐. 으응 이거라. 정씨, 뿌리는 사름이 정씨가 아니라 이제 그 춤 별로 간격이. 이제 춤 쪽 고르게 잘 뿌리느냐.

103019 @ 아.

103019 # 이제, 춤 좇게. 검질 메기 어렵지만은 춤 좇게 뿌리느냐 이거주. 정씨로 뿌리느냐 좇게 뿌리느냐.

103019 @ 아아, 정씨로 뿌리느냐 좇게 뿌리느냐. 아, 우린 정씨엔 헌게 따로 잇인지?

103019 # 정씨가 씨를 뿌려. 으응. 그건 그, 정씨로 뿌리느냐 허는게. 그 춤 소

위 모종, 묘를 속음, 얼마 속으지 안혀게 아주 정식으로 딱딱 간격이 돼여잇게 해서 뿌리는거. 거 잘 뿌리는 거주게. 계난 잘 못 뿌리민 이거 실수로 허카부텐. 좀 좇게 뿌려불민 검질메기가 꺾어. 그 씨 속으젠 허민.

103019 @ 속아그네 읍겨 심어야돼곡.

103019 # 아니 읍겨 심엿은 안돼여. 저거 여름이나 놓으니까이. 거 메어 놓으민 그걸로 꺾이주 뉘.

103019 @@ 속앙 영 속아그네.

103020 @ 저기 조 조 그 밭을 때는데.

103020 # 조 밭지 안현다게.

103020 @ 조밭은 밭지 안혀여마씨?

103020 # 아니 밭지 안현다게. 거 불러부는 거주. 믱쉬로 거 행 강하게.

103020 @ 믱쉬로 불러 부는거 밭갈 때 불러 부는 것일 뿐이고예.

103021 @ 조밭 김메는 거. 이거가.

103021 # 게메 김메는 거는. 그 저거 해서 혼 보름만 돼면은 츠 불 들어얏안 메기 시작 헐 거라. 나도 그건 잘 모르키여마는. 어 조블렁 낭 혼 보름만 돼여가문 게민 메기 시작허여. 경 행 초 불 다 메여문. 그 다음 혼 일주일이나 혼 열흘 잇당 또 두 불 메주. 계난 세 불 깎지 메불민 조가 막 세불 메어 가민 조가 막 크 주게. 커가도 조 커가도 밑으로 검질이 나오질 못 허주.

103021 @ 아, 크니까예.

103021 # 농사 텅. 그 주 종목이 커불민 그 밑에서 나는 잡초는. 그늘져 벼도 안나곡게.

103021 @@ 맞수다 그늘져 불민.

103021 @ 계난 초 불 허고 두 불까지는 검질이 나는디예. 두 불까지는.

103021 # 계난 세 불에는 주로 씨 속음을 주로 허주.

103021 @ 아, 씨 속음 예.

103021 # 응, 세 불 멜 때는.

103021 @ 씨 속음예. 세불 허면은예.

103021 # 그 때는 막 알 높아 그네이 아이 덜토 못 메곡.

103021 @ 아 커 부니까예.

103021 # 응.

103023 @ 그 수확은 예. 수확 할 때, 베고 묶으는 거는? 또 이거는 보리 허고는 또 다르니까예.

103023 # 아이, 것도 마찬가지로.

103023 @ 조는 그냥 우에 고구리만 홀트는 거니까예.

103023 # 아니, 밑에서 부터 다 베여. 거 조짚도 써야 돼니까.

103023 @ 조짚도 써야 돼니까. 밑으로예. 호미로예. 호미로 헤 가지고. 호미로 녹졌다그네 그걸 묶어야 되니까.

103023 # 어느 정도 몰르민 무꺼.
 103023 @ 그 조 묶으는 거는 또.
 103023 # 조조 무끄는 거는.
 103023 @ 조짚으로?
 103023 # 그 조짚으로 조 고구리 잇은 거로 오그려다 낡. 무경. 께 헤그네 짚렁.
 103023 @ 예.
 103023 # 이디서 무끄는 사람들은 잘 무끄메. 여자덜토 잘 무꺼.
 103023 @ 예 묶으는거예. 계문 이거 한 바리에에는 이거는 혼 바리가 어느 정도 들어 가는고예? 혼 서른 묶음.
 103023 # 응, 거이 혼 바리는 서른 단으로 허주. 출도 서른 단.
 103023 @ 응, 보리도 서른 단예. 보리나 조나 무게는 다르진. 바리는 무게로 허는 다르진 않겠다 예.
 103023 # 응, 계난 저거 바리엔 혼게 뭐냐면 쉼. 소 혼나에 시끄는 양이라.
 103023 @ 예예. 소 하나에 싣그는 양예.
 103023 # 혼 바리엔 혼게.
 103023 @@ 구르마 구르마에 혼 번 시끄는 거.
 103023 @ 구르마.
 103023 # 아이, 계난 혼 바리 단위가 소 혼 므리에 시끄는 양이 혼 바리라. 몰라 그것이 거짓말사 해점신지 모르주만은.
 103023 @ 아니 거 맞는 말 마씨. 바리에? 경 혼곡.
 103024 @ 타작예. 저 타작은 어떻 험니까? 아까 처음에는 이삭을 고고리로 베고.
 103024 # 어, 거 조 코고리를 마당에 노아그네. 그 저 도께질을 해야주게. 이야 흥아 허멍.
 103024 @ 아, 고고리를 베어난 후에,
 103024 # 아이 그 고고리를 짤랑. 고고리만 마당에 놔그네 두두렁. 그 쫄을 빼논다 말이다.
 103024 @ 예 이야 흥으로예.
 103024 # 응, 조를 조를 빼네영.
 103024 @ 이거 험 때는 타작, 도리께로 허는 것과?
 103024 # 응,
 103024 @ 아, 도리께로예. 덩드렁 마께는 조는 덩드렁마께 허지 안습니까?
 103024 # 응?
 103024 @ 덩드렁마께.
 103024 # 덩드렁? 덩드렁마께엔 곶아. 덩드렁마께엔 혼게. 덩드렁은 저 바다에 돌. 그게 덩드렁이고 마께는 그 우이 그 나무로 만든 그 마켄데. 그걸로 아녕. 도께로 거이 허주.

103024 @ 도끼로?

103024 # 그거 그걸로 허젠 허문 멧 날 멧 흘. 조도 하영 헤불민. 멧 섬씩 헤 부르민게.

103024 @ 거문 이 던드렁마께는 나중에 막 헤난 다음에. 그 안 빠진게 이시민 그걸로 했구나예. 나중에나예?

103024 # 응.

103024 @ 응, 주된거는 도리께로 허고예.

103024 # 응, 그거 돌르지 안 허민은 잘 떨어지지 안 허주게. 돌르민 폭삭폭삭 떨어져.

103024 @ 아, 잘 들령 예.

103025 @ 줍쓸 장만은 어떻?

103025 # 게메, 줍쓸 장만은 것도 그 저 거시기에서. 저거 거 옛날도 정미소가 허낙씩 잇긴 잇어서. 우리 할 때도. 거 도일이 아버지가 정미소 헤낫주. 예, 고성 처 음.

103025 @@ 기껏방이엔.

103025 @ 게난 그거 허기 전에는 경 헤도 집안에서 다 헤 실거 아니우파?

103025 # 응, 다 ㄴ레로 굴안. ㄴ레로 굴곡. 몰ㄴ레서.

103025 @ 조도 예? 물 흐뭇씩 뿌리명.

103025 # 어떻사 헤신디. 그건 나도 몰르곡. 걸랑 넬 저녁이랑 우리 할망신디 들으곡.

103025 @@ 예예.

103026 @ 저기 줍쌀로는 저 무엇을 뭘 만들어 신고예.

103026 # 밥 헤 먹고게.

103026 @ 예.

103026 # 이 조팝이 좋기가이.

103026 @ 음, 조팝예.

103026 # 거 조팝에 감저쫄 낱. 거 헤 노민. 폭삭폭삭 춤 맛 잇주게.

103026 @ 떡 허고예. 오메기 떡.

103026 # 응, 오메기떡. 아, 줍쓸론 뭘 못 혈거 없어. ㄴ루 굴민.

103026 @ 예, 감주허고 줍쓸로 해야 청주허곡. 감주 만들고 집에서 또 술도 만 들고. 또 고소리도 내려 나신가마씨? 아니면 술만.

103026 # 우리 할망 헤 나실거라.

103026 @ 아예. 그거는 이제 들어 보고예.

103027 @ 조짚은 어떻 활용?

103027 # 아, 조짚도 마당에도 깎곡. 저 거시기 변소에도 노곡. 또 쉼도 주곡. 쉼막에도 깎곡. 거 뭐 다양허게 썬주. 조칩.

103027 @ 결국에는 조짚은 저기 불 숨으게 허는거 보다도.

103027 # 응, 불 솜우는거. 이 마당에 끌었다으네 들여당. 불 솜앗주게.

103027 @@ 막 뭉근거.

103027 # 응, 계난 그 옛날은 마당에 전부다 흑 땅이라 노니까이. 그거 안 끌민 먼지 나고 뭘 해서 다 조짚으로 헤영 그 끌앗주게.

103027 @ 계난 거문 조 농사는 다 돼고 이제 장만도 다 해시난에.

103028 @ 여기에 또 이제 삼춘님이 경험, 추억이나예. 조로 헤여그네 헨거는. 제일 좋은 거는 조팝 먹는거?

103028 # 응, 조팝 먹는게 좋앗주.

103028 @ 예, 조팝 먹는거예. 저기.

103028 # 그 당시는 우리 쫄밥, 계난 우리집이도 제사를 춤 열 여남은번 이상 종손집 이라 부니까. 아 그 때는 이 우리 예, 고조 깎지는 지체를 허게 돼어지 안헤 샤게. 고조이상은.

103028 @@ 예예.

103028 # 겐디 증조할망이 살아시민 고 고조고 옷대를 지체를 못허여, 경허니까 이 제사가 막 늘어나 낫주. 경 허난 춤 싯게 떼나 올케 곤밥 맛볼 정도니까게.

103028 @ 곤밥 먹지 못허곡 조팝예. 맞수다.

103028 # 이 조팝도 흐린 조팝 해서 올케 허문 맛 잇어 그거.

103028 @ 흐린 좁팝예. 착착 흘트곡 좁쌀로 흐린조로 죽도 췌 먹지 안읍니까?

103028 # 죽도 췌 먹주게.

103028 @ 죽 췌그네예. 죽 쭈고, 이 감기나 흐끔 아파그네 잘 혈때 모믈죽 보다 많이 먹읍니까? 조죽으로.

103028 # 아니 아니 그건 이 패마농 잇지 안 허느냐. 이 저 것 곶아 쪽파이.

103028 @ 예 예 패마농.

103028 # 그거 헤그네 그것에 행 깎찌 췌 먹어낫져.

103028 @ 모믈로.

103028 # 모믈죽.

103028 @ 아, 그건 모믈로예.

103028 # 모믈죽이라고 그거 춤.

103028 @ 예, 맞수다. 열 폭 나곡예.

콩 농사

103029 @ 그다음 콩 농사 지어보게예. 콩 농사 예. 저기 콩농사 갈젠 허문 준비를 해야 되지 안 험니까예? 콩씨부터 시작 헤여그네예 장만헨거.

103029 # 콩씨사 뭘. 작년에 씨를 자기가 갈아난 중 뭘, 다른디 간 사는거 업시. 그자 이년 지어난 것에서 씨를 냉경 두는 거주게. 보관 헛다가 그 때는 경 안 험 허면은 어디 강 좀 사당 늬 씨 허당 남은거. 씨는 절데 문저 늬 아니주어. 이년이 갈아난 다음에 늬를 주지. 씨는 그렇게 해서 흐면은 늬 갈아나면은 강 사다가 흘수

도 있고. 게 대부분은 지가 작년에 진 것을 낚다가 허주. 겐디 콩이 갈기가 제일 수월해여. 콩씨 뿌령 갈아 불민 돼니까. 것도 걸름도 필요 없고.

103030 # 여름에 혼 팔 월 달에 썸 갈거라. 몰라 요세는 콩 가는 것도 막 시기도 이제 새로워져 가지고. 저 조 불려그네 잇당 가는 거난에, 쏘끔 늦게 갈 주게. 경 흐면은 콩도 이제 이파리가 막 커 부리면은 알에 검질 안 메도 그자 텅기멍 그우에 쭈쭈쭈쭈 허거나 메어 불민인. 그자 검질도 하영 안 메고. 경 팔 월 달에 콩, 올라 그네 꺼경, 콩은 꺼끈뎡 허여 또 호미로 비어도 꺼끈뎡 허주이.

103031 @ 콩밭 거름 잇잖으파예?

103031 # 거름 안 헌다게,

103031 @ 거름 안 해여.

103031 # 요세는 그 콩밭. 콩에 주는 비료가 나와서.

103031 @ 응, 비료.

103031 # 그게 소위 인산은 하고 그저 질소는 적은거.

103032 @ 콩씨 뿌리는 거는예?

103032 # 콩씨도 아무나 뿌리는 거주 무신.

103032 @ 아무나예? 경 해도 딱 그 밭이 천 평이다라고 허면.

103032 # 아, 그 밭디 계속 자기가 농스를 지으는 거니까.

103032 @ 간음을 허지예?

103032 # 응, 딱 이기는 혼 말 지기여. 두 말 지기여 흐는게. 그 다 그 경험에 의한 씨의 양을 말 허는 거라. 혼 마지기여. 두 마지기여 흐는게. 것도 그 농사 종류에 따라서 그 마지기가 틀리주마는.

103034 @ 처음에 콩 밭은 몇 불 저기 몇 불까지 검질을 메신고예. 두 불 이것도예?

103034 # 두 불 안 멘다게. 콩은 갈앙 처음에 갈 적에만 잘 메불민 콩은 빨리 커부는 거니까. 나서 콩잎이 팍팍 퍼져 버리면은 검질 벨로 안 메여.

103034 @ 예에 퍼지면은예. 검질이 맞수다. 콩밭에 검질들이 잘 아니 나긴 허주만은 경 해도 콩밭에 나는 검질이 이서예.

103034 # 응.

103034 @ 콩밭 검질예. 어떤 검질인고예?

103034 # 콩밭디 나는 검질.

103034 @ 요즘 강아지 풀 이렌.

103034 @@ 쉼비름.

103034 # 거기에 그, 그전에 그 유채 갈아나면은 유채늑물이 거 좀 잘 나주만은. 거 유채나 안 갈아난딘 별로 그 잇당. 그 데우리 그든 것도 쏘끔 날 수도 있고. 뭐 나 거 몰르키여.

103034 @ 예, 데우리예.

103034 @@ 콩밭딘 그렇게 검질 메질 안 해.

103034 # 응, 콩잎으로 딱 덮어지면은.

103034 @ 아까는 데우리 데우린지 이걸 확실치 않은거예.

103034 @@ 무신 잡풀 ㄴ치 영 잡앙 빼영. 어디 고랑드레 텃겨불고.

103035 @ 수확은 어떻 험니까? 아까 콩은 꺾은덴 했잖아예.

103035 # 으.

103035 @ 꺾고.

103035 # 꺾꼬.

103035 @ 예 다 묶영.

103035 # 게민 다 무경. 것도 도끼로 두드렸주. 것도 그전에 요센 타작기 잇이 난. 팡팡 해 불민 뗏주마는 옛날에사 다 도리께로 헛주.

103035 @ 도리께예. 도리께.

103035 @@ 마당에 시꺼 다 낱,

103035 # 마당에.

103035 @ 콩 묶으는 거는 이 때는 콩으로는 묶으지 못 허난예.

103035 # 응, 거를 껴를 세로 멘들아 와야돼여.

103035 @ 껴?

103035 # 응, 거 무끄는 것 곱아 껴엔 허주.

103035 @ 껴예예.

103035 # 게난 셀 비어 오든지 뭐.

103035 @ 새로 허든지 아니면 보리 찢을 놔 두었다가.

103035 # 아니 보리 찢으로 못 무꾼다게 보리짚으로 껴 못네여.

103035 @@ 그때 다 삭아 불 땀디.

103035 # 응, 삭아부러.

103035 @ 거문 새로 허키여예. 새예. 이것도 이제 한 바리는 어느 정도, 바리는 이것도 서른 묶음, 이걸 더 가키예.

103035 # 아니 콩은 이, 막 세 해당 허민. 세, 막 질 거 아냐게, 게민은 쫄 쪽은 이쪽으로 노코. 영 꺼꾸로 놓으멍 영헤그네 막 크게 무꾼다 이거.

103035 @ 아, 묶으기가 크게예. 양쪽으로예. 저기 하나는 요기 요기는 대면은 대가 이쪽에다 놓고 가오리가오리 허멍예. 그렇게 헤그네.

103035 # 어, 영 행 노아그네 경 행 똥그랑 허게 크게 무끄주.

103035 @ 경 허면은 콩은 뭐 마차에 막 높이까지 실을 정도면은. 서른 무, 묶음 서른 개로는 안 허키여예 그런 거는.

103035 # 그거는 거 마차에 실으는 거는 것도 마차 허는 사람이 지가 다 알아서 맞게 시꺼가주.

103035 @ 마차에 소가 실을 정도로예.

103036 @ 콩으로는 저기 머 무얼 해신고예. 콩 메주 담기.

103036 # 메주, 콩늬물.

103036 @ 예. 콩늑물이엔 험니까? 콩지름이엔 험니까? 콩늑물.
 103036 # 콩지름, 콩지름 옛날엔 콩지름 콩지름 헛주.
 103036 @ 콩지름예.
 103036 # 응.
 103036 @ 콩주름? 콩지름.
 103036 # 지름, 콩지름
 103036 @ 콩지름.
 103036 # 콩지름 논넨 헛주게. 아 그 옛날 말론. 지금이야 콩늑물 이지만은.
 103036 @ 옛날말로 험사 댜는 거난예. 메주, 그리고 둠비도 험신가마씨?
 103036 # 두부도 헛주.
 103036 @ 둠비, 옛날 말로는 둠비? 또 저기 콩가루 험그네 어, 겨울에 콩국 허
 댜이예.
 103036 # 아, 콩국수도 험 먹고게.
 103036 @ 콩국수 집이서 먹어 나수과? 옛날에는.
 103036 # 나? 몰라.
 103036 @ 옛날에는.
 103036 # 옛날에는 몰라. 어떻사 험실. 옛날 몬 몬 먹어실거여 나도. 나나.
 103036 @ 콩국수 말고 콩국은 먹엇주. 하영 먹엇주 예. 콩국 겨울에.
 103036 # 아 게난 콩죽은 그 풋죽이주게. 콩죽이 아니고. 쟈디 저게 그 메주허
 곡, 콩늑물 허곡. 두부허곡. 그 이상은 나도 쓴 거를 몰라 댜사 험신디.
 103036 @ 삼춘 겨울에 콩가루 놔그네 저기 국.
 103036 # 국에 콩가루 놔그네 먹음도 헛주.
 103036 @ 예, 국에 콩가루 놔그네 콩국예.
 103036 # 응.
 103036 # 경 허고, 콩도 볶양 먹어나지 안험수과게?
 103036 # 아, 게 콩 볶양 먹주.
 103036 @ 콩 볶으기에. 콩 볶음도 허고 콩도 반찬 만들어그네. 어머니가 험서
 장물에 담가그네 장물예.
 103036 # 으, 경 현거, 정 현거 난 뉘. 하영 얻어먹지 못 험부난.
 103036 @ 예.
 103037 @ 콩짬은 어떻 나중에 씨신고마씨?
 103037 # 어, 콩짬은 쉼도 잘 먹고이. 거 조금 험그네 추지민은 비도 햅끔 맛곡
 햅면은 소도 잘 먹고 떼기도 좋고 콩짬은 엇영 못씨.
 103037 @ 예, 불때기이 응.
 103037 @@ 커피 행 오카? 커피도 햅끔 커피도 조금.
 103037 @ 예, 이거 삼춘 이거 좀 드십서.
 103037 # 아, 이거 이거. 아, 저디 커피 먹컨 먹어.

103037 @ 나는 커피 아니.
 103037 @@ 삼춘, 커피 허쿠과?
 103037 # 아니아니.
 103037 @ 삼춘 커피 아니, 이 이거가 물이 흐끔 잇서야 추져야 돼큰게 예. 쉼씩
 일 때는데. 비 흐끔 맞췄예 아, 비 흐끔 맞췄.
 103037 # 지금도 콩짚은 막. 이 탈곡 헤나민 막.
 103037 @ 엇어그네예.
 103037 # 그거 가져 가젠 막 허여.
 103037 @ 소 먹임이 좋아서예. 좋아서 다음 삼십팔. 이 콩농사는 다 지어신디.
 103038 @ 삼춘, 콩농사 헤난 다음에 어떤 추억이나, 뭐 생각 나는거, 가장 콩농
 사 다음에 가장 생각 나는거.
 103038 # 그것도 비 와 불민 망쳐 부는 거라.
 103038 @ 비 와 불민 망쳐.
 103038 # 비 와 불어 거두어들이지 못 허기 전에 비나 와 불이민 사름 정신을
 못 찰려.
 103038 @ 예, 망쳐서 이게 제일, 콩타작 헤그네 콩자루 이만큼 든든 허지안습니
 까? 쓸허고는 좀 달라그네. 콩포대기 막 이렇게 저기 옮겨 옮길때 기분이 막 좋지
 안습니까?
 103038 # 아, 수확 때니까 기분이야 좋주게.
 103038 @ 예. 콩은 몽실몽실 행 헤그네예.
 103038 # 수확이 기쁨. 거 수확이 기쁨이주. 그거 춤 거 예쓰게 헤 낱.
 103038 @ 예.
 103038 # 콩이 얼마나게. 그거 딱 즈루에 담아 노으면은.
 103038 @ 예, 몽실몽실 허고 콩은 경허는 거 닳아. 거난 이제는데, 쪼끔예 확확
 넘어가는 거예.

밭벼 농사

103039 @ 삼춘 밭농사 예, 밭벼 예. 밭벼엔 허지 안습니까?
 103039 # 산디.
 103039 @ 예 산디, 옛날에는 제주도는 게 논밭이 엇어 노니까. 다 산디 아니우
 파예?
 103039 # 응.
 103039 @ 산디는 갈아도 수확도 베랑 하지도 안허고예?
 103039 # 아이. 나중에 종자가 좀 틀린 것들 나와서 잘 돼나서. 그것도 밭벼도
 잘 돼났는데. 거 쫄이 아명해도 산디쫄이 이 벼보단 못 허주게. 거 사락사락허고 어
 디 춤 밥맛이 엇주.
 103039 @ 예, 그렇구나예. 이게 산디 농사허젠 허민 준비가.

103039 # 산디농스도 역시. 것도 여름농스라 노니까이. 거 처음에 막 검질 업세 곡 것도 두 번쯤 같아그네 행. 것도 세 불 검질 메야헤여. 이 조 불리는 거나 거이 비슷하게 허영 수확헤여.

103039 @ 아, 세 번 검질예.

103040 @ 이것도 여름 농사난 한 팔 월?

103040 # 응.

103040 @ 팔 월예. 이것도 뭐 저기 준비는 뭐 씨 준비하고 뭐 밭 가는 거 쉼예. 밭갈쉼 하고 경 허큰게마씨예? 허지전에는 검질을 없애고.

103040 # 걸름도 별로 엇고 겨울농스 헤난디면은 돼니까. 겨울에 걸름헤 헤나 난. 기자 연달아 허는거난.

103040 @@ 그 터에.

103040 @ 예 거름. 넣으니깐예, 놓아서 거름. 팔 월 거 그냥 대중엇이 팔 월에 가는가마씨?

103040 # 팔 월엔 검질 멜걸. 칠 월달에 갈 거라.

103040 @ 아 칠 월? 칠 월예.

103040 # 으, 팔 월 달에 검질 메곡. 헤영 뭐 가을에 것도 수확 허는 거난.

103041 # 산디도 가을에 수확 허주게. 게난 그 산디는 본래 여기도 좋은 땅엔 안 같아. 저 우르 간 갈주.

103041 @@ 예 맞수다.

103041 # 게난 우르 간 가난. 가난 척박헌 땅이고 헤 노니까. 그거를 걸름이라도 잘 헤여그네. 좀 공 들이민 잘 쉼 건디. 이거 돼민 돼고 말민 말라 허는 식으로. 거 웃드르 간 같아 불민. 좀 수확이 저조 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수확이 안되는 거는 아니난예.

103041 @ 예, 웃드르 가기네 허는 거니까네예.

103042 @ 씨 뿌리기도, 씨 뿌림도 어떻.

103042 # 아, 밭 임제가 강 싹싹 뿌령게.

103042 @ 예 임제가예. 임제가 싹싹 뿌령.

103042 # 아, 거 다 뿌려 가면은 다 손에서 맞추왕 뿌려져 가는 거주게. 거 혼 두 헤 농스허는 것도 아니고.

103042 @ 예, 세 번은.

103043 # 팔 월달에 검질 메고 가을에 것도 수확허는거난.

103044 @ 그 검질은 어떤 것들이 어떤 검질이 잇어신고예. 검질예.

103044 # 거 주로 제완지 ㄱ뜯거. 거 주로 제완지가 많주.

103044 @ 저 산디에는 제완지 마씨?

103044 # 으, 거 웃드르니까. 제완지가 많이 나지게.

103044 @ 제완지허고 또?

103044 # 응, 무신 풀이름을 알아지크라. 아, 제완지가 주로.

103044 @ 예, 제완지 주로예.

103045 @ 수확은 어떻 험니까? 수확.

103045 # 수확, 역시 뭐 조 비는 거나 보리 비는 거나 거이.

103045 @ 허고 또 저기, 도리께 이것도 도리께.

103045 # 으, 산딘 그냥 찢차 낱 두드린다.

103045 @ 아, 찢 차.

103045 # 으, 홀트지도 안 형. 그자 찢 차 낱 도리께로 푹삭푹삭 두드리멍.

103045 @ 두드리멍 찢체. 이것도 이거 행 와으네. 이 한 바리 헤 가지고 시경 와그네 마당에서 허는거 아니우파예.

103045 # 응.

103045 @ 타작은예. 이거 묶으는 거는 또 산디는 산디로 그냥 묶으큰게예.

103045 # 응, 산디 산디로 무끄는거.

103045 @ 묶기예? 한 바리로 해가지고.

103045 @@ 잠깐만 잇서 봐, 그거 헐 때 밑에 저 멍석이나 뭐 깎니까? 아니면 그냥 험니까?

103045 # 그냥 그 마당 잘 썰어 텨.

103045 @@ 잘 썰어 텨. 그대로 그 위에 낱으네 멍석 곁은 거 안 끌앙예.

103045 # 응, 멍석은 옆에 끌아. 그 뛰어난거 썰젠.

103045 @@ 거 튀는 거 튼거.

103045 # 응, 그 옆에 깎지 다 해부리면 그디 다 정리를 못 허니까. 그 그 두드리는 디만은 조금 단단 허주게.

103045 @@ 거 다 빗자루로 쓸어으닝에 탄탄허게 헤영 옆에는 멍석 좀 깔고.

103045 # 옆에 돌아가멍은 멍석 다 깔아.

103045 @@ 옆에는 깔고 가운데는 안 깔아. 미안미안. 나 그거 난 그거 흘 떼 까는지 안 까는지 몰라가지고.

103046 @ 산디로는 무얼 허는고예?

103046 # 아, 밥 헤 먹고.

103046 @ 메쌀예. 메쌀, 메밥.

103046 # 으.

103046 @ 또.

103046 # 아, 떡도 헤먹곡. ㄴ루 굴민 떡도 흥곡.

103046 @ 대부분 제사? 먼저.

103046 # 응.

103046 @ 이걸로 산디썰을 흰썰에 백미렌 헤신가마씨?

103046 # 곤썰.

103046 @ 곤썰.

103046 # 곤밥.

103046 @ 이게 희난예. 곤썰 هنگ는 다르니까. 곤썰 곤밥.

103047 @ 이 쫘은 산디쫘은예. 벳쫘은예.

103047 # 것도 거 게난 쫘이 그, 전부가 다 그 소요 웨여. 아 췌도 주곡.

103047 @ 췌 예.

103047 # 통시에도 끌곡.

103047 @@ 맥 안 짜수과?

103047 # 아 그, 맥도 즐앗주게. 산디쫘 헤여그네 멍석도 즐고.

103047 @@ 산디쫘 헤여그네 멍석도 즐고.

103047 # 어.

103047 @@ 멍텅이 멍텅이.

103047 # 멍텅이도 즐고. 방석도 즐고.

103047 @ 방석 예, 또.

103047 # 멍석.

103047 @ 신 신.

103047 # 어 초신도 삼꼬.

103047 @ 예 초신도 삼꼬예.

103047 @@ 그 ㄱ레 굴 때 똥글랑 헛거 무시거렌 헛니까?

103047 # 어디? ㄱ레 바닥에 깣는거?

103047 @@ 예.

103047 # 것도.

103047 @@ 멍석.

103047 # 멍석 ㄱ뜬 건디, 그건 멍칭은 딱로 잇어 그거.

103047 @@ 거 잇지예?

103047 # 으, ㄱ레 밑에 끌아그네.

103047 @ 똥그랑헛거.

103047 # 똥글락 헤그네 그 ㄱ레 굴아진거 다 떨어지게 هنگ디.

103047 @ 예예.

103047 @@ 거, 넬랑 예펜 삼춘헛티 한번 들어보라. 그 똥글랑 헛 것이 뭇지 모르겠네. 멍석은 너게만쫘헛게 멍석이고.

103047 # 응.

103047 @@ 그 ㄱ레이.

103047 @ 똥근거 이서예

103047 @@ 그 돌ㄱ레 굴 때 똥글랑 헛거 잇는 데 그게 이름이 잇서.

103047 @ 조도 보면은 그기 놈그네 뭇로 덩드렁마께로 이렇게 부수기도 헛고.

103047 @@ 그런데도 잇고 뭇 다양하니까 지역에 따랑. 그게 뭇지.

103048 @ 저기 밭벼 농사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디 심어난에 경험이나 추억이나 좋은거 이시민.

103048 # 어이고 추억이 있어. 얼마 허지도 안 헤나부난 그거.

103048 @ 이거 얼마 허지 안 헤나난예.

고구마 농사

103049 @ 그다음 고구마 우리는 감저엔 했잖아예. 감저농사에. 저기 준비를 어떻게합니까?

103049 # 아, 그거는 전 헤에 고구마를 케면은. 그 고구마 저장 허는게. 좀 쉽질 안 혀.

103049 @ 고구마 아니 감저예.

103049 # 응, 저장허는게, 웨 그런고 허니까. 흑구덩이를이, 혼 이 메다 파야 웰 거라. 파서 그 구덩이에 게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구덩이를 땅을 파서 그 감저를 저장허는 거주게. 저장 행. 옆에 쫓 다 끌고 뭇 헤 가지고 감저. 춤 상처 안 난 걸로 행. 조근조근 노아그네 그거를. 전 헤에 경 해서. 겨울을 냉겨 그디서게. 봄 뒤편은 그 감저를 가져가지고 종자를 이 감저순 나오게, 순을 노아 가지고 그걸 케어야 밭에 가서 심을 수 잇단 말이어. 경 허난.

103050 # 그거 봄에 그 묘종. 묘종 이주게. 감저 묘종을 노아 가지고. 춤 그거 뜻뜻이 뒬.

103050 @@ 감저줄을, 감저줄을 해당 심영.

103050 # 줄을 키우기 위해서.

103050 @@ 묘종을 심영.

103050 # 응, 감저를 걸름 잘 헤그네. 그 조근조근 놓앙 허면은. 감저순이 나서 클거 아니라게. 경 허민 그걸 쫓라당 밭에 밭 갈아그네 그.

103050 @ 허잖아예?

103050 # 밭 이렇게 행 심어 노으면 감자가 들거주. 거기에.

103050 @ 그 묘종 저기 묘종을 허젠 처음에 순 저기 나젠 허면은 심는 거를 뒬 신거엔 됩니까? 그냥 감저순 낫저 됩니까?

103050 # 아, 묘종.

103050 @ 묘종 낫저 됩니까?

103050 # 으, 감저 묘종 밭이 주게. 그게.

103050 @ 감저 묘종밭이엔 헤수과? 그 옛날에도 묘종밭이엔 헤수과?

103050 # 으, 감저순을 키우기 위헌 거주게. 게난 그 감저 묘종이 잘 뒬야 감저가 많이 달리고 그 묘종에 따라서 농스를 흘 수 잇는 거니까.

103050 @ 게난 감저순은 지력시가 어느 정도까지 정도 키와기네 쫓라다그네 헤시코마씨?

103050 # 게난 그거는 일찍 놔서 뭇 허면은 그것도 유 월절 경에 놓는 거니까. 묘를 심는 거니까. 이제 그, 키우당 보면 막 혼 밭도 키울수 있어. 게민 이거.

103050 @ 쫓라야 되잖아예?

103050 # 이거 이거 찢르면서 다 놔. 크민 클수록 많이 놓주게.

103050 @ 아, 예예.

103050 # 그 묘종이 길면 길수록 다 찢끔씩 찢르면서.

103050 @ 찢르면서예.

103050 # 밧에 심으면은 경 쫄게, 쫄랑 심어야 감저가 많이 들주게.

103050 @ 아, 쫄게, 쫄라사. 쫄게면 혼 삼십 센치마씨?

103050 # 아니 삼십센치 아니라도 혼 십오 센치 쫄라도. 그냥 혼면은.

103050 @ 아, 십오 센치마씨?

103050 # 으, 그 혼 굵들이에 그거. 혼 굵에서 벳끼 감저가 안들어. 요 요만이 찢르메 요기서.

103050 @ 아, 처음에서 예. 계문 심을 때는 이 순허고. 이 순 사이에는 거리를 어느 정도 두어그네 심어신고예.

103050 # 조근조근 심어서.

103050 @ 그냥 조근조근? 예. 조근조근예.

103050 # 응.

103051 @ 경허고, 감저 헐 때는 이거도 이것 거름이 이서야 텔거 아니우파예.

103051 # 감저 헐 때도 여름농스라 노으난 거름은 안헤여.

103051 @ 거름 안헤여예.

103051 # 응.

103051 @ 거름 없고예.

103051 # 그 옛날에는 거름엇이 헤서. 건 기자 잘만 갈앙. 땅 북삭지게만 잘 갈앙 헤여그네. 삭삭 질렁 놔두면은 감잔 잘 들어. 이 근방 감저 잘 들주게.

103051 @ 아, 거름 없이도 이 근방에는예. 근처는.

103051 # 응.

103051 @@ 저, 솔 강알에 저 무시것과?

103051 # 불치?

103051 @@ 불치 안 헤나수과?

103051 # 아 불치를 다 어뎡. 그 천 평 밧에. 만약에 천 평 밧에 불치를 열말 해당 그걸 다 뿌릴 말이라. 그 불치가 그 석훼 거시기로 상당이 좋은 거름인디.

103051 @@ 아 불치 안 뿌려 낫구나.

103051 # 계난 이 나무 싱글 때는 이 불치를 조금씩 낵 싱그민 나무 싱글 펜츰 좋아. 뿌리 발육이 상당이 잘 돼여.

103051 @ 예예 아, 그렇구나예.

103052 @ 고구마, 저기 그 싱글 때는 그 조근조근 허는 디. 이거 다시 이렇게 끈끈 놀르거나 밟거나 허지 경 안헉니까?

103052 # 아니 거 그냥 심영 네불어

103052 @ 그냥 톱 놔그네 흑만 덮어 불영마씨?

103052 # 응.

103052 @ 툇 놓고 후 뒸으곡,

103052 # 아니 영 그기서 쫓끔게. 후 후이 북삭지니까. 손으로 삭 그스민 그 흠
이 파지잖아게. 게민 그레 순 노와그네.

103052 @ 아, 손으로?

103052 # 응.

103052 @@ 손으로 꼭 누르주게. 왜냐하면 고랑이 이렇게, 이렇게 뒸니까. 이
제일 위에.

103052 # 응.

103052 @@ 밧고랑 쩌 위에 허민.

103052 # 이렇게.

103052 @@ 양쪽으로 이렇 허민 꼭 누르주게. 경 허민 쑥들어가. 게민 거기서
후을 이렇게.

103052 # 후 뒸어 불민 뒸는 거주.

103052 @ 후 뒸어 불민.

103052 @@ 맞지예?

103052 # 으.

103052 @ 꺾꺾 눌러지 안 허고예.

103052 @ 안 눌러 납작허게 안 헤도.

103052 # 게게, 그냥 후 헤불면 경 헤도 다 살아.

103052 @ 경 헤도예. 어느 지경에는 눌러야 된테.

103052 @@ 밧고랑에 이렇게 뒸면.

103052 @ 예예, 경 헤도 푹 눌러야 된덴 말을.

103052 @@ 아, 눌러는게 아니고 손으로 꼭 쩌르는 거.

103052 @ 거 쩌르긴 허는디. 헤난 다음예?

103052 @@ 이거 납작허게 뒸면은.

103052 @ 그거를 경 헤도 영 이거를 꼭 푹 눌러사웁덴.

103052 @@ 아니 그게.

103052 # 아이. 후 삭 쩌와불민 다 살아나.

103052 @ 응.

103053 @ 김 메기는 고구마 밧디 검질은 ?

103053 # 거 흔 번쑹 메여.

103053 @ 아, 흔 번 흔 번쑹.

103053 # 흔 번쑹 그 고랑에 가그네 영 나오는거 메여 불민 그것도 또 감젓줄
번성헤여 불민 다른 검질이.

103053 @ 예. 그 경 허곡 검질은 아까 어떤거 정도? 검질은 어떻게 종류 같은
거 이수과?

103053 # 아이고, 검질은 어떻 것들이 잇는지 나 몰라게.

103053 @ 것도 들어 보게예. 여칭 삼춘한티예.

103053 @@ 거기는 쉼비눔 같은 것도 있어나서.

103053 # 거 쉼비눔도. 이 뭐 아니 간 떼. 뭐 갈아 불민 안나. 안 갈앙 빈 밧으
로 이실 떼. 예, 혼 오 뉴 월 떼 이거 낱. 혼는 거주. 그 농스진디 쉼비눔 나는 것은
난 별로 안 봐서.

103053 @ 응.

103055 @ 고구마 수확은예. 저기 어떻 험니까? 맨 처음에 고구마 감저줄 걷어
그네.

103055 # 감저줄 걷영. 그다음은 뭐 판으로 안자서 파 가는 거주 뭐.

103055 @ 파는 거는 저기 골쟁이로예.

103055 # 응.

103055 @ 골쟁이로 파고, 또 모당 놔두면은 그거를.

103055 # 경 행 파명 모당 낫당. 그거 용도에 따라서 전분 공장에 보내젠 허민
전분공장 마다리.

103055 @ 마다리.

103055 # 그 헤다그네 답아그네.

103055 @ 담고, 경허고 경 안 허면은 절간 헤가지고.

103055 # 것도 뭐 그릇에 담앙 싣경. 출왓디나 잔디 밧디나. 테역밧 오름 그든
디. 이제 그 출밧 주로 이용헛주. 그 디 가그네 절간기계로 썰영 널엇당 들이면 웨
는 거주.

103055 @ 예.

103056 @ 저기 고구마는 고구마 보관 하는거예.

103056 # 응.

103056 @ 아까는 씨는 경 헛주만은 그냥 일반 고구마.

103056 # 일반 고구마.

103056 @ 것도 마찬가지로.

103056 # 고구마 계난 그계.

103056 @ 구텡이 파그네

103056 # 으, 그 겨울에 먹는 것도 다 구텡이 팡 허엇당. 빠다그네 칭 먹고 허
엿주게. 거 온도 때문에 다 썩어 불어그네그 뭘 못 헤여.

103056 @ 경 헤도 한 이 미터쫘은 파고, 게도 우에 올리는 거 뭐 잇지 안읍니
까?

103056 # 게도 노람지 덮영. 쭉 물 잘 밧게 허영. 노람지 더꺼어그네 물 다 바
깃드레 안드로 물 들게 웨민 다 썩어 불주 계난.

103056 @ 감저씨 보관은예. 집안에 놔 나지 안험디가?

103056 # 씨 보관, 집안에 노민 그계 그냥 이서게? 다 썩어불주. 계난 그거 다

구덩이 속에서 키워. 몰라 육지 ㄱ뜬딘 어땡 흐는지 모르주마는. 여기에서는 뭐 집 안에 ㄱ지 감저 안 들어노난.

103057 @ 고구마로는 이제 절간고구마 허고. 씨고구마 허고. 썬 먹꼬, 썬먹고 또 저기 ㄱ루 곶아다그네, 아 절간고구마 빼떼기.

103057 # 빼떼기 곶아다그네. 그 떡도 해 먹고이. 뭐 흐고 게이까 그전에 여기 이 감저 많이 갈 떼는 거이. 어느 동네 전분공장 었인디가 었엇주게. 고성도 잇섯고 신양도 잇섯고 저 온평. 어느 부락 었인디가 없엇서. 경 흐니까 거다 공장에 가서, 전분 만드는데 사용 했으니까 그 고구마가 처리가 됐주. 절간만 허젠 해도 처리하지 못 허여. 거 플리지 못 허영.

103058 @ 고구마 줄기는데.

103058 # 응?

103058 @ 고구마줄기는.

103058 # 저 췌.

103058 @ 췌 먹는거예.

103058 # 췌 사료가 일등.

103058 @ 예 췌먹이예. 이것을 이것도 다 가져 왕. 놀 놀어그네예.

103058 # 응.

103058 @ 놀, 놀에 놀엇다가. 이거 똥그락 똥그락 허게 묶어그네예. 그 놀엇다 그네 흐나 썬 흐 단 썬 똑똑 빼면서예.

103058 # 응.

103058 @ 고구마 줄거리 저 쏘양 먹어 본 기억은 이수과?

103058 # 응, 고구마순게.

103058 @ 순예.

103058 # 응. 영 나온거 해영 꺾덕 뺏겨 뒤킨네 다.

103058 @ 솟양.

103058 # 응. 거 먹으민 다 좋은 건디덜. 그거 흙이 어려와.

103058 @ 예 맞수다.

103059 @ 이것도 고구마 농사에 대한 그 저 기억 같은 거 경험. 아까 뺏테기.

103059 # 나도 절간은 해 봤는디. 거 춤 이 비와가민 난리라. 거 거게 날씨가 이 농스엔 현건 하늘이 안 도와정은 좀체로 이 흐기가 힘든 거주게. 이거 아무리 잘 됐자. 거 뭐 흐 번 비오랑 망쳐불민 모든 게 파산이라. 일 년 네네 고생 허당도.

103059 @ 비와 낭예. 밤이 막 비 맞으면서 그거 들이레 가낫주예.

103059 # 그거 가주게 그거, 해 논 다음에는 뭐 비 왓직 흐면은 들곡.

103059 @ 아무튼 일주일 동안은예. 일주일 동안 해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른 농산데예.

기타 농사

103060 @ 수박, 농사 저기 해 납디가?
 103060 # 에이, 그런거 안 해 봐서.
 103060 @ 수박 안 허고.
 103061 @ 참외 농사. 참외 경 해도 집에서 먹을거 수박 흥끔씩.
 103061 # 에이 그것사 흥주게 우잣애,
 103061 @ 예.
 103061 # 우연네 그런거 흥주만은.
 103061 @ 우연이엔 험니까? 우연?
 103061 # 으.
 103061 @ 아, 우연이예.
 103061 # 응.
 103061 @ 예.
 103061 @@ 우영 우영.
 103061 # 우영에, 그 집주위에 땅을 말 허는거라.
 103061 @ 예예, 그걸 우연이엔 험니까? 우영?
 103061 # 우영.
 103061 @ 응, 우영 우영이서예 수박허고 참외도 흥끔씩 허고.
 103061 # 아, 이제는 다 미깡남 심어부난 흥는거 엇어.
 103062 @ 옛날에 고추는 어떻 심어수과? 고추.
 103062 # 고추도 마찬가지로 아, 고추도 씨로 헛주게. 씨로 모종 낳.
 103062 @ 예.
 103062 # 짝끔 흥게 모종 낳다그네 그거 흥나씩 행 심엇는디, 요세는 다 모종 사당 다 심어부난.
 103062 @ 예 그때도 이제 고추는 김치 허젠 허문 고춧ㄴ루 쓰젠 허민 경 해도 흥끔 심어사 될거 아니우파예?
 103062 # 응. 흥쫄 심엇는디.
 103062 @ 흥쫄 심어.
 103062 # 고치가 제주도예 고치가 그렇게 안웨나서이.
 103062 @ 예예.
 103062 # 아니 요즘은 막 그 물린는디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이. 아, 여기는 놔두면은 허열게 고치가 웨버리곡 거 고치가 빨강게 잘 물리질 안허여.
 103062 @ 옛날에도 경 허지 안혜수과예?
 103062 # 젠디 응 요즘에는 뭐 비니루하우스에 허고들 막 잘 물리는 모양이데.
 103062 @ 예 요즘은예. 경 해도 김치허젠 허문. 빨간 색깔은 나사 될 거난에 흥끔 색깔 날 때.
 103062 # 아, 게난 그 고춧ㄴ루 사당 험주게. 거 다.
 103062 @ 아 그 옛날 어머니네 헐 때도.

103062 # 어머니네 할 때도 뭐 사. 그 때도 고춧가루 장시도 잊어나실 테주게.

103062 @ 고춧가루에 흥끔예. 색깔 날 정도로예.

103062 # 흥끔.

103062 @ 우리는 고춧가루도 거이 엇이 그냥 그 소금에만 절여지는거 ㄹ추록
헤그네 먹어봣덴도 허긴 험디다마는.

103062 # 게메.

103062 @ 고추. 배추.

103063 @ 배추는 이것도 하영 안 허고 그냥 저 우연이 헤 가지고.

103063 # 응.

103063 @ 예, 우영에 헤 가지고예. 이거 ㄴ물로 먹는거예.

103064 @ 무수는데?

103064 # 아, 무수도 마찬가지로 그자. 집에 흥쉴 심영 승키.

103064 @ 예.

103064 # 다 승키로 먹젠.

103064 @ 승키로 먹젠예.

103064 # 꼭는 게 아니고.

103064 @ 예.

103065 @ 여기 실제로 지슬. 감자, 지슬, 지슬농사도 이것도 여름에 솥양 먹젠
허민 하영 심어야 될건디.

103065 # 경, 그건 우리 안 헤 봐서.

103065 @ 그냥 먹을거로?

103065 # 응.

103065 @ 솥양 먹을 거 정도로 간식 정도로예.

103065 # 응.

103066 @ 삼춘, 피 농사는 어떻 험니까?

103066 # 피 농스 안 헤 봐서.

103066 @ 여기는 피 허고 상관 엇인디난예예.

103066 # 저 웃드르라야 피를 허는데이.

103066 @ 예.

103066 # 저 수산 이 리 ㄹ뜬디. 수산 ㄹ뜬디는 이게 아주 그 곳인 땅에도 웬는
게 피라.

103066 @ 예.

103066 # 응, 계난 나가 엇날 춤 교레리틀. 춤 엇날 그 제주시 황세왓 글루 헤
연. 그 도리를 좇안 올라간.

103066 @ 아, 도리면은.

103066 # 아 이거, 사름. 그 때 봄에 갈 때 안게로 콤콤혀. 어디가 어딘지 몰
라. 아, 사름은 좇아 간. 뭐 일잇언 가 낫는다. 아, 거기 가니깐. 강벙이 흥고 감저

뺏기 안웬텐 허데이.

103066 @ 아.

103066 # 그 당시 교레.

103066 @@ 교레.

103066 # 강녕이 호고 감자. 경 헨 아이고 그 주인. 소님 간걸로 막. 춤. 갈거엔
도 헛고 연락도 행 갓주만은. 상당이 부담 돼곡. 호룻 즈낙 제우 잔. 돌아나 뻗주.

103066 @ 아, 게문 거기 형편이 막 어려웠단 말이지예?

103066 # 응, 그 옛날게 스삼사건 떼난 스삼사건 곧 지난 떼난.

103066 @@ 도리엔 허문 저 송당.

103066 @ 교레리.

103066 # 교레리.

103066 @ 교레리 예, 경 헛구나예.

103067 @ 경 해도 여기도 믱물도 안 헤 신게예.

103067 # 믱물?

103067 @ 예.

103067 # 모물도 우리도 안 헤 봐서.

103067 @ 안 헤판예. 경 해도 당에 가젠 허문 모물궤루가 잇어야 갈 거니까는
거문 바뀜 먹어실건가마썸?

103067 # 아이 사단 아, 송 당 사름덜 많이 허잖여게.

103067 @ 예 많이 허문 바뀌그네?

103067 # 사다으네 헛주.

103067 @ 예, 사다그네 사다가, 살 떼는 여기 보리허고 저기 믱물허고 바뀌신가
마썸? 아니면 돈으로?

103067 # 게메 그거 꺾지는 몰르고 거 할망덜 호는거난.

103067 @ 예예.

103068 @ 담배농사도 알아지쿠과?

103068 # 아, 우리 하르버지 잇을 적에 담배농스를 해낫어. 담배농스를 헛는데.
아, 여기에서 담배농스허면 담배 바찌레를 저 세화리 갓다고.

103068 @ 아, 바찌레예.

103068 # 응, 세화리 그 당시에는,

103068 @@ 구좌 세화리 아니면은 저.

103068 # 아, 구좌 세화. 겐디 그게 그저 우리 하르버지도 담배를 좋아 호니까.
자기 담배. 그게 살순은 엇고 호니까. 그게 아니면 피울 길이 없으니까 그자. 우리
하르버지 피우젠 아마 헤영 신청은 헤여그네. 얼마 허켄 행. 헤여그네 그거 트당 몰
류왕 앓영 강, 풀고.

103068 @ 아, 이거는 농사지으민 다 밧져난 거구나예. 옛날에예.

103068 # 응, 그것도 전메청에서.

103068 @ 전매청에서.

103068 # 소관으로 거 다 하는 거난에게.

103068 @ 예, 경 헛구나예.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저 삼춘 소. 소 허곡. 말 허곡. 좀 경 해도 알아질거 아니우파예?

104001 # 소 허고 물 허고?

104001 @ 소소 기르는 것에 대해서.

104001 # 에이, 나 거 우리 하르버지 좀 기를 때. 나가 그냥 어릴 때 그자 뭐만 해난 거라부난 몰라.

104001 @ 예, 먹이만 줬다. 쉼출만 줘 납디가?

104001 # 쉼 출 주고 쉼 ㄱ꾸레 가 오고.

104001 @ 아, ㄱ꾸레에 아, 여기서 쉼 ㄱ꾸레는 어느 디까지 갑니까?

104001 # 아 이 그저, 이, 우리 그저.

104001 @ 대수산봉?

104001 # 이이 수산봉이 그 옛날에. 그 전에는 저기가 바로 민동산이라. 잔디 잔디 산 아주 깨끗 헛주게. 아 잔디 그만 나무가 나기 시작현. 나무가 싱그고 뭐 해 부니까. 순 이젠 웬. 아, 그게 잔디로 곱게 가꾸왓으면은 상당히 보기도 좋고, 그 때는 이 저 여기 기르는 우마들이 다 거기 가서 먹엇주게.

104001 @ 음, 예예.

104001 # 으, 소덜 먹이고 뭐 하고 허니까. 나무가 없었는데 이제는 나무 다 잇 어부니까.

104001 @ 으, 거기는 큰 물피렌 헛지예.

104001 # 응.

104001 @ 큰 물피에 쉼 맥이레 가는 거 허고. 소 파는거 그런 거는 모르고예.

104001 # 아, 소 팔고 하는 거는 건, 서로가 팔고 사고하고 이렇게 무신.

104001 @ 으, 팔고 사고, 집에서소도 새끼도 봐나 나 낫인가 마씨?

104001 # 나 낫실테주. 소 질르민 새끼사 나주게 무신.

104001 @ 암소 해 가지고예.

104001 @@ 그거는 이. 내일 저녁에 허는게 좋을 거 같은디.

104001 @ 요거어?

104001 @@ 응.

104001 @ 저기 두 시까지만 허게.

104001 @@ 응? 두 시까지.

104001 @ 두 시까지만 허민 이거.

104001 @@ 아니어. 그 어짜피 남을거 아냐. 남은데 내일 저녁에 헌데, 삼촌이 피곤도 허시고.

104001 @ 삼촌이? 피곤.

104001 @@ 아, ㄱ만이 앓앙 이시니까. 피곤도 허주게. 그니까.

104001 @ 거문 삼촌 집이서 삼촌부터 먼저 말씀 들어난 다음에 예.

104001 @@ 어허, 미안 허우다. 막 쉬는디.

104001 @ 예, 어저께에 이어서 오늘 허는데 오늘은 예, 들일에 대한예, 들일에 대해서 저기 허는디 소 우다예. 소, 췌 췌.

104001 # 으으.

104001 @ 예, 제춧말 허는거는 제주도 말로 곤고, 제주도 말로 질문허고 몰르민. 나도 그거 그 나가 제춧말을 모르니까. 삼촌이 저기 ㄱ립 갈라그네. 것도 고쳐주곡 예. 해줍서예.

104001 @ 소는 기를 때 어떻 기릅니까? 소는.

104001 # 어떻 길봐. 그거야 뭐, 췌 송아지 나면은. 그 췌막에서 기르고. 아, 게난 겨울철에는 췌막에서 기르고. 이제 춤 봄 돼 가면은 드르에 가그네 노왕. 췌 ㄱ끄레 땡기멍. 그 춤 출 밧디나이. 드르에 가그네 그 출 맥이면서 기르고. 뭐 경 흐는 거주.

104001 @ 예 그 겨울에는 췌막이고 여름에는 드르에 올라 가기네예.

104001 # 응.

104001 @ 드르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올릴 때는 마을끼리 헤그네 올라갑니까. 아니면은 소허는 저 췌테우리 한티 멧경 험니까?

104001 # 아니 게난, 옛날에는 요즘은 뭐 목장이 잇엉. 목장에 올려그네 뭐 여름철에 얼마 돈 반앙. 영 허주만은 그전에는 그런게 없었으니까. 동네에서 이 동네.

104001 @ 예.

104001 # 그 부락에서 췌 테가 으라군데 잇엇주게이.

104001 @ 예예.

104001 # 옷동네 테, 이 알동네 테, 이 중동네 테 헤가지고 잇는데 그 테에서. 소위 한 사람씩, 하룻씩 지정헤영 ㄱ꾸렐 땡기주.

104001 @ 예, 테에서예.

104001 # 응, 게면은 돌아가면서 그것도 뭐 흐 자만 ㄱ꾸는거 아니라. 흐루는 이 집이서 ㄱ꾸민 흐루는 또 흐 집이서 ㄱ꾸고. 그 듯날은 또 판집이서 ㄱ꾸고 흐면서. 돌아가면서 ㄱ꾸레 거. 췌 맥여그네 즈낙인 들어오민 집에.

104001 @ 이녁 집에 들어가고예.

104001 # 또 메엇당 또 듯날 아척은 또 보네곡. 경 흐는 거주게.

104001 @ 예, 거문 그거는 한 몇 월 달부터 시작허영 몇 월 달까지. 달 수로는.

104001 # 그거 봄 나면은 봄 낭 따뜻 헤지고. 그저 드르에 풀이 나 가면은. 풀

이 나야 먹으래 갈 거니까. 풀이 나가고 겨울에 백중 돼면은 아마 다 집으로 들어 올 거라.

104001 @ 백중 되민예. 예.

104001 # 백중까지 백중 더 허긴 헐 거라.

104001 @ 백중꼬지예. 그 백중 때는 백중코사도 해 나신가마씀?

104001 # 아, 다 허주. 건 테우리 별로, 그 테별로 해서 장소 정 해여그네. 다 떡 허곡. 술 가지곡 메를 해여 가지고 행 강. 그거 다 저 백중제를 지넷주. 그 소를 위해서.

104001 @ 예예.

104001 # 가축을 위해서 거 가축잇인 사름은 다 가. 가축 잇인 사름은 안 가고.

104001 @ 안 허고예? 가축잇인 사름예.

104001 # 응.

104001 @ 그 저, 음식 장만은 어땡?

104001 # 음식 장만은 집이서 다 행 가는 거주게.

104001 @ 집이서 쪼끔씩 해그네 예.

104001 # 집집마다.

104001 @ 집집마다예.

104001 # 그 고령착에 해그네.

104001 ## 집집마다 허는디. 영 돌레떡을 형. 앓영 가주게. 영 상웨떡을 허든지. 조오맥일 허든지 원 해그네.

104001 @ 예예 맞수다. 예예 거면은 그기 제 지낼 때는 무슨 순서 같은 거 잇 어신가마씨?

104001 # 아이 그, 순서명 말명 거시기 해서 다 ㄴ찌 절허고 뭐 허곡 해그네. 거 나중에 다 뿔뿌령. 경 허민 되는거주. 무신 크게 형식이 잇엇던 거는 아니라.

104001 @ 아니고예.

104001 # 아 그 옛날 하르방 덜은 형식상으로 헛주만은 우리는 그 형식을 좇지 못해서.

104001 @ 아, 하르방덜은 형식이 잇엇으고.

104001 # 잇엇을런지 모르주게.

104001 @ 아 그거는예.

104001 # 응, 우리가 가면은 그냥 차반지테로 가져간테로 네 봐으네. 그 들판에 딱 아래 자리 깔아그네 다 해그네, 진설헌 다음에 거기서 절 해그네.

104001 @ 절 해영예,

104001 # 응.

104001 @ 절은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104001 # 아, 방향이야. 그 절 여기서도 우의를. 북향을 우의로 보거든. 게난 그 다 북, 옛날 뭐 제 지내는 디도 북향 배 흐고 뭐 허난. 다 북향으로 해서.

104001 @ 거문 절은 그냥 보통 한 세 번 정도 헤실거라예.

104001 # 응, 그 기자 응. 것도 구신 한티 허는 거난네.

104001 @@ 장소 장소.

104001 @ 장소는 그 테우리 그 저 몰아니 췌 췌 맥이는?

104001 # 췌 응 그 때, 테테 뭐엔 ㄱ르면은.

104001 ## 아니, 집집마다 췌 다 네놔. 아척이 몰아가는 그 도나리 사람만 그
흔 자리에 모영으네이. 그 제 지네고, 또 판디는 판디 모영으네 경 해고. 따시로 저
뭘 잇짚으과? 넥인 ㅎ는 거.

104001 # 것 곶아 뭐엔 ㅎ는이?

104001 ## 것 곶아 췌 넥인 ㅎ는 거허곡. 옛날은 거 해낫주.

104001 # 거 승커는 불도 불르고.

104001 ## 귀 끈어그네 귀에 무신거 박음도 허곡.

104001 @ 삼춘네 집안에서 허는 낙인은 어떻 방법으로 해 신가마씨?

104001 # 낙인 췌에 불 달과그네 팍 찢러그네.

104001 @ 예예.

104001 # 털 케와그네 허는 거주게.

104001 @ 것도 표시 자기 집안에 표시 잇어실거라예.

104001 # 아, 표시털이 잇어서. 잇엇인디 난 그건 모르키여게.

104001 @ 예예 삼춘네 꺼는예. 다 테에서 꼭 ㄱ든 낙인을 찍어실건가마씨? 아
니면 집안마다.

104001 ## 아니 다 틀려.

104001 @ 다 집마다 예. 그거는 나중에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나중에 ㅎ고.

104002 @ 삼춘 췌예. 종류를 이름 말 곶아줍서. 무슨 가라말이여 무신 적.

104002 # 아 건 몰이고.

104002 @ 아,

104002 # 췌도 뭐 황소, 어록소 무슨.

104002 ## 쭈소.

104002 @ 응, 쭈소?

104002 # 응, 얼룩소, 식소.

104002 @ 아, 식소?

104002 # 또 무신 소 잇어?

104002 ## 얼룩소 허곡게. 식소허곡. 까만거 뱃기 더 잇어.

104002 @ 뭐 황소, 얼룩소, 식소, 까만소는 아니고?

104002 ## 까만것도 잇주. 무사.

104002 @ 까만소?

104002 # 검은 췌엔 허여게.

104002 @ 검은 췌예. 검은췌. 식소엔 흰 건?

104002 # 그게 다 털로 구분 허는 거난에이.
 104002 ## 식소엔 현 건, 그 검은 털도 잇곡.
 104002 # 노란털도 잇고.
 104002 ## 노란 털도 잇곡, 그 추룩헌게.
 104002 # 그 얼룩어룩헌게.
 104002 ## 얼룩얼룩 헌거 곶아 쑥소.
 104002 # 그 식쇄가 고기가 쥔 맛잇주게.
 104002 @ 아 맛잇는 거예.
 104002 # 그게 지금도 식소만 잇으면 그거 맛이 채고로 좋아. 부드럽고.
 104002 @@ 그 종류가 틀립니까? 종류가 틀린 쇠 아니우파?
 104002 # 응, 게난 지금도 거이가 검은 소가 맛잇텐 허지 아녀게.
 104002 @ 거문 암소는 그냥 암챙이엔 암소엔 험니까?
 104002 ## 암쇄엔 허주 무시거엔.
 104002 @ 숫소는 그냥 수소엔 허고.
 104002 # 부랭이.
 104002 @ 부랭이 거 흥곡.
 104002 ## 부랭이.
 104002 # 숫소는 부랭이 암쇄는 뭇렌 허느니?
 104002 ## 암쇄엔 허주. 뭇렌 곶을 수가 잇어.
 104002 # 아니아니. 거 나이별로 다 틀린다. 거 이제 우리 이젠.
 104002 @ 아 나이별로도 잇구나 예. 나이별예.
 104002 # 음, 사릅 나릅 그 나이가아.
 104002 @ 사릅?
 104002 # 세 살나민 사릅이엔 흥곡, 네 살뉘민 나릅이엔 흥곡.
 104002 @ 사릅, 네 살이면 나릅예.
 104002 # 그 거시킨 나민 금승.
 104002 @ 금승? 새끼는 금승은.
 104002 ## 곧 나민인.
 104002 # 으으,
 104002 ## 곧 난 것 곶아.
 104002 # 응, 곧 나민 금승, 다간.
 104002 @ 다간?
 104002 # 두 술이민 다간. 경 행. 사릅 나릅 헤여그네. 세 살 네 살 영 헤여가는
 겨주.
 104002 @ 예, 경 헛구나예.
 104003 @ 그, 거 소 소를 이용허는 거예. 소를 이용해서 농사일을 돕지 안읍니
 까?

104003 # 응,
 104003 ## 아, 밧 가는거?
 104003 @ 밧 가는 거 또.
 104003 ## 밧 가는 거 왜에 뭐.
 104003 ## 밧 가는 거도 허곡, 그 몰구르마 저 구르마도 허곡.
 104003 @ 구르마 허고.
 104003 ## 남, 저 무시거게 조 불리젠 허민.
 104003 @ 남테허고.
 104003 ## 남테도 허여그네 쉼에 잇경 불림도 허곡. 경 허고.
 104003 @ 남테허고.
 104003 ## 예에 그거.
 104003 # 게난게 고기 이용허곡.
 104003 @ 소 젓은 안 먹어 나신가마씨?
 104003 ## 무사 젓 먹어사주. 새끼 나민 먹어사.
 104003 @ 아니 아니, 사람이 이용헌거
 104003 # 아이 우린 안 먹어봐서.
 104003 @ 아, 소 젓은예. 안 허고예.
 104003 # 소젓 헛자게. 새끼 맥이이가 바쁘디. 그걸 사람이 먹어 불민 새끼가
 켜 져.
 104004 @ 그 소를 길들이는 거 잇지 안우짜? 어떻 허면은 밧 갈젠 허면 잘 길
 을 들여야 되난. 건 어떻게 길을 들입니까?
 104004 # 어, 그건 저 소를 밧 갈젠 허면은. 그 오랑 씹와그네. 그 쉼 등어리니
 이 줄 헤 가지고 뒤에서 큰 돌을 메달든지. 그 뭐 으라가지 그 무거운 거를 메달아
 서 끌고 다니는 거라.
 104004 @@ 훈련 시경.
 104004 @ 훈련 시키는거 예.
 104004 # 훈련 시키젠. 그렇게 해서그 밧 가는 거를 배우주게. 그 소위 말을 들
 게 흐젠 허민 못견더야 사람 말을 듣게 웬거야. 이 모든게 힘들면은 사람한테 굴복
 을 하게 웬 거주. 경 흐니까 그거 막 힘들게 해서 막 끌고 다니고. 막 때리면서 다
 울리곡. 영 흐면서 그 길을 들이는 거주. 경 흐면은 경 흐면서 그, 이제 이리, 허민
 가곡, 와, 허민 서곡.
 104004 @ 예 이러는 가고예,
 104004 # 응.
 104004 @ 와, 허면은.
 104004 # 서고.
 104004 @ 서고 예. 그 삼춘예. 몇 살 때부터 헤 신고마씨?
 104004 # 무신거?

104004 @ 소 길들이기마썸.
 104004 # 아 췌는 다간만,
 104004 @ 다간 되면은 시작.
 104004 # 두 술 돼민은. 두 술민 돼미은 밧 가는 거 배우지 아녀게.
 104002 @ 아, 밧 가는거 배우고예?
 104002 # 그건 나 잘 모르크라.
 104004 ## 부랭이 낭. 아메도게 다간 돼가민 클거난예. 그 때 돼민 ㄴ르칠 거라
 게.
 104004 # 응, ㄴ르칭.
 104004 @ 그 ㄴ르칠 때는 이녁 밧디 강 험니까? 아니면.
 104004 ## 아니 밧디서 아니곡. 그 거는 길예.
 104004 # 저 모래밧. 바닷가에 가서 모래밧 ㄴ뜨면디 가그네 막.
 104004 ## 그런디도 허곡. 잔디 밧디 강. 요세 ㄴ뜨면 잔디 밧이엔 허주마는 옛
 날에사 테역 밧디서 그거 ㄸ스곡.
 104004 @ 예 테역 밧 예.
 104004 ## 경 허는거.
 104004 @ 으셋 말 말곡. 옛날 말만 다 곱아줍서. 옛날 말을 영 허멍 옛날 말을
 우리가 곱라잡을 거난예예.
 104004 ## 게메, 게난 터럭잇인 잔디가 아니고게.
 104005 @ 아까 나이에 대해서예. 다섯 살짜리는 생각이 안남수과?
 104005 # 응, 다섯 설은 다섯 설이라. 네 술 ㄸ지 세 술 사릅 나릅 다섯 설 으
 솟설 헤 가주게 웃터레.
 104005 @ 아, 사릅 나릅?
 104005 ## 사릅, 나릅.
 104005 @ 사릅, 나릅 헤 가지고예. 한 번만.
 104005 ## 사릅, 나릅 허여그네.
 104005 @ 사릅 나릅 예.
 104006 @ 쟁기에 대해서 쟁기에. 그 부분마다 명칭을 곱아줍서.
 104006 ## 무시거?
 104006 # 쟁기. 양중머리 저, 이.
 104006 @ 양중머리마썸?
 104006 # 양중머리엔 현건 소위 핸들이라. 양쪽에서 손 잡앙 헤는거.
 104006 @ 예.
 104006 # 경 허고. 그 우윗 것 곱아. 뭐엔 허여.
 104006 ## 버섭 아래 부찌는 거. 잠대에 부짱 밧가는 건 버섭.
 104006 # 버섭허고 벳 허곡. 허는 디 그 나무를.
 104006 ## 그게 양중머리가 그 것에 부짱 거주. 영 주을 흥게시리 현거 흥곡.

104006 # 게메 그것도 이름이 있어.

104006 ## 것도 있어?

104006 # 응, 그 쪽 옥 허게. 양중머리 부짱 앞으로 쉼 쫓는 그디 고리헤그네. 쉼 뒤 돌아메는 그것도. 이름도 잇곡, 아래 이 영 비슷 돌아 가그네 뱃부썸으네. 보썸 부썸고 헤그네. 흐는 것도 이름이 있어. 이름 잇어도 나 이젠 몰르키여.

104006 @@ 잇어 부런 양쪽에 잇어.

104006 # 거시기 갈 갈기석 무신?

104006 ## 가리석.

104006 # 가리석, 가리석, 양쪽에 그 줄 헤그네. 이레 똥기곡 이레 똥기곡. 허영 그 바로 가게 흐는 것 곶아 가리석이라고 해서. 양쪽에 메어가지고 곶.

104006 @ 부름페엔 현 것도 이수과? 부름페.

104006 ## 응. 부리페?

104006 @ 예. 부림페.

104006 ## 부리페가 아니고 가리석. 꺾사 무시거 꺾사.

104006 @ 가리석?

104006 # 가리석 그걸로 그 말이 그 말일 거우다.

104006 @ 그 말이 그 말예. 양중머리 뱃 보썸, 보썸?

104006 @@ 쉼 뒤에 영킨는 거 무시거엔 험니까?

104006 # 어디? 어 그건 저 명에.

104006 @ 명에. 경 허곡. 이기 쉼 영 흐는 거.

104006 # 어, 그거는 망울.

104006 ## 망울.

104006 # 어 망울. 경 흐곡. 거 뒤 못 먹게.

104006 @ 예, 또 더 엇인가마썸?

104006 # 잇음이사 천지로 다 잇을 거주마는 그걸 생각인 나크라.

104006 @ 옛날엔 집집마다 다 해서 그 저기 저런 박거리에 딱 메연.

104006 ## 그 박거리에 허연 이런 거시기 험 돌아 메엇당. 허여낫주만은 이제 그거 헤어 난디가 언제라게.

104006 # 흔 사십 년도 넘어신디. 그걸.

104007 @ 길마, 길마가 그 가린석인가마썸?

104007 ## 기마?

104007 @ 길마 길마.

104007 ## 기마가 무시거.

104007 @ 질마.

104007 # 질메.

104007 @ 질메 아.

104007 # 그 질메엔 현거는. 쉼 등에 그 나무로 해서 만들어서. 이제 딱 위에

씩와 낱. 그기에 짐을 실르는거라. 게서 질. 진다고 해서 질메.

104007 @ 질메에.

104007 # 등어리에 그저 나무에 영 멩글아그네. 등어리에 맞게 만들영. 일로 가 린석 메고 그 베로 헤그넵에 딱 메영. 거기에 짐을 싣그는 거라. 게난 질메.

104007 ## 게난 뒤에 싣끄주게 질메.

104007 @ 질메예. 경 허곡.

104008 @ 그 다음에 멩에. 멩에가 아짖 곶아.

104008 # 이 목에.

104008 @ 예예, 그거.

104008 # 응, 목에 소 목에 해서 그기서 이제 줄 연결 행. 이레 똥기곡 저레 똥기곡.

104008 @ 줄 연결 해 가지예. 허는 거고예.

104009 @ 목장이 아까 잇어신디이. 관리는 어떻 헤신고마씨? 그거는 주장 허는?

104009 # 아 게난, 목장은 옛날 동네 목장이 잇엇고이. 부락 목장이 잇엇고 그 집안 목장이 잇엇는데. 그건 거기에 해당 쁜 사람끼리 관리 허는 거지. 그 판 사람 덜은은 강 붓덩.

104009 @ 붙어보지 못 허고예.

104009 # 응. 판 사름 가면게. 소 하나라도 오면은 소 먹을게 적어지는다. 먹으 렌 하지 안 허주게 먹으렌엔. 경 하니까 그건 그 동네 목장이나 어디나 허민 옛날 에 다 들언. 그 조합 형태로 해서 그기를 관리 운영을 해 혼거난에.

104009 @ 거난 관리 운영을 허젠 허민. 거기도 서기도 서기보는 사람도 잇곡.

104009 # 에이 서기도.

104009 @ 누게 대표 보는 사람도 잇곡. 서로 분쟁이 나면 그걸 조정하는 사람 도 잇곡.

104009 # 게난 서로 이제 이거 풀이 이젠 다 먹어시난. 이제 다른디 헸다그네 얼마 후에랑 다시 가져오저. 그레 쁜 이제 ㄱ꾸라. 뭐 헸라 해서 그건만 헸는 거지. 목장에 그 아, 쁜 목장이엔 혼 건 쁜가 그 풀 먹이젠 목장이거든. 게난게 풀이 없으면 자꾸 오랑 헸민 그게 다 파불곡. 고갈 돼민 안 돼니까. 이런거 관리 헸는 거주.

104009 @ 그런거 헸는거예. 게 대표렌 헸는 것도.

104009 # 게난 모르주. 접에서.

104009 @ 접 허게 되민 접에 그 계약허는 문세 같은 것도 잇어신가마씨?

104009 # 아, 것사 처음 헸 떼 살 때라든가. 뭐 흘 떼 다 그 밧. 춤 목장 질 사 쁜 헸민 그것도 잇어일거고 헸주마는 우리 그런 것 ㄱ지는 몰라.

104009 @ 그거는 밧 사난 문서주 만은. 운영 허젠 허문 경 헤도 말 밧이 쁜 사 람허곡게. 어느 집엔 소만 가져온 어느 집이 소만 하영 백이곡 허젠 허민.

104009 # 게난 그런 거를 공정이 헸기 위해서 서로 조합허고 서로 의논허는 거

주. 그걸 똑 누게 올게 말발 센 사람만 맥이곡. 뭐 허곡. 헛민게 그게 조합이 돼여 게. 안돼주. 게난 옛날은 협동이 상당히 여기 사람들이 잘 돼엿주게 그 뭐.

104009 @ 예, 거난 그것도 이제 무슨 방법이. 으라 사람이 잊어가면은 규칙도 만들고 헤실 거난. 그런거가 잇인가 해서.

104009 # 규칙도 만들어지고 해서 어떻 허기로 약속들은 다.

104009 @ 헤기네예?

104009 # 춤 문서화가 안 돼도 그래도 말로라도 다 서로가 이제 그 약속해서 모든 걸 헛을 걸로 보주.

104009 @ 예 규칙들도 다 이실거우다.

104009 # 나 팔십 세 헛자. 팔십 년도 엇그제라.

104009 @ 예.

104010 @ 소 마지막으로 기루명예. 추억이나 경험 같은 거예. 지금에 찬찬이 허면은 영 튼네 지는 것들 곁아줍서.

104010 # 아 견디 그, 우리 나 두린 때 뱃기 쉼 ㄱ꾸레 안 다녀낫주. 어릴 적에 쉼 ㄱ꾸레 가민 아, 늙이 감저 과당 구웁 먹는거. 아 이제 춤 소가 어디서 놀다보면은 도망 강. 좇지 못 헤그네 그 예쓰는 거. 아, 이런 경우도 잇엇주게.

104010 @ 예, 그 소 만약에 잃어 버런. 잃리 불언네. 막 좇이레 탕겨난 그런 것도 이수과?

104010 # 아 잇주게. 경 허면은.

104010 @ 금방 좇아져신가마씀?

104010 # 이제 쉼 ㄱ꾸레 가면 흔 집이 흔 사람 가거든이. 흔 열댓 집, 흔 스무 집 이렇게 그 때가 그 구성이 돼면은. 옛날은 메 집이 쉼 흔 ㄱ리씩이라도 다 키웠 거든. 요즘은 키우는딘 키우고 안 키우는 사람은 안 키우곡. 헛주만은 옛날은 홀게 없으니까. 그 소라도 키와야 새끼나면 돈이 그것에서 뱃기 나올게 없어. 응 옛날은.

104010 ## 아, 경 헛곡게. 농스짓젠 허문 흔 ㄱ리씩은 잇어사 밧을 갈거난. 밧을 갈아사 홀 거니까게.

104010 @ 게난 대중 집에는 소는 몇 마리 정도는 잇어신고예?

104010 # 아, 게난 그게. 어떻 할망 어떻 손지 이 정도 잇어 가 가면은 나중에 커 가민.

104010 ## 에민 폴아 가곡.

104010 # 에미는 폴아 가곡. 또 새끼 나곡. 응 그렇게 헛면서 이제 그 순환이 돼는 거주.

104010 @ 예예 한 보통 두 세 마리. 두세 마리. 두 마리 어떤 때는 흔 마리 허다가 또 새끼 나면은 허고.

104010 ## 초담에는게. 흔 ㄱ리 상. 으라 ㄱ리 흙치 살 수가 엇이난게. 촌에서 경 헛난. 흔 ㄱ리 상. 새끼, 암췌를 하영 샷주. 그 때 게민 암췌 상. 새끼 이제 가지민 그거 나민. 이제 그거 이제 또 에민 부리당 보민 늙을 거 아니. 늙으민 이제 난

것도 베와그네 그걸로 부리민 그 에민 폴아 불고. 폴아 불민 새끼에 또 새끼나민
늪어가민 폴아 불곡. 경 헤가명 헛주게. 쉼 흐 므리 폴아그녕이 어스렁 현 밧은 흐
나썩 삼도 헤나곡.

104010 @ 맞수다. 밧예.

104010 ## 옛날은게.

104010 @ 그 소는 팔 때는 돈으로 헤 신가마씨. 아니면 밧허고 바파 신가마씨?

104010 ## 돈으로 헛주게.

104010 # 돈으로 우리 흐 떼도 다 돈으로 헤서.

104010 @ 돈으로 예.

104010 # 응, 일제시대도 화폐가 이시난 통용 돼시난.

말 기르기

104011 @ 계문예. 이제는 말예. 말예. 삼춘 말 타 봄디가?

104011 # 말 안타 밧저.

104011 @ 안 타봄디가? 말은 또 어떻 길르코 마씨?

104011 # 말은 이, 소 흐고는 틀리주게. 말은 거이 들에서 커. 들에서 이. 경 허
면은 그 말은 집에 들어오랑. 이저 우, 쉼막에서나 키우는 게 아니라. 말은 거이 들
에 메. 겨울에도 들에 메곡 그 춤 봄, 가을 흘 것 없이 들에서 메웁 키우주게. 경
흐면은 뭐 말도 키우는 데는 저것도 도망가곡. 어딜 가그네 몸쓸짓만 아니 흐면은
키우는디는 켜찬주만은. 거 키우당 늪이 곡석 그든거 밧디서 다 먹어불민 이거 변
상도 헤야 돼고. 잘 못 돼민 허주.

104011 @ 예 늪이 곡석예.

104011 # 경 흐니까. 뭐 키우기는 좀 수월헤여.

104011 @ 아, 몰키우기는 예, 집에 와서 막 그 맥이거나 안 헤. 들에 놔두난예.

104011 # 들에서 그 줄레.

104011 @ 줄, 맞수다예,

104011 # 헤여가지고 메영 놔 두민 그자 그디서.

104011 ## 줄레 행, 말둑 행 박양그네게. 경 허민.

104011 # 그디서 빙빙 돌아텅기멍 먹고.

104011 ## 돌아 텅기멍 먹곡. 잘 못 박으민 빠정 돌아남도 허곡게.

104011 @ 예예 그거 예.

104011 # 경 헤서 그거 흐룻 즈낙 먹으민. 또 판디로 이동 행 박아 노민 또 그
주위를.

104011 @ 그거를, 거문 또 말은 또 이녀 주인이 가그네 다른 디강 헤수과? 아
니면 테우리 흐티 밧겨수과?

104011 # 아니아니 그건 개인 적으로.

104011 @ 개인적으로예, 집안에서는 저기 몰은 밧?

104011 # 그 때는 물은 얼마 안 키웠저게. 마차를 허거나이.

104011 @ 예 마차?

104011 # 응, 마차

104011 ## 구르마야 구르마.

104011 # 응. 그 구르마 허는디는 물이 이제 쫓는게. 쉼 쫓는 것보다도 동작도 빨르곡.

104011 ## 썸도 허고,

104011 @ 썸도 허고예.

104011 # 으, 잘도 끌기고 흐니까. 상당히 효과적이 주게. 게난 그거 헐라고 허면은 물도 힘 썰고 좋은 물을 선호했주. 뭐 지금도 물 좋아야 허주만은 좋아야. 이런 마차 ㄴ쁜 것도 허주만은 게난 좋은 물 해젠 허문.

104011 @ 예, 그 마차 해 가지고 뭐 소도 구르마 잇주마는 말도 구르마 해 가지고 허고.

104011 ## 아니 소보단 물이 구르마를 하영 헛주게.

104011 @ 구르마를 하영 해영?

104011 ## 응, 물 엇인 사름 소로 이녀. 그자 농스 짓는거 흐끔씩 싹거 오고.

104011 # 응, 그 소는 흐끔 느리주게 느려. 소 마차는 느리곡. 물은 빨르게 삭삭 이제 그 춤 이동 흐는디도. 빨르고 영 흐니까. 물을 많이 해서 마차라고 게난 이제 물을 많이 이용 헛주 구르마엔.

104011 ## 요세 마차주. 옛날에 구르마주게. 물 구르마, 쉼 구르마 해영.

104011 # 물도 익숙히 사름 흐고 춤 훈련 해 노으면은.

104011 @ 것도 훈련시킬 때 소 끝추룩?

104011 # 글쎄 그것도 뭐 춤 그 완력으로 해그네 그 훈련을 시켰주. 훈련을 시켰는디. 말이 훈련 잘 돼면은 어떤 밤이 그 주인이 술먹어그네 탁 들어누우민. 집이 깻지 꼭 데려와. 마차가 말이.

104011 @ 예예.

104011 ## 구르마 탕. 술을 망창 먹영. 정신이 엇어도 그 물 이신 구르마 웃터레 그 주인이 탁 탕 그 녹대만 탁 걸치민 그 물이 집안에 깻장 그 구르마 쫓은냥 집이 들어와.

104011 @ 집에 들어와 그네예.

104011 # 그 정도로.

104011 ## 경 물이 영리 흐 물은 경 흐는 디. 경 아니 흐 물은 뭐 타나 마나. 그자 가나마나 행 설러비영.

104012 @ 그 말 종류에 대해서 곱아줍서. 뭐 아까 저기 무슨 말, 무슨 말.

104012 # 아, 물 종류를 알아져어. 가라물.

104012 @ 가라마.

104012 # 아, 그건 다 요즘도 그저 다 물에 데해서. 그 물 종류들 흐는디. 그거

이상 나도 몰라.

104012 @@ 예게. 알아지는 것만.

104012 @ 계난 가라말 가라몰?

104012 # 가라몰 이라든가. 무슨.

104012 @@ 그 당시 어떤 말이 썸신가 허고 보통 이야기 허는테로.

104012 ## 요세 가라몰이여 무신, 정충메여 무신.

104012 @ 정충메.

104012 ## 또, 우렁메여.

104012 @ 예, 우렁메.

104012 ## 응, 우렁메여 뭐 될 수가 막 으라가지라도 이젠 잊어변 우렁메여 무시거 그런 것도 곧꼭 허난에 알아지크라. 하도 잊어베연. 거 옛날에 헤난 거난게.

104012 # 계난 다른 사름도 다 잘 곁으메.

104012 ## 데게 행. 가민 따른 어른덜은 다 알양 잘 곁을 겨우다게. 경 현디 우린 그런거 경 하영 헤 보질 아녀.

104012 # 우리가 하영. 우리가 물을 많이 길좌보질 안허니까.

104012 @@ 예. 그냥 보통.

104012 ## 경 헉난, 그자 그거 뱃긴 그이상은.

104012 @@ 예게.

104013 @ 삼춘네도 말은 집에 잊어실거 아니우파예?

104013 ## 아니. 아니 키와봐서.

104013 @ 잊어수과? 안키워 환?

104013 # 아, 우린 뭘 아니 키와봐서.

104013 @ 예예.

104013 @ 안 키왓주마는, 경 헤도 늬이 물을 보거나.

104013 # 아게, 늬이 물을 보고 늬이 몰마차 빌어다그네.

104013 @ 예 마차 빌어다그네예.

104013 # 그걸로 일을.

104013 ## 구르마 짐을 보리나게.

104013 # 뭐 싣거 올 켜.

104013 ## 조 나 헤정. 비여노민 뭐 싣거 오젠 허민. 뭇구르말 빌어사 싣거 올 거니까게. 경 허난 뭇구르마 이용 요세 차 이용 허듯이게. 그거 잊어민 못 허난게.

104013 # 구르만 운반 수단이란게.

104013 @ 운반 수단도 허고 뱃 뽕을 켜.

104013 ## 뱃 뽕을 켜 게메. 돈 하그녕이 이제 뭐 혼 사름은 그 뭇 테우리 빌영. 뭇 테우리 빌어그네. 뱃을 불렛주마는 경 안형 돈도 업꼭 기력이 잊인 사름은 남테 허영. 둘이가 영 끄영. 끄어그녕이 뱃 불령 조 갈 때 경 헉 허고.

104013 @ 예예, 조갈때예. 어저께 삼촌 잘 곁아 주십디다.

104013 # 거 다 곶은 말인디.

104013 @ 맞수다. 남테 헤 그네예.

104013 ## 게메, 게난게. 남테 행 조 불리는거.

104013 @ 테우리들은 경 헤도 물이 하신게 마씨. 경 허난 하그네 싹 헤그네.

104013 # 어 물 떼가 헤가민 그게 이 하루에, 어마 일 년에 숫자가 상당이 불어나.

104013 ## 아니게. 물 텃 게나 길와 가나민. 므리에 물 하나 싹, 일 년에 하나 싹은 나 가민. 그가 잠깐 혼 삼 년세에 여남은 므리가 넘을거 아니. 경 허민 그 추룩 행 돈 잇인 사름은 물테우리 헤여그넵에. 밧 불리레 텅기민. 돈도 벌고게. 잘도 그 옛날에 옛날은 맛좋은 것이 어디시우파? 고사리 삶앙 므물ㄱ루나 노코 게랄 띄우민 그걸 맛 좋은 국으로 행 먹곡 헛주. 어디 무시것이 잇어수과? 도세기도 질루당. 올케 추렴이나 허민 흐쫄 갈라당 먹어지곡. 경 안허민 도세기 퀘기 꼴을 봐수과게?

104013 @ 맞수다.

104013 ## 요센 지름 안 먹기엔 가죽 안 먹히엔 헤도 그런 게 엇언 못 먹엇주.

104013 @ 예 맞수다.

104014 @ 물 나이. 혼 살이민 무시거 허고 아까 췌처럼.

104014 # 아, 그거 췌 흐고 틀리지이.

104014 ## 이수 삼수 흐는가 그거 원.

104014 # 게메 그거 물도 췌 허고는 좀 틀릴거라. 나이 세는게.

104014 ## 이수, 뭘 옛날엔 무시거엔 곶아 낫주마는 잇어병.

104014 @ 이수? 일수?

104014 ## 에이 그 그거 몰르쿠다. 그거.

104014 @@ 뻬수다.

떡이

104016 @ 췌 허고 말 멕이는 거 예. 멕이는예?

104016 ## 멕이는 출 다 멕엇주.

104016 @ 출예,

104016 ## 출 비여당, 눌엇당 허고.

104016 @ 그거가 제일.

104016 ## 아니 게난에 그거는 팔 월 나민 출 비영으넵에 눌엇당. 이 겨울에.

104016 # 겨울에 겨울에.

104016 ## 겨울에 출 이제 헤영 멕이곡 그 나머진 드르에 메여그넵이 그거 풀튼어 먹으렌.

104016 @ 예, 허곡. 그 물은 출을 하영 먹습니까. 물은?

104016 ## 아니, 저 거시기 출 헤 온 건 소.

104016 @ 소?

104016 ## 예, 소 행 저슬에 막에 메난에게. 그걸 쥐사 먹엉 살아날거난게.

104016 @ 예예 소. 그러면은 소는 출허고, 또 콩 같은 거 고구마순은?

104016 ## 고구마 쫄도 맥여사주게.

104016 @ 소예? 고구마.

104016 ## 들도 고구마 쫄 드르에 잇어도 고구마쫄 앓다당. 그 멘더레 하영 장만 해논 사름은 앓아당 앞더레 갓다 놔도 해수다. 들 멘더레.

104016 @ 들 멘더레예. 콩은 예 들은 안 먹읍니까?

104016 ## 아이고 무사 안 먹을 말이라게.

104016 # 콩짚 췌고로 좋은 거주.

104016 ## 콩짚.

104016 @ 보리짚도.

104016 ## 보리짚은 안먹어. 조짚.

104016 @ 아, 조짚 먹고예? 옛날에 저기 옥수수?

104016 ## 예.

104016 @ 옥수수도 경 해도 농사.

104016 # 강녕이.

104016 ## 강녕이 쫄도 췌 먹읍니다.

104016 @ 췌 먹고 예. 췌허고 또 췌 헐 떼는 죽 췌도 쥐 나수과?

104016 ## 무스거?

104016 @ 췌 췌, 췌 막 줄거나 해가민 쥐 나수과?

104016 ## 아니 구르마 허고 이녁 밧 갈곡 해여그네. 밧갈췌엔 그 일 허젠 허민, 저 조 졸랭이나, 콩 졸랭이나 보리 졸랭이나 그거 행 모두와 낫당. 그거 이제 솥양. 솥아그네 이제 그 밧 갈레 가쟁 허민 그거 혼 혼 두 어 박세기.

104016 # 보양식 이주게,

104016 @ 예예.

104016 ## 경 행 맥여.

104016 # 지금 육지 싸움소도 다 경 행 주멍.

104016 @ 아 그 추룩허멍.

104016 # 투구허는 췌덜토 다 경 행 주는 건디. 그거 일 시키젠 허민 잘 맥여야.

104017 @ 꼴은? 출이엔, 출도 꼴이엔 험니까 고구마 순도 꼴이엔 험니까?

104017 ## 아니 고구마 줄은 감젓굴.

104017 # 꼴이 아니고 꼴.

104017 @ 이건 감저꼴은. 감저 꼴. 감저꼴은 감저 수확해난 다음에 다 모당 허는 거고예. 이딘 다 꼴이엔 나왔저이.

104018 @ 꼴 출은 언제 뵈니까?

104018 # 팔 월.

104018 ## 출?

104018 @ 예.

104018 # 팔 월 추석 넘으면 강 배주. 팔 월 추석 넘으면 배는 이유가 그 때는 날이 좀 좋주게. 비가 아니 와서이. 저거 비 오면은 출도 비어낭. 비와불민 다 버려 부는 거라. 뭐 버리지는 않주만은.

104018 ## 췌가 잘 안먹어.

104018 # 소가 잘 안먹어. 비 맞은 거는.

104018 ## 경 허난, 팔 월 멧질 넘영 허는 사름. 앞 텡경 허는 사름. 영허는디 날췌에 따라가지고 팔 월 추석 넘영 빌 폐도 잇곡. 또 날 췌가 좋아그넝 하늬 보름 이 살랑살랑 불면 이제 그전에라도 출 비는 사람도 잇곡. 경 허난네 그건 날췌에 따라그넝에 헤낫주.

104018 # 주로 팔 월 추석이 넘어야 하늬 보름이 불주게 .

104018 ## 살랑살랑 불 주게 그넝게.

104018 @ 이 출을 벨 때는 낫으로 비엿신가마씨? 호미로 비엿신가마씨?

104018 # 낫으로 비엿주. 낫 긴거.

104018 @ 게민 서그네 밍니까?

104018 # 응.

104018 @ 게민 영 허리에 무꺼그네.

104018 # 아니아니 영 잡아그네 흔들렁. 게난 낫을 잘 골아야 돼여. 낫이 늘싸 야 그게 잘 비어지주.

104018 @ 호미 크기 허고 낫 크기허고 틀리큰게예. 크기가.

104018 ## 아니 호미 헝미보단 두 곱이나 질 주게. 영 곳작 허게 영.

104018 # 날만도 이렇게 길고 이 자루가 우리 키 못 흘 만큼 해야. 그거 잡아그 네 흔들루주. 게난 남군 쪽에서는 그 낫으로 별초도 다 낫으로 헛는디이. 저 북군들 엔 그렇게 못허여.

104018 ## 호미로 허여.

104018 # 저 북군들엔 호미로만 비여.

104018 @ 예, 이것도 흔 바리 허젠 허민 바리로 무끄지 안헉니까?

104018 # 응, 흔 바리가 서른단.

104018 @ 예 서른 단예. 이거 무끌 때는 그냥 꼴로 허고.

104018 ## 손으로 껌 네완 무껏주게.

104018 @ 예 손으로 해가지고예. 이거 헉 때는 묶으는 사람, 낫으로 비는 사람, 여럿이 잇어야 허크라예.

104018 # 아니, 아니. 비어 노으면 몰라야 무끄는 거주.

104018 @ 예, 말라야 예.

104018 # 거 그냥 무꺼당 텡여 노으면 다 췌어 비여 안 돼니까. 거 몰려야 늘어

놔뒤 그테로.

104018 ## 파랑케 물렁 잘 비민. 출이 무꺼눌어 놔뒤. 파랑 현냥 잇주게.

104018 @ 색깔이 예.

104018 ## 색깔이, 경 허난 비 맞이고 무시거 현건 바라불민.

104018 # 췌도 안 먹고.

104018 ## 췌도 안 먹고, 게난 검질로 불 숨을 떼난 빠다그넝에 검질 불 숨고.

104018 @ 불 숨고예.

104019 @ 그 저기 운반허젠 허민, 아까 바리씩 만들어그네 묶어놔그네 놀었다 그네 운반허젠 허민 흠치 마차로 오게 됩니까?

104019 # 응.

104019 @ 마차 빌어당 몰마차? 몰마차 허든 췌.

104019 ## 구르마로.

104019 @ 구르마로예. 구르마로도 이거 허고 몰 엇이민.

104019 ## 응 췌로도.

104019 @ 응, 췌로도예.

104019 # 응, 췌로도 흐는디 췌로 저거, 출은 이 무끄민 존존잔허주게. 존존 헤 부니까 저거 췌 짐 짜기가 힘들어. 것 굴아 아까 뒤헤 헤시니?

104019 @ 바리 바리.

104019 # 아니, 아니. 췌 등어리에 헤그네 짐 싣그는 거.

104019 @ 질메.

104019 # 질메, 질메 응, 그 질메에 그거 베 헤 가지고 흐나씩 똑똑 헤그네 그 거 짐 엮어으네 집까지 흐나도 안 빠정 오젠 엮으젠 흐민 그게 소소히 힘든 게 아니라. 그 기술자 아니민 흐지 못헤여.

104019 ## 경 행 기술자가 잘 짜그네 헤여도 오당 보민 흐 짹드레 짐이 자우리지민. 그거 돌아정 췌 몰앙오는 사람이 돌아정. 돌멩이라도 하나 헤당. 그레 탁 꼽 아사. 그것이 무게가 발화그네 짐이 깝장 오주. 경 안헤그네 떨어져 불민 췌가.

104019 # 오당 떨어져 불민.

104019 ## 너발로 뒤민거 몰앙오단 사름 울곡헤여 그 췌 버쳐그네.

104019 @ 버쳐으네.

104019 # 게난 싣꺼던거 떨어져 가면 불 췌도 놀레는 거주.

104019 @ 거문 양쪽에 흐 바리씩 저기 험니까?

104019 # 아니, 흐 바리엔 현건 췌 흐나에 실을 수 잇는게 흐 바리주.

104019 @ 경 허난 열다섯게. 반문씩 반문씩 헤 가지고예. 엮어 가지고예 떨어져 지 않게.

104020 @ 여물, 여물은 여물을 마련 허는거, 여물은 소나 말이나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인디예.

104020 # 여물헌텐 허는거 아까 그 일허레 가젠 허문 그 끌영 주는 걸 여물 흐

덴 허주게.

104020 @ 아 여물 혼텐예.

104020 # 응, 그 끌영 주는 걸 여물 헤 가지고 쉼 힘을 돋군다고 해서. 그걸 여물 혼다. 잘 맥인다.

104020 @ 잘 맥인다. 여물 혼다. 여물 혼다.

104020 # 응.

104020 @ 그 고구마 같은 것도 감저 같은 것도 잘 주지 안읍니까?

104020 ## 아이고 게 솥양 맥이주게.

104020 @ 솥아 가지고예.

104020 ## 생차 쥘은, 물은 생차 쥐도 이 사름ㄴ찌 딱딱 벌르멍 씹멍 먹으난, 목을 안 결고. 쉼은 삭삭 할으멍. 그자 들어 물러는 덕분에 경 헛당. 도 밧드멍 거 세기는 거라부난. 경 헛난 쉼은 생차 쥘은 목걸리는 것 때문에 감저 생찰 안 주주. 솥양.

104020 @ 솥양예. 감저를 솥양예.

104020 ## 응.

104020 @ 무수 ㄴ뜰 거도 옛날 잇이민 ㄴ물도 막 주고.

104020 ## 이 ㄴ물도 주꼭헤도. 무수 ㄴ뜰 것도 손 안쥐 물은 헤도.

104020 @ 아 무수도 안주고.

104020 ## 지금도 손 그런거 안쥐. 물은 이제 것이기 이제 무수 ㄴ뜰거도 줍실 겨우다.

104020 # 쉼은 고구마 ㄴ뜰 것도 먹질 못허여.

104020 ## 그 닛발이 엇언 그자 득득 담앗다그녕이 이제 따시 세기멍.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난. 쉼은양. 뚜거운 거는 안쥐.

104020 @ 경 헛구나예.

104021 @ 그 저기 소에 풀 벳던거, 출 벳던거. 저기 ㅎ끔은 어릴 적에 베 나지 안헛디가?

104021 # 출 비레 땡겻주게.

104021 ## 출비는 거어?

104021 @ 예, 그거에 대한 거 곺아줍서.

104021 ## 출 비는 거. 무시거 곺을 거라.

104021 @ 추석 끝나그네예. 추석 지나그네.

104021 # 게난 그 거 출 비는 거주. 그거 출을 비젠 허문 동네 사람들 그거 혼 밧디 가젠 허문, 그 출 밧은 여기서 거이가 먼디주게. 중산간에 출밧을 허는 때문예. 혼 서너 명씩 해서 가거든. 가서 그거 춤 낫을 다 들고 들어사면은 쫄쫄이 상허면은 이거 춤 늦게 가도 안웨고 빨리가도 안웨고. 서로 맞츠서 간격 잡아그네 삭삭 비여 간다 말이여. 경 행 ㅎ면은 예, 아침에 마, 동 뜨면은 가주게. 일찍 가서. 낫 곺고 이제 낫을 잘 곺아야 웨어. ㅎ당 혼 번 이쪽에서 저쪽 ㄴ지. ㄴ지 비여

가면 그다음은 낫을 골아야 돼. 다시 골아서 또 비곡. 그래서 흐면은 흐루 뭐 흐 사람이 예, 오십 바리 비엿느니. 뭐 십십 바리 비엿느니. 영 흐주. 게난 거이가 흐 십십 바리.

104021 @ 삼십 바리에.

104021 # 십십 바리. 서른 바리는 다, 거이 빌거라.

104021 @ 거문 낫허고 물이영 다, 가져가사 돼큰게예.

104021 # 아 점심이영 다 앗앙 강.

104021 ## 점심이영 다 앗앙 가사주.

104021 @ 점심이영 물이영 팽에 담앙.

104021 ## 경 허민 세백이게. 세날 들어 가 가민 여자들은 일어 낭. 아침 밥 헤영 그 어른 덜 아침 조반 안네영 먹곡. 점심 헤영 출령 지왕 보네젠 허민 그 점심을 다 헤여사 헐거난. 다 헤여그네 이제 물 질어 노코. 차반지에 밥 퍼 노코. 옛날에 이제 무신 반찬이 있어수과. 자리나 소곰 헛당 건저 노코. 잘 허민 이제 갈치 헤여그네 헤영 앗앙 강. 그디 가그녕이 고사리 비영 그거 불 솜양 구웁.

104021 @ 아, 고사리.

104021 ## 그 밧디서, 구워그네 푸 허게 불어불민 불껍 놀아나민 그거 다 검질 깔랭이로나 무시거 하신어디 서수과. 옛날에 저 저분이 어디 서수과아, 저분이 엇이 난 그디 막테기라도 무시거 영 툭툭 영 털멍 앗어네영. 그거 헤영 그것에 웬장 누물이나 솜양 웬장 앗앙가민 그 물 비와 노코 웬장 사발덜에 노코 그 누물 노코 그레 노코 국 헤영. 그 자리 군거나 경아니 허면 갈치 구운거나 헤영. 흐나 앗아으넝에 손으로 심영.

104021 # 자리젓도 앗앙 강 자리젓에 먹으나.

104021 ## 경 안 허민 자리젓 앗앙 강. 자리젓엘 먹으나 경 헤네.

104021 # 경 점심 먹영 경 헤영. 요세, 요세 ㄱ추룩 간식이 어디서.

104021 @ 맞수다. 아이고.

104021 ## 게난 출 빌 뎌 밥은 두 번 먹엇주게. 아침 세백이 먹얼가민 낫 흐 번 곶앙 허민 그 낫 곶아나민 이제 베고플꺼 아니우파. 옛날에 무신 출 진걸 먹어수과? 보리밥 조팍 먹는거.

104021 # 그거 낫질 흠이 상당이 고된거라.

104021 ## 게난 그거 낫 흐 번 곶아나민. 밥 먹영 이제 또 아멩 헤도 해 영 베령. 시젠 어디 있어. 해 영 베령. 해가 저만이 갓저. 우리 밥덜 흐직 먹영 허게. 영 허민 밥 헤그넝에덜. 점심 네냥 그거 남즈들끼리 그거 헤영 먹곡. 경 허명 산 때는 건강덜을 헤신디 요즘은 하도 잘 먹어 노난. 이디 아프다 저디 아프다.

104021 @ 맞수다. 출 혈 때는 남자 어른들만 가신게예.

104021 ## 출 빌 뎌 남즈어른들만 가곡. 늣즈 엇영 홀어명은 또 그거 베와그넝에 홀어명은 홀어명 양으로 비는디도 잇엇웁주게.

104021 # 사람 못 빌문 이녁데로 비주게. 여즈도 낫질을 헛주.

104021 ## 남즈가 잇이난 그걸 베와사. 한참 허쟁 허문 나 것부터 문저 흥쟁 허주. 늣이거 문저 갑네까. 경 허니 이젠 허난 그 남즈덜 잇인디 간 ㄱ짜 강. 나가 이 낫질 허는 걸 배우쿠덴 허영 베왕. 경 행 못 빌민 이녁만 멧 칠 이라도 비여그넵에 헤사. 짓음도 허고 쉼도 혼 므리 잇이민 쉼도 맥이고.

104021 @ 맞수다. 맞수다.거문 이제 쉼 흥고 몰 먹이는 다 되고.

멜감

104022 @ 지들거 잇지예. 멜감예, 지들거, 멜감 종류에 대해서 멜감에 대해서 지들거.

104022 # 아 계난 옛날은 드르예 가면은 삭다리엔 헌게 잇주. 소나무 죽은 것들이. 가지 죽은 것덜. 이런 것덜 이제 좇어 오곡 그.

104022 ## 솔잎 거두고.

104022 ## 솔잎, 솔잎도 이 글쟁이 헤영 걷어오곡 헛는데 일제시대나 어디나 소나무밭디 솔잎을 걷어 불민 이제 거름이 안 된다고 해서 솔잎을 못 걷게 해서. 게도 다 솔잎 걷어단 흥고 여기서 조촛이나 뭐 멜감은 이저 농산물 혼. 요거 부산물로도 쓰고 경 안허민 장작 나무 팔라서 장작흥고 뭐 흥고 썸 뱃기 뭐 다른 거는 엇주게.

104022 @ 장작이면은 어디 고지에 가그네 비여?

104022 ## 나무 비여그네 남 비여그네 켜것 곶아 장작.

104022 # 자기 밧 윽이라도 나무들이 잇주게.

104022 @ 아, 이녁 밧.

104022 # 저 오름 ㄱ뜬디 가면은 또 죽은 나무도 잇이민 흥나썹 봉가 오곡.

104022 @ 죽은 낭예, 계난 지들거는 삼춘이 많이 헛디가? 아니면 여청 삼춘이 많이 헛디가?

104022 ## 들어 봅서. 누게가 하영 헤시니?

104022 # 솔잎 걷으레 잘 텅겨시난.

104022 @ 솔잎 걷으렌 여청 삼춘이 허고 낭 허레 텅긴 거는?

104022 # 아니 난 낭 허레도 아니 텅겨 봐서.

104022 ## 낭 허레 텅기고 하간거 헤시민 이 모양으로 안 살건디. 낭 허레도 안 텅기곡. 할망만 헤연 허렌 흥난 요 모양으로 살아가는 건디. 세백이 저슬 틀영 ㄱ슬 다 헤영. ㄱ슬 다 헤 들여그넵이 이계 동지 섯들낭. 동짓들이나 넬모리 섯들 됴신디, 낭 허문 옛날에 일이 잇어수과? 일이 엇어시난. 이제 감저ㄱ장 다 파당 물어불민. 그루후젠 멜감 헤 올 거를 걱정 홀 거주. 이 저슬에영. 여름 나면은 마에영 지들거. 경 허민 오름에 글쟁이 앗앙 강. 솔잎 거두고. 그 알러레 삭은 남 잇이민 밧 테여그네 흥곡 그 우에 삭은 낭 잇이민 꺼경오고 경 행. 삭은 낭은 예경으네 헤 먹을 일 잇일 때나 켜기 지질일 때도 그걸로 허곡.

104022 @ 아 전기 헐 때예?

104022 ## 삭은 나무 헤영 연기 안 나고, 먼지 안 나고, 그걸로 허곡 경 헤그네
허곡. 죽은 춤 하르방 곱아 마판이. 죽은 남 술있 것당 봐지민. 톱 아니 앓양 갈 때
난 못 행 왓당. 듯날은 그디 강 그거 짤랑 그거행 헤오곡 경 헨 뗏주게. 경 허곡 조
칩 조 불령 그 조칩은 허민 조칩 우린 소가 질루단 아방도 못 허곡 누게 나만이난
못 허난. 술 안 질루난 그 조칩헤여그네 짓젠 허민, 쉼 잇인 사름덜 저 비 맞은 출
에 바파주렌 허민. 그것도 바파도 네영 지드곡 또 안네영 밧도 하루 갈아 줍센 허
고 경험도 허멍 때 금도 헛주.

104022 @ 때 금예.

104022 ## 술똥 주워당 굴묵 살르고,

104022 # 계난 그 때는 펠감이 상당히 어려왔어. 그 드르에 가도 들이 다 이 저
민등산이 었주. 요즘 ㄴ추룩 거 산림이 우거지지도 안 헛주게.

104022 ## 게고저고 해당 때어 부니까게.

104022 # 다 누굴 막론 허고, 다 펠 금허레 다녀 노니까. 저 우도에서는 나오라
그네 혼 열흘씩 보름씩 이것저것 다 모도왕. 다 무껏당 베에 싹거가고 헛주게.

104023 @ 소똥허고 말똥도예. 네 불지 안 허영 다 주워오지 안헤수과?

104023 ## 술똥도 좇어당 굴묵 살르곡 또 영 화덕헤여그넵에 불살랑. 그 술똥으
로 불도 살라그넵에 춤도 허곡. 굴묵도 살르곡. 또 쉼똥도 좇어당 또 물유왕 허곡.
걸름도 허곡.

104023 @ 예 굴묵허고예, 걸름도 허고예. 일 허다그넵에 이거 봐지면은 그레 저
기 이거를 소똥을 가정 오젠 허민 흘칠 때도 잇일거난. 흘칠, 잘 안 믋른 거예. 물
똥도 예 거문 그걸 언주와사 뵈건디 그걸 어디에 담양 와신고예?

104023 ## 멍텅이에 담양 왓주.

104023 @ 멍텅이에.

104023 ## 멍텅이도 허곡. 옛날에 테구덕 허곡.

104023 @ 대구덕, 골체허곡.

104024 @ 아까 술가리는 술 저기 술있 예. 술있은 어느 정도 헤그네 둥둥 말아
그네 지영 와나신고예.

104024 ## 아이고 게 그거 잘도 하영 몰양허주.

104024 # 상당히 무겁게.

104024 ## 발로 이제 혼 짹에 두 발씩 헌거를 헤영. 세 계에 노왕. 영 세 계에
놔그네 아레 이제 그 썩은 춤 삭다리 꺼썩. 양편으로 뉡 술있 탁탁 걷어그네 탁탁
보달청. 그레 탁탁 뉡 조근조근 불르명 헤영 그것에 그 노곳에 발로 차명. 그걸 무
끄게 시리 행 지민 일어나지 못 행. 어떤 뎨 고게 우의로 그거 넘어나고

104024 @ 아, 예.

104024 ## 경 헤그네 지영 왕 그거.

104024 # 계난 그거 보달 참을이. 보달 소위 무끄는 거. 동그랗게 헤여그네 무
끄는게 기술이라.

104024 ## 보달.

104024 @ 아 보달. 그걸 보달이엔 험니까?

104024 ## 응.

104024 @ 거문 그걸 무시 걸로 무꺼 신고마씨?

104024 # 아 그 줄도 ㄴ짜 허고 그디 썩은 낭가지 영 낭.

104024 ## 저 거시기게 이제 이디서 노 앓앙 가는, 꼬와 낫당 앓앙 감도 허고 그디가민 꺾 꺾 벌은거.

104024 # 칙,

104024 ## 꺾 벌은거. 아레 부떠시민 호뮈로 그 아레 부튼거 툃툃 뿔뿔 잡아텅 기민. ㄸ차저 불민 안 뿔거난 그거 헤영으네도 허곡. 베 앓앙 강. 경도 허곡. 경 헤 그녕이.

104024 @ 베도 예.

104025 @ 나무 허는 거예. 아까 예 삭다리엔 헤신디예. 삭다리 죽은 낭예. 가지.

104025 ## 삭다리 꺼끄는 거. 나무 산 나무 잇인디서 이, 옷섭이 무성허민 아랫 거는 죽주게. 죽으민 그걸 삭다리. 그것 곶아 삭다리엔 행. 꺼꺼당 지드는거.

104025 @ 삭다리 예. 그걸 헤 가지고 허고 저기 장작이엔 헌건 죽은 낭. 큰거 넘어지고 헤 가지고.

104025 # 아니 산 남도.

104025 ## 산 남에 산남에 잇인거 꺼끈 것 곶아 삭다리.

104025 # 장작은 나무 밧통으로 비여그네 토막 졸랑. 도끼로 벌러넨게 장작이주 게.

104025 @ 게 장작도 헤실거 아니우파? 경 해도 장작이 잇어사.

104025 ## 장작도 헛주게.

104025 @ 장작은 행 올 때는 어느 정도 행 와나신고마씨?

104025 # 게난 뭇 뿔는 데로 행 오주. 거 무신 잇인거 네 불지도 아녀고.

104025 ## 이녁 짐에 맞게 행 오주. 이녁 정 올 수 잇게. 이녁 짐에 맞게. 아멩 하도 지영 오지 못 허면 안 뿔거난게.

104025 @ 여기서는 어디 어느 지경이 하파? 아니면 이녁 밧 옆에?

104025 # 밧 옆에도 허고 저 오름에 헤 갓주게.

104025 @ 오름에예.

104025 ## 고성 오름.

104025 @ 고성 오름에예. 이 고성오름은 물뭍 아니우파예?

104025 # 응.

104025 @ 물메 흐곡.

104026 @ 솟을 구워사 적도 헐거 아니우파? 아니면 집안에 화리도 놓고예.

104026 # 으.

104026 @ 솥 구우는 거는 어떻 해나수과? 그냥 저기 정지에 거, 정지에 해나수과?

104026 # 아니.

104026 ## 아이고 아이고.

104026 # 거 솥을 굽젠 허면은 그 고망냥이라고 해서. 그 길가에 그 쪼끔씩이. 그 나무 잘 못 크는거 담 돌 트멍에 나는 것덜이,

104026 @ 예.

104026 # 그 고망냥이엔 허주게. 그거 길가에 영 크지도 못 허고 돌 트멍에 있는 것들을 허나, 허나 가서 다 봉구주게. 그걸 톱으로 다 썰르고 뭐 해그네. 조그만 썩 썰랑. 그거 솥. 빈 밧에 해서 하루 저녁 불 부찌민 흐룻 저녁 넘으민.

104026 ## 구멍이 팡, 그거 솥 못젠 허민. 구멍이를 파그네 그 존존 존 허게 나무 그거 고망 냥 해여다 논걸. 조그조근허게 시리 춤 그디 춤 저 텔레비전 ㄴ찌 솥 묻는 식으로 남을 조근조근 쌓아 냥.

104026 # 세와 냥.

104026 ## 그레 불 부짱 흑 텃영. 흑 텃어그녕이 불 부짱으네. 흑 텃영 놔두민 그게 안네서 다 습양 까지민. 그거 식으민. 그거 헛상 보민 솥 돼민. 그거 솥 파당으네. 헛주게.

104026 @ 계난 집집마다 이녁 거는 이녁이 해 신가마씨?

104026 ## 이녁거 허는 사름도 잇고 사당 허는 사람도 잇고 동네허민 주웁 흙도 허곡.

104026 # ㄴ찌 동아리 행 흙도 허고.

104026 @ 어, 집마다.

104026 # 나무를 해와야 돼니까. 혼 자만 나무허기가 힘들주. 계면은 ㄴ찌 벗 해서 가서 협동으로 나무.

104026 @ 예 이거는 곡식처럼 꼭 필요한 거가 아니난에 이거 일정을 정 해실거 아니우과 예? 언제 허자 해 가지고. 몇 집이서.

104026 # 겨울에 겨울에.

104026 @ 겨울에예.

104026 # 겨울에 조 다 해 불면 밧이. 빈 밧이 많주. 조 비여 불민.

104026 @ 예예.

104026 # 가을에 계문 그 빈 밧디가. 그 구둥이 파그네. 그거 솥 묻어나도 뭐 주인 봐도 뭐엔 안허여.

104026 @ 아 늪이 밧이라도예.

104026 # 늪이 밧이라도.

104026 @ 젠디 이건 재미져 시키여예? 이거 헐 떼예.

104026 # 제밋주. 막 콧구멍도 시커멍. 입도 시커멍.

104026 @ 예. 경 해난 다음에 마다리에 담아그네. 집에 가져왔다으네 큰일 헐

때 쓰곡.

104026 ## 마다리가 어디 서게 가맹이.

104026 @ 가맹이에 예 가맹이.

104026 ## 그 때 마다리가 어디 서게. 가맹이주게.

104026 @ 경 해도 숲 구웁 오민 이것도 큰 하나의 준비가 돈돈히게 된건게예.

104026 # 숲만 잇이민 적 흙이 오죽 좋아게. 념, 저 연기 안나곡.

104026 @ 아이고 남자 어른들도 되게 하영 헤신게마씨. 숲도 허젠 허난 놀기만 헌건 아니고.

104026 # 에이고 그까짓거 헛는건. 헛는 걸로 생각도 안 해서 이 할망덜.

104026 @ 이것도 남자 어른덜 헌거난예.

104027 @ 게난 뿔감 준비 하면서 경험 같은거. 장작이나 뭐 솔잎이나.

104027 # 아이고 경험이야. 그거 다 힘들엇주게. 그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녁 밋디만 뿔거 그 나무가 잇는 것도 아니고. 거 춤 어떨 때는 늪이 밋딛거라도 헛나 썩 좇어와야 헛거든. 경 헛난에 뭐 그거 큰 이제 그 뭐 범법자가 돼는건 아니주만 은 그거 나무 헛나 헤왔다고 해서 헛주마는 주인이.

104027 ## 경 해도 옛날에 그 들레 땡기고 흘 땡 나무 헛나 끈어도게 스몏.

104027 # 일제시대 때 산감이엔 헤여네 산감이라고 해서 나무 이제 쫄라 오는 거나 이거 헛면은 막 벌금 헛곡 막 경찰관들이 산감이영 돌아 땡기고 헛주게. 못 허게.

104027 ## 나무 끈지 못 허게. 경 헤낫주게.

104027 # 경 해도.

104027 ## 경 해도. 이 밤 광 저 밤 세 강. 행 와사 이녁이 살젠 허문 흘 수가 엇인거. 경 헛당 킬르로 허당 들킴도 헛고게.

104027 @ 맞수다. 들킴도 헛고예. 들켜그네 벌금도 내고 헤난 사름 봐 낚디가?

104027 ## 아니게 아명 해도 경 현 사름도 잇엇주만은 우린 경은 헤보진 안헤 시난에.

104027 # 그 자락 경.

사냥

104028 @ 이젠 삼촌 사냥 해났지예?

104028 # 응. 사냥허레 가 왔져. 똑 헛루 헛루 가왔어.

104028 @ 이거 사냥 헛 때는 무시거를 잡아신고예. 꿩?

104028 # 꿩꿩.

104028 @ 아, 꿩.

104028 # 꿩 잡으레 가 왔는데. 이게 고성 수산 이 데데적으로 흘 때는이. 고성 수산 사름덜 다 동원을 허주게. 막 워웁 막 웨명 헤그네 다 나오렌 헤영 헛명은. 여 기서 실지 저 다랑쉬니 어디니 그 막 멀게 망을 우털보고, 너는 어디가 어디가 허

영 막 흥민 이게 군데 명령 보단도 더 엄해여. 그래서 그 좋은 개 가진 사름은 소위 썩 다올리는 이 사름덜은 춤 썩 다올리곡. 썩 강 안즈면은 어디 안잣져 허면 강 물게 허곡. 영 헤그네 흥는건데 아 우리는 어릴 적에 잣다가 망을 보레 잣다가 아 썩이 어딜 간줄 알 수가 있어. 게민 욱만 쳐 듣꼬. 게민 그거를 썩 행 허면은 사냥을 허면은 썩을 많이 잡아. 사람이 많이 가니까. 이 어린 아이들한테 차례에 분배되는게 어려와. 경 허난 각으로 뭐 썩도 이제 각으로 썩영. 경 흥나씩 그 테우곡 허주게. 겐디 우린 잣자 무시거 얻어먹지도 못 허고 그냥 와났주. 게난 그 후부터 흥번 강 경 허난 다시 안 가버서.

104028 @ 게난 동원 헤그네예. 썩 헌텐 허면은 누가 신호를 동네에서 먼저 보내여그네 경 허문 모여 들영.

104028 # 아, 경 허난. 폐장이 잇주게. 폐장, 고성 폐장. 이제 수산 폐장, 헤가지고.

104028 @ 아 폐장이엔 현게 잇구나예.

104028 # 응, 그 스농 폐장. 스농 폐장이 잇어가지고 해서. 이제 그 서로 합의 헤가지고 수산이나 영 행. 고성만 갈 수도 있어. 이 동네 사름만 헤영 가는 수가 잇주만은. 게민 규모가 작으면 썩을 얼마 못 잡아. 게민 이 규모를 크게 헤가지고 흥면은 하여튼 그 저 짝 다랑쉬로 어딜로 안 탱기는 디가 업서. 경 행 흥면은 막 썩덜 잡앙 헛주만은 그게 그 때 썩나니까. 이젠 이런 스농도 흥질 안 헤이제는.

104028 @ 그 때가, 게문 누게 지시에 따라가지고 폐장이엔 헌디가 대장 잡아가지고예.

104028 # 응, 데장 명령에 복종해야 돼여. 거기 스농 나가면은.

104028 @ 예, 거문 들어 본데로 들어본 도리로예. 사냥은 어떤 것 깃지 사냥이엔 험니까? 잡아오는 거.

104028 # 아니 썩 스농이엔 허민 썩 잡으레 가는 거주게.

104028 @ 썩 사냥 또.

104028 # 그 웨에는 안 헤 봐서.

104028 @ 아니 헤 본거 아니 들은 거는.

104030 @@ 노루 사냥은 안 헤 봐수과?.

104030 # 게메 노루 스농은 개 잇는 사름끼리 노루 스농 허는데. 이게 경 쉽질 안 허주. 개가 워낙 좋아야 돼곡.

104031 @@ 노루사냥 게니까 엔날에 들은 걸로 해가지고 옛날에 게난, 노루 사냥, 썩 사냥, 고소리, 지달이, 지달이 사냥도 옛날에 해 났지예.

104031 # 응, 지달이 사냥 허는디 그건 기술자들이 허지 일반 사람은 그거 허질 안 허여. 그 옛날 여기 저 지금 일행이 아버지 오○○씨가 산 때. 다랑쉬에서 큰 노루 흥나를 개가 잡앙 헛는데 다랑쉬에서 이 깃지 그 꼭으로 그걸 썩어정 고성 깃지. 아, 네려 온 걸 보고 아, 나 놀랬다 말이여. 이거 거 오죽 무거울 거라게. 곧 거 죽영 흥니까 노루도 죽은 노루가 아닌데 그걸 썩어전 이 고성 깃지 지네 집 깃지

왔서. 완 허난 우리가 구경히고 허난 거 구경 하고 허다가 춤 나중에 잡으난. 고기
흔 토막 얻어먹긴 헛주만은 아 그거 돈 줘서 사먹는 처지가 그 켜 못 댜는 때라 노
니까. 아 켜디 춤 그거를 자기가 잡은 뉼 이제 그 춤 과시 헐려고 그걸 지언. 거,
죽을힘을 다 켜 그걸 지언 온 거주. 요즘 ㄱ뜨면은 지언 옴이랑 마랑.

104031 @@ 맞수다.

104031 ## 다랑쉬에서 이 던 멀지. 저 보디지도 안 헐 던디.

104031 @ 맞수다 아주 멀주게. 계난 썩 허고 노루 허고 지달이 허고 또 다른
거 사냥. 토끼 사냥 같은 거는?

104031 # 토끼는 여기에 그 드르에 토끼가 엇주게.

104031 @ 날아다니는 새는 저기 맞추는 사람은 잇어나수과? 썩 말고. 썩코 놓
는거 말고.

104031 # 아 계난에 그건 요즘에 와서. 새 총 해서 그 공기총 ㄱ뜨거 행 잡는
거지 뉼 무신.

104031 @ 옛날에 뽕개엔 헤여그네 돌 뽕글뽕글 돌려그네에 착 맞춰가지고

104031 # 에이그 계난 그거 아무나 못 허지. 그거 험젠 새 잡아져. 새 잡는 거
는. 그 옛날 그 눈 오면은 테기.

104031 ## 생이 테기이.

104031 ## 이 저 생이테기 흥곡. 그 말총으로 치 멘글아그네. 요거를 막 눈 오
면은 새가 먹을 게 엇이면은. 저 바닷가에 모래 판에 ㄱ뜨디 가그네 모래 싹 걷어
뉼 놔 두면은 경 행 거기에 줍 싹 뿌렁 놔두면은 와그네 뉼기당. 그 치에 걸리
곡. 테기에 걸리곡. 헤영 잡는 순 막 잡아 낫주게.

104031 @ 그럼 새는 예, 생이도 것도 사냥이엔 헐거 아니우과? 날거를 잡는 거
는?

104031 # 에이그 거 스농 출리멍.

104031 ## 세 스냥 소리는 안 듣고 못 들어뉼..

104031 @@ 사냥까지는.

104031 # 거 개인적으로, 거 개인적으로.

104031 ## 예 올케 하르방 ㄱ사 ㄱ얏던 말썽 아니라도 그 눈 온 때 새 잡는 거.
치냥 거 허는 거. 테기 흥곡.

104031 @@ 조 ㄱ고리 돌아 뉼당거 탁 톤아허면.

104031 ## 조 ㄱ고리 마당에 조칩 ㄱ민 그것에 잇이민 토당 네뉼당. 그 테 멘들
양 그것 더레 ㄱ얏 놔두민 새 먹젠 탁허게 허민 경 행. 그 저 밥주리 생이.

104031 @ 밥주리 생이.

104031 ## 응, 밥주리 생이 경 행 잡앗고. 또 저 ㄱ구리도 어떤 켜 걸리문 걸리
주마는.

104031 # ㄱ구리 잡는 건. 목제비.

104031 @ 목제비?

104031 # 응, 목제비라고 해서 이 나무 그 탄력. 나무 쪽 오그려 놔그네 영 그 중간에 헤그네 그.

104031 ## 조코고리.

104031 ## 그 거 뭐 돌아메영 허면은 그거 아피 허젠 허면은 건드려 불민. 그게 싹 빠지면은. 탁 이게 반동으로 이제 탁 튀겨 나면서 목 졸랑. 목 찢러그네 그 죽주게. 게난 그게 목제비라고 해 가지고 목제비.

104031 @ 그거가 테 테기?

104031 # 테기는 새 잡는 거.

104031 @ 테기는 아까 그거는 목제비.

104031 ## 목제비엔 햄신게 ㄱ사헌거.

104031 @ 그거는 목제비엔 헌거 예.

104031 # 응, 찌꾸리 ㄱ쁜 거 큰새 잡는거.

104031 @@ 찌박구리주게. 찌꾸리 헌게 요즘 나는 찌찌 줌 커. 그 저 참새보다는,

104031 @ 아 목제비엔 허는구나.

104032 @ 족제비 뎃에 대해 알아줍서. 족제비, 아까 족제비가 지달피 아닌가마 씨?

104032 # 아니, 족제비도 목제비 ㄱ쁜 걸로 잡는 건디.

104032 ## 족제빈 무시거 허젠 잡아 오라수과?

104032 # 아, 족제비가 그 소위 족제비 허민. 그 족제비 털로 족제비 꼬리털로. 붓 멘들덴 헤그네. 많이 그것도 이용은 해 낫는데. 족제비 ㄱ쁜 것도 목제비 이용허주.

104032 @ 목제비로예. 목제비로.

104032 @@ 남를 요렇게 했다가 톱 건들면은 탁 치명 목에 걸리게끔.

104032 # 경 헤그네 침 헤그네 중간에 영 걸청. 허면은 요건만 톱 헤 버리면 탁 허면 요게 우윳게 알려레 탁 느려 강. 목 잡형 죽이는 거.

104033 @ 그거는 경 허난 뎃은 다 뎃인게예.

104033 ## 다 뎃이라.

104033 @ 뎃 톱 행 헤 가지고예. 그 사냥에 대해서 혼 번 꿩 사냥 갔다 왔주만은 그게 제일 큰 경험이구나예.

104033 # 응.

104033 @ 아까 그 노루 ㄱ랑쉬에서 헤 온 거 경 허난.

104033 # 경 허난 노루도 이 개가 좋아야 이거 잡는 거주. 경아니 면은.

104033 ## 노루 이겨져사 흘 거 난게.

104033 # 게고 지달이. 지달인 굴에서 연기를 막. 그기 불 부짱 막 연기를 네와 그네. 도망가게 헤 그넵에. 뭐 잡곡 뭐 흥곡 흥는다. 그 지달인 굴을 훑아서 굴 쏘 굽에 잇는 거니까. 그 겨울에,

104033 @ 겨울에예
 104033 @@ 지달이가 오소리라.
 104033 @ 거문 나오면은 무시 걸로 잡으코예?
 104033 @@ 개.
 104033 @ 개로 이것도 개.
 104033 # 개. 거 막
 104033 @ 개로 돌아 가그네 물렌 헤 가지고 예. 삼춘 아이고 고맙수다. 저기 이 사냥은 다 허고. 여청 삼춘예? 여청삼춘은 이제 해도 될거 아니우파예.

5. 바다일

105001 ## 무시거 혈거? 다 곶아 베신게.
 105001 @ 바당 물질.
 105001 ## 아이고, 바당 물질 무시거 헤보지. 무시거 베랑 안 헤 봐수다게.
 105001 @ 예, 그 저기 바당 일에는예. 그 허는게 어떻 것들이 이신고마씨.? 바당일? 바다에서 허는 일들.
 105001 ## 아니 바당에서 흐는 거게. 물에 들민 고동 잡곡게.
 105001 @ 물에 들엉예.
 105001 ## 전복도 봐지민 트곡. 문어도 봐지민 잡곡게. 그거 주 무시거 또 게 메역 철 나민 메역 즈무랑 풀고, 우의 우의철 나민 우의 즈무랑 풀고, 감테 즈물 떼 여름 나민 감테 즈무랑 풀고, 그거 주. 무신 물에 든게 무시거 벨로 혈게 있어. 그 거주.
 105001 @ 물에 들엉. 이거가 저기 줌수, 줌녀. 줌녀로 헤그네예.
 105001 ## 응.
 105001 @ 그 삼춘에 대해서예. 소개 조금 해 줘서. 삼춘 이름은. 이름 허고 나 이 허고.
 105001 ## 이름 허고 나이 행 무시거 흘 거라.
 105001 @ 삼춘예, 곶아줍서.
 105001 ## 나, 이름 몰르는데 하르방 알아지쿠과?
 105001 @ 삼춘 곶읍서.
 105001 ## 이름은 정계춘이. 정 계 춘.
 105001 @ 예. 나이는예? 나이엔 행. 죄송 허우다. 연세로, 무슨 년으로 해도 좋 수다.
 105001 ## 어 몇년으로 행?
 105001 @ 예. 몇 년생 무슨 저기 뭐 계유생이니, 갑자생이니 영 곶아도.
 105001 # 계유생.

105001 ## 계유생.

105001 @ 계유생 예. 계유생예. 삼춘은 시집은 여기서 뭐 고성에서 고성, 아니 신양에서?

105001 ## 아니 고성서 고성,

105001 @ 아 고성에서예.

105001 ## 예.

105001 @ 고성에서 나고 자라고예?

105001 ## 예.

105001 @ 예, 고성에서 나고 자라고 예. 이거까지 저기 허고 다른거, 다른 거는 잔치해난 거는 나중에 들어 보고예. 바당 일에 골아줍서.

105001 # 잔치해난 거는 나한테 다 들었는디 뭐.

105001 ## 맞추게 잔치 해난거 다 들어신디 뭐 헐거 있어.

105002 @ 저기에, 듬북하고 감테를 허는디 개인적으로도 허고 공동으로도 허지 안옵니까예? 먼저 개인.

105002 ## 아니 이 고성 방되는. 메역은 공동 이제 거시기 허고 감테 무시거 허는 거는 다 이녀 개인적으로 해여.

105002 @ 감테하고 듬북은예. 개인적으로예.

105002 ## 응.

105002 @ 개인적으로 허는디 이거는 풍조로 헤그네 바다에 올라오니깐 개인적으로 허는건가마씨?

105002 ## 올라 온 거나 즈무는 거나 이녀 이녀 허민 이녀 허는거.

105002 @ 이녀 허민 이녀 허는 거 예. 메역은 공동으로 허는 거난. 공동으로 다 바찌는 거는 아니지 아니우짜?

105002 ## 아니 바당이 고성 방되는 되기 때문에 헐 때문에. 그 헤제 흘 때 메역 즈물 때.

105002 # 계난 ㄴ쁜 날 가서 이녀이 흘 거는 이녀이 가져 오는디.

105002 ## 하영 허문 하영 찍세. 죽영 헤도 이녀 찍세. 경 헤.

105002 # 자기가 헐거 자기 가져가는데. 아무 때나 가서 못 헤 가지고. 거 허체 흐는 날만 가주게.

105002 @ 허체?

105002 ## 응, 허체 메역 허지.

105002 @ 예 메역 허지.

105002 ## 응.

105002 @ 이건 물에 들 때만 허지가 잇영 허는거고.

105002 ## 응, 메역 허지 흘 때.

105002 @ 감테나 듬북은 개인으로 허주만은 이거는 아무 날이나. 날 허고 상관엿이. 하영 잇저 허민.

105002 ## 응, 자기가 허고 싶으문 그자 트멍나민 허는거.
 105002 @ 예, 트멍 나민 허는 거고예. 저.
 105003 @ 그 고동허고 예, 게는 예, 어떻 잡음니까? 고동허고 게.
 105003 ## 고동허고 게?
 105003 @ 예, 고동? 고동?
 105003 ## 고동.
 105003 # 게, 소라주게 고동이.
 105003 @ 고동 소라예.
 105003 ## 응, 소라.
 105003 @ 예, 소라. 소라는.
 105003 # 아, 거 뱃기디 막 둥굴어. 둥굴어 둥굴엄시민 막 눈에 보이민 잡아와.
 105003 ## 게메 고동은 물에 들면은 감테 아레, 감테 아레나 이런 돌 트멍에나.
 105003 ## 허면은 이제 잡앙 올라와그네. 손으로 심영 올라와그네. 망아리에 담앙.
 105003 @ 망아리에 담앙예.
 105003 ## 그자 이녁 하영 잡아지민 하영 앓고, 족영 잡아지민 족영 앓곡. 경 허는거.
 105003 @ 물 아레 들언예.
 105003 ## 응, 물 아레 들언.
 105003 @ 물은 얇은 디나 짙은 디나.
 105003 ## 아이고게, 지픈디는 잘도 지프주. 경 흐곡 야픈디는 야프곡. 중간에 도 또 잇곡.
 105003 @ 중간에도 잇고예.
 105003 ## 응, 게난 상군, 중군, 똥군 세 가지로.
 105003 @ 상군 중군 똥군예. 삼춘은 어느 군에서 해납디가?
 105003 ## 우린 똥군, 우린 경 행. 뗏 해 허지도 못 헨. 아판 허지도 못 헛주. 허지도 못 헛주만은 경 행. 거 헛주.
 105003 @ 게난 삼춘은 물질은 언제 배와그네 언제까지 헤져 신고마씨?
 105003 ## 아이고 물질 어느 때 사 배와저신디 흐끔 허단에 그자.
 105003 # 흐 열데으숫 때부터 시작헤연에 흐 마흔은 더 헤실거라.
 105003 @ 마흔은 더 헨. 쉼 나까지.
 105003 # 쉼 깎지.
 105003 @ 쉼깎지예.
 105003 ## 쉼 깎지나 헤 져신가.
 105003 @@ 아이 게문 상군인게 마씨. 그 정도 오래 허문 상군.
 105003 @ 거문, 남자 삼춘은 마중도 땡기고예.
 105003 # 마중허레 땡겐서.
 105003 @ 메역마중 허레예?

105003 ## 응, 메역마중허레.

105003 @ 소라도 마중허레 가곡.

105003 # 아이고 소란, 소란 요세사 소라 햄주.

105003 ## 요세난에 금 헤엿다그네 허난 마중 헛주. 옛날엔 그자 그 펜 고동은 무신 돈 주멍 사숫과? 잡아당 먹곡.

105003 # 거 잡아지민 먹엇주. 그 풀거나 뭐 흐지 안 해서 옛날에.

105003 @ 아 고동, 옛날에는예.

105003 ## 옛날에 우리 갯것이 텡길 펜 경 해부난에. 원 그거 잡아지민 먹엇고 춤 올케.

105003 # 금 허지도 안허고.

105003 ## 금 허지도 안허고게. 경 허민 메 날 강. 흐끔씩 잡아당. 간 펜 잡아당 먹곡. 경 헨 헛주. 요즘이난 금 헤엿당 허제 허문 망아리로 흐나씩 헤영 마춤덜 허멍 헤엿주.

105003 # 양식이니까 요세는 막 종묘를 헤영. 양식이니깐 경 햄주. 그전에는 거.

105003 @ 예에 경 헛구나예. 거문 게는 어떻 잡아 해신고마씨?

105003 # 갱이주게. 갱이.

105003 @ 예, 게, 갱이.

105003 # 게 별로 엇어.

105003 ## 갱인 거, 물에 들영 허질 안 허고, 물 싸민 돌 일렁 잡으는거.

105003 # 거 켜켄 헨 것덜.

105003 @ 예 돌 일렁예.

105003 ## 거 돌게.

105003 @ 돌게 예. 거문 이거는 그냥 돌 일러으네 해당 잡아다 그네.

105003 ## 그냥 먹는거. 뽕앙도 먹고게. 옛날엔 그거 잡아당 뽕사그넵에 젓 헤영.

105003 @ 젓 담앙예.

105003 ## 먹을게 엇이난게 쫓지랑허민. 그냥 먹을 걸로. 경 헨 그걸로 경 행 먹어낫주만은 요즘사 경 행 먹엄서, 요즘엔 갱이죽 허젠 허난에 즈수 이저 해녀의 집이서 하영 잡아감서.

105003 @ 예 하영 잡아 강예.

105004 @ 고동이 종류, 고동에도 이 종류별로 잇지 앓은가마씨? 바당에서 저 고메기?

105004 ## 아니 종류벨로가 아니고 지픈디건 홀그고 야픈디껌, 야픈디 꺾 즐고. 경 헨거 뿐이우다. 종류별이 엇어 고동은.

105004 @ 계난 우리가 얘기허는 것은 고동은 소란디, 그 표준어로 고동은 바당에서 기어다니고 집 있고 하는 거를 다 고동이엔 허난예. 삼춘이 잡아난 그 고동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 소라 말고도 이신가?

105004 # 아, 저 보말도 고동이주게.

105004 @ 예, 보말도.

105004 # 게메 그런 걸, 여기서 뭐 크게 뭐 네세우질 안 헛주게.

105004 ## 게난에 게, 거 보말도 춤 육지서 고동이엔 헛디다양. 거 보말도 잡아 다그넵에 헛는게 그것이 요거 허질 안 험주. 요즘은 잡앙 죽 썩덜 장스헌텐 헛디다 마는 원 우리 홀 뎨 그런거 춤 가민 잡아당 헨 하영 먹엇주.

105004 # 건 집이서 먹어 부럿주.

105004 @ 메옹인엔.

105004 ## 메옹기엔 헛주.

105004 @ 메옹기? 또.

105004 ## 예, 메옹기. 메옹기 헛곡 또 무시거니? 그것 곶아 홀트데기도 잇고,

105004 @ 홀트데기에.

105004 ## 코토데기.

105004 # 웬보말.

105004 ## 웬보말도 잇고.

105004 @ 웬보말.

105004 # 술누리,

105004 @ 술누리.

105004 ## 수드리이.

105004 # 수드린가.

105004 ## 먹보말,

105004 @ 먹보말 또.

105004 ## 그거 말앙 또 무시거니 ?

105004 # 남텡이,

105004 ## 남텡이.

105004 @ 남텡이 또.

105004 ## 게난 그거주. 남텡이 그것 ㄱ장 양. 그것 ㄱ장 뱃기. 먹보말, 수드리, 남텡이,

105004 @ 먹보말, 수드리, 남텡이, 웬보말.

105004 ## 웬보말,

105004 @ 홀트데기,

105004 # 메옹기.

105004 @ 메옹기?

105004 ## 으.

105004 # 메옹기 쪼끔 메운맛 잇는 것 곶아 메옹기.

105004 ## 헛썰 메운맛 잇인거.

105004 ## 콧타드랭기.

105004 @ 아, 콧타드랭기?

105004 ## 그걸 잡아당 거 숭으민양. 네젠 흐민 코가 툭툭 톤아집네다게. 옷곳
 하게 다른 것 ㄱ찌 올라오지 아녕, 게난 콧트레기.

105004 @ 홀트레기도 마찬가지로.

105004 # 응, 맞은 잇어.

105004 ## 으, 것이 더 맛조아.

105004 @ 홀트레기가 맛있고예? 콧타드랭기.

105004 ## 응.

105004 @ 또 있지 안 허우파?

105004 # 아 잇기야 뭐 하영 잇주마는 그걸 다 알아저게.

105004 @@ 생각나는 것만.

105004 ## 아 생각 나는거나 마나 그거 넘어 난 못 골으킨게. 엇어.

105005 @ 경 허고 쟁이 종류.

105005 ## 쟁이 종류게, 원 쟁이 그거 거시기 쟁이 흐고 또 물랑쟁이 흐고 또
 돌쟁이 흐고 그거주.

105005 @ 물랑쟁이, 돌쟁이,

105005 ## 예, 그거 세 가지주. 거 경 해도 물랑쟁인 영 심으민 물랑물랑헤여
 또 돌쟁인 돌 ㄱ찌 광광헤여, 또 그자 쟁인 그테로 그 흐고.

105005 @ 그 크기에 따라도 이름이 이실거 아니우파?

105005 ## 아이, 거기서 잡은 쟁이 크고 죽고 흐 엇이 차이가 엇어. 바당에서
 잡는 게는 그런 거은 크고 죽은 거 해도 그거 무신 바당에서 잡은 거. 무신 놀케여
 무신.

105005 @ 응, 놀케.

105005 ## 뭐여, 놀케여, 아 거 말앙 나 몰르쿠다.

105005 @ 게도 쟁이 막 허면은 보말 잡으민 막 큰 것도 막 저기 구덕에 막 텅
 기고 잡아넣고 막 허지 안음니까예?

105005 ## 흐 엇이 큰거 엇어.

105005 # 여기는 그 쫓게 ㄱ추록 그 큰 것들이 업서. 잇당은 흐나 씹이나 잇는
 데 그거 해서 무신 장스를 허거나 여기서 상품화를 시키질 못 허주게.

105005 @ 집에서 먹을 때.

105005 ## 거 쟁이 잡으레 강. 흐쫄 큰 건 놀케 그거주.

105005 @ 놀케 허고예.

105005 ## 그건. 그거 주. 무신 쟁이가.

105005 @ 경 해도 죽 쭈젠 허면은 경 해도 물랑쟁이를 헤다가 죽쭈?

105005 ## 아니 물랑쟁인 안 헤 네벼, 건 맛 엇어.

105005 @ 게민 돌쟁이.

105005 ## 응, 그자 쟁이. 쟁이 헤다그네 이제 잘 시쳐뵈. 뽕앙 물 걸러 뵈. 죽

썰.

105005 @ 갱이로예, 경 허난 갱이죽이로구나.

105005 ## 응, 경 행 갱이죽.

105006 @ 그 헛불, 불을 이용해서 예. 헛불을 이용해 가지고 저기 그 바닷가 걸
잡을 때는 어떻 잡으는고예.

105006 ## 아 불 헤어그네 잡는거.

105006 # 거 물어 해습.

105006 ## 아침 새벽이 물 쌀때 되면. 불을 비추면. 해습 잇는 딴 해습 잇고.
문어 잇는 딴 물어 잇고. 경 해그네 헛불 헤어그네 잡는거.

105006 @ 해삼허고 물어 허고예.

105006 ## 응.

105006 @ 아 물 새벽에 물 쌀 때예.

105006 # 새벽 물쌀 때 이제 헛불 들렁 강 허면 그 해삼 나는 딴 가면 해삼이
잇고 또 탕기당 보면 물어도 잇고 경 행 잡는거.

105006 # 물어는 불을 보면 쫓아나와.

105006 @ 아, 쫓아 나왕예. 그 이외에 거는 불로 이용해 잡는 것들은?

105006 @@ 낙지, 낙지.

105006 ## 낙지나 물어나 뭐 메 한 가지.

105006 @ 메 한 가지. 낙지나 물어나.

105006 ## 경 허고 이 앞바다엔 낙지가 벨로 엇입니다게.

105006 @ 요 앞바다에예. 저 고성드르? 고성벙디이?

105006 ## 예.

105007 @ 그 원이 잇지 안습니까예? 원.

105007 ## 원이 무시거라?

105007 @ 저 바닷가 갯담.

105007 # 아, 원이 옛날 꿩이 가두와그네 잡아난. 그거 엇서 여기는 엇어 그런
거 저 온평리는 잇어.

105007 @@ 고성리는 엇어나수과?

105007 # 여기는 그냥 엇어.

105007 ## 그런거 엇수다게.

105007 @ 그 고성 벙디쪽에. 바닷가 그 너럭바위 잇인디이. 너럭바위 엇인가 마
씨? 건 저 성산쪽인가 마씨?

105007 # 아이, 고성리 앞바다에 백기 가민.

105007 @ 예, 백기도 원담은 안 만들엇주마는 경 해도 원담 추록 역할을 할거
담은디예?

105007 ## 아이, 그런거 엇어.

105007 # 아이 그런거 그물 놓지 안으면 고기가 막아지지 안니혀. 그물로 막아

사 그물로 씌와그네 그.

105007 ## 게멘 그것 굴아 게막음이엔 해주게.

105007 @ 예 게막음?

105007 ## 응, 게막음엔 헤기네. 고기를 옛날에 춤 잡아난 어른이 잇주만은 이제는 엇어.

105007 @ 응, 경 해도 고성 어른이 그 추록 행 잡아났다는 거 아니우파예?

105007 ## 응 잡아났주. 웃동네 저 누게양.

105007 # 응, 이디 흥○○네 누구네.

105007 ## 게난 그 어른네 다 돌아 가서부난예.

105007 @ 게난 그 어른네도 그물로 게막을 헤그네 잡앗덴 헌건게예?

105007 ## 응.

105008 @ 거문 원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큰게예. 원이 엇어나난예. 원이 엇이난예.

105009 @ 멀치, 멜은 잡아야 텔거 아니우파예? 멜 들어그네예.

105009 ## 아니, 옛날에사게. 멜을 굿디 들영 강. 좇어당 멜. 저 메루치도 허곡. 것도 담앗주 마는 요즘은 경 흐는게 엇주게. 옛날 ㄱ찌 굿이 멜이 안들어.

105009 # 옛날은이 이, 것 굴아 무신 접. 것도 접이라.

105009 @ 예예.

105009 # 멜 잡는 접. 그것 그물 헤 가지고.

105009 @@ 후림, 후림.

105009 # 아니, 후림이 아니고.

105009 @ 멜 접?

105009 # 응, 양쪽 가달로 그. 다 사람들 나가그네. 멜이 들어오민 그물을 짹 들렁. 이 쪽 동 쪽 서쪽 헤 가지고. 다 양쪽으로 땡 경. 물을 끌어다그네. 그 잡앙. 그것도 또 역시 접으로 헤 가지고 그 동네에서.

105009 ## 간사람 수정에 다 갈라.

105009 # 다 나누어그네.

105009 ## 그디 멜 그날 후리 헌거. 그날 잡은 거를. 간사람 수정에 이제 그 그릇으로 헤영. 올케 춤 요센 말로 무신 소쿠리나. 옛날에 이제 굴을 골체. 그런 걸로 갈랏주마는 요즘은 그런게 엇어. 굿디 들지도 아녀. 옛날은 굿디 치데기고 뭐 흐는디.

105009 @ 게난, 멜 헐 때도 그물이 있어야 헐 건디, 그물 관리 허는 게 접이고예.

105009 # 응.

105009 @ 접이면은 동서로 짹 그거를 잡앙오고, 건디 멀리서 멜을 들게끔 어땡이, 후리는 건 엇인가마씨?

105009 # 아니, 게 멜들 떼는 그 멜이 어땡 곳으로 막 들어와.

105009 @ 들어와그네 곳에 들어오니까예.

105009 ## 옛날엔 거 뭤이 하난 것싼디 어떻사 헨디. 이제 곳디 뭤이 막 오민. 물이 와작작 하게 곳디게. 그 뭤이 들어오주게.

105009 # 아, 네불어게. 오늘 춤진 안 헨게.

105009 ## 경 헉민, 경 허민. 그저 거시기 이제 올케 저 곳사 하르방 곶아 말판 아. 접으로 강 뭤 들엇젠 헉민. 이제 그걸 앗앙 강. 그물로 먼딜로 강. 영 쳐 와그넵에 동서로 잡아텡경, 그걸 헤여그네 간사람 수정에 갈라 나고 헤엿주만은 요즘에는 그런거 엇어. 거 그런거 엇건디 멧 십 년똥어.

105009 # 경 흘 떼는 뭤을 그냥 모랫바닥에 돌령 걸름도 헛어.

105009 @ 예 걸름예.

105009 ## 뭐 거 그디서 잡앙 그디서 물렸다그네. 다 걸름 허영 보리 갈 때민 ㄱ랑더레 헉나씩 흘청. 뭤이 경 걸덴 헤그넵에 헉나씩 헉나씩 흘청. 그 때 무신 비료가 있어수과? 무시거 있어수과게?

105009 @ 예, 게도 접이 있어네예. 그때도예. 어째든 해서 접에서는 갈랑도 가지고 풀기도 헛을거고 접이니까.

105009 # 아, 겐디 풀, 사갈 사름이,

105009 ## 그 때 풀고 사가 가곡. 흘 사름이 엇어주게. 그런디 가그넵에 그걸 잡아그넵에 헤가 가면은 흘친 것도 하주. 게민 흘친거 좇어당 먹젠 헉주. 돈 쥬 거 사당 먹젠을 아니 허여게.

105009 @ 게 뭤젓은 답아사 헛 거니까는.

105009 ## 뭤젓 답아도 게. 뭤젓 두어 동이 답으민 무시거 얼마나 행 먹젠게.

105009 # 뭤젓 얼마나 답아게. 흔 두어 똥 답으민.

105009 @ 예예.

105010 @ 거문 고기 낚으는거 예. 고기는 저기 어떻 낚아신고예?

105010 # 아, 그건 똥. 베로 강 낙끄고, 곳으로도 낙끄고 헉는데.

105010 @ 예 곳에도 낙끄고.

105010 # 똥 침떼 행 가그네 낙끄주 무신.

105010 @ 침떼 헤그네예. 침떼도 이제 긴 큰 것도 있고 큰 침떼도 있고 작은 침떼도 있고.

105010 # 아, 게 고기에 따라서.

105010 @ 예, 고기에 따라예?

105010 # 그 요즘 말히는 이 감성돔 소위 것 곶아. 감성돔은 똥엔 곤다 마는 저.

105010 ## 무시거. 돔이 주게. 무시거 감성돔이 돔이란게게.

105010 # 경 헉고 구럿.

105010 ## 구럿 헉고 게. 구럿 곶아. 검은 돔이엔 해냐 헉곡.

105010 # 그런 거 헉는 거는. 옛날은 아주 침떼도 길게 헉곡. 똥 헤 가지곡. ㄱ

녁에 밤에 가서 낙깻주.

105010 @ 아, 밤에.

105010 # 낙깻고.

105010 @ 그거 허젠 허문 찌가, 아니 그 저 먹이를 헤 줘사. 먹는걸 줘사 그걸 먹젠 현거 아니우파?

105010 # 응, 그 때는 맛게라고 잇어 맛게. 맛게라고 예, 해안가에 가문 큰 돌에 그냥 세카망게 확 그 돌아다니는 거 잇어. 그거 잡으민 돼어.

105010 ## 요세 집안에서 저 무시거니 집이 잇인것 곶아. 바퀴벌레 닳은게. 바퀴벌레 닳은게. 그 옛날엔 바당에 가민 곳디 시커멓게 나와 낫주게. 겐디 요즘엔 잇어 양.

105010 @ 바퀴벌레 닳은 거. 다리 막 하영 잇인거.

105010 # 응, 그거 검영 현거.

105010 ## 검영 현거.

105010 # 그거 잡 양 미끼로 행 거 구릿 ㄱ뜬거 낫가 낫주게.

105010 @ 미끼로 예, 그거를 맛게렌 해수과?

105010 # 응, 맛게.

105010 @@ 밥주리엔 안 해수과?

105010 ## 밥주리엔 안 해 맛게. 여기선 맛게엔 해.

105010 # 응, 그건 동네마다 이름이 틀리니까.

105010 @ 거꼭 죽은 것들은? 죽은 고기들은 저기.

105010 # 아 게메, 죽은 것들은 소위 말하면은 물찌뎡이 ㄱ뜬거,

105010 ## 코생이 ㄱ뜬거 그런거 죽은 찰뎡으로 낙깻주.

105010 @ 코생이.

105010 # 죽은 거 죽은 찰뎡으로 낙깻는 거.

105010 # 경 흐고, 물잇겍, 덕 이거 덕에서 푼는거 잇어. 이 앞에 가면은 버덕 잇짱여. 거 곡쟁이로 찍으면은 그 안에 그.

105010 @ 아, 버덕억.

105010 ## 지렁이가 나오주. 지렁이 닳은 거.

105010 # 거 그렇 겐로 나끄곡, 그거 흐면은 고기가 잘 물어.

105010 @ 버덕, 버덕이엔 허면은 튼튼 허게시리 된 땅 같은 거,

105010 ## 응. 뽕뽕 흐 디게,

105010 @ 예. 뽕뽕흐디예?

105010 ## 뽕뽕 흐 디 곶아. 버덕 경 흐주. 뽕뽕 흐게 시리. 이디 ㄱ짜 영 흐디 그디 못 쟁이로 찍어그네 흐민 그 안에에 이제 지렁이 닳은 거 나오민 그거 닛겍으로 쟁영. 코생이 조우럭, 어렁이, 그런거.

105010 @ 조우럭, 감뎡이.

105010 # 우럭, 감뎡이 뽕 별거 다 나끄주.

105010 @ 감랭이, 그 지랭이 ㄹ쁜 거렌 험니까. 지랭이엔 험니까?

105010 ## 지랭이엔 흐주게. 양? 지랭이엔 흐주.

105010 @ 예 지랭이예?

105010 # 여기선 발 닛겁, 물 닛겁 헤여.

105010 ## 발닛겁?

105010 # 물닛겁, 아 우리 성산 고성서 곶으난 고성서 곤는 데로 곶아야주.

105010 @ 예, 고성서, 예 발닛겁, 물닛겁예. 이건 지랭이예.

105011 @ 그 낚싯대허고 예, 낚싯줄 허고 뽕돌, 봉돌은 어떻게 만들엄시고, 어떻게 구해신고예?

105011 # 첨때는 여기 대나무 많으니까게. 대왓디서 이제 쫄라그네 흐고. 그 줄은 살 수 뱃기 엇주게. 그 정술을.

105011 @ 정술예?

105011 # 응, 그 사고 뽕돌도 사야 뛼고 낚시도 사야 뛼고 거 뛼.

105011 @ 정술을 사지 않을 때는 어떻 걸로 해 나신고예?

105011 # 정술을 살지 않을 때는 저 그 거시기로 실로 꼬아진, 그 소위 것 곶아 무시거엔 노꼴이엔 흐는디.

105011 @ 노꼴시마씨?

105011 @@ 끈을 노꼴이엔 흐주.

105011 # 그 실로 꼬여진 노꼴이 잇어. 실로 실로 그 게늘게.

105011 @ 실이면은 집이서 잣이던 무땡, 무땡?

105011 # 응, 무땡실로 해서 영 꼬아진게 잇주게. 게난 그것으로 그 소위 말하면 줄로 해낏주. 두린 때는.

105011 @ 두린 때는예, 무땡실로 예.

105011 # 그거 오레 해서 그런거로. 그물썰 흐든가? 그물썰?

105011 @ 그물썰? 이거는 집에서 썰 잇인 걸로 현걸로 현거 아니우파예?

105011 # 아니아니, 그것도 사야 뛼여. 거 사람이 이디서 땡그라져게 그거. 아땡 해도 기계로 꼬아야. 기계로 나와야 뛼는 건디.

105011 @ 뽕돌도 사고예? 만들거나 해 나진 안헤수과?

105011 # 응?

105011 @ 만들거나 해 나진 안헤수과?

105011 # 아 낚싯이민 만들순 잇주게.

105011 @ 낚으로예.

105011 # 응.

105011 ## 낚으로 무사 꺾와네. 그거 영 무시거 스이에 뛼 헤나지 안헤수과? 그 걸 저기 불에 뵤 끓이민 물 뛼민 그레 썰 닳은 거 가운데로 뛼. 무신 그릇에 톡 비완. 뵤두민 뽕돌이 뛼여.

105011 # 그 동그랗게 뵤 뽕돌만큼 뵤 멘들아 가지고.

105011 @ 예예.

105011 # 그 안에 구멍 나게 맨들어서 경 행 만들어도 돼지마는 거 만드는 건 경 거시기 하고 그게 막 나오니까 폭는게.

105011 @ 폭는게, 삼춘 때는 폭는게 나오니까예. 응 나오기 전에는 납으로 끌어가지고예 쓰던 것덜 해 가지고예?

105011 # 응. 게 납이게 뽕돌이니까게.

105011 @ 납도 구허기가 옛날에는 폭는거 나오기 전에는 돌로 해실테주마씨?

105011 ## 거 뭘로사 해신디.

105011 # 예 돌깎진 안가.

105011 @ 경 허난 뽕돌뽕돌 아닌가?

105011 # 아이들은 돌로 헛주. 켜켜 헛 아이들은 그 뽕돌 사기도 뭘 헛면은 돌 무경 헛기도 헛주게.

105011 @ 예예.

105013 @ 고깃배는 예, 고깃배는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잇어신고 마씨?

105013 # 고깃배 종류는게. 거 조그만 전마선 잇잔여. 풍선이.

105013 @ 풍선예.

105013 # 거 터베, 그 다음은 뽕드 ㄱ뽕거. 켜켜헌이.

105013 @ 풍선, 터베, 뽕드면 동력 나온 때 뽕드,

105013 # 보드허고 이 터베를.

105013 ## 옛날엔 그 다른 거 안 나온 뽕 터베를 하영 사용 헛주게. 뽕뽕헛곡.

105013 @ 뽕뽕?

105013 ## 응, 거 쪼그만 허게시리.

105013 # 아, 그 뽕마라고 그거는 죽은, 큰 베에 그 뽕마 뽕마 해여그네 일본 늑들 곤는디, 그게 소위.

105013 @ 조각배?

105013 # 응, 왓다갓다 헛는 운반수단으로도 이용 헛곡. 큰 베테레 갈 때 타기도 헛곡. 헛는건디 그 게 적은 걸 이예기 헛는 거주게. 적은걸 게난 적은 걸게 두 세 사람이 탕 나가그네. 낚시질 해영 들어오곡.

105013 @ 거는 노젓는 걸로 해가지고예.

105013 # 예, 노 절영.

105013 @ 노 절영, 뽕마 말고 다른 말 잇어수과? 조각배?

105013 # 게메 그거.

105013 @ 옛날엔 표준말론 조각배일것 같은디. 예 뽕마?

105013 # 하영튼, 별말이 그거 그자 곤는 데로 곤는 거난예. 그게 무신 말이.

105013 @ 맞수다.

105013 # 정 해정 나와이신게. 아니고 허난 그자 편리헛데로 곤는 거주. 게난 풍선.

105013 @ 풍선.

105013 # 게 보름에 의해서 가는게 풍선이주게. 풍선이난 듯데 달양으넵에 거 조금 솔레기썸 낙끄레 가젠 허문 그 풍선으로 가주게.

105013 @ 아, 솔레기이 솔레기이 풍선. 그 저기 해녀들이 줌너 어른들이 채취 허는거예. 해산물. 아까는 고동은 따로 허곡. 해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신고마씨? 메역.

105013 ## 메역 메역 하고 메역 뱃기. 메역 그 해산물 해영 허민 메역, 고동게. 전복 그런거 뱃기. 문어 그런거 뱃기 더 무신 줌수덜 잡는 것사 그런거 뱃기 더 있어, 저 전복.

105013 @ 예, 전복 예. 전복을 다른 말로 무신 말이엔 됩니까? 빗이엔 해신가마씨?

105013 ## 그자 전복이엔 헛주. 옛날도 양. 전복이엔 행 다른 거엔 말은 나 안들어 봤주.

105013 @ 예, 고동 전복 작살로 고기라든가 잡아 지면은.

105013 ## 응, 경 허난, 저 고무 작살로 헤그넵에 고기도 쏘곡게. 문어도 잡곡, 작살로.

105013 @ 성게하고 슴 틀 때는 옛날엔 어떻 해신고마씨?

105013 ## 저 성게 하고 슴 흘 때는 골각지. 요센 요세는 그 슴 파는 그거를 따로 멘들안 마직하게 흔 호멩이엔 헛주만은 옛날엔 골각지로.

105013 @ 골각지예, 골각지로 하고예.

105013 ## 전복 칠 덴 빗창으로 하고.

105013 @ 빗창으로 하고예. 경 허곡 빗창으로예. 경허고 바당에서 허는 옛날에는 먹을거엔 해 가지고 요즘 흔히 청각이엔 현 것도 해 나신가마씨?

105013 ## 청각도 있고, 가시리도 있고.

105013 @ 예 청각.

105013 ## 프레.

105013 @ 가시리, 프레, 툇도 잇곡.

105013 ## 또시로 무시거니 거 슴양 먹는 것 곶아. 너페.

105013 @ 아, 너페.

105013 ## 너페허곡. 전각도 잇고.

105013 @ 아, 전각. 뭇망.

105013 # 뭇망도 잇고.

105013 ## 뭇망도 싯고게. 툇도 잇고 게. 슴양 먹는 것사.

105013 # 툇이 이제 이 어촌게 전체적으로 하는 거주. 거 툇은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뭇려 가지고 공동으로 풀아그네. 이 돈 갈르는 거주.

105013 @ 뭇망, 전각, 너페, 프레, 가시리, 청각 또 엇인가? 듸복 같은거.

105013 ## 경 행. 허문 또 문어 ㄱ뜯거.

105013 @ 아, 우미.
 105013 ## 예 우미 메영 풀고.
 105013 @ 김도 잇어신가마씨?
 105013 # 김은 엇어.
 105013 @ 조개?
 105013 ## 조개는 조개 바당에 잇주게.
 105013 @ 조개 바당예, 조개, 조개도 으라 가지 아니우파? 이름이예.
 105013 ## 아유, 조젠 이디도 그자 혼 가지. 원 돌 콥조개 그자 조개.
 105013 @ 예 돌콥조개예.
 105013 ## 저 그자 조개.
 105013 @ 예, 돌콥 조개.
 105015 @ 그 좀너어른들 줌수 헐 때 필요한 도구예. 물질 헐 때 필요한 도구예.
 105015 ## 거게 게. 테왁 흥곡.
 105015 @ 테왁흥고.
 105015 ## 저 굿사 굴아라 빗창 흥곡.
 105015 @ 아, 빗창 흥고예.
 105015 # 소살 흥고.
 105015 ## 또시로 작살 흥곡 이제 작살이엔 험저 옛날엔 소살.
 105015 @ 소살?
 105015 ## 응, 그거 흥고 메역 흘 떼 호미흥고.
 105015 @ 호미 허고, 또 쪼그만 현거 옆에 메는 거 전복이라도 해지민.
 105015 ## 그거는 저기 거시기 무시거 조레기.
 105015 @ 아 조레기.
 105015 ## 망사리 말아 조레기.
 105015 # 건, 문어 ㄹ뜯거 그 준준 현거 전복 ㄹ뜯거 중요 현거 잡은 떼 그것에
 따로 놔서 도망 지 못허게 허영.
 105015 @ 예 맞수다. 눈?
 105015 ## 눈 써사 허고.
 105015 @ 귀 막을 때는?
 105015 ## 귀 저 거시기 밀.
 105015 @ 밀이엔 굴아 수과?
 105015 # 응.
 105015 @ 그걸 막 찍어그네. 귀에 담아그네.
 105015 ## 그 시커멍 현거 막는거 그거 밀.
 105015 @ 밀은 쪽으로 해신가마씨?
 105015 ## 아니 그냥 거 무시거 시커멍 현거 나왔어.
 105015 @ 폭는거?

105015 ## 응, 거 나오곡. 그자 아니 허영으네. 잠시 흐는 건 쑥 보병으넹에 막 아그넹에 흐고.

105015 @ 아, 이거 나오기 전에는 뭘로 해신고예?

105015 ## 그거 나오기 전엔 뭇사 해신디. 그거 바당에 들어 갈 때에 이제 지픈 디 흐는 사름덜은 이제 밀을 막고. 야픈디 흐는 사름들은 이제 쑥도 행 흐고 그자도 흐고.

105015 @ 예 그자도 허고예?

105015 ## 응 경 해서 옛날에 그자 해실 거라. 밀 안 나온 뎌.

105015 @ 옷은 뭐?

105015 ## 옷은 속곳 입언.

105015 @ 속곳이엔 험니까?

105015 ## 응, 속곳.

105015 @ 속곳허민 머리쓰는 거는?

105015 ## 수건.

105015 @ 수건 허고.

105015 ## 적삼 물적삼.

105015 @ 물적삼 허곡. 저기 아랫거는? 아랫것도 그냥 적삼이엔 험니까?

105015 ## 아니, 아랫건 속곳게.

105015 @ 아랫건 속곳.

105015 # 소중이엔도 허고 속곳이엔도 허고.

105015 ## 소중이가 옛날에 하영 골앗주. 속곳보단.

105015 @ 예, 소중이예. 소중이 허고 예. 물에 나오면 우에 덕으는거.

105015 ## 아이고 무신거 더끄는거 잇어수과게. 소중이 입영 그자 불 솜양 추엿주.

105015 @ 뜨데기엔 헌건 안 해나수과?

105015 ## 뜨데기엔 헌거 나건디가 오래지 안허네 허단. 이제 고무 옷 나고 해수다. 거 옛날에 무시거 더끄고 헨 해수과. 그자 벗언 그자 불 추원 달달달달 털멍헛주. 경 허난 얼마 살안 저수과게. 물에 간게. 이젠 흐루 저물양 험주.

105015 # 이제는 흐 시간이여, 두 시간이여 험주. 고무옷 안 입은 때는 가민 그자 워가 들어갓당 나와야주. 경.

105016 @ 옛날허고 비교 해그네. 지금 물질은 어떻 생각해점수과?

105016 ## 아이고 옛날 흐고 비교 험이사 요세사뉘. 춤 천지 차이주게. 편안 하게.

105016 # 천국, 천국. 요세는 거 춤 해너 불턱에 가면은 온수 뉘 보일라 다 해가지고.

105016 ## 방도 뚝뚝하게 다 해 주고 물도 뚝뚝허곡. 무신 모욕, 나오민 모욕 뜨신 물로 썩 해여그네 나오곡. 아이고 요세사 무신, 춤 대통령흐는 거 험주.

105016 @ 예, 요즘은 대통령이고 옛날에는 보면은 불턱에 와그네 젓은 채로.
 105016 # 불턱에도 우의도 엇이.
 105016 @ 예 우의도 엇이.
 105016 ## 그냥 담 흐쓸 다민 그 읍페서 그자.
 105016 @ 그 불턱도 그 옛날에도 불턱 잇어나신가마씨?
 105016 ## 아, 불턱게 영 똥그랑하게 흐쓸 허곡. 또 이레 그 셀백 흐쓸 높은 딴 그데로 행 불 숨안 추곡 경 헛주게.
 105016 @ 예, 흐끔 높은딴 그대로 허곡예.
 105016 ## 응, 그데로 영 행 요추룩 영 헛 담이나 요만이 현 영 잇인딴 요레 벵 흐게 돌아 헤으네불 숨아 추곡.
 105016 @ 불 숨아추고예.
 105016 ## 상군 불턱, 중군 불턱, 똥군 불턱 행 불턱도 서너 밧디 행으넵예.
 105016 @ 그 기 불 숨젠 허문 물질 허레 가젠 허문.
 105016 ## 검질 지영 가주. 남 정 가곡.
 105016 @ 낭 정 가곡예.
 105016 ## 응.
 105016 @ 거문 또 이제 그 또 불 가차이 가는 사람도 잇곡. 또 상군, 중군, 똥군이엔 헤 가지고.
 105016 ## 상군 불턱은게. 상군은 오레 살앙 나오민. 딱로 똥고게. 중군 흐고는 제기 오레 살지 못 허여그네 확 흐게 나오민 딱로 불 추어사주. 상군이영 그찌 못 추난게.
 105016 @ 계속 불을 때질 못 허난예.
 105016 ## 응, 경 흐난 계속 똥곰 잇어사 떼주게. 그디 저 허지 못 허민 일찍 가그네 검질 못 앓어간 사름은 그디 숨베기 다 비어그네. 물론 검질 슴이엔 노왕. 그 불 부찌명 불 추곡 헛주. 검질은 어디 경 잇어서.
 105016 @ 맞수다게. 집에서 지들것도 해야고예.
 105016 ## 응, 경 흐난.
 105017 @ 그 아까 줌전에 굴앗주만은 물질 혈 때 옷 있지 아니우파예? 맨 처음에는 그냥 소중이 했다가.
 105017 ## 소중이 헛엇단 그다음엔 고무 옷이주게.
 105017 @ 그다음 고무옷예. 고무 옷은 저기 언제쯤?
 105017 ## 언제부터 헤신디 알아지크라? 우리가 입어나질 안 헤부난게.
 105017 @ 아, 삼춘은 고무 옷을 안 입어 났구나예?
 105017 ## 그런거 안 입어난.
 105017 @ 계난 고무 옷 막 나와도 삼춘은 안 입어 뵈디가?
 105017 ## 아니 원 우리 안 헤난에게.
 105017 @ 아예 안 헤 받?

105017 ## 응. 그 때 고무옷 나올 때는 물질을 못 했주. 아판.

105017 @ 예 예, 물질을 못 헨예? 계난에 맞수다. 칠십 년대 후부터 고무옷이 막 나와시난. 칠십 년대 팔십 년대부터.

105017 @ 지금 큰아이가 몇 살 때쯤에 저기.

105017 # 흔 오십 ㄱ지 헤실 거난게.

105017 @ 예, 원 살 ㄱ지 헤시난예. 맞수다. 칠십 년대 말부터 허난에. 맞수다. 칠십 년대 중반부터 들어 와시난에. 고무옷 다음에.

105018 @ 툇은 툇 채취는 옛날부터 다 저기 공동으로 해신가마씨?

105018 ## 툇?

105018 @ 예.

105018 ## 옛날부터 했주. 그 받아가, 어촌계로 행 받아가기 시작헨.

105018 @ 응, 어촌계 반양가기 시작 헨.

105018 ## 응.

105018 @ 어촌계로 이거 받아 가기는 언제부터 시작 해신고예?

105018 ## 어느 때부터사 해신디 뭐, 생각 나크라?

105018 # 그게 아마 우리 정전 돼고 이 뭇해서 그. 어느 정도 그 뭐가 나라가 쩍끔 안정 돼 가난 일본에서 그걸 수입을 했거든. 우리나라 사람은 먹질 못 해서 툇도. 저거 일본 전량 막 수입해 가그네.

105018 @ 맞수다.

105018 ## 일본 수입 해 가지 시작 헨.

105018 @ 공동으로예. 경 해도 툇 잇어서 여름에 냉국으로 행 먹고 설사 날 때 그거 된장 찍어그네 먹기도 허고.

105018 ## 아니 계난 그런거 헨는 거는게. 쩍끔 해당 먹곡. 툇 허체 홀 때도 혼 줌 죽양 왕 먹곡게.

105018 # 거 집에서 먹는 거 정도는 다 돼주게.

105019 @ 우뭇가사리에, 우뭇가사리 천초엔 험니까? 가시리엔 험니까?

105019 # 가시리. 우뭇가사리 가시리.

105019 ## 아니. 우뭇는 우뭇엔 험곡. 그자 국 끌렁 먹고 무시거 헨는 건 가시리. 프레, 너페, 전각, 경 헤그벙이 또 몃.

105019 @ 예, 이젠 몃 해신디. 우뭇가사리엔 헨거가 딱로 엇인가마씨? 그냥 가시리?

105019 ## 그냥 가시리. 우뭇가시리가 아니고.

105019 @ 가시리?

105019 ## 응, 가시리. 우린 그자 그거 해당. 녹물 노코 행 국 끌리민 국도 맞조코.

105019 # 국이 맛이어 가시리 국이.

105019 @ 거문 우미는?

105019 ## 우미 그자 저 해당 발레여사. 숯양 먹어 숯양 여름에,

105019 # 그거 그거는 허영게 그 춤 이슬에영 뒤에 널영 놔두면 허엿게 돼면은 그걸 물 노코 딸려서 응고 시키면 우무가 돼는거주게.

105019 ## 거 우미게. 우미 폭는 거. 그것이 그 우미 숯은 거주. 우뭇가시리.

105019 @ 가시리는 크기가 흐끔 틀림니까?

105019 ## 응. 저,

105019 # 빨갓코 쟈쟈혀.

105019 ## 커서 요만이주.

105019 @ 아, 한 이삼 쟈치.

105019 # 거 돌 바닥에 빨가게 나는 거.

105019 @ 아 바닥에, 빨갓게, 우미는 또 물속에서 즈물아 나오는거.

105019 ## 물 쪽에도 즈물고 또 굶디도 잇고. 경 험디 물론딘 엿주게 우미는.

105019 @ 예, 우미는예.

105019 # 물 잇는 디가 잇주.

105019 ## 물 잇는 디가 잇곡. 몸도 물 지폰디것이 몸이 조꼭, 툴는 원 물싸는 디 나는디 나는거난 물 싸그넵에 흐곡. 흐는 거주마는.

105020 @ 전복허고 소라는예, 전복허고 소라는 옛날에는 다 공동 개인으로 하고 이제 나중에는.

105020 ## 네중에는 이제 그 어촌계로.

105020 # 아 계난 그 어촌계로 자기가 돈을 받젠 파는 거지. 풀기 실으면 앓아당 먹으민 돼여 개인이.

105020 ## 아니 못 앓영와.

105020 # 아니게민 못 앓영와 안 폭는 디사.

105020 ## 아니 양, 저 거시기 어촌계로 헤여그넵에 그 무시거 허제 허영 흘 떼양. 흘 떼 그기서 다 풀아야돼. 풀양 경 헤영 초담에 헤여 노코 네중에라그넵이. 이제 두 번 흘 떼 가정왕. 이녀 자기가 이제 제삿떼나 뭐 흘 떼 흐켄헤영 가정 오민헤도. 경 아녕은 못 가정와. 거 어촌 계장이 양. 딱 들어 상 그거 험넵게.

105020 @ 계난 그거는 어쨌튼 공동이라는 거고예.

105020 ## 예.

105020 @ 삼춘 처음에 험 때는 전복허고 소라는 저, 사가는 사람 엿이난. 해다가 집에 먹고.

105020 ## 먹고 응.

105020 @ 건 처음엔 개인적으로 허다가 후제 어촌계로 변하고예.

105021 @ 전복 허고 소라가예. 종류가 있어예. 거 암커허고 수커허고. 또 크기 허고 또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계민 암컷은 뭐렌 험니까?

105021 ## 응, 암천복.

105021 @ 암천복.

105021 # 거 수천복허고 암전복 수천복. 수천복은 오무룩하게 시리조코, 암천복은 뱃짝허여.

105021 @ 이거는 뱃짝 허고예. 이거는 오무룩 허고예. 크기에 따라 가지고 큰거는?

105021 ## 큰거 작은 거, 그자 그거는 큰거여, 작은거 아니허여 근으로 요센 뜨문게.

105021 # 뗏기로 짜리.

105021 ## 뗏기로 짜리 경 흐여 허주.

105021 @ 요세는 해도 아 옛날은.

105021 ## 큰거 굴아 아이고 야야, 이건 솔박만인 흐키여 영 흐고.

105021 @ 솔박만이, 이름은 딱로 없고.

105021 ## 응, 요거 암천복이여. 수천복이여 허멍 요거 크민. 암천복이여 수천복이여 요거 크민. 아이고 야야 솔박만이 흐키여 영 흐고.

105021 @ 계문 모양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이실거 아니우파예?

105021 ## 계메 모양이 암천복허고 수천복이 뜰려.

105021 @ 예예, 암전복허고 수전복이 뜰리고.

105021 ## 수천복이 모양이 뜰려. 경 흐고 또 그 나머지 오분제기엔 행도 있고.

105021 @ 응, 오분제기 예. 오분제기.

105021 # 건, 전복 세끼가 아니고 건 종류가 또 틀린거라.

105021 ## 응, 건 오분제기.

105021 @ 전복새끼는 뭐렌 험니까?

105021 ## 전복새끼 몰르큰게 무시거엔 허는디.

105021 @ 전복도 이렇게 모양에 따라가지고 저기 여긴 뭐엔 허고 여긴 뭐엔 허고 험 건고예?

105021 ## 아 계난 암천복 수천복 이주게. 모양이.

105021 @ 암전복 수전복 모양이?

105021 ## 응, 그거 윈 이거 암천복이여 수천복이여. 영 그자 경 헤 나난에 그자.

105021 # 맛도 틀리주. 암천복 흐고, 수천복 흐고. 맛이 수천복이 좋지 아녀이?

105021 ## 술이 지프주.

105021 # 술이 깊으고.

105021 @ 살이 깊으고마씨?

105022 @ 그 테 테우에 대해서예. 떼, 테우 테우.

105022 ## 께에? 떼에, 세우? 테우가 뭐라.

105022 # 테베.

105022 ## 테베에.

105022 @ 테베에 대해서 알아줍서. 그거 저기 만드는 거나 모양이나.

105022 # 그거는 이 삼나무 굵은거 헤다가 그 가운데로 다 구멍 뚫화그네. 글로 그 이제 그 족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 나무를 찢렁. 게서 그거 이 통나무가 혼 열게는 들어야 켈거라.

105022 ## 열 게로 못 험네다게.

105022 # 그래서 헝고 그 혼 서너 군데를 가운데 다 구멍 뚫화그네. 나무로 그 사이에 끼워그네. 경 헝고 그거 잘 밧줄로도 잘 무끄곡.

105022 @@ 종류가 무시거 마썰? 저 삼나무?

105022 # 거이가 삼나무가 곧썩헝고.

105022 @@ 삼나무엔 허민 이제 그.

105022 # 으응.

105022 @ 물에도 잘 뜨고.

105022 # 응, 물에도 잘 뜨고.

105022 ## 썩지도 안 허고.

105022 # 그래서 삼나무로 이용헤여.

105022 ## 오그라지지도 안허곡 헤사.

105022 # 게민 또 그 웨에는 상자리엔 현걸 또 만들주.

105022 @ 상자리?

105022 # 응, 상자리 만들영. 그기 데로 헤서 엮어가지고 헝민. 그 우의 앓아둠서 낙씨질도 헝곡. 이제 거기서 밥도 먹고.

105022 @@ 상자리.

105022 # 고기 낙끄으레 가민.

105022 @ 거문 고기도 낙얏주마는 미역 조물 때 그걸로 그 우에 미역도 헤지민 허곡 헤신가마썰?

105022 # 아 메역 허제 헐 때는 터베가 가그네. 듬북도 듬북도 듬북 흘 때도 강 싯거 오고 메역도 그것에 싯거 오곡. 거 다 운반 흘 수 잇는 건 다 헤시난게 그걸로.

105022 @ 자리나 자리도 그걸로 거리고?

105022 # 응, 자리도 걸엇주.

105022 ## 자리 터베로 으, 터베로 걸엇주.

105022 # 자리 터베로 걸엇주.

105022 @ 터베는 나가면 어느 정도까지 나가신고예?

105022 # 너미 못 나가.

105022 ## 너무 멀젠 못 나가주게 터베라 부난.

105022 # 그게 동력도 엇고, 풍력도 엇고. 이거 순 힘으로만 이거 젓엉 나가야
 홀 거난 위로 젓엉.

105022 @ 그거 젓엉 예. 젓는 거는 뭐렌 험니까?

105022 # 네.

105022 @ 네?

105022 # 응.

105022 @ 거난 요 넬 젓엉. 어딜 가리 했구나예.

105022 # 응.

105022 ## 응.

105022 @ 네는 젓을 때 옆으로 젓지 아녀고 우이로 젓는 구나예.

105022 # 터베는 우이로 젓어. 그냥 이 거시기선은.

105022 @@ 옆에서.

105022 # 응. 그거는 이렇게 해서 젓는다.

105022 @@ 풍선은.

105022 # 터베는 뒤에 해 가지고 이렇게 젓주게.

105022 @ 예. 위로 젓는거예.

105023 @ 이제는 돛배예. 돛단 그거예.

105023 @@ 돛이 그거 풍선.

105023 @ 예, 이거 풍선 예. 이거에 대해서, 이 고성은 배 만드는데도 있어나지
 안해수과?

105023 # 이 고성에 배 만드는 디는 엇고 신양리에 가면은 좀 잇엇고. 저 시흥
 리.

105023 @ 시흥리 그 옛날에.

105023 # 응, 그 잇엇주. 계난 뭐 다 만들어서 사용헛주. 무신 그걸 어디 간 육
 지간 사단 쓰지는 안헛주. 그 준준현 것들은.

105023 @ 예, 시흥리서예. 허고 이거는 이거 만드는 사람이 또 전문가가 잇인거
 아니우파예?.

105023 # 응, 전문가가 아이고 배 짓는 목수가 상당현 아주.

105023 @ 하르버지가 배 해그네 낚시도 했댄 허지 안읍디가예.

105023 # 응.

105023 @ 계문 배도 요즘 자가용 사는 것보다 더 비싼거 아니우파? 옛날에예,
 말 아니 소 만큼 쉼만큼 가격은 해신가마씨?

105023 # 거 글썽 그 때도 거 얼마 사 젓는지 건 알 수가 엇이난예.

105023 @ 목시가 해가지고예. 그 돛은예. 풍선에 돛 있지 안우파예? 뭇로 만들
 어신고예?

105023 # 천으로 이 광목 ㄴ뜯거.

105023 @ 광목으로 광목 말아오네 초석자리로 해나지 안 해신가예?

105023 # 거 초석으로 얼마 전더 네질 안 허니까.

105023 ## 아튼 멘 종류로 헛주게. 멘.

105023 @ 먼 종류로?

105023 # 것도 하나론 안 돼주게. 멧겍 천에 아마 멘들아 실거라.

105023 @ 아, 겹쳐서예. 게문 풍선은 이거 테우는 위로 젖었주마는. 풍선은 그 래도 노가 있을거 아니우파?

105023 # 노, 노젓주게. 것도 노주게. 무신 동력 아닌건 다 노 젓시난게.

105023 @ 바람 탈 때까지예.

105023 # 응.

105023 @ 거문 이 노 젓는 거는 옆으로 저음니까. 위로 저음니까? 풍선은?

105023 # 아 게난 노 젓는 것도 그런 그 풍선은 그 노가 두 곤데 썸 잇주게.

105023 ## 뒤 또꼬망에 잇곡. 앞에 잇곡 해실거난.

105023 # 으, 이제 전네여. 무신 뭐여 하는 디. 네가 두게 이제 둘이썸 웨어. 둘 이를 가져서 젓어 그런 베는. 다른거 쟈젠 흔거는 하나만 젓어도 돼는데. 쪼끔 큰거 풍선이나행 듯이나 달앙 어디 땡기는 거는 네가 두게 있어.

105023 @ 예, 두 개 있어예.

105023 # 응.

105023 @ 두 개 잇인디 노 저을 때는 노를 머리 우에 놔그네.

105023 # 아니아니 옆으로.

105023 @ 옆이서예.

105024 @ 그 돛배에 그 앞에 허고 뒤에 명칭이 있지 안우파예? 이름예. 앞에는.

105024 # 이물 고물.

105024 @ 이물 고물.

105024 # 앞을 이물이엔 헉곡. 뒤를 고물이엔 흘 거라.

105024 @ 앞을 이물에 이사공아, 저물에 저사공아예 허듯이예. 그다음 돛단거는 돛도 두 개 잇이문, 앞 돛 뒷 돛 해신가마씨?

105024 # 아 그 겐디 그것 깎지는 확실히 나는 모르키여.

105024 @ 아, 이물 고물. 그리고 내릴 때는 뭔가 요즘은 뭐 닳을 내린댄 허멍 허는다. 그 내리렌 허면은 그 물에 뭐 드리쳐그네 그거를.

105024 # 응, 그 닳. 그 때는 양까를 요즘은 쓰는다. 그 췌로 뽕거 영 헤그네 양 까이. 옛날은 돌 고망 툄와그네 그. 줄 헤그네 .그 돌로도 거 많이 헛주. 그거.

105024 ## 무경 들이청.

105024 @ 예, 그거를 뽕렌 곶아신고예.

105024 ## 닳주는거.

105024 # 닳돌.

105024 @ 닳돌? 아 닳돌로 헉고.

105024 # 응.

105024 @ 내릴 때는 그냥 뛰어내리기도 허곡. 무시거 뽕양 내릴거 널판지 놔그네 내리기도 허곡.

105024 ## 아이고, 그거 널판지 허지 안 형. 이런 저 거시기 터레 가까이, 죽 هنگ시리 그거 닷 텃기민. 텃기민 저딴건 해도 이작더레 베 텃건 닷텃기민 잡아텃기나 어떻 هنگ민, 그레 왕 톡 튀곡. 경 안허민 발도 젓곡, 옷도 젓곡 헛주. 어디 경 발판 노코 무시거 허곡해서.

105024 @ 맞수다.

6. 의생활

옷감

106001 @ 옷 이제는 옛날은 옷은 행 살아실거 아니우파예. 옷은 행 입영 살아실거 아니우파?

106001 ## 아니 옷은 행.

106001 # 아니 옷이사 뭐.

106001 @ 옷감 옷감?

106001 ## 아니 옛날이사 광목 뵈기 더 잇어게.

106001 @ 광목 옥양목예.

106001 ## 옥양목 광목. 미녕, 베 그런거주게.

106001 @ 미녕허고 베허고 또.

106001 ## 광목허고.

106001 @ 광목허곡.

106001 ## 광목허고 옥양목허고. 경 هنگ게. 이 다른거 바지 허 저슬에 입는 건 멍지 هنگ.

106001 @ 멍지 هنگ.

106001 ## 게 경 هنگ 뵈기 더 잇어서.

106001 @ 계난 광목이나 옥양목 그 미녕 같은 경우는 멘화 헤그네. 그 멘.

106001 ## 그거 행 이디서짜? 고성서 짜보질 안허고, 그자 그거 광목 상. 중의도 행 입곡. 바지도 행 입곡. 적삼도 행 입곡. 우리 치메도 행 입곡. 경 행 몸빼도 행 감드령 입곡. 경 헛주 미신.

106001 @ 사다그네 필요헌거 상.

106001 # 여기서 짜는건 엇어서.

106001 @ 아, 멘네를 심지 안헤곡예.

106001 # #멘네를 심어도 이불이나.

106001 # 저 이불이나 헛주.

106001 ## 이불이나 흐끔 헨 헛주. 그런거 미녕, 베 짜는 건 안 헤 받.

명주

106002 @ 예예, 그 저기 명주실예, 멍주, 명주를 옛날에 만들어놔덴 허는디. 명주실을 어떻 만들어신고예.

106002 # 건 누에썰로 허는 건디 우리 안 헤 봤주게.

106002 ## 건 육지서 헤 허주. 우리 거 누에로 헤여그넹에 혼덴 헌디.

106002 # 누에 고치로 해서 썰 뽑앙 허는 게 명주거든게.

106002 ## 경 흐난 이디서 안 헤 보았주게. 육지서 그런건 허주,

106002 # 여기서는 누에고치도 별로, 뽕 뽕이.

106002 ## 이디서 누에 질루는 사람도 베랑 엇어.

106002 # 헤긴 헤어나서 흐쫄썩. 흐쫄썩 흐는 사람은 헛는데. 뭐 기업으로 그거 해서 뭐 크게 돈벌지도 안 헤실거라.

106002 @ 집에 베틀도 예. 베틀 잇인 집 잇어나지 안 헤신가따씨? 집에서.

106002 # 베틀이 어디서? 엇어.

106002 @ 베는 어떻? 베 베.

106002 ## 아니 베 게메, 우린 베 산 입엇주. 이디서 짤 입어보거나 안 헨. 초석 ㄱ뜬 건 짗주마는.

106002 @ 초석은 짜도예.

106002 ## 응.

106002 # 베는 삼으로 흐는 거주게 삼.

106002 @ 예, 삼 예. 삼.

106002 # 삼으로 흐는 건디. 그거 헤여그네 베틀 행 그거.

106002 ## 흐는 거 이디선 안 해서. 육지서 헛주.

106003 @ 그 명주 종류를예. 명주에 종류를.

106003 ## 아 종류, 계난에게 멍주바지 흐는거 그자 그냥 낸 것 골안 멍지.

106003 @ 멍지.

106003 ## 따시로 그냥 혼 것 ㄱ란. 저 아이고 곤젠 흐난 잇어뵤썩. 뵤지 안현 것 골안. 아이고 무시거헨 허느니, 아이고 못 골으쿠다 윈.

106003 @ 생명주, 생멍지?

106003 ## 생멍지엔도 허곡.

106003 @ 생멍지.

106003 ## 예, 생명주.

106003 @ 응 생명주. 수아주엔 헤나수과?

106003 ## 응?

106003 @ 생멍지. 수아주? 건 아니고? 생명주.

106004 @ 계난 바지 허는 건 멍주엔 허고.

106004 ## 아니 생뎡지로도 생뎡지론. 저 정뎡이 적삼 해낫주. 생뎡지.
 106004 @ 정뎡이 적삼예.
 106004 ## 건 씨원 혼 거난.
 106004 @ 이건 시원헌 거고예? 그냥 뎡지는 겨울에 두터운거.
 106004 ## 예 저울 이제 바지저고리 행. 입는거 헛고 생뎡지로 거시기 중의적삼
 해나 실거라.
 106004 @ 중의적삼.
 106004 ## 또 계난 모시도 잇고. 모시적삼 모시치메도 잇고게. 그런거 계난 이
 디선 그런건 안 해 봐수다게. 산 그자 헛 입어 난거 그자 경 소문 듣는 거주.
 106005 @ 무명실을 만들어 실건디예?
 106005 # 계메 무명실이 멘화 해서 그 거시기로.
 106005 @ 예, 그 도르레이,
 106005 ## 돌리는 걸로 해신디. 우린 그런거 안 해 봐수다.
 106005 # 우린 안 해 받.
 106005 @ 그 할머니도 저기.
 106005 # 응, 우리 할머니네 해도 안 해 받.
 106005 ## 아이고 이 고성 안에선 그런거 헛 건 엇수다게.
 106005 @ 누에 치기도 해난데는 잇텐 허긴해도.
 106005 ## 응, 허는 거 못 보고.
 106005 @ 고성은 큰디주게예? 옛날에 관중 아니우파예?
 106005 # 응.
 106005 @ 계난 물품이 쉬운 거주. 오일장 서기네 허문예.

무명

106007 @ 그 무명 종류에 대해서예?
 106007 ## 미녕 종륵게 무시거.
 106007 @ 무명 종류, 저 광목 생목, 포목 뭐 그런 식이.
 106007 ## 아 계난 미녕 종륵게. 광목 잇고게, 또시로 게 그 낫사 곶아도, 잇어
 불엄저.
 106007 @ 광목, 미녕.
 106007 ## 광목 미녕.
 106007 # 그런거 잘 모른다게.
 106007 @ 광목, 닷세 무명, 엇세 무명 그런거 엇고예.
 106007 # 그런거 들어 보지도 안 헛.
 106007 @ 생목도 아니고 생목도 없고. 아깐 생미녕은 잇어도.
 106007 ## 생뎡지?
 106007 @ 생뎡지는 거 명주고예.

106007 ## 그거주 원.

106008 @ 무명으론 어떤 옷? 만드느고예?

106008 ## 아, 미녕으론 아무거라도 만들앗주게. 중의적삼도 만들고게. 바지저고리도 노변 입고게. 저 광목 치메도 행 입곡게. 몸빼도 행 입고게. 몸빼 행 옛날엔 감들영에 느랑 입영 땡기는 거난게. 경 허곡, 경 헛주. 옛날에 무시거 현 어른들사 멩지바지 저고릴 경 입어 저수과? 미녕으로 허곡. 광목으로 허곡. 경 헛주. 저 곳사 굴아. 저 옥양목엔 현걸로 행 입곡. 경 헛주. 멩지엔 현게 경 소소 사름이 행 입어 저수과? 옛날에.

106008 @ 맞수다.

106008 ## 요세들은 비단이여 무신 무시거여. 죽어갈 때도 무신 벨거 다 나왓젠 헉디다마는 원.

106009 @ 저 토목이엔 현거 모르고예?

106009 ## 예?

106009 @ 토목예?

106009 ## 예,

106010 @ 무명. 광목, 광목으로 만드느 거는 이, 커텐 옛날에 포장이엔 허지 안 읍니까? 무시거.

106010 ## 포장?

106010 @ 예, 옛날에 광목으로는 이불 헐 때.

106010 ## 이불 헐 때 저 거시기 이불 안.

106010 @ 이불 안?

106010 ## 응, 거풀이 아니고 이불 안. 아이 게난 거풀도 그것에 불근물이나 들 여그넵에 거풀도 헤나수다 광목에.

106010 @ 광목에예,

106010 # 불근물이 들여그네.

106010 @ 겹풀도 허고,

106010 # 아 멩지 ㄱ똥걸로 이불 안이나 우의 거 영 부찌는거.

106010 ## 아니 게메 그 옛날에 이제 나난 헛주. 옛날에 초담 그 막 흘 때는 게 광목에 불근물 드련에 저 이불 거풀 허고 광목은 안 흰찬 안 허고.

106010 @ 흰차는 안 허고예?

106010 ## 응, 우인 그자 물 들연 거풀허고.

106010 @ 거풀허고 옷은? 애기덜 옷은?

106010 ## 애기덜 옷은 그것에 흰 걸로 행 입지곡. 또 물들영 검은 물들여그네. 이제 무시거니?

106010 # 버물지 안 허게.

106010 ## 버물지 안 허게 시리. 아레 허영 요세 ㄱ뜨민 춤 요세민 팬티보다는 클거여, 경 행 아이덜 아레 허나씩 입정. 무신 살마달 입점수과? 무시걸 헤수과? 그

걸 하나 행 입지민. 그자 그거. 우의도 그자 무시거 푸린물이나 불근물이나 들여그
넵에 우의 하나 적삼 ㄴ똥거 멘드라그네 입지민 그거곡게. 여름은 나민 저 거시기
요센 말로 난닝구 닥게시리 광목으로 헤그네 행 입지곡. 광목은 다 경 필차 사 저
수과? 옛날에 밀ㄴ루 찢리. 그거 헤여그네 살마다덜 멘들멍 입엇주.

106010 @ 예 살마다 허곡. 그민 그 옛날에 천막 칠 때예. 천막은 무시거로 저
광목으로 헤나지 안 해신가마씨?

106010 # 아 광목으로 헤나서. 이 옛날 그 켄당끼리 종친회서 하는 천막들은게.
광목으로 웬게 소위 해 가림이주. 그게.

106010 @ 예예.

106010 # 그 비나 이런거 가림이 아니고.

106010 @ 아, 해 가림.

106010 ## 해빛가림 하는 거는 광목ㄴ똥 걸로 했는데. 게난 그 후에는 다 저 소
위 갑빠. 그 뚜꺼운거. 그거 해서 다 천막덜 멘들앗주. 그레야 비까지도 가려지니까.
비가 안들어. 게 광목 ㄴ똥건 비 오민 뭐.

106010 @ 확 젖어불고예.

106010 # 응.

106010 @ 예, 압시롱허니까예. 그거에 비해서 무명은 좀 두껍곡. 저기.

106010 ## 광목이나 미녕이나 비슷하주.

106010 @ 비슷허여예. 애기덜 샷지생기는 무시걸로 해신고마씨? 저 시라목 나
오기 전에, 소창지 나오기 전에.

106010 ## 시라목 나오기 전이 샷바 헤숫과게. 애기구덕에 밀 갈아 낱 밀 칩헤
여그넵에 반반 털영. 저 물유왓당 톡하게. 그레 길민 오쭈은 싸민. 알러레 느리민.
마리 논딘 마리가 젖이민. 헌웃으로 똥갓주만은 북덕방 헌딘 알러레 느리민 젖어신
디 몰라신디. 그자 살고 이제 그것도 체기 곁아주지 못허민 그것이 젖어 밀짚이. 젖
이민 그거 뱃난디. 톡 하게 할망들은 널엇당. 또 애기 눅지고 경 헛주. 어디 샷바허
곡 하간거 험니까게. 경 하곡 하꿈 잇이난에. 이 광목 몸빼덜 헤여네 입영 혈민. 그
거 튼여그넵이 알에 곁아으넵에 눅지곡. 경 헛주. 샷바 출리고 하간거 아이고.

106010 @ 맞수다.

106011 @ 홍세미녕에 대해서 곁아줍서.

106011 ## 응?

106011 @ 홍세미녕.

106011 ## 홍세미녕?

106011 @ 예.

106011 ## 홍세미녕도게 미녕으로 하는 사름 광목으로 하는 사름.

106011 @ 미녕이나 광목이나예.

106011 ## 예.

106011 @ 이거는 홍세미녕, 저기 홍세함에 들어가는 거엔 험니까?

106011 ## 예, 경 흥곡 잘 흥는 딴 옥양목허고.

106011 @ 아 흥세함에 예. 거문 이거는 흥세미녕은 흥세함에 어느 정도 놓는고 예?

106011 # 흥 필.

106011 ## 흥 필이 다 안들어 갑니께. 그거 흥 필이 막 하.

106011 @ 흥 필이 서른자예.

106011 ## 예, 계난 하난에 그거 다 안 들어갈 겨우다. 난 원 서른, 열테 잔가 겨원 스무잔가 열테 잔가. 거 잘 모르쿠다게.

106011 @ 경 행 흥세함에만 놓는 거예?

106011 ## 예, 흥세함에 경.

106011 @ 거문 이거는 어른이 반양 놔두었다가.

106011 ## 예기.

106011 @ 예, 친정 어멍이 반양 놔뒀다가 삼승할망 다리 놔주거나예? 경 헤 가지고. 허기도 허고 켜 속에 있었다기네 예.

106011 ## 예.

106011 @ 경 허곡. 이걸로 샷 지쟁기 해났텐 헌 말은?

106011 ## 아니 샷 지쟁기도 헌 헨딘 혜수다. 할망, 그거 경 행 허민. 그 흥세함을 오민. 이제 저 어디 탕기는 어른은 저. 우리 고성은 하로산이엔 헌디가 잇수다게. 그디 이제 흥 발 잔뜩 불고. 세 뽀 나그녕이 저. 그디 저 갑니다게. 저가. 경 헨 헌다음에는 샷발 헛든 예기 지쟁길 헛든 경 헤.

106011 @ 맞수다. 본향에 가져가그네.

106011 ## 예,

106011 # 요세는 그 붓따리를 가져간뎡 흥데. 그 흥세함 싸난 포.

106011 ## 것도 앓아가고 것도 부찌가고 험니다게.

106011 # 아 그거 영, 그거 영 가져가고 허는 거라?

106011 ## 예.

106012 @ 목화농사에 대해서예. 멘네 농사에 대해서, 곱아줍서.

106012 ## 멘네 농스 우리 안 해보난 거 잘 몰라.

106012 @ 거문 어머니네가 똥 시집 보내젠 허민 어쩌든 이불은 혜사 될거난 농사,

106012 ## 이불 흘 뎡 우린 저, 우리 큰 똥 풀 뎡. 저 어디니? 삼양이냐? 그 이불집 흥는디 이제도 잇인가? 그디 멘네 솜 흥난에. 그디 간 이불 세 체 혜단에 허고.

106012 @ 삼춘은 마씨, 삼춘은?

106012 ## 아이고 우리 시집 갈 때사. 아이고 이불솜 무시거. 이불 두어 게 헨와기네게.

106012 @ 계난 그 이불을 허젠 허난 솜 잇어사 될거난. 그 시절엔 어떻.

106012 ## 계난 솜 사단에 헤실 거주.
 106012 @ 예 솜 사단에예. 동네에서도 경 헤도 솜은 심어실거 아니우파게?
 106012 # 아이 이불 흘 솜 아이.
 106012 ## 동네 이 동네 솜 심은 디 엇어.
 106012 @ 솜심은 디 엇어예?
 106012 # 거 다 이불집이 간 사당.
 106012 ## 거 삼양, 그 이불 흐는 집이 강 사단에 흐엿주. 나 시집 갈 때도 경
 흐곡 나도 딸덜 폴아도 그디 가네 다.
 106012 @ 삼양 가네?
 106012 ## 삼영 가네 그 저 멘네 솜이엔 헤연 사단에 헛주. 이디서 헤연 헤보지
 아년.
 106012 @ 예, 농사가 엇언예?
 106012 ## 응.

모시

106013 @ 그 다음에 모시예? 모시, 모시실 만드는거예? 그런거 저기.
 106013 ## 그런 것도 안 헤 보고.
 106014 @ 모시로 어떤 옷을 만들어신고? 모시는 잇어실거 아니우파예?
 106014 # 여름에.
 106014 ## 아, 모시옷은 게 다 헤 아무거라도 헛주게. 중의적삼도, 중의적삼도
 행 입고게. 또 그 중의적삼 흐고, 그거 흐는 거주. 모시론이 죽음이 옷이나 무시거
 흐는 안 허난. 안 흐난에 그자.
 106014 @ 여름에 간드렁허게.
 106014 ## 예, 간드렁 하게 적삼흐고 중의흐고.
 106014 # 모시론 안 흐여?
 106014 ## 안 흐여, 모시는 안합니다.
 106014 @ 모시론 안 헤예. 거문 치마 저고리 곱게 입어질.
 106014 ## 곱게 행 입젠 흐민 치메흐곡 적삼흐곡.
 106014 @ 치마허곡 적삼허고예?
 106014 ## 경 행 입어야.
 106015 @ 모시를 저기 심어야 될거 아니우파예? 그거는 또 아까 삼? 아 거는
 되고. 모시는 또 재배허는 거에 대해서는.
 106015 # 에에, 우리 안 헤봐서 몰라.
 106015 ## 그런거 몰라.

삼

106016 @ 거문 삼예? 아까 삼은 벤디. 삼실 만드는거예? 베. 베실 만드는 거에

대해서.

106016 ## 베 만드는건 저 삼으로 하고 또 모시로 모시는 무시것과게?

106016 @ 예, 모신는 따로 잇수다.

106016 ## 응, 그 무시거 키와그네게 함민 함거. 굿사 하르방 굴안게 마는.

106016 # 그게 삼이주게.

106016 ## 그게 삼이파게? 거 모시 멘드는 건 썰 뿔앙 하는 거난에 그 저.

106016 @ 누에?

106016 ## 누에 함연에 그저 누에 썰 뿔앙 하는 것이 모시고. 삼은 베고.

106016 # 응, 베.

106016 @ 모시는 실 뿔앙 허는 건 누에고 누에고치고. 모신 또.

106016 ## 응, 모신 누에고치 뿔앙 하는 거고, 베는 삼으로 하는 거고.

106016 @ 누에고치 허는건 비단 아니우파? 비단 멍지.

106016 # 응.

106016 ## 누에고치 함는 건.

106016 @ 멍지?

106016 ## 멍지.

106016 @ 명주.

106016 # 아, 맞아 맞아 게난 모시나 베나 다 삼으로 함는거.

106016 @ 게난 이거는 잘 만드는 과정은 잘 모르키여예?

106016 # 응.

106016 ## 몰라.

106017 @ 거문 베로 만드는 옷은? 어떤 거가 잇입니까?

106017 ## 베로 만드는 것도게. 중의적삼 뵈기. 무슨 겨울옷은 못 함 입는 거난. 죽음이 옷 그자. 세스방 함젠 함민 이제 도복 ㄱ튼거.

106017 @ 도복?

106017 ## 경 함곡. 이제 잘 함는딘 도복함곡. 중의적삼 베로 함곡. 또 멍지론 이제 바지저고리함곡. 후르메함곡. 경 헤그넹에.

106017 @ 아 멍지로는 후르메 바지 저고리 후르메? 후리메는 어떤 겨우파?

106017 ## 후르메 후르메는 저기 .

106017 @ 두르마기?

106017 # 두르마기 두르마기.

106017 ## 으, 두르마기.

106017 @ 아, 두르마기예.

106017 # 두르마기도 여름거 잇고 겨울거 잇다 말이어이.

106017 @ 예,

106017 ## 게난 여름거는.

106017 # 여름거는 창옷이엔.

106017 ## 창옷이고 겨울 것은.
 106017 # 두르마기고.
 106017 ## 후르메. 두르마기 아니고. 후르메.
 106017 @ 창옷이엔 허구나예? 이 만큼 헛거를?
 106017 ## 아니 그거는 세스방 입영 이 만큼 헛거는 도복.
 106017 @ 아, 도복.
 106017 # 그냥 보통으로 이 두르막. 이저 이 ㄱ찌 아주 간단하게 여름에 하얀거
 로 행 입는 게 창 옷. 여름 옷, 여름 옷.
 106017 @ 압시롱허게 압시롱허게 해서.
 106017 # 응.
 106017 ## 그자 두르메기 ㄱ찌, 하얀거 흰 겹으로만 헤영. 여름에 제삿 때 입주
 게. 계난 그거는 두르메기 아니 창옷.
 106017 @ 도복은 저 새서방.
 106017 # 겨울에 입는거.
 106017 ## 아니 새스방 때만 입는거. 또 큰일 때 멩질 때라도 다 출령 입젠
 ㅎ민 그 도복을 입영ㅎ곡.
 106017 @ 도복을 입영으네 허곡예. 그거 이렇게 헛거 아니우파예?
 106017 ## 그거 경 헛거주. 저 어른네 웨갓칩이 이제도 입언신가 도복? 이제 안
 입언 실거라. 하르방 죽어불고 ㅎ난.
 106017 # 하르방 죽어불고 다 죽어부난.
 106017 ## 웬 제삿때 가 보민 다 도복 입영.
 106017 @ 도복 입어그네 절 허곡예.
 106017 # 어.
 106017 @ 그 때 머리에도 씌니까?
 106017 # 응, 유건.
 106017 @ 유건 쓰는거예.
 106017 ## 검은 거 무시거 ㅎ나씩 쓰고 헤그네. 경행 다 삼 헌 출러그네 경.
 106017 @@ 제삿 때도 마씨?
 106017 ## 어, 제삿 때도 경 헛디다게.
 106017 @ 서귀포 쪽에는 경허는 디 삼춘네 웨가는 저기 신양리 아니우파예? 신
 양리도예.
 106017 # 응, 신양린디 우리 웨삼춘이 보통이 아닌 분이랏주.
 106017 # 아니 계난 초담, 고성 저 옷드르에 살아났주. 경 ㅎ난 신양리 간 사는
 디. 이제 그 제삿때에 우리 웨할머니 웨하르버지 제삿때에 강 보민 삼헌을 사는디.
 다 도복 입영 상. 경 행 ㅎ민 웬 나는 자꾸 저 도복을 저추록 헤노민. 어떻 ㅎ
 건고 허명 행.
 106017 @ 우리도 어릴적에 저기 그 제삿때 도복을 입어그네예. 그 친정에서 보

문 예, 보긴 해 나수다마는 어느 순간부턴 안 험디다머. 경허긴 허는디. 도복이 그 거가 베로 만든거 아니우파예?

106017 ## 예,

106017 @ 베로 만든 거 예.

106017 # 요센 베로도 만들고 요세는.

106017 @ 막 멩주로도.

106017 # 이 합성수지로도 막 멘들아. 요세 우리 그 종친회에 도복. 그 재복을 만들주. 이렇게 허영 그 유건 검은 모즈. 아 그거 합성수지로덜 다 만드는거. 거 퍼렁허거.

106017 @ 맞수다예.

106018 @ 그 삼 재배 예. 삼 재배에 대해서 아는거 있으면 골아줍서.

106018# 삼 재배는 잘 모르키여. 그거 삼 재배 허면은 그제 삼이 상당히 높이 자라고 뭘 행 허문. 그거 쫄라그네 그거 삼 껍덕 벳경 허는 거주게. 그 껍질 벳경. 그 껍질 뵈경허민 그 껍질을 거 몰랑 씻영 두드리면은 막 썰이 나와.

106018 ## 아니 그것이 꺼풀 벳경. 이제 그것이 솟아. 물에 낱 솟아. 그걸 이제 건져 네영 몰류아. 몰류아그네 또 이제 두드리멍. 또 이제 그거를 뿔앙. 옛날에 경 헛주만은 요세는 세제로 험실거우다. 옛날엔 경 솟으멍 뿔멍. 두드리멍 헛주만은.

106018 @ 경, 실 잣젠허민. 무꺼그네. 그거를 물레에 돌려그네예. 예 경헛구나예.

106018 ## 아니 게난. 그것이 삼 행 뿔앙. 하얀케 만들거 아니? 만들민 그거를 혼 알에 이디서 역경.

106018 @ 무릎에서 역경.

106018 ## 이거를 옛경. 조근조근하게 해 낫당. 그 거시기에서.

106018 # 베틀에서.

106018 ## 베틀에서 이제 감으멍 다 이제 발르게 해낱. 또 이젠 막텅이 절로 이레 다 행. 그거를 꺾작 툽 ㄹ뜨게. ㄹ뜨 줄을 멘들영 해낱. 이제 풀 썩 그걸 다 블좌그녕이 그거시 붓작하게 해낱. 이제 베틀에 걸영으녕에 벨.

106018 @ 벨 찢구나예.

106018 ## 예, 경 행 짜나고.

106018 # 이, 이거 냉기멍.

106018 ## 우리 옛날에 초석 찢르듯이. 그 썰을 꿰영. 이레 갓닥. 이레 찢러닥. 영헤그네 탁 두드리멍 경 허듯이 경허는 게주.

106018 @ 경 허듯이예.

106018 ## 응, 경 허난 일로 혼 번 찢르곡. 일로 혼 번 찢르곡. 허멍. 탁 손으로 못 행 발로 탁탁 하게 치멍 경 행 해난거 닳으우다게. 경 험디 잘 모르쿠다게.

106018 @ 경 해도 잘 알암신게 마씨.

도구

106019 @ 경 허문, 씨아에 헌걸 말 들어봄디가? 씨아? 씨아가 무슨 말인줄 모르. 그 씨아가 그, 씨를 삼을 허민예? 썰이 텔거 아니우파예? 거문 이거 빙글빙글 감는 거가 아닌가마씨?

106019 # 거 모르크라.

106019 @ 썰을 감는거?

106019 ## 건 나도 원 몰르쿠다. 그런 건 안 해보난.

106020 @ 물레는?

106020 ## 물레 영영 돌리는 거 그거 닳수다.

106020 @ 빙글빙글 돌리는거예. 돌려가지고 그것도 저기 이, 삼 허는 집인 잇어 그네. 그거 할머니들이예.

106020 # 아, 물레 잇인던 잇어. 여기도.

106020 @ 물레 해기네예.

106021 @ 베틀도 허지 안헤수와 예? 베틀도 허는 집이는?

106021 # 응 베틀도 헛주게. 베틀도 헤영 헛는데. 이 근방에는 그 우리가 잇을 동안은 나 못 봤어.

106021 ## 제주시터렌 어디 잇일 겨우다. 거 거시기 터레 제주시 거 촌더레.

106021 @ 그 시에도 그 광양예. 옛날에 광양 헛던 사람들예. 들어보면은 그 한 다섯 집이 하나씩은 예 베틀이 잇어낫덴마씨. 거문 가오리가오리 허명예. 가그네 밤에 짜기네 헛낫덴 들은 도레도 잇수다 마는 여기는 엇언예?

106021## 여긴 원 엇수다게. 그런거 해본디가 엇어.

106021@ 예.

바느질

106022 @ 거문 바느질에 대해서예. 바느질예, 바느질 도구에 대해서, 도구 뭐. 가위니 무시거니 한번 곁아줍서. 바느질허게 되민.

106022 ## 바느질 흥는거게. 바느질 쌍즈흥곡.

106022 @ 바느질 상자.

106022 ## 또 ㄱ세흥곡.

106022 @ 고세.

106022 ## 그거 흥곡. 손도베 흥곡.

106022 @ 손도베?

106022 ## 도메에 이디 바느질 찢렁. 영 흥곡 그거흥곡. 그거 뺏기 더 잇어?

106022 @ 또 썰페.

106022 ## 썰감는 거 썰페흥곡게.

106022 @ 썰페흥고 손도메흥고 ㄱ세흥곡 이것밖에 엇인가마씨? 바느질상저예.

106022 # 나 원 몰르쿠다. 거뺏기 엇이난 바느질흥곡게. 썰페흥곡. ㄱ세흥곡 그거

벧기.

106022 @ 또 바농들 끼워 놓는거 있지안우파?

106022 ## 바농 끼워 놓는거 게메.

106022 # 바농쌘지 헝곡.

106022 ## 아니 바농쌘지가 바농 그거 놓는 건디. 그거는 머릿꺼럭.

106022 @ 예 머릿꺼럭 모아 뒗당.

106022 ## 담아그네 담양 요만이 헝게 멘들앙. 그거 이제 친 들앙. 거시기 바농쌘지터레 톡, 돌아메영. 그것에 영 꼬앗당.

106022 @ 예, 바농 일러불지 안허게끔예.

106022 ## 꼬앗당으네 헝곡 경 해낫주.

106022 @ 그건 뭐렌 골아나신고예?

106022 ## 뭐 무시건엔 사 골아신디 뭐. 모르쿠다. 무시겐 곤르는 건지.

106022 @ 썰도메.

106022 ## 게난 바농 바농쌘지엔 아니 바농쌘지 아니 바농사울 떼 바농쌘지엔 흘 거라. 흘 쌘지 드렌 해여그네 사오는거. 경 현디 그거 꼬으는 건 무시건엔 사 헤신디.

106023 @ 바느질 방법 있지 안우파? 바늘.

106023 ## 바느질 방법은 이녀 다 소관 돼로난. 웬짝하는 사름은 웬짝. 느둔짝하는 사름은 느둔짝으로 헝난.

106023 @ 웬짝 느둔짝 게니까.

106023 ## 응, 웬짝으로 하는 사름은 웬짝으로 해영 바농질을 헝곡. 오른짝으로 하는 사름은 오른 쪽으로 심영헝곡. 경 헝난 어느 것이 맞은건지도 나는.

106023 @ 게난 적삼에 허젠 허면은, 이렇게 크게 막 헐 때도 있고. 막 찹찹이 헐 때도 있고. 그거 웨 감기도 잇곡.

106023 ## 아니 적삼허는디. 막 크게 족게 하는 게 엇수다. 그자 찹 올케 뎡침이엔 하는 건 뒗바농질 하는 것 골아 뎡침.

106023 @ 뎡침. 뒗 바늘질.

106023 ## 예, 경 헝곡. 또 그냥 하는게엔 혼건. 그냥 조금조근 헝게시리 영 호와기네 하는거고 윈 그거 헝곡.

106023 @ 감는거? 호는거?

106023 ## 응 호는거. 경 헝곡. 또 영 무신거 심영 영 감치는거.

106023 @ 감추는거?

106023 ## 그거 헝곡 세 가지.

106023 @ 감치는거? 호는 거는 조금씩조금씩 해그네 허고.

106023 ## 예.

106023 @ 감치는거 허고 뒗바늘질은?

106023 # 뎡침.

106023 @ 영 헤그네 이렇게 행 나와그네.

106023 ## 아니 ,이거 바농을 영 찰렁 영 흐민, 이제 이것이 혼 그릇 같거아니 우과?

106023 @ 예 혼 그릇 가민 또 뒤로.

106023 # 게민 그 스이로 또 혼 그릇 놔방. 또 혼 그릇 영 흐고. 경 흐고 그자 호는거엔 현. 건 이거 바농이민 영영 심어그네. 영영 째아텡경 호는거. 또 요거 영 심영 영영 금추와 오는 건 금추는거.

106023 @ 예 그거는 감추는 거 허고, 이게 세 개민 다 헤신게마씨?

106023 ## 예.

106023 @ 이 텡침이엔 허민 돈돈하게 텔 거 아니우과?

106023 ## 예?

106023 @ 돈돈하게 빠지지 안허고.

106023 ## 예. 빠지지 안허게 돈돈하게 흐는게 텡침.

106023 @ 텡침예.

106023 ## 예.

옷 종류

106024 @ 옷 종류에 대해서 남자 옷 종류에 대해서 알아줍서?

106024 ## 남즈 옷 종류엔게. 바지 저고리.

106024 @ 바지저고리.

106024 ## 예, 그거 두르메기.

106024 @ 저고리 두르메기.

106024 ## 후르메.

106024 @ 후르메 또.

106024 ## 예, 경 흐고 그거주게 무신.

106024 # 바지 저고리, 정벙이 적삼.

106024 ## 정벙이 적삼.

106024 @ 정벙이 적삼.

106024 # 거 여름거.

106024 ## 이제 또 창옷 경 흐곡.

106024 @ 쫓끼 마고지.

106024 ## 게난 쫓끼는 요세난 쫓끼주. 옛날엔 쫓끼가 잇어수과. 게난 쫓기도 게. 춤 저슬거 잇곡. 여름거 잇곡 허주게.

106024 @ 아, 이제난 허난예, 쫓끼허고예. 이 겨울에 옷을 헤기네 입어그네. 여름에 옷을 그 그게 여름 들어가민 감옷 헤기네. 감물 들어그네 허곡. 겨울 들어가면 은 또 옷하나 만들어지면은 속곳은 옛날에 내복이엔 현건 엇이난. 또 새 옷 만들민 그 우에 입어그네. 속옷은 현 옷으로 입곡. 경 헤 나신가마씨?

106024 ## 옛날은 무신 속옷이 춤 펜티가 있어수과게. 춤 바지허민 바지 입어그
넵이 그자 살고. 여름은 나민 정벙이 적삼 입으민 그자 살곡 경 헛주.

106024 # 옛날 정벙이 입으민이. 뽀스 안입영 입으민 들랑들랑 해서.

106024 ## 옛날에 춤 웃으운 말 곧저. 고성 저 ㅇㅇ이엔 현 어른 잇어수다. 겐
디그 어른 할랑이라. 할랑인디. 그 어른 여름 나민 모시죽삼 모시 정벙일 입영, 고
성장 말앙 성산장엘 가젠 헛민. 그건 영 앞인 남즈 어른덜 영 깃부령 영 거시기 허
리띠 메지 안헛니파? 게난 앞으론 안 보이곡. 뒤론 가민 이레착 저레착 헛텐 야, ㅇ
ㅇ이거 무시거 보커들랑 성산장에 가라. 경 허멍 웃시게 해나수다.

106024 @ 뒤 비쳐부니까예?

106024 ## 응, 게난 쏘굽에 안입으난게. 흰 헛게 모시 풀헤영 와상헛게 입으민
게. 그것이 흰 헛게 보일게. 아니우파게. 경 헛민 무시겿 말 무시거헛당 야야, 늑이
거 보커들랑 성산장에 강 ㅇㅇ이거 강 보라. 영 형.

106024 # 거, 이름이랑 곧지 말라게,

106024 @@ 앞에는 영 접어부니까 안보이고,

106024 @ 앞에는 이렇게 접으니까예.

106025 @ 여자 웃은?

106025 ## 여자 웃은게. 그거 치메 여잔양, 치메 입고 저 정벙이 입으민 원 김
츅아지난 거 여자는 원.

106025 @ 저 저고리 우윗거 적삼?

106025 ## 적삼.

106025 @ 적삼 허고예, 저고리 허고예.

106025 ## 적삼 치메 정벙이 헤영 여자들은 꼭 정벙이 입주. 쏘굽에.

106025 @ 예, 정벙이 입곡예. 또 다른 여자들이 입을 옷들은 또 결혼 헛 떼는
활옷 입어그네.

106025 ## 아니 결혼 흘때도게. 멩지로 치메 저고리 헤영헛곡. 또시로 이제 속
웃은 이제 정벙이로 그자 경 허난 여즈꺼는 이제 남즈꺼ㄴ찌 허질 아녀고. 이 뒤를
영 터, 다 주워불질 안혀, 트민 여즈들은 그자 영 소변 볼 떼 앓앙 보는거난. 글로
튀어그네 헤영 치메 입어그넵이 헛곡게. 예 경 행 헛난에 무시거 헛곡.

106026 @ 아이 옷에 대해서, 아이덜 옷.

106026 ## 아이덜 옷도 그거우다게. 그자 춤 올케 갓사 굴안 웃엇주마는 광목허
영 허곡게. 옥양목이엔 행 나고 국방색 나고 저 검은 거 나곡. 고생 나곡 국방 색광
목이 엔 현거 나 나수다. 경 헛난 그거 곧겿로 그거 꾹차그넵에 바지도 멘들앙 주
곡. 치메도 멘들앙 주곡. 이제 속웃은 여자들 물질 허는 속웃도 멘들앙 주곡. 경
헤그넵이 그자 여자ㄴ찌 저 어른들 ㄴ찌 겿게 못 헛면은 정벙이 ㄴ추룩 행. 치메
쏘굽에 입곡 여자들은 경 행 입곡. 경 헛주 무신.

106026 @ 예 맞수다. 정벙이 예.

106026 # 진, 엇영 못 입으난 거주. 잇인 사름은 잘 입어서게.

106026 ## 허기사게. 우리사 엇언 못 헛주마는 못 입엇주만은.

106027 @ 경 해도 옷을 만들젠 허면은 크기도 재사 되고 해야 될거 아니우파?

106027 ## 아니 크기 제곡 무시거 해수과게. 그자 혼 자 낵 지력시흐민 혼 자 지력시 행 입곡. 크민 또게 작아 옷 놔그네 혜영 멘들야 그넵이 주민 행 그자 입곡. 경헛주. 그거 크기 품 제곡 무시거 해곡 해수과?

106027 @ 계난 품 재그네 경 해도 찢라 내는것도 있곡. 허지 안해수과?

106027 ## 찢라 네는 거는 몸빼식으로양. 몸빼식으로 영 놔그넵에 찢라네영 찢라넵건 이디 밋 붓저그네. 경 헤그넵에 몸빼 혜영. 몸뻔디 바진디 멘들양 행 입지곡. 경 헛주.

106027 @ 예, 밋 붙이고예.

106027 ## 예.

106027 @ 그 저 바지, 저고리예.

106028 @ 그 바지 저고리예, 치마 보선 각 부분 있지 안우파? 여기 허고 이렇게 허고 이디 허고 고름허고 그런 거 한번.

106028 ## 계난 저고리나 적삼이나 저고리나 마찬가지로. 앞섭.

106028 @ 앞섭.

106028 ## 예, 안 앞섭, 밧 앞섭 안 앞섭, 짓, 이 영 흐는거 이제 또 그 짓우의 흐는거 동전. 경 헤그넵이 그거 계난 우리 여자건 저고리나 적삼이나 똑 ㄱ짜 그거예.

106028 @ 똑 ㄱ짜예. 경 허곡 이거는 묶으는 거는 무시걸로 해수과?

106028 ## 곱 이기.

106028 @ 곱예?

106028 ## 안터레 메는 건 안곶이엔 흐고.

106028 @ 안곶엔 흐곡.

106028 ## 적곶인가 안곶.

106028 # 적곶.

106028 @ 그리고 속옷은 헐 때는 이디 어깨에 매는 거 있고. 어깨매는 거엔 해수과?

106028 ## 예, 그냥 속옷허민 그자 이디 어깨에 매는거 혜영. 이디 저것 거시기 별모작 행으네.

106028 @ 별모작.

106028 # 단추는 별모작.

106028 @ 예, 단추는 별모작 이거는 끈이엔 해수과?

106028 ## 예, 메 큰.

106028 # 메 끈.

106028 @ 메 끈. 그리고 또 아랫거는? 밑에도 이렇게?

106028 ## 아레 저 바지?

106028 @ 예, 아니 속옷에.

106028 # 아래도 벌모작행.

106028 ## 속옷에 아래도 벌모작 행. 그레도 다 혼 착은 혼 착 가달은 들어가
곡. 혼 착 가달은 이제 영 다왕 들어왕 이제 다 영 터질거아니. 그레 다 벌모작 이
디 또 허리 곰 해영 무끄곡.

106028 @ 아 허리에는 곰예.

106028 ## 응 곰 해영 무끄곡.

106028 @ 허리는 곰허고예. 그다음은 바지. 남자들 바지. 바지는?

106028 ## 남자들 바지게 그제 다님. 아레 무끄는 거는 다님. 허릿띠 그 허릿띠
엔 허주 무시거엔 흘 거라 양.

106028 @ 허릿띠.

106028 ## 이디 영 무끄는거.

106028 @ 예, 허릿띠. 또 허릿띠 그다음은 그냥 바지. 바지허곡. 바지에 그냥
바지엔 험니까? 허릿썸에 들어가는거 무시거엔 허곡.

106028 ## 아 거시기. 바지에게 허리 허리.

106028 @ 예, 허리, 그건 허리고 왼쪽 다리 놓는 거 그런거는 뭐 엇인가마씨?

106028 ## 아니 그거 다님 칠때 그 바지 입영. 다님 칠 행 흐는거 뺏기 무시거
더 엇주게 남즈거 간단흐주. 무시거.

106028 @ 치마.

106028 ## 우리 고성, 이 여즈입는 치마?

106028 @ 치마에 대해서는 부분 별로.

106028 ## 치마엔게 허리 흐곡. 치메에 허리 들고 곰 들곡. 허영 입엇주.

106024 @ 곰 들고 허리 들고 곰 들곡 그다음 밑에거는?

106024 ## 무시거 밋엇거?

106024 @ 그냥 허리허고 묶으는거 곰 들고 여기는 치메엔 허고예.

106028 ## 응 치메 알 해부민게 그냥 알 박으민게. 알 박아그네.

106028 @ 알 박아그네예.

106028 ## 응, 치메 행 입곡.

106028 @ 저기 보선.

106028 ## 보선 신곡게.

106028 @ 보선 신곡허는디. 이거는 보선 코엔 험니까?

106028 ## 응 보선 코.

106028 @ 보선 코. 코. 여기 이거 가운디 거는 뭐엔 험니까? 버선코 허젠 허민
가운데.

106028 ## 가운딘게. 가운디 선이주게. 게난 이거 이제 요세는 보선을 이거 반
뜯흐게 흐난 거주. 요 썰 밥이 영 왼쪽으로 영 흐민 오른쪽이 신곡. 오른쪽으로 영
흐민 왼쪽에 신곡. 경 헛주.

106028 @ 예, 썰밥 가지고예. 거문 이기는 뭐엔 험니까? 뒗치이엔 험니까?
 106028 ## 뒗치기.
 106028 @ 뒗치기. 허고 요기는 버선 이건 상관 엇곡.
 106028 ## 버선목,
 106028 @ 여기 흐끔 들어가는 건 뭐엔 험니까? 여기 보선에.
 106028 ## 톱, 보선톱, 보선톱이 어떻 흐난 자꾸 벗어점쨌 헤그네.
 106028 @ 거문 막 자꾸 벗어져그네예. 미글락미글락 행예. 여기는 버선코. 다 되신게. 요기는?
 106028 ## 그건 무시거엔 안 마르고. 요기는 보선 코, 으딘 보선 톱, 이제 경 행 허문 자꾸 벗어점쨌 헤영 웃터레 올리곡 경 흐는 거.
 106029 @ 다음은 단추. 단추는 다 별모작 이엔 허는가마씨?
 106029 ## 아니, 이 속웃엔 별모작을 돌아나고 이 웃엔 단추도 들곡 별모작도 들곡 헛주마는 단추 나오건디가 경 무시거 아니헤영. 게난에 별모작을 하영 헛주. 적삼에나 이제 또 저고리엔 곱을 헤 들앗주마는 이 적삼에는 별모작을 하영 들앗주.
 106029 @ 예.

재단과 염색

106030 @ 저기 옷감 손질에 대해서예. 멍지가 막 어렵지 안우파? 광목도 어렵주 만든.
 106030 ## 아, 멍지가 어렵주게. 멍지가 이제 풀힘도 어렵곡. 뒗도 어려왕. 옛날엔 멍지바지를 뜯으면 이제 풀을 허쟁 허면. 꺾사 가시리. 가시리 메어당 풀 췌그네. 그걸 흐면 더 뒗작 흐주게. 경 행 허문 그 풀 허영. 이제 다듬일 헤사주. 멍지에.
 106030 @ 예 다듬이예?
 106030 ## 다듬이 그거 다듬이 막게로 잘 두드리지 안여민. 잘못 두드려부민 그 고비로 꺾차져 불곡. 그 씨게 두드령 그 거시기 흐드레 헤민 글로 꺾차져 부난. 글로 잘 맞추왕이 그 다듬일 헤사. 그 고비가 꺾차지질 안혀. 요즘은 풀 흐는 거나 저 아돌덜 풀 떼도 베 헤영 흐난에 다듬아 주는 디 가민 저 거시기. 베 흐 필 다듬는 디 오만원이엔 헤네. 이넉냥으로 허준 행. 물 톱톱하게 컷단 그거 하올하올하게 시리 헤완에 간 널엇단. 보들보들 헤가난. 난 발로 꺾꺾 불랏단. 아리론 저 다리미로 쓱쓱 다리난. 뒗작 폐와전 헨 앓영 가난. 아이고 풀 잘 헤연 잘 헨 와수다. 영 흐명. 흐듯이 게난 요즘은 그축룩 헨 헛 주만은 옛날은 다 마께질을 헤사 헛주게.
 106030 @ 예 다듬이 질은예.
 106030 ## 응, 다듬이 질을 헤연. 경 헨 현디 요즘은 뒗 그 축룩 헨 허난에게.
 106030 @ 멍지는 어째튼 한 번 옷 헤나면은 다 실밥을 튼영으닝에예, 그 곱, 옷감 차례대로 다.

106030 ## 계난, 바농 혼 번 해나민. 그 바농질을 다 뜯어근넵에. 호왓단거 다 실을 빠멍헤영 빨아그넵에 풀헤영 그거 다 그 츠레데로 노멍. 이제 다듬메질을 헤영. 또 손보양 또 다듬메질을 헤영 또 손 보곡. 경 흐멍 해낫주. 경 헨디 요즘사 어디 경 헤여. 요세 경 헨거 어디 입엄서 입지도 안허곡.

106030 @ 계문 무명이나 저기 광목은 또 손질은?

106030 ## 그자 풀헤그네 두드려그네.

106030 @ 풀 헤그네예. 두드려그네예. 그건 다시 뜯지 안 헤그네예.

106030 ## 광목도 무사 뜯어사게 올 발르긴 허주게.

106030 @ 뜯어사, 아이고 바느질 ㅁ심도 하긴 하우다. 발일도 해야 되지 이것도 옷도 새로 맨날 만들어 입어야지.

106030 ## 계난 옛날엔 내복이 엇어부난에, 바지도 우리 하르버님 계실때 바질 흐젠 허문. 숨을 놔야돼.

106030 @ 예 어른들은예.

106030 ## 숨을 낳 허문. 그 숨을 안 빠지게 흐젠 허문. 그 거시기 마다. 썰밥 마다 그 거시길 놔야돼어 다 주워사 돼주. 계난 그것을 썰밥마다 그 소계를 낳. 주워그네 이제 헤영. 끼와사 그 소계가 이레저레 안 헤영. 이제 그것에 톡 흐게 붓더 그넵이 잇영 바지가 득수고 경 안영 그걸 안 행 허문 알레도 가벗닥 옷터레도 가벗닥 경 행 몽크려 정으넵에 입질 못 허여.

106030 @ 입지를 못 헤여예 뜻뜻허지 안 헤영예.

106030 ## 경 헤 그넵에 그 헛주. 요즘은 그자 미승으로 박아그넵에 뽕상행 빨앙 풀헤도 돼고 그자 헤도 돼고, 경 흘 건디, 젠디 옛날 허는거 흐고도게. 춤 열에 흐나도 안햐주게.

106030 @ 예 맞수다게. 숨 헤가지고예. 무명은 허고.

106031 @ 여름엔 풀허지 안허고 무명은 물들이지 안헤수과예?

106031 ## 아니, 남즈어른들은 그자 입어수다. 여즈들은 물들이멍 검은 물도 드렷다. 북방색 물도 드렷다. 붉은 것도 드렷다. 영 흐멍 헤영 아이들 행 입지고 헛주만은 남즈 어른들은 이제 바지나 중의적삼이나 다 물 안드령 그자 입언.

106031 @ 물 안들영 회영현 걸로.

106031 ## 예, 일 흘 뎌 감물 디련에 감옷 입엇주만.

106031 @ 일은 감옷으로예, 감옷으로 허주만은 붉은 물은 꽃으로 헤수과? 무시 걸로 헤수과?

106031 ## 아 그 떼 물 무신물 산디 물 나완에 들어나수다게.

106031 @ 아 물 나완.

106031# 물 다 빨안 염색소.

106031 @ 아 경 헛구나예. 푸린 물도 푸른 염색소 나완.

106031 ## 나완, 물 그거 행으넵에 물 들영. 검은 물도 들이곡,

106031 @ 예예 경 헛구나예. 염색소.

신발

106032 @ 신발은예?

106032 ## 신발은 게 초담엔 초신 신꼬게.

106032 @ 예 초신.

106032 ## 그 다음엔 고무신 나완게. 검은 고무신 나완게. 신꼬 그 흥끔 잊이 난. 흰 고무신도 나완 신꼬.

106032 @ 옛날에는 그 초신허곡 또.

106032 ## 나막신.

106032 @ 또 나막신예? 나막신도 있었고.

106033 @ 또 가죽시로서 감테? 저기 가죽으로예, 이 만든 신도 잊어나지 안헤 수과?

106033 # 아니 촌엔 그런거. 그 몰라 이 저. 사냥하는 사람들이나 영 혼 사람들은 그 특별하게 제작해서 그 춤 가죽으로 헤그네 헨 멘들안 신엇을런지 모르주만은 우리 뭐 가죽.

106033 @ 주로 초신을 신엇구나예?

106033 # 응, 초신이라든가. 계난 우리 일제시대도 운동화도 좀 나왔어. 난 그 학교에서 운동화 배급 받안. 아 어떤 늑 듯날 신언가난 앓어가며 가지고 일러떡언.

106033 ## 겐 멘 발에 왔구나. 아이고,

106033 # 춤.

106033 @ 거문 가죽신에 대해서는 모르큰게예? 가죽신 만드는 과정예?

106033 # 응, 그거는 이 춤 사냥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산에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아 이런 사름들은 신발이 든든해야 돼주. 우리야 소위 조리 신어그네. 그 초신 님은 거. 그 조리라도 신으민. 이디사 텅기주만은 그 산에나 이런디 텅기는 사람들은 그 신발이 든든하지 안 행은.

106034 @ 거문 삼춘은 나막신은 만들어 납디가?

106034 # 나막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막신 만드는 그.

106034 ## 하르방 잊어났주.

106034 @ 하르방들이.

106034 # 응, 집에 청 헤다가 나막신을 우리 발에 맞게 이거를 그 식구 거를 다 만들어.

106034 @ 식구대로예?

106034 # 응, 쓸도 주곡 돈도 주곡 헤여그네. 그거 다 만들어서 그거를 신어. 겐 디 비가 오면은 여기는 흑밭이라이. 도저히 그 나막신 안 신으민 걸어 텅기질 못헤 여.

106034 @ 발에 맞게 완전 맞춤형이다예?

106034 # 어, 아 맞추게 만들어야 돼주게. 계난 그거 딱 뿐떠그네 헤영. 소위 곡

췌로 해서 거 다 안넛거 파네주.

106034 @ 거문 식구들이 다섯이면 다섯을 만들젠허문 혼 이틀이고 삼일이고 걸리큰게예.

106034 ## 아이고 이 틀 삼 일로 해 집네까 그거. 통나무 끈어그네 혼는 건디.

106034 @ 아, 통나무, 나무는 어떤 나무로.

106034 # 아, 게 아무 나무나 젠디 쯤 좀 질긴 나무 그 좀 잡나무. 강한 나무로 해야, 젠디 겨민 나막신이 또 벗쳐.

106034 @ 무거원예.

106034 # 어, 게난 췌 수잇으면 건 춤 아이들이라도 슬슬 걸어 텅기젠 혼면은 그 소나무 ㄱ뽕것도 췌여게. 그 저 쯤 무겁질 안 혀니까.

106034 @ 소나무도예.

106035 @ 짚신은 초신?

106035 ## 예 초신.

106035 @ 초신은 저기.

106035 ## 산딧칩으로.

106035 @ 산딧칩예. 산딧칩으로 산딧짚으로 혀는다. 초신은 혀게 되민 혼꿈 높게도 만들엇텐 혀는디예? 앞뒤로.

106035 ## 아이고 아이고 초신을 높게 어떻 높게 흘 말이라.

106035 # 이거 좋아야 췌는 거라. 게난 그거 예 그 가온디. 것 곶아 뭇엔 해. 그거. 그착으네 네 게 봐서 좋아. 그 이 거시기로 부터 앞으로부터 짜간다 말이며. 그렇게 혼면은,

106035 ## 산딧칩으로 명석 즐듯이 좋아사 경 행 신에 발에 맞게.

106035 # 깝 신각을 멘들어야주. 건 뭇로 멘드냐면은,

106035 ## 절어가명.

106035 # 이 미. 미엔 혼게 뭇냐 혼면은 이저.

106035 ## 억췌 그저.

106035 # 어, 억췌 그 나오는데. 순 나오는데 억췌뽕 나오는데 그 뽕순 나오는 그것 뽕으면은 그걸 뽕아서 이제 그 뽕려그네. 두드령 혼면은 그게 그. 뭇이냐 그 이 노가 아주 질겨. 신사락 보다도 질겨.

106035 @ 아, 질겨 미이.

106035 ## 경 헐 그거 산딧칩에 심으명 경 행.

106035 # 경 행 그걸 영 행 꺾아그네 이제 그 신 깝을 만드는 거라. 영 해그네 두 겔 혼민 요것도 연결해야 이 깝을 또 연결해영 동그랗게 해놔야 신이 췌는 거난. 뽕치기 혼곡.

106035 @ 뽕칙 혀고예. 거문 뽕칙은 혼꿈 높아사 뽕거 아니우파예?

106035 ## 아니 벗어지지 아녀게 해사주.

106034 # 뽕 빠지지 아녀게.

106034 @ 빠지지아녀게 영 올려그네 예.

106034 # 뒷치기 경 행 높으게 해볼민 이기 다 헛사져그네.

106035 @ 맞수다.

106035 ## 아이게 무사게 양말을 신으카 무시거 신으카 그자 초신 해여그네. 새 것쯤은 뵘아 놔그네. 신으민 게 이디 게 밀어 비영 밀어 비영게.

106035 @ 경 허면은 그 걸 또 이제 뵤사그네. 안에 거가 또 뵤깃디에 가그네. 신게도 해나수과?

106035 ## 경은 안해낫주.

106035 # 아, 그 뵤상 신어나서 뵤상.

106035 ## 뵤상 어떻 신어 봐, 터지지 안 행 뵤상 신어집네까 말도 원.

106035 # 뵤상 신으면은 흐쫄 더 신지 뵤칠.

106035 @ 흐끔 더 신으면은 흐 몇 더 신어예. 초신을 신으면은 흐 몇일까지 신 어지느고예? 흐 달?

106035 # 아니 흐 열흘 미만.

106035 ## 비가 오민 산뵤칩이난 비나 오민게 흘타타해그네.

106035 @ 흘타타 빠적으네예.

106035 ## 겐디 뵤디 뵤름도 흐곡게.

106035 @ 게민 맨 날 앓앙 초신만 즐아신게예?

106035 ## 아니 게난에 어디 안 강. 날 궂인 날은 하르방덜 초신을 자꾸 즐앗 주. 경 흐민 경 앓아그넵에 흐민게. 흐루 뵤트 베 흐민 해영 돌아 뵤당 터지민 신곡 게. 경 헛주.

106035 @ 바짱 신곡예.

106035 ## 경 헛주게. 요세도 보민 육지서 보민 그거 해당 돌아메고.

106035 # 옛날 나가 국민, 초등학교 일 학년페라 그 일제시대거든이. 일제시덴 데 그 옷가 팔 일마다 진자삼빠일 흐거든.

106035 @ 아, 팔 일마다.

106035 # 여기서도 저 일출봉 지금. 저 절간 우에 진자가 잇엇어이. 게민 겨울 에 옷가엔 흐민 팔일이거든. 메들 옷가, 게난 팔 일.

106034 @ 매달 팔일.

106034 # 응, 진자삼빠일을 이 동남학교에서도 거길 가야돼여. 그 참배를 허레이. 게면은 그 초신을 신영 간다 말이여. 게민 그 일출봉 중턱이라 노니까. 뵤게 뵤름이 차가워. 차가워서 초신을 신으민 이디가 아프면. 이젠 좀 뵤트 그걸 그 우이서 들썩뚝 해가면. 초신이 다 얼어벼.

106035 @@ 그 때 신사가 잇엇으면 도리 이렇게 영 세운거 도리가 잇엇겠네예.

106035 # 응, 그런 거 잇엇주게. 그 영 흐 나무로 만든거. 그게 다잇엇주. 게난 그 그게 해방 뵤난 다 없엇주.

106035 @ 초신을 신영 거기까지 갔다는 거라예.

106035 # 거기 간 헝니까 올 때는 올케 그 초신은 들르고 멘발에 올 수 밖에
엇엇어. 거, 신지 못 해. 다 얼어변 붓더부난. 그렇게 그 우리 살아서이.

106035 @ 예. 아이고 애써수다.

106036 @ 그 초신 종류에 대해서 알아줍서.

106036 # 종류 엇어.

106036 @ 어른신허고 아이신? 다 초신?

106036 # 응, 다 초신이주게.

106036 @ 여자신도?

106036 # 예기신도 초신이고 여자신이나 무신 남자신이나 그 구별이 잇인거라?

106036 ## 거 구별 해서게 발에 맞추멍.

106036 # 좀 족게 허면은 그자 이넉 발에 맞으면 신으니까.

106036 ## 크게 헝민 발 큰 사름 싰꼬 경 헛주. 발에 맞추멍 신엇주.

모자 등

106037 @ 모자가 옛날에 모자가 잇엇을거 아니우파? 모자 아는데로 알아줍서.

106037 # 모자도 모자도 잇엇는데. 그 일본 군인덜 썬또모라고이. 전투모라고
일본 늑덜 잇엇고 옛날 그 일본 시대에 거 뭐이니. 이거 뭐 해 가지고 영 무경 텡
겨난 모자. 것 알아 뭐엔 알아?

106037 ## 뭐엔 그르키여마는 노시 못 그르키여. 그자 속 옷 그 거시기 그추룩
멘든거주. 그것 알아. 복감티. 복감티.

106037 # 복감보. 그거 이제 소위 폭격을 해도 숨 노왕 헝는 때문에 총알이 잘
안들어 간다고 해서. 이거 그 때 일제시대 써나서.

106037 ## 이제 그뜨면 고냉이 모자그찌 그 추룩 해네. 영 헝 멘들앙. 썬 허민
요 두엔 훗썰 트주. 텡 허민 요레 영 오게 행 일로 이레 무꺼그냉이. 그거 모즈를
경 헝 쓰곡. 애기덜토 경 행 썬와 나고 헛주. 무신 모즈가 어디서사.

106037 @ 그 옛날에는?

106037 # 그 일제시대 일제시대.

106037 @ 이건 일제시대고예.

106037 # 그전에는 우리 몰르고,

106038 @ 여름모자는 여름 모자는 밭디서는 뭐 패랭이 말고 갓?

106038 # 거이 패랭이덜 썬주.

106038 ## 패랭이주게 어디 패랭이 말고 어디서? 데 패랭이 요세 밀짚 패랭이
도 베랑 엇곡. 대 패랭이.

106038 # 대로 만들어서.

106038 @ 대 패랭이 여자나 남자나예. 예 대 패랭이.

106038 # 대 패랭이 썬주.

106038 @ 또 비올 때는, 비올 때는 모자 쓰는 거 엇엇인가마썬?

106038 # 정당벌립이라고,
 106038 ## 정당버립.
 106038 # 게고 그 쉼 털로 만든 그 벌립. 그리고 정당벌립. 요런거 헛면은 그 때 우장을 새로 짝 만들언. 겐디 우리 성산쪽에 우장이 췌고로 돈돈하게 만들어 져서. 그거 입곡 벌립 써불민 원. 비가 암만 와도 이건.
 106038 @ 비가 안들언 예.
 106038 ## 쏘곱더레 안드난게. 게난 우장 쓰곡. 벌립모즈 쓰고.
 106039 @ 겨울모자는?
 106039 ## 게메 겨울 모자는 복감보 그거 복간티엔사 해신디 복감보엔 해신디.
 106039 @ 복감티이.
 106039 ## 복감티 그거 멘들안 썸.
 106039 # 그게 일본 사람들이 쓰고 온 거라. 일본서 그 뭐이나 헛면 소위이. 공습할 때도이 그거 숨 놓아서이. 뚜껍게 해 불면은 뭐 실탄도 이디 그 숨을 이리 놔 불민 안들언 간다고해서 그 파편 ㄴ뽀겨.
 106039 ## 저 썸 쏘곱에도 데가리에도 들어가는 거 숨만썸 놓는거 안들언 갑네 까게. 말만 들엇주. 말만 들엇주. 뜻게 허젠.
 106040 @ 양테 저기 해난거 알아지쿠과? 양테 예. 양테.
 106040 ## 양테? 아이 몰르큰게 난 무스건지.
 106040 # 양테가 뭐이라.
 106040 ## 나도 몰르쿠다. 양테가 뭇 산지.
 106040 @ 양테예, 양테. 그 망건허고 양테헛곡.
 106040 # 아, 양테가 뭇지 몰르크라. 망건은 이 이멩이에 쓰는건 망건이주만은.
 106040 @ 예, 양테예.
 106041 @ 총모자?
 106041 # 음, 총모자는 거시기주게.
 106041 @ 아까 복감티 같은것과?
 106041 # 아니아니, 건 말총으로 만듬으로 만든 건디. 저 것 곶아 무시거엔 헛느니? 저제스 흘 때 쓰는거.
 106041 @ 갓?
 106041 # 갓 거 그거 말총으로 멘드는 거주.
 106041 @ 총모자 예? 총모자 결는 거는 모르주예? 알아지쿠과?
 106041 # 몰라.
 106042 @ 탕건?
 106042 # 응?
 106042 @ 탕건.
 106042 # 아 게. 탕건도 갓 쏘곱에 쓰는 거거든.
 106042 @ 예예 이거 갓 속에 쓰는거예. 갓 속에.

106043 @ 망건?

106043 # 망건은 이마에 두르는거.

106043 @ 이마에 두르는 거 예? 그것도 이기서 만들거나 뭐 허는 거는 집에는 있어실거 아니우파? 하르버지네는.

106043 # 어, 잇엇주. 잇엇는디.

106043 @ 이 갓도게. 저 싯갓때 허젠 허면은 갓 쓰는데는 베랑 갓은 안 써그넵에.

106043 ## 제사텐 갓은 안 쓰고 그 망건인가 검은 것만 영 썬게.

106043 # 아니.

106043 ## 거 무시것과? 거 도복을 입으민 갓을 쓰게 웬거라. 원칙으로.

106043 ## 게메 거 안썬게게.

106043 # 도복은 안 입언 창옷만 입으니까. 거 두르메기만 입으니까 안 쓰는 거 지게. 게난.

106043 ## 신양리 제스 홀 때 가보난 검은거 무시건만 썬언게게.

106043 # 아 게메 그거 갓 엇이난 그거 갓 데신 쓴 거주게. 그거 유건인디. 경흐난 저게 그 본래 도복을 입으민 갓을 써야 그게 그 갓추는 거라. 켜디 갓이 게메 집이 없음으로 못 쓰는 거주.

106043 @ 갓이 매 집이 없어서예? 그 옛날에도예? 맞수다.

106043 # 응, 아 그 옛날엔 어느 집이 노인들은 다 잇어났는데. 그게 츠츠츠츠 그 시대가 경 험. 일제시대가 썬나고 헤 가니까 그게 엇어진 거주게.

106044 @ 도롱이. 아까 저기 우장이 도롱이 아니우파예? 도롱이. 우장. 우장이 도롱이 아닌가마씨?

106044 # 몰라, 난 도롱이엔 혼 말은 안 들어봐서.

106044 @ 안들어 봐수과?

106044 # 우장.

106044 @ 도롱이 안들고. 우장도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잇지 안우파예?

106044 # 게난 그건 만들메 가는 거주게. 하르방이 만들 때 홋술 길게 만들어 불민 긴 거고 홋술 쫄르게 만들어불민 쫄른 거주. 그걸 똑 규격 험 제명 만들진 안 헤시난.

106044 @ 게난 이 동넛거는 비가 안들게 끄예. 허게 헛텐 허니까는.

106044 ## 길게 입엇주게. 이디 우장 길게 입엇주.

106044 @ 길게 입영 예, 길으론 짜는 그 방법이 다른거라예.

106044 # 아니 방법은 아주 츠츠헛게. 거거 허젠 허문 새도 막 츠츠히 그거 장만헤 가지고 아주 께끗이 헤서 그 잘 헛주.

106044 ## 게난 데가린 썬차동. 그 데가린 영 새가 영 질민 이 이파린 이만헛고 요딧 거는 영 썬차그네 영 홀타불민. 이디 붓터난 옆잇 것만 헤영헛민. 그 이파리에 거시 거 이파리에 것에 그것에 헤영 노곳에 행 낱. 쫄쫄헛게시리 헤영. 봉오리 잔뜩

헝 헤불명. 헤영 이 근방에 것은 쫄쫄하게 헝 물도 안들어 가곡. 판디서는 그거를 잘 흘트지 안헤그네이 요디 영 쪽 들어 놓을걸 요만이 헤 불곡. 요만이 헤 불곡. 헝 민 경 늘어정 비가 들어가곡. 경 헛주. 게난 그 짜는 차이, 짜는 차이.

106044 @ 예, 맞수다. 짜는 차이에, 이 틈새. 아이고 여섯시 십오분. 삼춘 7만이 앓안 허젠 허난 화장실도 못 가곡. 잠깐 쉬영 잠깐 쉬고. 나중에 남자 삼춘예. 집 허는거. 집 허는 거는 시간 보명예.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거문 이제 밥 해 먹는 거예?

107001 ## 무시거 헛거?

107001 @ 밥 해 먹는거.

107001 ## 밥 해 먹는거.

107001 @ 밥의 종류, 밥 종류 알아줍서.

107001 ## 밥 종류게. 초담에 우리 헛 떼게. 보리밥 헤영에 게 먹곡. 그다음에 조팍 헤영 먹곡. 좁쌀에 감저 싸라냥 밥 헝 먹곡.

107001 @ 좁쌀에 감저예?

107001 ## 응, 또 보리 하도 그 저 제국시절인가. 어느 덴가. 공출허고 하간거 헛난에 프레 헛단에 프레 밥 헝 먹곡,

107001 # 톨 톨 톨밥,

107001 ## 에이 프레 밥 헝 먹곡. 보리 쓸엔 풀밥.

107001 @ 에 톨밥.

107001 ##또 조절엔 나난 톨밥 헝 먹곡.

107001 @ 톨밥. 또 보리에 톨이엔 헛지 예, 아까예?

107001 ## 보리에는 프레.

107001 @ 아, 프레에.

107001 ## 응, 좁쌀에는 톨. 경 허고게. 그자 팽세 떼 먹을 덴게, 보리 쓸에 좁쌀 냥 밥 헝 먹곡.

107001 @ 보리쓸 좁쌀.

107001 ## 응, 냥 밥도 헝 먹곡.

107001 @ 이 밥은 보리 쓸 좁쌀은 그냥 무슨 밥이엔 헛니까? 그냥.

107001 ## 아, 그자 밥이엔. 그자 보리쓸 놓고 좁쌀 냥 그자 밥. 경 헛곡. 또 이 따그네에 감자 싸라 놓고 좁쌀만 냥 밥, 니쟁이 놓고 헝. 밥도 헝 먹곡.

107001 @ 감저에 느쟁이?

107001 ## 응, 좁쌀에 헤그네 니쟁이 놔그네. 밥 헝 먹곡.

107001 # 메밀 ㄴ루 곶아 난디. 그 니쟁이 그게 맛있인 거라.

107001 @ 그, 저기 좁쌀도 들어가고, 감저도 들어가고.

107001 ## 들어가고 응.

107001 @ 니쟁이도 들어가고? 아, 이거는 이게 제일 좋은 음식이우다 이제까지.

107001 ## 응, 계난 어떻 하니 좁쌀 물 꿰민, 좁쌀 낱 그다음에 감저 낱. 그다음에 밥이 다 빨어가민 니쟁이 웃터레 확 헛꺼. 경 해그네 이제 헛다그네 틈자민 박박 젓엉 밥을 흐민 맛 좋주게. 또 기축 행 그 밥을 행 먹곡.

107001 @ 응, 풋밥 또 먹어 나수과? 콩밥 풋밥.

107001 ## 저 툄밥? 풋 풋? 풋은 잔칫때나, 그 때나 풋에 보리쌀에 석경 밥 행 먹곡.

107001 @ 예, 잔칫때예?

107001 ## 예,

107001 @ 응, 잔칫하고.

107001 ## 응, 경 흐영.

107001 @ 또 콩. 콩도 놔그네. 밥에 콩 놔그네. 찹쌀 같은 거. 산뒗밥 땃밥

107001 ## 아니, 그런거 땃밥에 저 보리 쌀이나 콩이나 석경 흐진 아녀고.

107001 @ 곤밥으로만.

107001 ## 이제 수정이나 하기네. 갈라 먹젠 흐민 갈라 먹을 밥으론 보리쌀에 곤쌀에 서꺼그네 헤어나고 경 헛주만은.

107001 @ 예 보리에 곤쌀에예. 또 이제 모믄로 모믄쌀로만 헛 밥

107001 ## 모믄 쌀로만 밥은 안 땄고, 저 거시기 좁쌀에 석경.

107001 # 좁쌀에.

107001 @ 좁쌀에 섞어그네예.

107001 ## 밥 허민 땄지락허게 맛 좋아났주.

107001 @ 좁쌀하고 저기 모믄하고예?

107001 ## 모믄 쌀하고.

107001 # 모믄 쌀은 쪼금 놓고.

107001 @ 예, 거문 이 밥은 무신 밥이엔 허코예?

107001 ## 무신 밥 이엔 헛 것 산디. 좁쌀에 저 모믄 쌀 낱 밥 헛저, 먹으라 영 헛주.

107001 @ 예예.

107002 @ 밥 허는 쌀이 종류에 대해서 곶아줍서.

107002 ## 밥 허는 거게. 보리쌀, 좁쌀, 피쌀, 석상피쌀.

107002 @ 석상비 쌀?

107002 ## 응, 피쌀

107002 # 산디쌀.

107002 ## 산디쌀.

107002 @ 산되쫄 줍쫄 게니까 모믈쫄은 아니고?

107002 ## 응, 모믈쫄은게. 줍쫄에 서끄멍 모믈쫄만 낵 밥을 못 헉난게.

107002 @ 예, 쌀 종류가.

107002 ## 피줍쫄게. 석상비쫄,

107002 @ 석상비 피쫄예? 석상피쫄?

107002 ## 응.

107002 @ 석상피쫄.

107003 @ 그 보리밥에 대해 곶아줍서, 보리밥.

107003 ## 보리밥은 게 보리밥에 서끄는건 줍쫄에도 서경허고 곤쫄에 보리쫄에 서경도 허고게. 경 헛주게.

107003 @ 예. 보리밥은 허젠 허면은.

107003 ## 보리밥은 그자. 보리밥만 허젠 허민. 보리밥 부꾸왓다그네. 혼 번 퀘영 헉쫄 틈제왓당 틈제 왓다그네. 따시 불 습앙 뿔황,

107003 @ 뿔라 그네예?

107003 ## 경 헤그네영 틈자민 퍼 낵 먹엇주게.

107003 @ 틈 자민. 이것저것 놔그네도 되고 보릿쫄은 한번 퀘어그네예? 경 호곡 보리밥은 하영 쉬어나지 안헤수와 예? 여름에.

107003 ## 여름에 하영 쉬주게.

107003 @ 하영 쉬어그네예. 그 하영 쉬어나면은.

107003 ## 거 하영 쉬영 경허민 거 네불지 못 헤그넵에 아까와그네 순다리 헤영.

107003 @ 순다리에.

107003 ## 순다리 헤여그네 저 거시기 그거 쭈어그네 먹엇주.

107003 @ 예. 순다리 헤그네, 아 순다리 헤그네 한번 쭈어그네예?

107003 ## 응, 끌여그네.

107003 @ 끌여그네예?

107003 ## 응.

107003 @ 순다리, 이거는 여름에는 또 막 그 몸에 좋은거. 요즘은 막 몸에 좋덴 헤그네 일부리 순다리덜 많이 헤그네.

107003 ## 응. 게메 순다리 행 많이 먹엄주.

107003 @ 요구르트보다도 뭐 종덴 허멍 곶습디다 마는. 보리밥 허고 이거 헉고 보리밥은 허게 되면은 그 해나면은 솔디 놓으면은 쉬어불 거난에 다시저. 기.

107003 ## 차반지에 퍼. 돌아메여.

107003 @ 차반지에 해서 돌아메여예.

107004 @ 반지기밥.

107004 ## 반지기밥?

107004 @ 예, 반지기밥.

107004 # 반제기 밥이엔 행. 반반 현 밥을 반제기.
 107004 ## 계난 서경영 허는, 서경 흥는 밥 곶아 반지기 밥이엔 헤실테주.
 107004 @ 거문 아까 보리쫄, 곤쫄. 쫄쫄 모물쫄 뭐 보리 쫄쫄.
 107004 ## 게 곤쫄도 놓고게. 그거 다 완, 경 흥난게 반지기 밥이엔 헤실테주.
 107004 @ 예, 섞어그네 허는 거예.
 107005 @ 흰밥에 대해서 곶아줍서. 흰밥.
 107005 ## 흰밥은게. 흰다리 헤 먹는.
 107005 @ 흰, 흰밥.
 107005 ## 아 흰 쫄밥게.
 107005 @ 흰쫄밥예?
 107005 ## 응.
 107005 @ 흰쫄밥 곤밥.
 107005 ## 곤밥, 이제 춤 흰쫄밥은 이젯 말. 곤밥.
 107005 @ 곤밥 예? 새각시밥.
 107005 ## 응, 새각시밥.
 107005 @ 새각시밥. 새스방밥.
 107005 ## 새서방밥.
 107005 @ 싯게밥,
 107005 ## 싯게밥.
 107005 @ 곤밥이난예? 싯게밥예.
 107005 ## 응, 곤밥이난.
 107005 # 춤 곤밥 흥 직 얻어 먹젠. 흥 줌, 흥 슷가락 얻어 먹젠 아이고.
 107006 @ 조팝, 조팝 조팝에 대해그네 곶아줍서. 아까는 조팝은 섞으니까는예.
 섞영 먹는거예?
 107006 ## 계난 조팝만 흥는 건 조팝이고.
 107006 @ 예. 조팝이고.
 107006 ## 석경 먹는 건게. 보리쫄, 쫄쫄 헤네 석껌 먹는거. 또 감저 완 서경
 먹는거.
 107006 @ 예, 섞영 먹고.
 107006 ## 또 이제 느쟁이 놓고 서경 먹고.
 107006 @ 예, 느쟁이 조팝도 이제 흐린조도 잇곡 메조도 잇지 아니우파예?
 107006 ## 응, 흐린 조팝도 잇곡게. 모인 조팝도 잇곡.
 107006 @ 흐린 조팝허고, 모인 쫄쫄밥예? 흐린조는 보통 게도 노랑조도 흐린조
 가 잇지 아니우파?
 107006 ## 아니 노랑조도 잇주만은 대부분 검어.
 107006 @ 검은조예. 흐린조가 검은조예?
 107006 ## 응.

107006 @ 검은조엔 해수과?

107006 # 흐린조엔 햇주.

107006 ## 흐린조엔 햇주. 검은 조엔 안 헨, 흐린조 흐린 좁쌀 햇주.

107006 @ 흐린 좁쌀. 흐린 좁쌀.

107007 @ 팔밥, 팔밥은 잔치밥이엔 해서예?

107007 ## 예, 잔치 밥에 흘 떼 풋밥 햇주. 집에서 가정에서 먹을때 풋밥 행 먹는다가 벨로 엇일거우다.

107007 @ 영장밧디 밥도 팔밥 해신가마씨?

107007 ## 예, 영장밥도 풋밥.

107007 @ 영장밥예.

107007 ## 잔치밥 풋밥 해실거고.

107007 @ 잔치밥이나 풋밥. 또 생각나는 거 팔밥은.

107007 ## 원, 풋밥 흥는거 그거 벳긴 허고게. 영장나민 풋죽 쑤는거 벳긴. 무신 그거 풋밥 풋으로 흥는거. 거 벳기 더 이수과?

107008 @ 피밥?

107008 ## 게난 궂사게. 피 좁쌀이엔 흥거 피밥게.

107008 @ 예, 피좁쌀예. 아, 피좁쌀이엔 했구나예?

107008 ## 예, 피좁쌀.

107008 @ 피좁쌀 피밥예? 피밥은 허젠 허민 어떻 험니까?

107008 ## 아, 피밥도 허젠 허민 그자 저 조팍 허듯이 싯어그넵에 허민 밥 맛 좋읍네다. 거 피밥.

107008 @ 조팍 곤추록예?

107008 ## 예. 피밥 막 맛 좋읍네다.

107008 @ 색깔은 불그릉험니까?

107008 ## 아니 흰거.

107008 # 헤영 허주.

107008 @ 아 회영 헤여마씨?

107008 ## 응, 거어 석상비 쏘이엔 흥것도 이제. 그자 곤쌀 닳아도 밥 허민 무시거 행 떡곡.

107008 @ 예.

107009 @ 감저밥, 감저밥은 아까 섞어그네 허면은 감저밥 되고예?

107009 ## 예.

107009 @ 감저, 감저 는쟁이, 감저밥, 좁쌀 감저, 보리 감저, 곤쌀 메밥, 곤쌀 감저밥.

107010 @ 무밥이엔 흥거 잇수과? 무수.

107010 ## 우리 산 떼, 우리 헤 먹을 떼 무밥이엔 흥건 안 헤 먹어봐신디. 요센 무밥이영 무시거엔 헤도.

107010 @ 요세만예?
 107010 ## 예. 요세만 허주. 우리 흘 때는 안 헤 봐수다.
 107010 # 흘 줄 몰란 안 헛주.
 107010 ## 혈중 몰란 안 헤신디사. 아니 이딴 사람이 헤 먹질 안허난 못 헤 먹
 었주.
 107010 @ 예.
 107011 @ 툇밥 툇밥은 아까.
 107011 ## 응, 툇밥은 행 먹엇주.
 107011 @ 툇밥은.
 107011 # 줍쓸에 낱.
 107011 @ 줍쓸 낱예.
 107011 # 툇밥은 맛 좋아. 빠덕빠덕 현게.
 107011 @ 줍쓸 놔그네.
 107011 @@ 툇밥은 예.
 107011 @ 툇은 얼마나 놓고 줍쓸은 얼마나 놓을 건고예?
 107011 ## 아, 줍쓸은 그자 이녀 떼먹을 만큼 놓고 저 툇은 혼 주먹 낱주게.
 107011 @ 아, 떼만큼 흐고?
 107011 ## 예, 흐끔은 낱.
 107011 @ 툇은 이제 혼 줍예?
 107011 ## 응, 혼 주먹 낱 허민. 밥이게. 예. 툇도 물썰기 솜양 헤사. 밥이 흐랑
 흐게 좋주. 경 아니민 부뜨지 아니허어.
 107011 @ 예.
 107012 @ 패밥이엔 현거 이수과?
 107012 ## 패밥이엔 현건 엇어. 패는 못에 솜양 헤낱주 패.
 107012 @ 패? 무세?
 107012 ## 그저 무무 응,
 107012 # 바다에 잇는 패.
 107012 @ 너패를 말허는 거?
 107012 ## 너패 말앙. 그디 너패 닳은거 잇주. 굿디 부명. 그 너패영 ㄴ찌 부튼
 거. 경 행 그거 메여다근이 빨아튀 못.
 107012 @ 못?
 107012 ## 낱디 이. 못 주워단. 그것에 구원 먹어낱주.
 107012 @ 아 못?
 107012 ## 응. 패밥이엔 현건 엇어. 그거 패 메당 못 굴떼 행 먹어낱주.
 107012 @ 못 굴때? 그 패밥은 엇고? 밥인엔 현건 엇고.
 107012 ## 응 패밥은 엇엇주.
 107013 @ 국, 국종류에 대해서 곱아줍서.

107013 ## 국 종류 무시거 똥장국벧기 무시거게.

107013 @ 똥장국. 똥장 풀어 낡 똥장국.

107013 ## 똥장국, 물장국.

107013 @ 응, 물장국예, 물장은 여름에 물에 타그네예?

107013 ## 아니, 저 똥장을 여름에 저 물에 타그네 행 먹주. 물장은 케깃국 끝
일 때나 경 흘 때나 또 물장 행 국을 행 먹는 어른덜 잇일테주게, 우린 똥장으로만
여름 나민 국을 행 먹는다이. 물장을 좋아하는 어른들은 물장 낡 국 행 먹는 어른
덜도 잇주만은 헤도. 우리는 대부분 저 여름 나민 똥장 해그넵에 녹물 솥양 낡 허
국. 톨도 해그넵에 똥장 낡 무청 행 먹고.

107013 # 헤이고 이거 저녁시간도 넘어불고, 할망.

107013 ## 경 햄주게.

107013 @ 예, 여름에 톨국예?

107013 ## 예, 톨 냉국 행.

107013 @ 톨냉국예예?

107013 ## 응, 톨냉국 헤민 톨냉국 행 먹국.

107013 @ 케기 아, 물장국이 물, 이 우리가 얘기하는 간장을 물장이엔 헛구나
예?

107013 ## 응, 근장이 물장이주게.

107013 @ 간장이 물장, 케깃국. 이건 싹게 때, 큰일 때.

107013 ## 싹게 떼고 그냥 집이서 행 먹을 떼고 케깃국 끓일 땐 근장을 놔서.

107013 @ 케깃국 끓일 땐 간장을 낡예? 예. 또 저기 국으로 헐 수 있는거는 녹
물국 녹물 똥장국예?

107013 ## 어, 녹물 똥장국 헛고 우린 저 근장 낡 국은 녹물 낡 안 끌영 먹어봐
서.

107013 @ 아 예. 똥장으로만 해그넵예?

107013 ## 응, 똥장으로만.

107013 @ 무수국?

107013 ## 무숫국도 끌영 먹고게. 무숫국은 우린 똥장 낡 끌영 먹는다 판디들은
근장 낡사 끌영 먹었신디. 어떻사 햄신디 우린 그자 똥장국만 먹어나난에 똥장국
경 행.

107013 @ 똥장국예. 또 저기 국 허게 되면은 케기국은 소고기국도 잇일거고.

107013 ## 소고기국 끓일 때도 근장 놔지고 바닷고기 국 끓일 때도 근장 놔지
고 경 헤여.

107013 @ 예, 경 허국. 돼지고기로는 국, 무수 낡 안 끓입니까? 도세기 고기.

107013 ## 돛, 돼지고기 낡도 무수 놓고. 그루 낡 끌영 먹어도 집, 먹음도 허주.

107013 @ 도세기국예, 그거는 무슨 그냥 도세기 국물?

107013 ## 예, 도세기 케기 싸라 놓고, 무수 싸라 놓고 근장 놔그넵에 저 메밀

ㄴ루 ㅎ쌀 ㄴ그네 끌령.

107013 @ 예. 메밀 ㄴ루예? 경 ㅎ곡 또 저기 콩, 콩 ㄴ루 ㄴ그네.

107013 ## 예, 콩 ㄴ루 ㄴ그네 무슨국도 끌리고.

107013 @ 그거는 무슨 국이렌 험니까?

107013 ## 콩국. 그건 끌릴 때 소곰 ㄴㅇ 끌영. 저 거시기 콩 ㄴ루 ㄴㅇ 끌리고.

107013 @ 소곰 ㄴㅇ ㅎ고, 또 감저로도 된장 ㄴ그네 그 무슨 국? 그거는.

107013 ## 감저로는 ㄹ장국 그런거, 저 거시기 지슬 감전 저, ㄹ장 ㄴ그네 찌게 ㅎㅇ 먹고.

107013 @ 지슬 감저예?

107013 ## 응, 그자 감저 고구마가 아니고 감저.

107013 @ 예, 고구마가 아니고 지슬감저. ㅁ국도 잇지 아니우파 국은?

107013 ## ㅁ국도 이십주게.

107013 # 건 도야지 고기에.

107013 ## ㄹ지궁물에예, ㄹ지궁물에 ㅁ국 끌여그넵에.

107013 @ ㄹ지고기 ㄹ지예예.

107013 ## 예, 것도 거 소곰 ㄴ그넵에 끌영 먹어.

107013 @ 국이 상당히 할 것 같은디 미역국, ㅁ국.

107013 ## 아니 ㅁ국, 무웃국, 베춧국, 저 거시기 메역국.

107013 @ 예, 메역국 ㅎ고 또 토란국도 ㅎ나지 안 ㅎ수과?

107013 ## 예, 토란국도 ㅎ낫주. 토란국도 ㅎ나고.

107013 @ 토란국도 예, 토란도 우넵에 잇이난 다 심어낭예?

107013 ## 옛날엔 저 장갑 ㅎ인 ㄹ엔, 그거 ㅎ나면 손 근지러왕 ㅁ ㅎ신디 요즘은 장갑잇국 무시거 ㅎ난 안 근지러왕 ㅎ넵 험디다마는.

107013 @ 맞수다. 예 예, 토란국. 무시거 국이 하싣건디.

107013 @@ 성갯국 같은 것도 잇엇고게.

107013 @ 바당에 맞수다게. 보말허민 보말국도 잇국.

107013 # 천지주. 뭐 세상에 다.

107013 @@ 건 우리가 아는거. 가시리국도 잇엇국. 저 가시리.

107013 ## 가시리국 그거 국 ㅎ젠 ㅎ민 다 그런거 가시릿국 보말국. 저 거시기 또 무시거니?

107013 @@ 옥돔국.

107013 # 성게국.

107013 @@ 뭐, 갈치국 호박국.

107013 ## 아니, 국 거 수정 ㅎ젠 ㅎ민 다 그거 갈칫국도 끌여야지. 성갯국도 끌여야지.

107013 @ 예, 갈칫국예.

107013 ## 응, 성갯국.

107013 @@ 건 지금이나 거이 비슷한 거로 봐야 돼. 지금이나 옛날이나.
 107013 @ 소라 잡아나민 그것도 헤그네 썰어 놔그네.
 107013 ## 예, 소라국도 끌영.
 107013 @@ 소라 물회게.
 107013 # 하여튼 아무거나.
 107013 @ 소라 물회도 해납디가?
 107013 ## 응, 물회도 험네다.
 107013 @ 물회도.
 107013 ## 물회도 해나고 소라 물회도 맛 좋고 성게 물회도 맛 좋고 저 메역에
 성게 물회 험 먹어.
 107013 @ 예, 경 허곡 또 해삼으로도 저기.
 107013 ## 해삼?
 107013 @ 해삼도 해지민 것도 물회 해나수과?
 107013 ## 아이 그건 물회 아녕. 그자 무쳐먹어 메역에 무청.
 107013 @ 메역에 무청? 또 경 허곡 오징어 허민 오징어 물회, 자리 물회.
 107013 ## 자리물회도 허곡. 오징어 물회도 허곡.
 107013 @ 오징어 물회도 허고예. 바당에 어랭이 잡으민 어랭이.
 107013 ## 어랭이 물회도 해 먹곡.
 107013 @ 예, 어랭이 물회도 허고 물회는.
 107013 # 바닷고긴 물회 못 먹는게. 흐나도 엇어. 다 먹어.
 107013 @ 예, 다 바닷고기에, 바닷고기로.
 107014 @ 낙물국, 나물국 낙물국에 대해서 곶아줍서. 낙물국. 낙물국은 배추국
 아까예.
 107014 ## 예, 배춧국 낙물국.
 107014 @ 또 무슨국. 무슨국이엔 헛지예?
 107014 ## 응, 무수국.
 107014 @ 또 무수낙물도 허지 안헤수과? 배추낙물, 애기낙물?
 107014 ## 아니 배추도 퍼렁흔 이파리 낭 국 끌리고 무수도 이파리 헤그네 씹
 앓당. 솥앗다그네 웬장국 헤그네 먹어도 돼고.
 107014 @ 예예, 무수이파리예?
 107014 ## 무수 이파리. 그것어.
 107014 # 시레기 국이주 그거.
 107014 @ 예예, 무수 이파리 놔그네예?
 107014 ## 응.
 107014 @ 우리가 나물이엔 허민. 풀 잇인걸 나물이엔 허지 안음니까? 우에 배
 추 ㄱ추룩예? 풀이 어랑어랑 허게 나온거예?
 107014 # 그게 낙물이 주게.

107014 @ 예 그게 녹물 예?

107015 @ 콩나물도 녹물 아니우파예?

107015 ## 아, 콩나물도 놔그네 국 끌영 먹지마는 우리 원, 콩나물국은 안 끌영 안 먹으난에 하르방 안 먹으난에.

107015 # 난 군대에서 콩노물 두부 이제 뭐이냐?

107015 ## 동태.

107015 # 동태 이거 네이연 원 지금 깎지도 먹질 못 해여.

107015 ## 군대 간 네이연 오난 원 지금 깎지도 안 먹어.

107015 @@ 아, 깎과?

107015 ## 경 흥난 집이 동태허고 두부를 암만 먹고정 흥여도 잇당 아이들이나 사오긴 흥여도 역부로나 사오진 안해여.

107015 @ 아 두부도?

107015 # 워낙 군대에서 잘 먹어노니까. 그 그 소위 행정 참모부가, 거기 우리 참모부 G1, G2, G3, G4해서 해당 참모부가 주위에 잇는디 그 군수처에서, 그 부식 싹거오민 우리 강 흥 상자씩 무조건 내려부는 거라 처음에.

107015 @ 거 잘 먹은 거주마씨. 그 당시에.

107015 # 게난 너미 먹어부니까. 웨여 가지고 당취 이거원.

107015 @ 영양 좋은거, 두부 그쁜거, 동태 같은거 또 얼마나 그거.

107015 ## 게메게, 게난 그런 걸로만 먹어 웨여노난 집이선 흥 번 못 해 먹어 받. 요번에 우리 저, 거시기 뜰 와네 동태 사단에 헛 관데. 아, 어떤난 동태사단에 헤시니? 흥난 동태 사단 흥 번 찌게 헤보젠 헤수다. 흥명 흥난 느네 아바진 안 먹 을건다이 허명.

107015 @ 경 헛구나예.

107015 ## 경 헛 흥번 먹어봔주 원. 동태엔 흥건 흥 번 사 보질 안 현.

107015 @@ 맛수다.

107016 @ 무수국은 그냥 저기 허젠 허민 그냥 썰어그네.

107016 ## 응, 무수 채로 싸랑.

107016 @ 채로 썰어그네예?

107016 ## 예, 국 끌영.

107016 @ 국 끌영예. 이것도 된장 풀어 놓을거 아니우파예?

107016 ## 된장도 풀어 놓는 사람 잇곡. 곤장도 노는 사람 잇곡. 곤장도 놓는 사람.

107016 @ 간장도 놓고예?

107016 ## 응,

107016 @ 무수국에는 또 으라 가지 고기도 놓을 수도 바닷고기도예?

107016 ## 응, 무수국에는게. 아무거라도 놓주. 돼지고기 노왕 썰영 국 끌려도 돼고 소고기 낱 해도 돼고.

107016 @ 바다 생선.
 107016 ## 바닷고기 낡 해도 돼고.
 107016 # 겐디, 무수 논게 시원헤여. 무숫국이.
 107016 @ 예예, 무숫국이에. 거고 무수도 이파리도 우에 놓고, 이파리도 ㄱ찌 낡.
 107016 ## 어, 이파리도 ㄱ찌 놔도 좋아.
 107016 @ 예. 이파리도 놓고예. 이거는 뭐 전부 할 수 잇는 거니까.
 107017 @ 콩국 곶아줍서.
 107017 ## 콩국도게 무수 낡 끌리주게.
 107017 @ 무수 놔그네예.
 107017 ## 메역에도 낡 끌려. 메역에 놔도 끌린다 하, 대부분 무수에 놔그네.
 107017 @ 무수 놔그네 끌리다그네 콩국 끌리기가 제일 어렵지 안음니까예?
 107017 ## 응, 게난.
 107017 # 부꺼 불카부덴.
 107017 ## 무수 노코 콩ㄱ루 노코 헤영 끌려. 경 헤그넵에 부꺼 가 가민 소곰 혼 방울 드리치민 잔지랏당 또 부꺼 가가민 소곰 혼 방울 드리치고 경 허메.
 107017 @ 아, 소곰 혼 방울씩.
 107017 # 경 아니 헉민 막 부꺼부러어.
 107017 @ 소곰은 으라차레 나뉘 낫구나예?
 107017 ## 게난 혼 꺼번에 간을 돼게 말앙. 그자 무수 싸라 낡. 콩ㄱ루 웃터레 낡헤민 헉곰 이시민 퀘어 갈꺼 아니라게. 퀘 가민 부꺼 불민 맛이 엇어 콩국,
 107017 @ 예예.
 107017 ## 경 헉난 부끄지 아니형. 부그락 헉게 퀘어 와가민 소곰 서너 방울 확 들이치민. 헉쫄 잔질왕 헛다그넵이 또 숨아 가 가민. 또 퀘어 가민. 소곰 서너 방울 또 들이치곡 행. 으라차레에 소곰 헉곰씩 헉멍 끌여그네. 경 헤 간봐 다 끌여지민 간 뵙 싱겨우민. 소곰 더 노코 경 아니헉민 말고 경 헉영.
 107017 @ 예예 경 헤그네에 콩국은 제라허게 겨울에 많이 먹지예?
 107017 ## 소고기?
 107017 @ 콩국.
 107017 # 겨울에 먹는 거주게.
 107017 @ 제라허게 겨울에예?
 107017 ## 응 응.
 107018 @ 호박잎국 곶아줍서.
 107018 ## 호박잎은게 여름 나사게 호박잎 토다다 노코 ㄱ루 노코 행 국끌영.
 107018 @ ㄱ루는 무슨 ㄱ루 메밀ㄱ루?
 107018 ## 모를 ㄱ루도 노코 밀ㄱ루도 노코게. 경 헤그네 낡 끌영 먹주.
 107018 # 밀ㄱ루도 좋아.

107018 @ 이거는.
 107018 ## 찌영도 먹고.
 107018 @ 정도 먹고 맛이 워낙 좋으난예. 경 혈 때는 조베기도 쪼끔.
 107018 ## 예, 저 그 국 끓일 때 즈베기도 흥나씩 해노민 좋주. 몸 저 밀ㄱ루
 해그네.
 107018 @ 밀ㄱ루 해기네예.
 107019 @ 이 모자반이 몸 아니웃과예?
 107019 ## 응, 모자반이 몸이주.
 107019 @ 예, 몸 몸국 곱아줍서.
 107019 ## 몸국은 저 팡 딸려그네 몸 끌려도 돼고.
 107019 @ 팡.
 107019 ## 꿩기 넣 끌여도 조코.
 107019 @ 꿩기는 그냥 소고기.
 107019 # 돼지고기.
 107019 @ 돼지고기?
 107019 ## 예, 소고기 보단 돼지고기 넣 끌여사. 몸엔 테와.
 107019 @ 테왕예.
 107019 ## 경 흥난 끌리고.
 107019 @ 끌리는디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107019 ## 들어 가는건게. 고기종류 노민 팡 딸린거로 흥고 고기종류 노코 경
 허민 몸국은 맛있주.
 107019 @ 녹물 ㄱ뜬거 파 ㄱ뜬거?
 107019 ## 녹물도 노콕. 파도 노콕. 이제 잘 행 먹젠 허민 썩갓도 노콕.
 107019 @ 아 썩갓? 예예.
 107019 ## 예, 다 그런거 양념은 다 들어간덴 흥건 다 들어 놔사.
 107019 @ 파 허고.
 107019 ## 썩갓도 노콕. 또시로 그 저 무시거니?
 107019 @ 그 콤데사니?
 107019 ## 콤데사니 뺏은 것도 노콕.
 107019 @ 콤데사니 뺏은 것도 놓고, 콤데사니 파?
 107019 ## 그거 말양도 쪽파도 놔도 돼고게.
 107019 @ 예, 쪽파도 놔도 돼고예.
 107019 ## 그냥 데파도 놔도 돼고게. 데사니 뺏은 것도 노코.
 107019 @ 아, 데사니 데사니, 아 데사니 뺏은거예. 데사니 그 앞도 잇지 안우파
 예?
 107019 ## 응, 입도 잇주.
 107019 @ 파랑헌거예.

107019 ## 예.

107019 @ 파랑헌거 데산이 얹은 뭐엔 곱음니까.

107019 ## 그거 파랑헌거.

107019 @ 페마농 말고.

107019 ## 그거 콤포데산이 건디.

107019 @ 예.

107019 ## 그 저 거시기 파 ㄴ찌 맛 잇진 아니허여 그 싸라 봐도.

107019 @ 아, 그냥.

107019 ## 그 저 그 무시거 양념에 봐도. 파 ㄴ찌 맛 잇질 아녀.

107019 @ 예.

107019 ## 경 흥난 그 저 콤포데산인 지 담을 때도 그 이파린 헛 뜨다 똥 헤여.
경 헤여 뜨다 똥 남덩이만 흥는거. 이파린 맛이 벨로 엇어.

107019 @ 아, 맛이 벨로 엇엉예.

107019 ## 응,

107019 @ 저 콤포데산이 뽕아그네 봐그네예.

107019 ## 응, 뽕산 노퍽.

107020 @ 생선국 종류 곱아줍서. 생선국.

107020 ## 생선국은게 솔레기.

107020 # 생선 난건 다 먹주. 국 끌영 먹주.

107020 ## 솔레기국도 잇고게. 조깃국도 잇곡.

107020 @ 솔, 솔레기국.

107020 ## 응, 조깃국.

107020 @ 조기국.

107020 ## 또 무시거라. 꿔기 일름을 다 알아지크라.

107020 @ 솔레기 솔레깃국이엔 허는 구나예.

107020 ## 응, 이딘 옥돔곶아 솔레기이.

107020 # 옥돔.

107020 ## 응, 또 조깃국도 잇곡게.

107020 # 돔덜.

107020 ## 돔도 잇고게. 다 그 바당에 나는 거 그런거.

107020 # 건 다 끌여도 다 먹어지여.

107020 ## 다 끌러그넹에.

107020 @ 옛날에도 돔이엔 헤나신가마씨?

107020 ## 옛날에도 돔이엔 헛주게. 돔 그거 게. 검은 돔게. 그거 흥고.

107020 # 불근돔.

107020 ## 또 불근돔 황돔 흥곡게. 기추룩 허영 허곡. 또시로 저 무시거니? 그
늘레네 나는 것 곱아 무시거엔 흥다마는 저 검은거.

107020 @ 벤자리?
 107020 # 아 그 구릿?
 107020 ## 응, 구릿도 끌영도 먹고게. 뭐 닻지도 옛날에 하영나 나난 닻찌도 끌영먹고.
 107020 @@ 아 닻지도.
 107020 ## 뭐 못 끌영 먹는게 있어? 어랭이도 끌영먹고.
 107020 @ 애기 나난 다음에.
 107020 ## 응, 아기 나난 다음에 솔레기 낵 끌영 메역 행 노코 행 끌영.
 107020 @ 메역놓고 또 저기 젓 잘 안나오면 또 허는.
 107020 ## 젓 잘 안나 왕 허민 도세기 아강발 헤다그네 딸영 딸려그넵에 맥여. 예기어멍.
 107020 @ 예기 어멍은예, 그렇구나예.
 107021 @ 미역국에 대해서.
 107021 ## 메역국. 애기 나 나문 메역국 주로 먹주게.
 107021 @ 애기 나 나면은예.
 107021 ## 솔레기 노명 끌여그넵이 주로 먹주.
 107021 @ 솔레기는 매번 주지 못 허지 안읍니까게.
 107021 ## 아이고, 경 헤도. 예기 낭 사흘깁지는 솔레기국 맥여.
 107021 @ 아, 사흘깁지예. 사흘깁지 헤기네 허고 아까 아강발이엔 헛 거는.
 107021 ## 젓 안 나와 가민. 이제 그거 딸령 맥이는거.
 107021 @ 맥이는 거예. 미역은 애기 나낭 솔레기국 이거허고 싹게 헛 때.
 107021 ## 싹게 헛 때도 그 메역 노코 솔레기 노코 헤영.
 107021 @ 메역 놓고 솔레기 허영예. 싹게, 쟁예?
 107021 ## 응, 멍질 헛 때도 그 솔레기 노코허영.
 107021 # 쟁국 헛 때는 마늘 ㄱ뜬거 안 놓으메이.
 107021 @ 예 예, 쟁국 헛 때 마늘 ㄱ뜬거 일체 안 놓고.
 107021 ## 응.
 107021 @ 물장 놔그네, 물장 또는 장물이엔 헛니까 물장이엔 헛니까?
 107021 ## 장물.
 107021 @ 장물 예. 아, 장물 놔그네.
 107022 @ 냉국.
 107022 ## 응, 냉국.
 107022 @ 예, 냉국, 냉국은 뭐 으라가지.
 107022 ## 아, 냉국은 으라가지주게. 저 웨냉국도 잇곡게. 느물냉국도 잇고게.
 107022 @ 아, 느물 예, 느물 냉국. 여름에는 외냉국이 하예?
 107022 ## 웨냉국이 하주게.
 107022 @ 예 물외.

107022 ## 물웨 놔그넵에 싸라 낱. 냉국 행.
 107022 # 게민 그거 향기가 잇으니까.
 107022 @ 예.
 107022 ## 저 웬장 풀어 노코.
 107022 @ 된장 풀어 노코예.
 107022 ## 응, 경 행 끌영 저 냉국해영.
 107022 @ 여기도 냉국도 미역 냉국도 이실거고 아까.
 107022 ## 아니 메역냉국도 잇곡. 또시로게 무시거니게 바당에 나는 거 조우럭도 해도, 해도 먹고게.
 107022 @ 아, 조우럭예.
 107022 ## 이제 어랭이도 냉국 해 먹곡.
 107022 @ 어랭이 예.
 107022 ## 뭐 웬냉국 해 먹는 거 죽아. 아. 오징어 ㄴ쁜것도 행 먹곡게. 소라 ㄴ쁜것도 행 먹곡 뭐.
 107022 @ 옛날에 거 냉국 잘 먹어신게마씨?
 107022 # 아이고 요즘엔게 시원헝게.
 107022 ## 시원헝 맛으로 그거 헐 먹엇주. 일 헝다그네 딱 지천게 들어오민 헝고 밧디 갈 쥔. 웬장 헝나 앓영 가곡. 밧 음이 조 불릴 때 밧 엠더레 무수씨 헝나씩 땃경 네 불민 그 무수가 낱. 검질 메여그넵이 헝 때 속아그넵 그 ㄴ물 행 왕 데우 청 숭양 냉국행 먹곡. 또 그 조 빌 쥔 그 무수 메영 호미로 착착 ㄸ차기네. 웬장 찍으멍 밥 먹영 그 조 비고 경 헝주. 어디 반찬이엔 헝거 무시거 이서게. 저 요세 ㄴ찌 베추라도 저 ㄸ 앓으게 해 저서. 무신 걸음이 잇어사. ㄸ 앓으게 해지주게. 요센 비료가 처 잇으난 ㄸ을 앓암주만은 그 쥔 멘 땅에 그거 행 허민. 제우 오줌이나 쌍모두아 낱당거 그거나 헝쫂 주민 퍼데기 탁탁 퍼진거 허영. 호미로 케영 소곰물에 바당이 간 쫂어단. 소곰에 등갓당. 이제 고칫ㄴ룬 어디 ㄴ는디가 잇엇어게. 게난 밧음에 싱갓당 그거 땃젓에 ㄴ찌 낱 딸령. 딸려그넵이 그거 ㄴ치 건정 박박헝게 시리 밧민 거 붉은 물 나민 이제 그거 행으넵에 저 땃 젓은 건더기영 땃겨벼땡. 그 국물에 저 거시기 김치 절인거 팍팍 헝게시리 등갓다그넵이 저 마농 노코 행 등갓당. 시그룽헝게 헝민 그것이 반찬이곡. 땃젓헝민 그거 자리젓도 메 집이 자리젓 헤져. 자리젓 헤여그넵에 그거 헝쫂 앓영 가그네 헝곡. 경 헝민 반찬이 엇이난 그게 웬장만 헝나 앓영가민 그거 무수 헤여그넵에 착착 호미로 비당 그차 낱 웬장 찍으멍 먹곡. 경 헝주.
 107022 @ 예.
 107022 ## 게 밧 ㄸ그디. 바당 ㄸ꺃디 간 사람덜은 저 웬장 앓앙가민 그 아래 물 싸민 ㄴ려장 갱이 잡아다그네 찍영 먹엇젠도 다 허여.
 107022 @ 맞수다.
 107022 ## 반찬이 엇이난.

107022 @ 반찬이 잊어난. 반찬은 하신디. 먹을건 하신디. 조리 행 먹진 안 헛주.

107022 ## 돈 해영 사먹을 게 잊어사 사 먹주게. 또 바다이 간 퀘기 잡아 온 것도 돈이 잊어사 사당. 끌영 먹고 반찬 행 먹주. 어디 돈이 나서. 늑이 일 허레 강 죽도록 살도록 다섯 시 전이 헤어도 좁쌀이민 두 돼. 존 혼 말. 경 혼 걸로 헤다그넵이 먹곡. 그거 폴아그넵에 어디 퀘기 사먹을 돈이 어디 잊어어. 경 하니 이제 춤장은 콩 갈앗당 이넉 장 헤그넵이 그건 잊지 안 해영 그자 앓앙 땡기멍. 땡물에도 웅장 헤그넵이 국 헤그네 밥 줌앙 먹곡.

107022 @ 예, 밥 줌앙 먹곡예.

107022 ## 경 행. 춤 낫사.

107022 # 여름엔 땡물에 장 웅장 탁 풀어놔. 밥 줌앙 먹는 게 췌고.

107022 @ 예, 최고우다. 밥도 잘 들어가곡.

107022 ## 경 헉곡. 요젠 곤쌀이난 허주. 옛날에 보리쌀에 그 웅장 풀어 놔 밥 즈무민 더 맛좋아서. 요세 곤쌀 놔 밥 허영 줌은 건 맛이 잊어도. 옛날에 보리쌀 놔 밥 헤영그넵에 웅장 싹싹 풀어 놔. 확 헉게 시리 그레 줌아그넵이 먹으민 얼마나 맛이 잊엇서게.

107022 @ 예 맛이 잊어. 고소허고 예.

107022 ## 경 현디. 요즘은 곤쌀밥이 난 경 맛이엇어.

107022 @ 예예 맞수다.

107022 ## 하간거 논 노렌 허멍. 콩도 무신 텃 가지여 땡 가지엔 헤도 그 때만이 맛이 잊어.

107023 @ 계난 성계국도 해가지고 성계국도 또 저기 해지면은 늑물 놔그네 끌여그네 팔팔.

107023 ## 아니 늑물 놔. 그거 성계는 늑물 아니 놔 메역.

107023 @ 메역 낱예.

107023 ## 메역 놔 끌리곡 또 녑국도 메역에 녑국 그 슝 놔 녑국.

107023 @ 아, 메역 예.

107023 ## 경 허주. 저 늑물은 아니. 그 슝엔 메역.

107023 @ 메역예.

107023 # 그 테우는 게 잊어난.

107023 @ 보말은? 또 메역을 놔신게예?

107023 ## 메역 놔그네 ㄱ루 노코 행 끌리곡.

107023 @ 예, ㄱ루 놓고예?

107023 ## 응, 경 행 끌리곡. ㄱ루 노왕 복깁.

107023 @ 아 복아그네예.

107023 ## 복까그넵에도 먹곡. 그냥도 장물에 복까그네 먹곡.

107023 @ 예, 늑패국은?

107023 ## 넙패국은 숯아그녕이 그 ㄱ루 낱 끌영.
 107023 @ 숯아서예.
 107023 ## 응, 숯앙 ㄱ루 낱 .
 107023 # 숯앙 ㅈ뫼당. 차반지에 평 ㅈ뫼당 ㅎ쫌씩 노명.
 107023 @ 거문 넙패국에는 간장 물장 ㅈ그네예?
 107023 ## 응, 물장. 아, 물장 ㅎ쫌ㅎ민 ㄹ예. 그건 ㅈㅈ지랑 ㅎ영 바당이서 막 밀
 영왕 그디서 ㅈㅈ청 와그네. 그자 ㅈㅈ디 왕 ㅎ으주게. ㅎ으민 ㅈㅈ지그랑허여 ㅈㅈ지그랑
 ㅎ민 그거 낱 풀어 그네 ㅎ쫌 싱거우민 ㄱ장 ㅎ끔 노라. ㄹ장 ㅎ끔 노라. 이녀 쟁메
 에 맞게 끌영 먹는 거난.
 107023 @ 가시리국은?
 107023 ## 가시릿국은 ㄹ장에 ㄴ물 낱 끌영.
 107023 @ ㄹ장에 ㄴ물 낱예.
 107023 ## ㄱ ㅎ민 막 맛 좋아.
 107023 @ 예 여기는 ㄹ ㄱ루 ㅎ을 ㅈ요가 ㅈ인거 아니우파예?
 107023 ## 응, ㄱ루 안 ㅈ도 문작ㅎ게. 막 맛 좋아.
 107023 @ 파래국?
 107023 ## 파랫국도 그자 ㄹ장에 그자 낱 끌여.
 107023 @ 아, ㄹ장에
 107023 # ㄱ디, 이 동네 파래는 ㅈ글락 ㅈ글락 ㅎ영. ㅎ엇이 벨로 좋질 아녀.
 107023 ## ㅈ레가 많아.
 107023 # 어, 이저 으 ㄱ파래라야지 육지에서 나는 이디 파래는.
 107023 @ 아까 ㅈ회는, 저 ㅈ회는 ㄱ아 주난예예.

죽류

107024 @ 죽 삼춘예, 죽 예?
 107024 ## 죽? ㅈ는거.
 107024 @ 예, 죽 종류. 저 재료 벨로 ㅈ으로 해서.
 107024 ## ㅈ죽, ㄱ죽.
 107024 @ ㄱ죽, ㄱ ㅎ고예.
 107024 ## 응, ㄱ죽. 저 녹디죽.
 107024 @ 녹디죽, 녹디 낱 허민예.
 107024 ## 응, 녹디 낱 죽 ㅈ는거.
 107024 @ 그 다음에는.
 107024 ## 그 ㅎ으게 무시거 ㅈ허고 ㄱ허고 녹디ㅎ고 ㅎ부난에 ㄱ은 돔비 낱.
 ㅈ은 돔비.
 107024 @ 돔비?
 107024 # 아, ㅈ죽 잇잖여게. ㅎ죽. ㅎ죽.

107024 ## 무시거어?

107024 # 흰죽.

107024 ## 흰죽 어, 쓸만 낱 흰죽.

107024 @ 흰죽.

107024 ## 모믈죽 으.

107024 @ 모믈죽. 또 저기 몸 아프거나 허게 되면은 허는 그 저. 그 모믈에 파
에.

107024 ## 저 거시기 모믈썰에 저 파 낱,

107024 @ 예. 모믈썰.

107024 ## 쪽파 쪽파 놔그네 응.

107024 @ 쪽파 놔그네예. 감기에.

107024 ## 응, 감기.

107024 @ 예, 경 허곡 저기 바닷고기 해 놔그네 거기 썰 놔그네 흰죽.

107024 ## 아이고 것도 이 아무거나 낱 썰도 좋주.

107024 @ 바닷고기 놔그네예?

107024 ## 응, 바닷고기 낱 썰 놔그네 죽 쭈는거.

107024 @ 예 바닷고기이.

107024 # 그 죽이 맛있어.

107024 @ 예, 어죽이엔 육지선 어죽이엔 해 가지고.

107024 ## 육지서 어죽 어죽 험게. 게난게. 거 무시거 바당에 나는 거 다 낱 죽
썰도 돼. 보말 낱 죽 썰도 돼고.

107024 @ 보말죽. 보말 농젠 허민 흰썰 아니짜?

107024 ## 응, 흰썰 낱 죽 쭈고. 따시로 쟁이도 흰썰 낱 죽 쭈고.

107024 @ 흰썰 놔그네 허고예. 찹쌀 안들어 가그네예?

107024 ## 아니 좁쌀 안 낱 그자.

107024 @ 아니 찹쌀 찹쌀, 아 찹쌀.

107024 ## 찹쌀, 아 찹쌀해도 좋을 테주.

107024 @ 아 쟁이죽. 보말죽, 쟁이죽.

107024 ## 저 쟁이죽. 저 바당고기.

107024 # 고기, 고기.

107024 ## 솔레기주게 게.

107024 @ 솔레기예?

107024 # 응.

107024 @ 솔레기예. 솔레기.

107024 # 고등어 낱 죽 썰도 맛있어.

107024 @ 고등어.

107024 @@ 아, 고등어도 죽 썰나수과?

107024 # 고등어 싱싱 헛거 놓면은 뭐.

107024 @ 예예, 고등어죽. 또 죽도 무시거.

107024 # 나도 고등어죽 썩 먹었주 뭐.

107024 ## 죽 쑺는 거게 바당고기로 죽 쑺는 거 그거 게.

107024 # 아무거라도 돼여.

107024 ## 아무거라도 돼는 거주.

107024 @ 저기 예, 묵국 그튼디예, 쫄 바그네 죽 같은 건 안 끝어나수과?

107024 ## 예예 묵은 낱 죽 쑺는 건 아니보고.

107024 # 묵은 거 도야지 궁물이라야 묵국.

107024 @ 묵국 허는디. 거기에 쫄 바 저기 죽은 안 해나고예?

107024 ## 응, 묵으로 죽은 안 해나고.

107024 @ 안 해 나고예.

107024 @@ 문어죽도 잇어나수과?

107024 ## 모믈쫄 죽은 헛주만은.

107024 @ 예, 문어죽.

107024 ## 문어? 문어죽 쑺네다.

107024 @ 문어죽, 또 이것도 흰쫄 바그네 허는 거 아니우파예?

107024 ## 응, 흰쫄 낱.

107024 @ 또 이것도 흰쫄 바그네 허는 거 아니우파예? 전복으로 죽 쑺고.

107024 ## 응, 전복으로도 쑺고, 저 고동으로도 쑺고.

107024 @ 고등 예? 소라예?

107024 ## 응, 소라.

107024 @ 아, 고등예? 고동, 소라 쟁이죽 허고 또 죽 쑺는 바닷거도 많고 감저, 감저죽은 엇지예?

107024 ## 아니 엇날에 쫄쫄 낱 감저죽도 쑺 나수다마는.

107024 @ 아 쫄쫄, 쫄쫄 헛고.

107024 ## 감저 낱에.

107024 @ 감저 놓고예.

107024 ## 감저 낱에 죽 쑺고, 춤 헛 번인 저이 그 윤정이 어멍 곱아. 그 말 곱 안 아이고 야야, 그 말 튼 낸다. 튼 낸다. 허멍 곱안게 마는, 그디 춤 연날에 장쫄 헤 나난예. 그디 소곰 사례 간 보난예. 웨쫄디로 죽을 그자 불탁불탁 헛 쫄을 속박 쥔. 곤쫄에 쫄쫄에 감저에 낱 죽을 쥔. 무슨 소곰? 어멍연 완? 소곰 사례 와수다 헛 난. 저 이리와 요레 와. 요기 돛은디 헛쫄 와. 헛쫄 와 잇어. 나 앓아 네져. 그 죽 먹영 가렌 허젠. 네가 앓아 네크메 요레 와 헛쫄 불 취. 불 취 아이고 이 브름에 눈 쫄레기 허는디. 이레 와 이레 와 헛연. 경 해연 이젠 가네 벳긋디 간. 어디 우쫄 우 영에 간. 헛쫄 영 텅기는 추룩 헛 와네. 아이고 죽 다 쑺 젓저. 느네 죽덜 헛 사발 먹영가라. 먹영가라 헛멍 헛 죽을 데접으로 헛나썩 거려주난. 바썩 열고 헛디 간디

감저 노코 흰쌀 노코, 좁쌀 노코 헨 죽을 쑤난. 혼 그릇씩을 주난 어떻사 맛이 준다. 경 헨 쑤언 먹언거. 얻어 먹어 완허난. 요번에 그 말 ㄱ르난. 아이고 야야 그말을 ㄱ자 튼넨 곱얌다. 허난 아니 그 때ㄱ찌 맛조은거 먹어 본딜 못 해수다. 허멍 곱안 웃어신디이.

107024 @ 아, 경 헛구나예?

107024 @@ 감젓죽.

107024 ## 옛날엔 경 행 먹어낫주.

107024 @ 피 놓고도 죽 썬.

107024 ## 피죽도 잇주게.

107024 @ 피죽예.

107024 ## 피죽도 쑤고.

107024 @ 피죽도 쑤고.

107024 ## 죽 안 쑤는거, 죽 못 쑤는 쫄사 어디서. 석상비 쫄도 낱 죽썬도 돼고.

107024 @ 예 석상피 쫄도예.

107024 # 맛이 틀리주.

107024 ## 맛이 틀림 뿐이주. 이제 죽 못 쑤는 쫄사 잇주게.

107024 @ 맞수다. 보리죽도 잇지 안우파?

107024 ## 게 보리죽도 썬주게. 보리죽도 쑤고게.

107024 @ 보리죽도예.

107024 ## 밀ㄱ루, 연날에 육지 어른들은 밀ㄱ루죽도 썬그네 먹으난 밀ㄱ루떡이엔 혼 건 일절 안 먹는 사름도 잇어 나수다. 우리 밋디 일흐레 빌언 흐난에 밀ㄱ루 말 ㄱ르난. 아이고 밀ㄱ루 말은 흐지 마세요. 네 밀ㄱ루 네여 가지고 허멍 징글머리가 나요. 야, 게난 무사 경 헨딘흐난 밀ㄱ루죽만 먹엇덴.

107024 @ 예예.

107024 ## 게난 무시거 쫄에 죽 못 쑤는건 어십주. 엇어. 고기도 죽 못 쑤는게 엇어. 돼지고기 낱도 죽 썬도 맛잇어렌 맛잇어.

107024 @ 아아.

107024 ## ㅇㅇ이 각신 돼지고기 사다 낱 게고저고 죽만 썬 먹넨 햄수게.

107025 @ 그 예 삼촌. 흰죽예, 아까 종류에 대해서 흰죽은?

107025 ## 게 곤쌀 죽허고.

107025 @ 곤쌀 예, 곤쌀이엔 흰거는 산디를 곤쌀이엔 흰거과?

107025 # 아니, 어어.

107025 ## 산디쫄이 곤쌀이 주게.

107025 @ 산디쫄예.

107025 # 맞아, 벼가 엇이난 이딘.

107025 ## 석상비쫄.

107025 @ 예, 흰죽예 석상비쌀.

107025 ## 피쌀.

107025 @ 피죽예, 피죽 피쌀 놔기네. 피죽하고 흰죽은 영예. 곤쌀.

107025 ## 곤쌀죽 찹쌀.

107025 @ 곤쌀죽, 그 다음 찹쌀죽예, 찹쌀죽.

107025 ## 응, 피죽 석상비 쌀죽.

107025 @ 석상비 쌀죽예. 흰죽은예. 또 모믈죽은 흰죽 흰거가 아니난예?

107025 ## 모믈쌀 죽은 몰라 흰죽으로 돼나. 아아, 따로 잇인게마씨.

107026 @ 삼춘 죽 종류예. 죽 종류에 좁쌀죽 잇지안우파?

107026 ## 좁쌀 죽도 잇주게.

107026 @ 좁쌀죽예?

107026 ## 좁쌀죽도 썩 먹으난 좁쌀죽도 잇주게.

107026 # 좁쌀죽도 맛있어.

107026 @ 예 좁쌀로 헤가지고 좁쌀로예.

107026 ## 좁쌀로 좁쌀 양. 거시기, 아파그네에 이 어른덜 아파그넹이 물 맥일 때도 좁쌀 놔그네 죽 끝영. 쪽 끝영 그 물을 들여사 좋아.

107026 @ 예 맞수다. 좁쌀이 몸에 좋덴예.

107026 ## 좁쌀이 몸에 경 좋텐.

107027 @ 팔죽은 풋 삶아기네 그.

107027 ## 풋 노코 쌀 노코헝 쭈는거.

107027 @ 예 풋 노코 쌀 노코 여기 동지에.

107027 ## 동지에도 쭈고게. 그냥도 썩 먹고.

107027 @ 그냥도 썩 먹고.

107027 ## 영장은 나민 허고.

107027 @ 영장칩이예?

107027 ## 예, 그디 강 썩 먹고.

107027 @ 영장칩이 허고 또 영장집이 말고는 또 풋죽 쭈는디가 또 잇인가 마 씨?

107027 ## 어서.

107027 @ 엇어그네.

107027 ## 그자 이녁 썩 먹고저 허민 썩 먹는거.

107027 @ 예예.

107028 @ 콩죽.

107028 ## 콩죽도게 이녁 썩 먹고정 허민 썩 먹고게 쌀 낱 콩죽 쭈엿게.

107028 @ 쌀 낱 콩죽예. 쌀 놔그네 쌀 놔그네예.

107028 ## 응.

107028 @ 쌀은 무슨 아무 쌀이나.

107028 ## 아니 곤썰 낱 썩사주.
 107028 @ 곤썰예.
 107028 ## 응.
 107029 @ 메밀죽 모믈죽.
 107029 ## 모믈썰 죽?
 107029 @ 예. 아까 저 감기 걸렸을 때 헨거히고 모믈 물 팔팔팔팔 켜아그네.
 107029 ## 게메, 모믈썰 놔그네 죽 쑤는거.
 107029 @ 저기 모믈썰 확 놔그네 후르륵 해 가지고 그거 죽 아니우파 예?
 107029 ## 응, 그게 죽.
 107029 @ 그거는 또 자꾸 먹어질거 님아예? 썰이 잇어서민예?
 107029 ## 죽 모믈죽은게 추울 때 죽 해그네 행 먹으민 뜻뜻하게시리 좋주게.
 107029 @ 예.
 107030 @ 녹두죽?
 107030 ## 녹디죽도게 경.
 107030 @ 녹디죽은 어느 제 많이 먹어저신고 여름예?
 107030 ## 녹디죽은 이 저 칠 팔 월에 팔 월달 돼민 잘 먹을거라.
 107030 @ 칠 팔 월달예?
 107030 # 영, 놔두민.
 107030 @ 흰썰
 107030 ## 흰썰 낱 죽 쑤주.
 107030 # 나가 그 서귀포 지역에 부지회장까지 말안 잇주.
 107030 @@ 아, 기파?
 107030 # 응.
 107030 @ 저기 닭 놔그네도.
 107030 ## 응. 득 놔 그넵에 녹디낱도 썰 먹곡.
 107030 @ 닭 놔그네도 예 닭죽 썰.
 107030 ## 응. 솥양.
 107030 @ 녹디만은 귀한거난 녹디만 허기는예. 그러잖아예.
 107030 ## 응.
 107031 @ 닭죽은 아까 이거, 닭죽. 닭죽은 그냥 흰썰.
 107031 ## 흰썰로 노코 녹디 노코 허고.
 107031 @ 녹디 놓고예.
 107031 ## 응.
 107031 @ 녹디 놓고 닭죽 경 호곡. 좀 해 가민 옛날은 인삼도 놔그네 닭죽도
 허고예?
 107031 ## 인삼 낱도 허주게.
 107031 @ 인삼 놔그네예. 그 옛날에 대추도 놔그네.

107031 ## 데추도 낡 허곡.
 107031 @ 인삼 대추 약으로예.
 107031 ## 응, 약으로.
 107031 @ 약으로 해 가지고.
 107032 @ 갱죽, 갱이죽예.
 107032 ## 예, 갱이죽도 약으로 먹어. 빼 아픈디 먹넌.
 107032 @ 기지예, 약으로 먹지예.
 107032 ## 응, 빼아픈디 먹은 덴.
 107032 # 칼슘이 워낙 조은, 한 거난예.
 107032 @ 계난 이거는 이 갱이는 아무 때나 나는 갱이가 아니렌 허멍예?
 107032 ## 갱이가 낫긴 나는다. 이 저 거시기에는 흐썰 줄어.
 107032 @ 아. 유 월에.
 107032 ## 줄영 맛이 없어. 경 흐난. 오 월 들로 부터 시작헿 유월 들까지 막
 슬청.
 107032 @ 아 슬청예.
 107032 ## 응, 경 흐난 백중 넘으민 갱이가 막 원 싹 쫓어부러. 다른 것도 백중
 넘으민 쫓덴 허주만은.
 107032 @ 아 쫓어예.
 107032 ## 갱이가 막 쫓어부러.
 107032 @ 아 계난 오 월 유월에 그 장마쫘에 해 가지고.
 107032 ## 계난 유 월까지가. 유 월까지가 제일.
 107032 @ 제일 헐기네예. 맞수다. 이것 그쫘룩 좋은거가 없주마씨게. 막 비싸,
 게에서예. 갱이에서 나오는 그 무슨 무슨 거엔 해 가지고 막 비싼거. 일본에 수출
 허는 거 잇덴 허긴 허는다 이제 깜박 잊어부러져. 건디 그것보다도 갱이죽이 최고
 주 뭐. 뽕아기네 그 국물 짹 놔기네 예. 이거는 최고 닻아. 이 이거 외에.
 107033 @ 아, 꿩죽하고.
 107033 ## 꿩죽도 잇주. 꿩도 낡 죽은 쭈주.
 107033 @ 꿩죽.
 107033 ## 아이들은 꿩죽이 채고엔 해주. 아이들은.
 107033 @ 아이들은 예.
 107033 # 어린아이들은 꿩. 병아리 헤여그네 걸 죽썰 맥이면은 막 줄이벵 흐는
 아이도.
 107033 @ 꿩죽은 어떻힙니까?
 107033 ## 아 꿩죽도 쫘로 놔그네 기자.
 107033 # 득죽 쭈듯이.
 107033 ## 득죽 쭈듯이.
 107033 @ 닭죽 쭈듯이 썰. 이거 허당보민 나중에 옻 되지안읍니까?

107033 ## 저기 엿도 허주게 엿.
 107033 @ 엿도 허긴 허주마는 엿이 되거나 허진 안 허고예?
 107033 ## 아니 엿 돼거나 허진 안허고 그자 득죽 쑤듯이 쑤면은 맛 좋아. 경
 현디 애기들 맥이는 거는 쩡 그 준준헌 빙아리.
 107033 @ 예예.
 107033 ## 빙아리 헤그넝이. 춤 지름에 볍앙 쏘 낱 죽썰. 경 안허민 죽 못 먹게
 돼. 아기는 이제 물, 딸렁 물 맥영 애기덜.
 107033 @ 아, 애기 막 물애기는 물로예. 끌여서 물로 맥영예. 물 쭉찌라그네예.

범벅과 수제비

107034 @ 그다음 계난 범벅허고예. 범벅.
 107034 ## 감저낱 범벅 허고.
 107034 @ 모를, 감저예.
 107034 ## ㄴ루 모를ㄴ루 행 감저 낱 범벅허고.
 107034 @ 예. 감저 범벅허고 또.
 107034 ## 범벅? 또시로게 감젓ㄴ루로 범벅도 허고.
 107034 @ 감저ㄴ루 예. 범벅 감저ㄴ루 이건 뻗데기행 ㄴ루 곶앙 헨거.
 107034 ## 응, ㄴ루 곶앙. 건 감저 뻗데기 행으네 떡도 행 먹곡게.
 107034 @ 뻗데기 떡예?
 107034 ## 응, ㄴ루 곶앙.
 107034 @ 예. ㄴ루 곶앙 허곡예. 그 모를 수제비 범벅은 이거고 감젓ㄴ루 범벅
 또.
 107035 ## 감젓ㄴ루로 저베기도 허주게.
 107035 @ 예 감젓ㄴ루 저베기에?
 107035 ## 응 저베기.
 107035 @ 감젓ㄴ루. 감저 저베기에?
 107035 ## 응, 감젓ㄴ루 저베기.
 107035 @ 저 즈베기에?
 107035 ## 응, 저베기.
 107035 @ 저베기, 감젓ㄴ루 제베기, 제베기는 감저가루로 허곡. 그냥 밀ㄴ루론.
 107035 ## 아, 밀ㄴ루도 허주만은 저베기엔 혼건 감젓ㄴ루 몰아그네예. 달좌그
 네 손으로 영영 줍앙 툃툃 들이친거 저베기.
 107035 @ 아, 저베기이.
 107035 ## 또 모를 ㄴ루나 저 밀ㄴ루나 혼건 숟가락으로 떠 논건 수제비.
 107035 @ 아, 수제비, 모를ㄴ루는예 수제비.
 107035 # 수제비, 밀ㄴ루도 수제비, 감저ㄴ루로 혼건 저베기.
 107035 @ 아 저베기.

107035 ## 경 험난. 그것에 좁쌀에 감젓ㄴ루 저베기 해낭 해놔도 맛좋아.
 107035 @ 아, 좁쌀에예.
 107035 ## 응, 죽 씹그네 즈베기 해 놔도.
 107035 @ 좁쌀에 감저ㄴ루에예.
 107035 ## 저베기 해영, 감젓ㄴ루 저베기 냥 죽썰.
 107035 @ 저베기에. 여긴 구분이.
 107036 @ 칼국수 칼국수.
 107036 ## 칼국수게 모믈ㄴ루도 허곡. 밀ㄴ루도 허곡. 모믈ㄴ루 밀ㄴ루주게. 무
 시거 다른거 응.
 107036 @ 예, 밀ㄴ루예. 모믈ㄴ루 저기 칼국수는 국제 해나수과?
 107036 ## 아니, 궂게 흥민 궂게.
 107036 @ 아니, 국제.
 107036 ## 국제.
 107036 @ 아니 멍질날 새벽에 해나수과?
 107036 ## 아니 세백에 안 해난. 그 세백엔.
 107036 # 떡국.
 107036 ## 그 켜 떡국해연.
 107036 @ 그 켜 떡국?
 107036 @@ 국제라고 따로 안 지내 나수과?
 107036 @ 모믈 해 가지고 칼국, 칼로 잡아그네.
 107036 ## 그런 건 안 해난.
 107036 # 저 저기 떡국제라고 해서 미리.
 107036 @@ 새벽에 새벽에.
 107036 # 저 세백이 것도 흥는디 잇고 안허는 디 잇어.
 107036 @ 아 것도 떡국으로 켜 헛구나예.
 107036 # 응,
 107036 ## 거는 주로 허질 앓고. 가문에 따라그네. 그 집안에 따라 멍질 제 지
 네기 전에 세백이 떡국 행 올려그네. 그것 퇴공 해여도그네 멍질쥔 지네여. 경 현디
 그거 집안마다 허질 앓고.
 107036 @ 허는 집이예.
 107036 ## 응, 그 가문에 따라그넹에.
 107036 @ 아, 그 떼 칼로 칼국수 식으로 안 행으넹에 떡국으로 헛구나예.
 107036 ## 안 헤그넹에 떡국으로.
 107036 @@ 아 떡국으로.
 107036 # 게 떡국멍질이엔 허주게.
 107036 @ 거문 칼국수는 이거는 메밀국수도 칼국수 아니우파?
 107036 ## 어, 메밀.

107036 @ 모를도예?
 107036 # 아, 칼로 썰면 칼국수주게.
 107036 @ 예예. 메밀로 예 칼국수.
 107036 ## 게메 난. 칼로 썬 칼국수. 숟가락으로 뜨난 국 수제비.
 107036 @ 게고 또 썰.
 107036 ## 썰죽.
 107036 @ 썰죽이 아니고 썰국수 아니 썰 메밀국수로구나.
 107036 ## 썰 므글국수도 허고.
 107036 @ 썰 메밀국수 이것도 칼로 썰영 허는거난.
 107036 ## 응, 칼로 썬거라 메밀국수.
 107036 # 게 썰 딸린 물에 국수 행 먹는 거난.
 107036 @ 예. 국수 허는 거예.

김치

107037 @ 김치종류예.
 107037 # 김치?
 107037 @ 예, 무수허게 되면은?
 107037 ## 저 베추김치, 무수김치, 무수 채 김치.
 107037 @ 무수김치, 무수 채 김치.
 107037 # 동치미.
 107037 ## 이제 동치미 김치.
 107037 @ 아, 동치미 김치도 담가 놔수과?
 107037 ## 응, 담과 낫주게. 거 옛날에 이디션. 어떻 헤시니흐민. 촌물에 강으넝 이. 무수 그 저. 옛날엔 요센 무수 아녀고 닻강무수 하영흐고 그저 거시기 무수 단 지무수 허난. 닻강 무수 갈앗다그네 네영 싯영 흐썰 뱃디 놔두민 그제 흐썰 시들어. 경 허민 바다에 간 싯어. 이제 그 물 질영 왕. 그 촌물에 이제 소곰 더 놔그네. 이제 그레 들이청 돌 딱 지들왕 놔두민. 이제 그 거시 여름 나도 먹곡. 여름엔 갓을 흐썰 쓰주. 게민 갓 영 흐게. 옛날 사름덜게 무시거 영 국자로나 무시겔로 영 걷어 두군에 그거 건저 네영. 그 물 영영 헤뿔. 걸어놔 싸라 냥. 세고롬흐게 시리.
 107037 @ 맞수다.
 107037 ## 세코롬흐게 시리 행 먹곡. 또 그 무수로 닻강 그 물 디리는거 잇어나 서.
 107037 @ 예예.
 107037 ## 그거 난 산디. 옛날에 가난. 산디, 봄이 식에 노꼭. 그 물 들인거 노 꼭헤영. 이제 단지에 헤역 딱 흐게 시리 황에 헤영 담앙. 돌 지들왕 놔당. 그거 아 이덜 학교 텅길때 그거 흐나 빠네영 싯영. 싸랑 벤또 반찬허고 헛주. 무시거 흘게 잇어수과?

107037 @ 아, 무수예. 거문 그게 동치미고예? 아, 그게 무김치?
 107037 ## 그 거시 그 춘물에 등간 흔 것에 요센 말로 동치미주.
 107037 @ 아, 춘물에 해나니까 동치미이.
 107037 ## 응, 요센 말로 동치미. 옛날엔 그 물김치로 해여그네 헛주마는.
 107037 @ 예, 그다음에 또 김치가 또 어떤 김치가 잇인고예?
 107037 ## 아, 파김치도 잇고게.
 107037 @ 파김치.
 107037 ## 이제 갓김치도 잇꼭게.
 107037 @ 아, 갓김치도 잇어났구나예?
 107037 ## 으, 갓김치도 잇꼭게. 이제 이젠 그 돌산갓 이엔 헛주만은, 옛날엔
 퍼렁헌 갓. 그저 퍼렁헌진 아녀고 저.
 107037 @ 까실락까실락 현거마씨?
 107037 ## 아니, 그 저 보라색.
 107037 @ 예예 보라색.
 107037 ## 그거 그 갓김치. 게건 헛난.
 107037 @ 저 갓늑물이엔 현것과?
 107037 ## 갓늑물은 그자 늑물 담께 파랑히고 그.
 107037 @ 예, 보라색 나는거?
 107037 ## 보라색 헛는 거시 갓. 옛날에 갓김치엔 해영. 게난 배추에도 그걸 싸
 라그넵에 양념헛는디 ㄱ찌 영 버무럿당. 노왕헛민 것도 맛좋고.
 107037 @ 맛좋고 색깔도 곱게 나오고예.
 107037 ## 응, 경 해났주. 경 흔거주.
 107037 @ 아, 갓김치 또 또 김치 또 곱아줍서.
 107037 ## 거 뱃기 난 몰르큰게.
 107038 @ 거문 이거 배추김치에 배추김치는?
 107038 ## 무수김치.
 107038 @ 아니 배추김치는.
 107038 ## 배추게.
 107038 @ 지금 배추헛고는 틀리지 않읍니까? 옛날 배추는.
 107038 ## 옛날 배추는 게메 쏙 아니 앓으난 퍼데기게.
 107038 @ 퍼데기예.
 107038 ## 응, 퍼데기 허영 소곰해영.
 107038 # 아 게난 김장김치 흘 때 흔거는 김장김치고 그 나머지 그 저 이파리
 덜 툃다그네 헛는 거는 다 갓김치주 무신 그거 아니라.
 107038 ## 배추 툃당 현 김치헛고 갓김치는 틀림니께게.
 107038 # 에이구, 거다 경 해도 그거 다 갓김치로 먹언게.
 107038 @ 배추 퍼데기이. 해서 옛날거는 지금 헛고 틀려서 종자가 다르덴 헛디

다. 한국에 배추가.

107038 ## 계매게, 계난 옛날엿건 영 쪽을 탁 안 앓앙. 영 퍼데기 촌룩 요세면 퍼데기.

107038 @ 퍼데기주만은.

107038 ## 예예, 경 혼디 옛날엔 그거를 해영 이제 아랑아랑 햏주게. 경 햏민 호미로 케여그녕이 다. 그디 다 시치그녕에 또 소곰물에 둥갓당. 그거 또 시청 이제 멜젓 노코.

107038 @ 아까 멜젓 노코예.

107038 ## 응, 멜젓노코게.

107038 @ 고치 놓고.

107038 ## 저 고치 노코 햏 솟아그네.

107038 @ 솟아그네.

107038 ## 건정 그레 물 노민은 뇨물 저 거시기 콥데산이 뽏아노민 그게.

107038 @ 대산이 뇨예.

107038 ## 예, 그거 뽏아.

107038 @ 그땔 생강은 안 낫지 안우파?

107038 ## 생강이 어디수파게 그 땔 생강이 엿주게.

107038 @ 예, 그게 저 배추김치라예.

107038 ## 예, 그게 배추김치.

107038 @ 이 그땔 배추가 그냥 배추엔 햏수파?

107038 ## 응, 그 땔도 배추.

107038 @ 배추예?

107038 ## 응, 배추.

107038 @ 이게 한국의 배추엔 햏는 거 답습디다게.

107038 ## 예.

107039 @ 열무김치? 열무야 여름에 나는 무.

107039 ## 열무는 그자 영 좇으게 갈앗당 솟아, 솟아당 경 햏영 배추 김치햏게 열무김치 햏고. 요즘은 또 그저 알타리 무우엔 햏느냐 그거 무시거. 그거 햏여그네 그 열무김치엔 햏고 경 햏주.

107039 @ 옛날엔 그냥 솟아당 무수 영 나민예?

107039 ## 응, 무수 좇으게 갈앗당. 솟아그녕이 김치 햏거 열무김치엔 햏 햏주 마는 요제는 그저 무슨 김치가 열무김치?

107039 @ 총각김치가 열무김치예.

107039 ## 총각김치 열무김치 경 햏 햏주.

107039 @ 열무김치는 그땔는 저기 멜젓을 햏영 낫지예?

107039 ## 멜젓을 햏영 햏주게. 무시거 다른게 잇어?

107039 @ 멜젓 많이 놓고 파 햏끔 ㄱㅈ.

107039 ## 아이고, 파도 몰르쿠다 마는. 난 파 경 하영 노멍히지 못 헤영. 그자 데산이 하영 뵈아노코 땔치노코 경 헨.

107039 @ 예예.

107040 @ 물김치.

107040 ## 물김치게 무수 싸랑. 거 나폴나폴싸랑 거. 옛날에 소곰 히당. 당원인가 무슨거 나난 그거 히폼씩 노멍 경 헤네.

107040 @ 경 헤네 히고예.

107040 ## 예, 헤연 헤덩기단 이젠 그런거 이젠 먹지 말렌 험젠허멍. 이젠 안먹음 시작 히난.

107040 @ 예 물김치예. 물김치도 저기 시원하게 먹젠허민. 무수가 들어간예. 그처럼 헤기네.

107040 ## 예, 경 헨 그 소곰물 끌영. 그거 행 놔두민. 저 히썰 놔두민 세코롬 히게 톱네다게.

107040 @ 예, 무수가 다니간예.

107040 ## 예, 경 헨.

107040 @ 소곰물 끌영 놔뒀다가 건건히게.

107040 # 건 식촌 안 논는 거라?

107040 ## 예?

107040 # 식초도 노추게.

107040 ## 아니 식초 안낭양. 그 옛날엔 요즘은 헐 떼 밀가루를 쪼끔 풀엉으녕에 허민 물이 좀 어둑을 거주게. 경 허민 그 물을 이제 식혀 이제 베춘 또 아니 무순 나폴나폴히게 싸라. 경 히민 소곰 안형 그 소곰물 끓인거 식으민. 그자 부엉 놔뒤. 히 멧 일 이시민 세코롬히게 맛있어.

107040 @ 새코롬 해그네 국물있고.

107040 ## 궁물도 먹곡. 무우도 먹곡. 경 행 물김치.

107040 @ 예.

107041 @ 동지김치?

107041 ## 동지김치는게. 그 통차 헤 놔그녕에 허는게 곶아 동지김치주. 히는게.

107041 @ 동지면은 동 올라온거예, 봄동 올라온거?

107041 ## 예, 동김치 그거는.

107041 @ 동김치 예? 동김치는 이거는 겨울에?

107041 ## 아니게 봄.

107041 @ 봄예예.

107041 ## 봄예

107041 @ 봄이, 봄이 여기 헐 떼 또 젓갈 히고.

107041 ## 고춧가루 낭 마농 빼저 노코.

107041 @ 예 젓갈 하고 고춧가루 하고. 이거는 상당히 맛 좋은거 아니우파? 익 으면은예?

107041 ## 잘도 맛 좋주게.

107041 @ 이걸 나중에 지정 먹기도 하고예?

107041 ## 응.

107041 @ 동김치가 그거고.

107042 @ 무김치?

107042 ## 물? 물김치?

107042 @ 무 무, 무김치가 아까 무수김치예?

107042 ## 응, 물김치 그거고.

107042 @ 아니, 무 무 무수.

107042 ## 무수으 게메 무수게.

107042 @ 예 채김치 하고 어, 무수채 김치예?

107042 ## 응.

107042 @ 채김치는 거 금방 행 먹는거. 채김치엔 하고 무수 저기 썰어.

107042 ## 무수 크게 싸라그넝에 현건 무수김치.

107042 @ 크게 현건.

107042 # 동치미주. 동치미.

107042 ## 동치미, 아이 그건 동치민 물 허영 하는게. 동치미고.

107042 # 아이 저 깍두기 깍두기.

107042 ## 깍두기 김치.

107042 @ 예 깍두기도 하고 그거 무수가 이게 동김치도 되큰게예. 동치미도 되 큰게예?

107042 ## 예예.

107042 @ 아까 그거 예, 그거 긴 무수 놔그네. 그 긴무수? 단 단.

107042 @@ 단무지.

107042 ## 으, 저 닳광 무수 헐 현거 그것이 동치미 데신이엔 요즘엔 말로 동치 미엔 말이우다.

107042 @ 예, 닳광 무수예.

107042 ## 응, 그거 행 허쫄 시들랏당 소곰물에 켕 현거.

107042 @ 예.

107042 ## 아 요세 동치미 하는 거 다 소솜물에 허는 거주 무신.

107042 @ 예예.

107043 @ 파김치?

107043 ## 파김치는 또게 젓갈 넣 합니다. 젓갈하고 설탕. 설탕이나 물엿이나.

107043 @ 옛날에는.

107043 ## 옛날에는 그자 헛주게. 저 젓갈에만.

107043 @ 젓갈에만예.
 107043 ## 예.
 107043 @ 젓갈에만.
 107043 ## 고치 노코 젓갈에.
 107043 @ 고추 넣고예.
 107043 # 아 젓갈에 몸만 죽으민 김치난예.
 107043 @ 예예.
 107043 ## 아니, 겨고 판게. 그자 젓갈에 이제도 허는 거난예.
 107043 @ 예.
 107044 @ 달래, 달렌 꿩마농?
 107044 ## 꿩마농.
 107044 @ 꿩마농예.
 107044 ## 응.
 107044 @ 꿩마농 김치 어떻게합니까?
 107044 ## 꿩마농김치도 마치 한가지우다. 그거 우린 저 근장에 행 먹어수다마는.
 107044 @ 아, 간장에예.
 107044 ## 응.
 107044 @ 간장에 저기.
 107044 ## 그거 씹씹 싸라그네.
 107044 @ 아, 찢어그네 예.
 107044 ## 싸라그넵에 근장 놔그네 영 싹 흐게시리 버무렁 놔두민게. 몸도 죽국 그자 행 먹어.
 107044 @ 계문 여기 고춧가루 안넣고?
 107044 ## 고춧가루도 놔사주게.
 107044 @ 어 고춧가루 넣고예.
 107044 ## 계난 생강 ㄴ뜬거 무신. 마농 마농집치난 마농은 안노난.
 107044 @ 예, 이 마농김치는 꿩마농 김치는 이것도 저기 새코롬흐게 잘.
 107044 ## 거 양 식고롬흐게는 흐젠흐민. 옛날엔 저 헤영 하영 케당. 케당 헤그네 판씩 싹영 영 즈지 멘들앙.
 107044 @ 예예 둥글허게 감아그넵에예.
 107044 ## 영 감아그네 소곰 헛그명 그거 즈근즈근 흐게 향아리에 낱. 돌 딱 지들화기네 놔두민. 그 소곰 녹고 그거 허민 물이 근근 허주게. 경 허민 이제 보리밥 먹을 때민 그거 흐나 쫄국으로 빠네영. 이제 싸랑을 먹든지 그자 손으로 영영 감아그넵에 먹든지. 이제 봄 나민 감저 처도 그것에 먹곡. 보리밥에도 그것에 먹곡. 경 허영.
 107044 @ 그거는 김치가 아니고 지시키여예?

107044 ## 아니 그 마농김치엔 해수다.
 107044 @ 마농김치이.
 107044 ## 예, 드른마농김치.
 107044 @ 드르마농김치예?
 107044 ## 응.
 107044 @ 마농김치예.
 107044 ## 예. 드른마농김치.
 107044 @ 예 김치, 김치 김치예.
 107044 ## 예 김치이.
 107045 @ 예, 아까 갓김치가 아까 그거 아니우파예? 갓김치가 보라색.
 107045 ## 예 예, 그 옛날에 그 갓김치 보라색으로 흔게 갓김치.
 107045 @ 갓김치 예. 보라색으로.
 107046 @ 이제 부추를 부추를 세우리, 세우리.
 107046 ## 세우리이?
 107046 @ 예, 세우리김치.
 107046 ## 세우리김치도 저 거시기 젓갈 낱 흥는 사람도 잇곡.
 107046 @ 예.
 107046 ## 근장 낱 흥는 사람도 잇곡. 젓갈 못 먹는 사람은 근장 놔서 행 먹곡.
 107046 ## 경아니흔 사람은 젓갈낱 행 먹고 경 험네다.
 107046 @ 아 젓갈이나 간장 놔기네예.
 107046 ## 예.
 107046 @ 이것도 이것도 꿩마농 드른마농김치랑 비슷헌건 아니지예?
 107046 ## 아이 비슷흥지 안넙니다. 흥쫄 저 틀려.
 107046 @ 틀려 예. 젓갈 노코 고춧가루 고추도 흥끔 놓고.
 107046 ## 고춧가루 흥쫄 노코 행.
 107046 @ 게난 고춧가루도 저 옛날 고추룩 배추김치 고추룩 이 젓갈에 ㄴ찌 갈
 아그네 끌러그네 논건 아니고 마씨?
 107046 ## 아니 옛날 ㄴ찌.
 107046 @ 그건 아니고?
 107046 ## 응, 옛날 ㄴ찌 그 추룩은 아니 행 그건.
 107046 @ 그 추룩 아니고예.
 107046 ## 게난 그 드른마농김치도 이 고치나 무신거 안놔 그냥 소곰물에 그자.
 107046 @ 소곰물에만.
 107046 ## 예 그냥 담궂다그네 건저네영 흥민 그 노랑게 익어그네 흥민 세콤세
 콤해영 봄이 감저 처도 먹고 보리밥 해도 거 먹곡. 경 해낱주.
 107046 @ 예예예.
 107047 @ 배추김치 흥고 무김치는 곶아 주난예. 깍두기는 아까 무김치. 동치미

예? 그거 말고 깍두기 이 살강살강 썰어그네. 저기 뿌령허는 거는 그냥 소금물에
흐끔 낫당 헤신가마씨?

107047 ## 아니 소금물에 이제 흐는 거는 오래 먹을 거고, 그자 먹을 거는 그자
소금이영 양념이영 행 ㄴ찌 고춧ㄴ루 문저 뿌령 그 김치 싸라 그 무 싸라 논 것에,
경 허민 고춧ㄴ루 문저 뿌리민 그 저 무에 고춧물이 들어그녕이 희지 안 형 불그릉
흐주.

107047 @ 불그릉허게.

107047 ## 경 허민 그처럼 흐게 행 낫당 소금이영 양념이영 다 ㄴ찌 흠치헤영
경 행 헤사 이제 흐주. 경 안 허민 무우가 물러.

107047 @ 물러 부러예.

107047 ## 응, 맛이 엇어. 계난 소금 절이는 거는 요즘은 그 저 단미정인가 무
시거 그것에 소금 흐쉴 낱 버무령 헛다그네. 건저그녕이 흐는 생입디다덜. 우린 원
요센 안 헤 보난에 헛디.

젓갈

107048 @ 젓갈 종류 예. 젓갈 종류에 대해서 곱아줍서.

107048 ## 젓갈 종류는.

107048 @ 젓갈 또는 젓.

107048 ## 젓 흐거 게, 자리젓.

107048 @ 에 자리젓.

107048 ## 멜젓, 고등에젓, 또 무시거니?

107048 # 세우젓.

107048 ## 세우젓.

107048 # 젠디 세우젓도 이딘 엇어.

107048 @@ 저 옛날에 헛던 건만.

107048 ## 저 무시거니 아이고 꿍치젓.

107048 @ 꿍치?

107048 ## 아니 꿍치가 아니고 저 무시거니?

107048 @@ 고도리.

107048 ## 무시거니.

107048 # 오징어 젓?

107048 ## 아니, 아니 이 오징어젓도 허주만은 잊어변 못 ㄴ르키여 곤젠 흐는
디.

107048 @@ 고도리도.

107048 ## 아이고 무시거엔 끝나마는 원.

107048 @ 자리젓, 멜젓, 고등에젓, 꿍치, 정쟁이, 아니 청어?

107048 ## 젓 저 고등에 말앙 무시거.

107048 # 각제기?

107048 ## 아 각제기젓.

107048 @ 각제기예.

107048 ## 예, 각제기젓.

107048 # 각제기 켜켜헛거.

107048 ## 어 아니 각제기젓 거 맛있어. 각제기젓도 맛있곡. 고등에젓도 맛있곡.

107048 @ 고등에젓도 맛있고예.

107048 ## 갈치젓도 맛있고.

107048 @ 갈치젓 예. 갈치젓 오징어젓은?

107048 ## 옷도젓도 오징어젓도 헛고.

107048 @@ 아 오징어도 젓 답아.

107048 # 아 뭐 젓 못허는게 엇주. 소곰에 절이면 젓이난.

107048 ## 절이민 젓이난.

107048 @ 또 아간 새우젓이엔 헛디 거 쟁이젓? 쟁이 젓이수과?

107048 ## 쟁이 응, 쟁이도 젓 행먹주. 쟁이.

107048 @ 예 쟁이젓. 바당에 나는 건 다 젓이 뉘난 소라젓 아니 고등젓.

107048 ## 고등도 젓도 그 젓도 젓이주양. 양념 헛당 먹는 거난 거 젓이엔 행 답아 먹질 아녀고, 그자 잡앙 생차 그 성현 떼 못앙 싸라그네예. 싸랑 근장에 이제 꼬챇ㄱ루에 양념에 다 놔그벙이 행 먹는 거난 젓이 아니주게.

107048 # 그냥 젓영 금방 먹는거.

107048 ## 건 무쳐 먹는거난.

107048 @@ 무쳐먹는 거 무침으로 봐야 뉘거라.

107048 ## 거난 그 무시거니 젓은 잇주. 전복 게웃젓.

107048 @ 아 전복.

107048 ## 전복 게웃젓.

107048 # 창자젓.

107048 @ 게우젓 예, 전복 게우젓.

107048 ## 예 그거 잇주.

107048 @ 전복 게우젓 헛고 또 엇인가? 음식도 다양헛게 마씨? 예 여기. 아니 숨씨가 하파?

107048 # 아니 그거 다 행 먹진 아녀.

107048 @ 여펜 삼촌이. 예 숨씨가 경 헛도 삼촌이 헛난거난 기억을 행 잘 곺암 주 마씨게. 늣만 본거는 경을 못헛여예?

107048 ## 아니 게난 각제기젓 헛고 고등에젓사.

107048 @ 항상 해나난.

107048 ## 게 행 먹어나난게. 이 뉘젓도 느랑헛고 저 무시거니 자리젓도게 헛고 게.

107048 @ 김치도 이케 이렇게에 많이 하고예. 우리가 어머니한테 얻어먹지 못 해부니까. 종류를 몰라그네. 경 해그네 해신디사 경 해서.

107048 ## 겐디 이젠 김치 해난디가. 이거 여남은 해 땀수다.

107048 # 김치 우리 이젠 안 햐서. 땀덜 다 해 오민 먹햐서.

107048 @ 아, 경 햐주마씨게. 경 햐주마씨.

107048 ## 아 김칠 무사 안 허길 시작 해시녕 흐민. 그 허리 수술허레 간 오난. 그자 땀덜이 김치를 그 해 부터 돔아옴 시작햐난. 이 땀이 돔아오고 저땀이 돔아오 고 흐나 이 때까지 원 안돔아 봐수다게.

107048 @ 좋수다게. 경 해도 맛이 잊이난에 그걸 다 먹는 거 아니우파예. 맛있 이민 나테로 허키여 햐 햐건디.

107048 ## 아이들이 더 잘 허주게. 이젠 어명이 손맛 맛이 가 뵤쫓게. 이젠 늙 어부난 손맛이 가벼어.

107049 @ 삼춘 자리젓에 대해서 곱아줍서. 자리젓은 어느제 혼 오 월 유 월?

107049 ## 유 월들에.

107049 @ 유 월에예?

107049 ## 예.

107049 @ 유월에 해다가 젓 담으는 거는 훑은거가 아니고 중 것?

107049 ## 중꺼.

107049 @ 중꺼로 해그네 예. 중꺼 통채로 햐니까? 아니면 배 햐끔 저기 누뚜렁 햐니까?

107049 ## 통채.

107049 @ 통차로 오. 허당보면은 이거 막 녹아 불건디. 맛은 언제 좋을 건고예?

107049 ## 아니 저 녹아 녹아분거 그거는 너무 싱겁게 허므로 녹아부는거. 경아 니 해그네 적당이 자리 세 게민, 자리 세 사발이민 저 소곰은 혼 사발. 자리 세 사 발이민 소곰은 혼 사발. 이제 뽕젓은 이제 동냥을 봐사 허곡.

107049 @ 동양 ㄱ튼양 예. 뽕젓은 ㄱ튼양.

107049 ## 응,

107049 @ 아, 거문 자리젓은 녹지 안 허큰게예?

107049 ## 아니 녹아.

107049 @ 안 녹아예.

107049 ## 게난에 그거도 자라도오 훑금줄메도 가주게. 훑금줄메 가아. 경 흐난 에 훑근 자리 혼 땀 경 햐 햐곡 또 준자리 혼 때는 그보단 약햐게 노코.

107049 @ 조금 약햐게 하고예.

107049 ## 응, 경 해연.

107049 @ 자리젓 먹을 때는 거문 몇 달 잊언 먹으코 마씨? 혼두 달? 여름에는 자리젓이 잊어사 반찬 될거난에예.

107049 ## 어 게난, 유 월들 허민게 팔 월 나민 먹주게.

107049 @ 팔 월예.
107049 ## 팔 월 출 혈 때민 그 자리젓은 먹으난에게.
107049 @ 출은 저기 추석.
107049 ## 팔 월들 나난게.
107049 @ 예 추석 지나그네예.
107049 ## 응, 경 허난.
107049 @ 자리젓을 먹영예.
107049 ## 게난 팔 월달 나민 먹주게. 유 월달에 메 저, 자리젓을 허민.
107049 @ 예.
107049 ## 두어 들 잇이민 먹주게.
107049 # 이 박사 아니민 말 대답 못허키여. 이거 하도 이것저것 들어 노난예.
107049 @ 저기 우리 물, 냉국, 냉국 종류에 대해서 오이냉국 오징어 여기 자리물회 안들어가수다.
107049 ## 무시거?
107049 @ 냉국 혈때 자리물회.
107049 @@ 자리물회?
107049 ## 아 자리물회 안들어간안.
107049 @ 이 중요 한거 자리물회를 놓쳐부런 아이고 이 추록도 험신게마씨. 나도 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혈건디.
107050 @ 경 허고, 멜은 멜젓이엔 허지예?
107050 ## 멜젓.
107050 @ 멜젓예. 멜젓은 이거 어느 때 담그는 거고예?
107050 ## 멜젓도 저 거시기.
107050 # 오 유 월들에.
107050 ## 오 유 월들에가 쥔 저 적기주.
107050 # 그 때가 멜 나사 담글 거난예.
107050 @ 거난 바당에 멜 들어 왓텐 헤기네 혈 때 그때 담그는 거난.
107050 ## 아니 게난 멜 들 때. 정월달에도 들고.
107050 @ 예 예 젓 담그는 거난.
107050 ## 이제 이 월달에도 들어도. 이제 오유 월 흘 멜젓이 쥔 좋주게.
107050 @ 기지예. 오뉴 월에예. 동양으로 흐고 이거는 담그면은 어느제 썸이먼은.
107050 ## 아니, 그저 멜젓은 늬덜 말이 무신 이 주만 돼민 먹나 무시거 혼다해도 우린 경 안 해보난예. 경 흐난 아멩 해도게. 그것도 게 혼 둥 들 돼사 먹주게.
107050 @ 두어 들.
107050 ## 아멩 해도 잘 익어사 맛있게주 몰라도.
107050 @ 이거는 어떻 허민 제일 맛 좋게 먹어는고예?

107050 ## 아 그거 게 올케 헤카지지 않으민 양념헤그닝이.
 107050 @ 헤카지지 않으면,
 107050 ## 아 양념 형게.
 107050 # 아 게난 간을 잘 맞춰야 돼여. 젓이엔 혼건 간에 호랑이주. 그거 간 맞추는데.
 107050 @ 경 헤그네 누물 솥아그네.
 107050 ## 응, 짝영 먹어도 돼고.
 107050 @ 짝영 떡국 쌍 떡국.
 107050 ## 그자도 먹고.
 107050 @ 그자도 먹고.
 107050 # 돼야지고기도 짝영 먹으민 맛있어 멜것에 짝으민.
 107050 @ 예, 짝어 먹어그네예. 그냥도 먹고예. 경허고 이제 이거를 김치에는 이거 멜것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예.
 107050 ## 멜것 다 들어가사주.
 107050 @ 멜것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김에 놓을 때는 멜것을 배추김치만 솥양 놓고 다룬 것들은 그냥 떠그네 놓.
 107050 ## 아니 저 그거시이 멜이 잘 삭양. 멜이 잘 삭아그닝이 그 액젓ㄴ짜 궁 물이 많아면, 많아면 그자 채 밧팅. 그자 양념허는 더레 밧터 낵 헤도 돼고.
 107050 @ 예.
 107050 ## 또 경 아녕 멜이 산 차 너미 짜그네 산 차 잇이면 그거는.
 107050 @ 혼 번 끌영.
 107050 ## 예, 끓이든지 골아그닝이 이제 허든지. 경 흐든지.
 107050 @ 아 갈아그네 허고 예. 그 옛날에 출레엔 헛거가 잇어난거 님아예.
 107050 ## 출레가 멜것 지진거게.
 107050 @ 기지 예. 멜것 지진거예.
 107050 ## 자리젓이나 멜것이나 지진게 출레.
 107050 @ 지진거예.
 107050 @@ 아, 지진거어.
 107050 @ 거 냄비 바탕에 놔그네. 저기 혼 국자나 두 국자 놓고.
 107050 ## 어, 물 흐쫄 노코 그거 노코 행 지지민 쫄쫄그랑 흐민 그게 출레.
 107050 @ 거문 여기에.
 107050 # 그걸 뭇로 지저시냐 허민 옛날은 전복꺽덕. 그 놓아 가지고 전복꺽덕 에 노왕 출레 지정 먹넌흐주. 거 전복꺽데기애에.
 107050 ## 거 전복꺽떡에 춤 올케 요 소코리만인 흠네다게.
 107050 @ 예 예예 큰거어.
 107050 ## 경 혼딘 고양이. 이디 고양이 알로는 족아도 우트른 흐민 고양이 커. 경 흐민 그걸 솥으로 헤그네 그 고양을 다 막아. 막아그네 이제 그레 멜것노국. 물

헛쓸 노록 혜영 덕 앓정 무신 무시거나 잇어게. 덕 앓저그네 불 헛쓸 슴으민 보글 보글 허민 그자 거려 앓아네영 사발에사 비신디 원 그자사 먹어신디 원 어떻사 먹어신디.

107050 @ 조창 먹으면예.

107050 ## 경 허민 녹물 슴양도 먹고.

107050 @ 녹물 슴양도 먹고.

107050 ## 그자 즉양 밥거려 먹고 그거 즉양도 먹고.

107050 # 젠디 그제 출레.

107050 @@ 아 그제 출레.

107050 @ 이게 출레예.

107050 ## 경 헛난 그제 출레 자리젓이나 멜젓이나 지진게 출레.

107050 @ 지진게 출레예.

107050 ## 응.

107050 @ 게민 이 출레가 허면은 반찬으로 고기반찬 그추록 코시롱 허니까는.

107050 ## 응.

107050 @ 예 밥이.

107050 ## 예, 밥이 녹물 슴은 거 엇이민 그것만 밥 거려 먹곡, 국 거려 먹곡. 거 먹곡 짝어, 거 엇날에 근장 짝영 영 밥 먹듯이게. 그런식 아니라.

107050 @ 맞수다. 게 출레 반찬 예. 멜젓을 하영 헛거라 예. 멜젓이.

107050 ## 응, 경 헤그네.

107050 @ 예, 게난 멜젓이 용도는 김치허고 양념 버무려그네 양념놓고 양념허민 이것저것 파도 썰어놓고.

107050 ## 다 혜영.

107050 @ 출레 헤기네 기 이거 먹고. 아 이거 맛 좋키여 이거. 잠깐만 요기까지.

107050 # 느네 무시거 거시기 뭘 무시거 즈냐.

107050 @@ 아니 저 삼춘예, 으들 왜냐허면 저녁혜영 그거 먹곡 허당보민 시간이 흘러볼거난 헛쓸.

107050 @ 헛끔만.

107050 @@ 흔 으들시 까지만.

107050 @ 장 담그는거 허고예 이것만 헛끔.

107050 @@ 게난 이게 밥 먹고 출리고 허당보민 시간 우리도 시에 가젠허민 뭐 허난 그 시간 조금 애껴그넵에.

107050 @ 지춧과? 헛끔 물이라도 삼춘 먹읍서.

107050 ## 아 돼수다게. 돼서 돼서.

107050 @ 아 이거라도 헛끔 드십서.

107050 ## 아니아니 아니 먹크라.

107050 @ 물 흠뻑 드십서. 막 염려되기네. 겐디 재미있지 안우파? 옛날 말 곱아가니까예.

107050 ## 재미사 신디 뵈사 신디.

107050 @ 아 겐디 잘 곱암수다.

107050 @@ 삼춘네 배 고팡 저녁 시간 때 놓쳐부난.

107050 ## 아니 우리 베고프는거 보다도게.

107050 # 아니 느네 이추룩 오라그네예.

107050 ## 오렌만이 왕 이거 올케 이거 번쩍.

107050 @@ 엇수다게. 우리 아까우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107050 @ 물김치 동김치 뽕 갓김치 반찬 같은거예. 음식을 무신거 이렇게 행 잘 먹으니까예. 남자삼춘이예. 건강 허셔신게마씨. 이축 행 잘 알고 음식을 잘 알고 먹으난예. 건강 허신거라마씨. 건강이 판테 있는게 아니고예.

107050 # 할망 때문에. 아이고 고마와.

107050 ## 할망이 간텐 헤 부난 할르방 때문에.

107050 @ 혈압도 없고.

107050 # 아이고 고마워.

107050 @ 아니마씨게예 이 추룩 아이 이 추룩 허기 힘들주마씨게. 나는 막 소망 일어수다게. 이렇게예.

107050 ## 게 소망 일어.

107050 @ 나는 하나토 모르주 마씨게예. 겐디 삼춘 곱아가니까 아, 이렇구나 허는디 삼춘이 말씀도 잘 하시고.

107050 ## 잘 험 져흔난 고마운게.

107050 @ 아이고 참.

107051 @ 삼춘 아감젓? 아강젓?

107051 ## 아가미젓?

107051 @ 아가미 젓이로구나. 아가미젓예 아감젓.

107051 ## 아가미젓. 아가미젓은 거 그 고기에.

107051 @ 생선.

107051 ## 응, 고기에.

107051 # 어우생이.

107051 ## 그저 어우생이엔 혼거 빨강거 이런디 그딴거 토당. 젓 혼게 아가미젓 이주.

107051 @ 아 고기 거 생선은 거 벨거라도 다 토다 놓으면 고등어도 막 토다 놔도 되는가마씨? 솔라니히고 조기만 흰생선.

107051 ## 아유 저 거시기 고등에 그런거는 안 뵈고. 갈치 갈치 그런거 또시로 무신거니 조기.

107051 @ 조기.

107051 ## 그런거 응, 솔레기.

107051 # 게 그런거 아가미 젓이엔 흔게 갈치 내장젓을 말하는게 아니라.

107051 ## 게난 아가미엔 흔게. 그 저 갈치엿게 이 소람소람헝곡. 이 먹기가 좋을 것 같애. 경 허난 그것에 베설도 그것에 부뎡 경 허민 그 베설 똥 빠똥 그것에 젓헤여그네 영 못아근에 나오는게 아가미젓인 거라.

107051 @ 아, 그네 그추룩 헤기네예.

107051 # 아 그렇게 우린 헤보지 안 헛주만은 그렇게.

107051 ## 그 그거시 아가미 젓인것 같애.

107051 @ 그게예. 아가미젓 예. 그 흰살생선에는 그 조기나 솔라니 같은 경우도 아가미는 뭐 줄여 먹을때도 다 버리지 안헛니까예?

107051 # 아, 켜디 아가미는 그게 이저 뭐 먹을때 뭐 저 불순물이라도 막 제거 허는 이거 아니라게 별경헌거.

107051 @ 예예.

107051 # 어 게난 그게 젓 헤도 그건 먹지 못 헤여.

107051 @ 예예.

107051 ## 썰주 썰여.

107051 # 까시랑 헤그네 경 헝난 그.

107051 ## 그 아가미에 부뎡, 아가미에 이 거시 아가미난 요레 영 부뎡게 잇어 주랑헝게.

107051 @ 예예.

107051 ## 부뎡게 잇이난 올로 요렇게 꺾차그넵에 그거를 영 똥을 빼불면 그거시 영 헝게 질주게. 경 허면 그거시 아가미젓으로 생각헤저.

107051 @ 으, 솔도 솔 지픈것도 들어가고예.

107051 ## 술은 안들어가.

107051 @ 아 술은 안들어가고 내장만.

107051 ## 그 베설 으, 네장. 그 아가미에 뿌뎡거. 부뎡 젓엿거영 찢르면은 영 형.

107051 # 게난 그 갈치엿 건만.

107051 ## 우리 하르방이 그 창지만 잘 먹젠 헝난. 그런거 헤 나난 알아지주.

107051 @ 아 예.

107051 ## 베설을 잘 지정 먹젠 잘 헛니다게.

107051 # 베설이 맛잇주게.

107051 @ 예 맛 좋은거난.

107051 # 아 게 모든게 그 창자가 다 맛잇는 거라.

107051 @ 예예 맞수다.

107051 ## 게난 그게 난 그걸로 아가미젓으로 생각 헝디 몰르주게.

107052 @ 그 게젓, 쟁이젓 쟁이젓은 어떻헛니까?

107052 ## 그 쟁이것은, 그 잡아다그녕이. 못앙. 못아그네 이제 마농 다, 마농 다져노코 이제 옛날엔 그 반찬으로 먹젠 허난, 콩 볶까그녕에 그레 낱. 경 행 허민 그레 족아 먹으민 코시롱 허게시리 먹곡.

107052 @ 예, 코시롱허게.

107052 ## 근장 엇인 할망덜은 그거 잡아당 경 헛당. 국도 끌려그네 그거 일어 낱 국도 끌영먹고.

107052 @ 아, 그거 헤 놔그네 국도 끌리고예.

107052 ## 응, 쟁이국.

107052 @ 쟁이국예.

107052 ## 경 행 끌영 먹고 헤낫주. 게난에 게나 반찬 엇일 때난 그거 반찬으로 행 먹은 거난에게.

107052 @ 게난 옛날에도 이거 쟁이 허면은 무릎에도 좋덴허곡?

107052 ## 예.

107052 @ 무릎에도 좋곡예.

107052 ## 이 뼈에 들민 조텐 허난.

107052 @ 뼈에 좋텐예.

107052 ## 경 허난 옛날 할망덜은 주로 쟁일 잡아단 잘 볶간 먹주. 게난 잡아다 그녕이 ㄱ루 노코 헤영 근장 낱 볶간도 먹곡.

107052 @ 볶양도 먹곡 ㄱ루 놔그네 예?

107052 ## 으, ㄱ루 노코 헤영 볶간도 먹곡.

107052 @ 아간 저기 이제 출레도 헛곡 헤시난.

107054 @ 그 옛날에 출레엔 헌거가 잇어난거 님아예.

107054 ## 출레가 뭇젓 지진거게.

107054 @ 기지 예. 뭇젓 지진거예.

107054 ## 자리젓이나 뭇젓이나 지진게 출레.

107054 @ 지진거예.

107054 @@ 아, 지진거어.

107054 @ 거, 냄비 바탕에 놔그네 저기 혼 국자나 두 국자 놓고.

107054 ## 어, 물 흐쉴 노코 그거 노코 행 지지민 짹찌그랑 흐민 그게 출레.

107054 @ 거문 여기.

107054 # 그걸 뭇로 지저시냐 허민 옛날은 전복꺽덕 그 놓아 가지고 전복꺽덕에 노왕 출레 지정 먹는거주 거 전복꺽데기예.

107054 ## 거 전복꺽덕에 춤 올케 요 소코리만인 헛네다게.

107054 @ 예 예예 큰거어.

107054 ## 경 혼디 고양이 이디 고양이 알로는 족아도 우트른 흐민 고양이 커 경 흐민 그걸 솜으로 헤그네 그 고양을 다 막아 막아그네 이제 그레 뭇젓 노코 물 흐쉴 노코헤영 덕 앓정 무신 무시거나 잇어게. 덕 앓저그네 불 흐쉴 솜으민 보글보

글 허민 그자 거려 앓아네영 사발에사 비신디 원 그자사 먹어신디 원 어떻사 먹어
신디.

107054 @ 조창 먹으면예.

107054 ## 경 허민 녹물 스퀴도 먹고.

107054 @ 녹물 스퀴도 먹고.

107054 ## 그자 즉앙 밥거려 먹고 그거 즉앙도 먹고.

107054 # 겐디 그제 출레.

107054 @@ 아 그제 출레.

107054 @ 이게 출레예.

107054 ## 경 흥난 그제 출레 자리젓이나 멜젓이나 지진게 출레.

107054 @ 지진게 출레예.

107054 ## 응.

107054 @ 게민 이 출레가 허면은 반찬으로 고기반찬 ㄹ추록 코시롱 허니까는.

107054 ## 응.

107054 @ 예 밥이.

107054 ## 예, 밥이 녹물 스퀴는 거 엇이민 그것만 밥 거려 먹곡, 국 거려 먹곡
거 먹곡 찍어, 거 엇날에 근장 찍영 영 밥 먹듯이 게 그런 식 아니라.

107054 @ 맞수다 게. 출레 반찬 예. 멜젓을 하영 흰거라 예. 멜젓이.

107054 ## 응, 경 헤그네.

107054 @ 예, 게난 멜젓이 용도는 김치허고 양념 버무려그네 양념먹고 양념허
민 이것저것 파도 썰어놓고.

107054 ## 다 헤영.

107054 @ 출레 헤기네기. 이거 먹고 아 이거 맛 좋키여 이거.

장아찌와 회

107055 @ 장아찌, 장아찌는 어 지시엔 허잖아 예.

107055 ## 예, 지시 마농지시 저 콥데산이 지시.

107055 @ 콥데산이 데산이 또 유는 무시건고?

107055 @@ 무시거?

107055 @ 유가 잇져, 유.

107055 @@ 유?

107055 @ 아, 유있.

107055 ## 유입지.

107055 @ 유입지예.

107055 @@ 유입이 깻잎이 아닌가?

107055 @ 응, 깻잎이 유있이렌 흥고.

107055 ## 깻잎이 유입이우다게.

107055 @ 그 파초엔 현거가 잇어나신디. 파초가 옛날에 반하, 아니 반하.

107055 ## 파초엔 현거 난 모르쿠다.

107055 @ 파초엔 현거가 잇어 나신디. 파초 저 무시거 닥은거 바나나 잎 같은 거 예.

107055 # 아 아 거 저 무시거?

107055 @ 반치, 아니.

107055 # 반치.

107055 ## 반치.

107055 @ 반치이? 반치도.

107055 ## 저 그거도 지시 행 먹어.

107055 @ 지시 했지예? 반치 닥은 거.

107055 ## 반치 저 웬장에 그거 지시 헤그네예.

107055 @ 물어그네 예? 된장 물어그네 흥고 양애, 양애, 양하엔 험니까?

107055 ## 양헛근 헤여그녕이 이 요세 지시험젠 흥여 옛날엔 지실 안헛고 숯아 그녕이 무청 먹엇주.

107055 @ 아 양애는 지시 안 헛고 숯앙 먹어예.

107055 ## 응, 양애꾼 또 양애도 그자 비영 숯앙 무쳐먹곡.

107055 # 어릴적에.

107055 @ 무쳐 먹고예?

107055 ## 게난 지시엔 현건 엇주. 안 헛주게.

107055 @ 지시는 안헛고예.

107055 # 으, 거 크면은 거 밥 싸 먹으민 또 맛있어어.

107055 @ 밥 싸 먹어도예. 그 뒤엿거 싹 꺾어그네 영 헤도그네예.

107055 ## 응,

107055 @ 모자반, 몸도 지시 헤 나신가마씨?

107055 ## 아니 그런거 지시 안헛. 그런거 그자 몸국 끓릴 때 헤 먹곡. 무청 먹 곡 헛주. 그 지시 그뜰건 안헛봐서.

107055 @ 삼춘 그, 반치엔 허지예?

107055 ## 응, 반치이.

107055 @ 반치 예, 그 반치 예, 반치.

107056 @ 마늘 마늘지시 만드는 법은?

107056 ## 마늘지신 그자 저 소곰 헛당 곤장에 허는 거주. 마농지신.

107056 @ 아, 소곰 헤 나신가마씨?

107056 ## 소곰.

107056 # 몸 죽영.

107056 ## 몸을 너부 하영 죽이면 무시거, 그자 앓스 헛다그네. 곤장 부엡헛고.

107056 @ 예.

107056 ## 또, 그자 잠시 빨리 먹젠 허민 근장 고 물, 근장 반 물 반 헤그넵에 끌영 식영 놓는 사람도 잇곡 흐쉴 따듯헌떼 노왕허민 빨리 먹고.

107056 @ 예에 물 온도에 따라 가지고예.

107056 ## 으 으, 경 헤그네 잇따넵이 오레 잇땅 먹을 사람은 그거 근장을 식영 노코, 경 안 행이 흐는 사람은 싸라그넵이 그자 그 단지에 담아그넵에 따듯 혼 떼 노코.

107056 @ 먹고예.

107056 ## 빨리 먹젠허민.

107056 @ 삼춘 이게 간장은 집에 장물 애기 허는 거 아니우파예? 장물예.

107056 ## 응, 집에 근장 담은 거게.

107056 @ 예 간장 담은 거.

107056 ## 켄디 요셋 어른들은 그거 먹엄서 평엿거 사당 먹엄주.

107056 @ 평엿거 사단 허주예. 옛날은.

107056 # 우린 담은거 먹어.

107056 @@ 아, 지금도.

107056 @ 담은 거예? 예. 담은 거가 좋은 거주마씨. 나도 장은 담양 먹읍니다. 된장허고 장물허고 켄디 맛좋아예. 식게 혈 때도 그걸로 딱 노민예. 그 그예 참.

107056 ## 근장 듬양 먹어사 돼주게.

107056 @ 예 예 건강에 좋고예.

107056 ## 게난 요세 사름덜은 그거 짜다 무슨 흐끔 맛엇다. 허명 난 짜민 흐끔 만 노라. 짜민 흐끔만 노라. 게민 무신 물도 흐쉴 국도 흐쉴 검으릉 험저 허민. 검 어도 근장 논거난 어떻 안헌다 난 흐명.

107056 @ 검으릉 혈수록 그거가 오래되고 좋은 거렌 허난예. 그거가 그 요구르트 우리 먹는 약 먹는 거예. 거 그것보다도 몇 천 배여, 몇 만 배엔 허난예. 그게 좋은 거렌 허난.

107056 ## 게난 요세 사름덜 그거 먹젠 험서게. 소곰 낱 끌영 먹젠 흐고.

107056 @ 멍물에 소곰예.

107056 ## 응.

107057 @ 회, 회 종류에 대해 곱아줍서. 자리회 새끼회.

107057 ## 회에?

107057 @ 예. 자리회 아까헌거.

107057 ## 자리회, 어랭이회 또 그다음 무시거라.

107057 @ 어랭이회.

107057 ## 아니 게난예 또 저 무시거니 오징어회.

107057 @ 인척에 막 곱아신디예.

107057 ## 으, 오징어회.

107057 @ 솔라니도 헤기네 조기회도 잇고예. 또 오징어.

107057 # 거 회가 죽아게.
 107057 @ 문어회 뭐.
 107057 ## 문어.
 107057 # 광어.
 107057 @ 옛날에도 광어 잇어나수과?
 107057 # 광어? 아 옛날에에 아 옛날에도 광어 잇어주게.
 107057 @ 으 바닷속엿 거예?
 107057 @@ 자연산.
 107057 # 바닷속에 바닥에 그 진짜베기.
 107057 ## 문어 문어회도 잇고게. 무신 회가 죽아서어.
 107057 @ 청각?
 107057 ## 성게 생게훤도 잇어고게.
 107057 @ 예 성게.
 107057 ## 청각도 해영 회 행 먹고게.
 107057 @ 예 청각도 허고예.
 107057 ## 응, 무시거 뭐 겻겻거 훤 안, 못 행 먹는것가 잇어?
 107057 @ 새끼회도 헤 나신가마씨?
 107057 ## 으, 새끼회도 행 먹어나고게.
 107057 @ 새끼회도예.
 107057 ## 응.
 107057 @ 뭐 밧, 저 겻겻이. 그 저기 전복으로도 물회 해나지 안 해나수과? 옛날에, 고등어도 해나고.
 107057 ## 아이고 전복으로 물회를 물회가 어떻 행 먹을 말이라. 못 행 먹어.
 107057 # 전복 물회 혈거 어디서?
 107057 ## 전복 물훤 안 행 먹어보고. 술레기 물회 해영 먹곡. 저 춤 어랭이 물회 허곡.
 107057 # 자리.
 107057 ## 자리물회 허곡.
 107057 # 아, 뭐 그자 문문헌건 어랭이물회 자리물회주 뭐.
 107057 ## 경 흥곡 회 무청 먹는 건 멜도 회행 먹어.
 107057 @ 멜.
 107057 ## 회 무청 먹는 거 멜도 흥면은 맛있어.
 107057 # 거 춤 싹 흥게 가죽 스이엿거 빼 떼도그네 훤 흥면은.
 107057 @@ 싱싱헌 떼?
 107057 @ 부드럽고 예.
 107057 # 싱싱 안 혀.
 107057 ## 아니 싱싱흥거는 더 곱음니께. 흥쫄 저 물 가 가듯 흥는걸 해영 해사

장만 영영 해 가면 비늘 다 벗어져불곡.

107057 @ 아, 냄새 안 나곡.

107057 ## 경 허민 짹 찜어져 불곡 가운데 팡.

107057 @@ 팡차.

107057 ## 찜차 두곡 꿀랑지 찜차 두곡 행 그 술만 행 허민 찜도 맛있습니다게.

107057 @ 저기, 그.

107058 @ 이 시절에 따라 계절에 따라예. 반찬들이 잊지 아니우파예? 그 우럭 조림은 여름에 많이 먹읍니까?

107058 ## 무신조림?

107058 @ 우럭, 우럭 조림 먹는거.

107058 ## 우럭? 아니 우럭 조림은 아무 때 먹어도 우럭은 존거. 우럭은 저술에 먹어도 조코, 여름에 먹어도 조코 가을에 먹어도 조코. 우럭은~ 월 아무 때 먹어도 존디.

107058 # 가시가 한.

107058 ## 찜 가시가 함으로 그거주. 뭐 찜 제일 맛있는거 우럭인디 경 현디 그 자 저 조기가 이 때 맛있일 철인가?

107058 @ 조기~ 좀 추울 때?

107058 ## 응, 추울 때 경 흥곡.

107058 @ 아, 조기예.

107058 # 솔레기도 맛실 철이주게.

107058 ## 게 솔레기사 체 곶을 것과 솔레기사.

107058 @ 솔레기, 솔레기 조림하고 또 겨울에 조림해서 먹는 거는 고등예?

107058 ## 고등예.

107058 @ 고등예 예, 고등예. 고등예 조림.

107058 ## 고등예 조림 흥곡게. 지금 무시거 뭐 겨울에 먹는 거 동태흥곡 무시거 그런거.

107058 @ 각제기.

107058 ## 각제기도 뭐.

107058 @ 겨울에 각제기 줄여그네.

107058 # 경 현디 각제기가 겨울에 안 나이.

107058 ## 봄 나가사 나.

107058 @ 아, 봄 예, 봄에는 각제기 조림예?

107058 ## 응, 각제기 봄 나가사 각제기 조림흥곡. 갈치도 저 거시기.

107058 # 가을 돼사.

107058 ## 가을돼어 구시 월 돼민이. 이제 맛잇을 거라 갈치. 이젓 깎지 맛잇실 거라 갈치.

107058 @ 예, 십일 월달 부터 맛종텐 험디다예. 저기 겨울에 조림이 맛좋은 거

는. 어, 또 돼지고기도 장물 놔그네 줄여그네 먹지 안옵니까예?

107058 # 아이고 막 그 아이들 그 술만 행 해 주민 좋주게.

107058 @ 돼지고기에.

107058 ## 돼지고기에 근장 낱 조림해영 경 행 흥민. 조림해영 저 메추리 알이나 흥꿈 노코 행.

107058 @ 저기 소고기 같은 거는 어려워그네 허주만은.

107058 ## 소고기는 너무 저 찢겨, 저 돼지고기가 솔로 아이덜 해영 주민 잘 먹어.

107058 @ 봄에는 각제기, 또 뭐 잇인고마씨? 봄에는?

107058 ## 알아지크라. 뭇사 허민 좋을 것 산다. 바닷고기는 아무 때나 조림을 해도 맛만 곤만 잘 맞춰 허민 다 맛 줘니다게.

107058 @ 음 조림하고 겨울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무신견고예?

107058 ## 제일 맛있는 건. 이 성산포에서 솔레기주 머.

107058 @ 겨울에.

107058 ## 예, 겨울에 지금양. 일로부터 셋 들 식이에 제일 맛좋아. 셋 들 넘엿 정월 넘어서 가민 흥꿈 뭐 해 가주양. 일로 부터양. 셋들 정월은 잘도 맛있어.

107058 @@ 옛날에도 그 솔레기 많이 나와 나수과?

107058 ## 으으.

107058 @ 옛날에 예. 성산포.

107058 # 게난 고기가 겨울 들면은 솔레기는 솔 찢거든. 게 모든 게 솔 찢 때가 제일 맛 인거라.

107058 @ 옛날에도 그 그건 풍선으로 강으넵에 잡아 와 신가마씨?

107058 ## 옛날에 풍선으로 강 허민 자꾸 불러냥.

107058 # 건 건 낙씨.

107058 @ 주낙?

107058 ## 낙씨로 낙까 온 거난.

107058 # 낙끄는 거난.

107058 # 게난 성산 솔레기가 세어 나수다. 옛날부터 경 현디 이젠 솔레기 성산 솔레기가 잇수과? 어디사 간 잡양 완신디. 경 해도 이 지방엿 게 맛 존넵 합니다. 이 저 폐선으로 저 짹엿 건 맛 없덴 솔레기도.

107058 # 여깃 게 뚜겁주.

107058 @ 잡으레 가는 지경이 잇일 겨우다 뭐.

107058 ## 아마도 경 험 신글아 이 성산지방에서 이제 폭는 솔레기는 뚜겁고 맛있고 이 저 거시기로 표선으로 저 짹더렌.

107058 @@ 남군더렌.

107058 ## 예, 알브곡 맛이 엿덴 헵네다.

107058 ## 알브고 해영, 여긴 별경.

107058 @@ 별경.

107058 @ 겨울에는 솔레기. 겨울에는 예. 솔레기가 반찬예? 제일 맛 좋은 거 반찬 예?

107058 ## 으.

107058 @ 그냥 겨울에 반찬은 뭐 김치허고.

107058 ## 김치허곡 게 뭐 파 김치허곡게.

107058 @ 예 김치종류예,

107058 ## 으, 김치종류 그런거 행 먹주 무신.

107058 @ 국, 뭐 국이나 뭐 따뜻헌국 해서 뭐 콩국.

107058 ## 따뜻헌거 뭐 웬장국 뭐 뇌지 안 허는거 그거 그저 멘날 끌영먹어.

107058 @ 예 예. 된장국예. 여름에 맛 좋은 거는 외, 저기 회예?

107058 ## 외? 외 냉국.

107058 @ 예 외냉국예.

107058 ## 응, 외 노록머 저 거시기 오징어나 데우청 싸라노코 허민머.

107058 @ 예, 외냉국 허고.

107058 ## 잘도 맛 좋추 마.

107058 @ 반찬이 외냉국허고 여름에는 또 지시덜 놔그네 예, 저 것 허고예.

107058 ## 예, 지시, 마농 지시허고 저 거시기 무시거니 생기리 지시 허곡게. 경해그녕이 헤영 여름에.

107058 @ 아, 생기리 예, 생기리 지시 여름에 맛있주.

107058 # 자리회 어랭이회 제일 물회 맛있주.

107058 @ 예, 물회 맛 좋은거 예. 그 봄에는 반찬이 흐끔 헐 건디. 이때도 김치도 뭐.

107058 ## 김치 종류로 먹엄주게. 김치게 뭐 저 알타리 무수김치도 허고 또 총각김치도 허곡게. 경 행 먹엄주 무심 뭐.

107058 @ 예, 가을에는 갈치허고 저기 반찬이 가을에는 가을에도.

107058 # 가을에도 이것저것.

107058 @ 젓갈예.

107058 # 뭐 똑 흐나만 먹어저게.

107058 @ 맞수다게.

107058 # 게난 나는건 다 먹어.

107058 @ 예예 자리젓도 헤 가지고.

107058 # 으, 자리젓도 잇당 먹고.

107058 @ 저기 출밭 헐 때 가져 강 먹고예, 자리젓도 허곡. 뭐 조림이야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107058 ## 이것저것 허고게 무신.

107058 # 갈치 구웁도 먹곡.

107058 @ 예예.
 107058 # 갈치 구우민 얼마나 맛이 있어.
 107058 @ 경허고 아, 여름에는 호박.
 107058 ## 호박국? 팔 월 나민.
 107058 @ 예 팔 월 나민 호박국예. 겨울에는 호박국허고.
 107058 # 호박에 갈치국 허민 켈 맛있주.
 107058 @ 예 갈치국 허고.
 107058 ## 여름에는 호박국 맛엇어 구시 월 나사.
 107058 @ 아, 구시 월 나사예. 갈치국이 십일 월 이후부턴 맛 좋으니깐예. 서서히. 장 담그는 거까지 허게마씨. 게민 됴 직허우다.

장 담그기

107059 @ 삼춘 장은 언제 담음니까?
 107059 ## 장? 섯들 우린 섯 들 그름에 둬야.
 107059 @ 섯 들 그름 거문 저기 멩질 츠려 놔그네.
 107059 ## 멩질 전이게 멩질 아시날게.
 107059 @ 아, 담그는 거가 멩질 아시날예?
 107059 ## 응, 담그는 거 숨는 건 동짓 들에 솟아사.
 107059 @ 예, 삼기는데. 동짓 들에예. 응, 동짓 들.
 107060 @ 그 종류는 장 종류는 어떤 것이 잇인고마씨?
 107060 ## 장 종류는게, 무시거게. 어떻게 웬장 허고 곤장 허곡게.
 107060 @ 간장?
 107060 ## 곤장, 장물 장 들문 웬장 곤장허고 게 저 담는딘 막장도 담꼬.
 107060 @ 막장도 담꼬.
 107060 ## 으, 꼬치장도 담꼬게.
 107060 @ 고치장도 고치장도 담꼬. 막장이엔 현거는 저기.
 107060 ## 곤장 안 빼영 그자 허는게 막장.
 107060 @ 간장 안 빼요그네예.
 107060 ## 메주 쭈영 티왕. 장 담글떼 이제 소곰 곶아 노코 행 그거. 이제 메주를 벌러지민 벌르고 못 벌르민 그자 해영 그물에 웬장에 맞게 노와그녕이 해영 즈 눌민 꺾여그녕이 그 곤장 빼지 안 행 허게 막장.
 107060 @ 그냥 그대로예.
 107060 ## 으, 그자 허게 막장.
 107060 @ 예 간장 엇이 허는게 막장예.
 107060 # 데체적으로 맛 좋은 웬장이 될 거주.
 107060 ## 으, 경 허민 막장으로 맛 좋은 웬장.
 107061 @ 된장은 콩 썰망.

107061 ## 으, 쿵 쓸망 메주 멘들앙.

107061 @ 예 메주 헤그네 톱왕.

107061 ## 톱왕.

107061 @ 이거는 저 무시거가 잇어야 텔거 아니우파?

107061 ## 산디짚.

107061 @ 저 나록 산디짚.

107061 ## 산디짚으로 돌아 메영.

107061 @ 산디짚 헤영 돌아 메영예.

107061 ## 으, 이제 뜨민.

107061 @ 예.

107061 ## 뜨민, 이제 다 말르민 섯 들 그름 웨민 느려 왕 췌영 곤장 그 잔 듸
아.

107061 @ 잘 말려사예.

107061 ## 응,

107061 @ 예, 잘 말려서 뜬텐 허면은예. 색깔이 어느정도 어떤 색이 많이 나사
될 건고마씨?

107061 ## 아니 장을 헤 보민 어떤 텐 하양케 뜨꼭 어떤 텐 까망케 뜨꼭 행 원
어떻 일어산디.

107061 @ 아 어떤 텐 까망고 어떤 텐 희고예? 거는 뭐 상관엇이 꼭 ㄴ찌해도
예?

107061 ## 꼭 ㄴ치해도 경허여 원 어떻게 일 산디.

107061 @ 말리는 물리는 기간도 혼 두 달정도 혼 오십 일?

107061 ## 응, 섯들 그름에 듸므민 이제 이 월 그름이나 삼월 초승웨민 갈라.

107061 @ 이 월 그름이나.

107061 ## 그름이나 삼 월 초승 웨민.

107061 @ 삼 월 초순예예?

107061 ## 예, 그자 두 들.

107061 @ 예, 두 들 남짓.

107061 # 거문 곤장 흐꼭 웬장흐고 분리.

107061 @ 예 이거 갈르는거예.

107061 ## 으.

107061 @ 갈르는 거. 그 으, 갈르는거. 그 웬장에 그 이거는 해마다 새 된장이
고 묵은장 관리는 어떻 험니까?

107061 ## 묵은장 묵은 웬장 관련 새 웬장은 난 그릇을 으라게 부찌지 말젠.

107061 @ 예.

107061 ## 묵은 웬장은 그릇에 퍼 낳.

107061 @ 예 예 퍼낳.

107061 ## 다른 그릇에 퍼 놔똥 새 똥장은 끼얹. 알러레 냥. 알러레 그 콩 삶아 그네 끼얹.

107061 @ 예예.

107061 ## ㄱ찌 끼어그네. 이제 남은 소곰 논텐 헤도. 난 근장으로 그 저 콩 삶은 걸 간 헤영.

107061 @ 예.

107061 ## 경 험 똥장에 석경 아레 노코. 묵은장은 이제 먹을거 족은 오가리 터레 담당 남은건. 그 웃터레 놔그네 덕경 놔똥.

107061 @ 아, 덕경 놔똥예.

107061 ## 으.

107061 @ 아, 거니까 소곰을 안 허고 장물이란에 그거가 그대로 이용허는 거난 예.

107061 ## 근장을 안허 저 소곰을 남은 석꺼그네이 놓아두는디. 나는 근장을 놔그네 그 똥장을 석경 놔두주.

107061 @ 예예 거문 더 잘 익을 거주마씨예.

107061 ## 예, 경 허민 간이 저 장이 더 맛잇을 거난 더 맛잇는 거 닥아.

107061 @ 예 새 된장허고 거문 장 삶아난 물이 그렇게 저기 묵은장이랑 같이 현다는거 아니파? 거문 달고예?

107061 ## 응, 그 장 삶아난 물도 똥장에 묵은장에 노코 따시 갈르젠 허민 또 콩삶앙 그레 석끌거 아니라게. 경 허민 콩물도 노코.

107061 @ 그 콩물도 놓고.

107061 ## 똥장에 콩삶은 것도 끼얹 그레 노코.

107061 @ 예 거문 장이 막 들주 마씨예?

107061 ## 예, 경 헤그네 그 간은 근장으로.

107061 @ 헝고.

107061 ## 예, 근장으로 물, 근장 두어 물뻥 거려노민 간이 똥난에.

107061 @ 삼춘 장물에 장물향아리도 헝끔 비우지 안 헝니까예.

107061 ## 장물 향아리는 그 닷 똥짜리 평이 잇주. 게난 그거 두 개에 담아 놔똥. 그 황은 씻어.

107061 @ 아 씻어, 무사마씨?

107061 ## 씻어그네이 저 거시기 물류왕 네벳당. 또 멍년 덤을 떼민 보더가민 물 놔그네이 그것에 장 덤아.

107061 @ 예 올렁으네예.

107061 ## 경 혼디 올린원. 올리만 덤앙 멍년은 덤지 말젠.

107061 @ 예예.

107062 @ 메주쭈는 거는 아까 육십이 번 동짓 들에예?

107062 ## 응.

107062 @ 예 동짓 들에 동짓 들에 저기 헤기네. 메주 쏘 때는 메주는 씻어놔기 네 물에 준울랏 다기네.

107062 ## 아니 난 경 안녕. 넬 메주 쏘 날이민 이녁이 모날에 솥으민. 오늘 스 일 이난에 이제 오닐 밤이 이 즈낙 행먹고 영 놀다그넝이. 이제 텔레비 보곡 행 뉘 잘 때 돼민 강 콩 씻엉 콩 씻어그넝. 이제 그거 빠주왕 솥을 통더레 낵.

107062 @ 예.

107062 ## 노 놈그넝에 네벳다그넝에 솥아. 경 행 아척 세백이 서너시나 두어서 나 돼민 일어낵 솥아그넝에.

107062 @ 솥아그넝에예.

107062 ## 예.

107062 @ 거문 통속에 놀 때 물까지 맞춰그넝에 노는 거 아니우파예?

107062 ## 물까지 딱 맞추지 못 헤여. 무거와그네 그레 들러놓치 못 허기 때문 에 쪼끔 놈그네.

107062 @ 예.

107062 ## 응, 쪼끔 놈그네 그자 콩차 놈그네 덕경 놈불민 무시거 헝카부덴. 물 쪼끔 놈그네.

107062 @ 물 쪼끔 놈그네예?

107062 ## 으, 경 행 네불엇당.

107062 @ 삼춘은 메주는 저 콩은 몇 말까지 솥음디가?

107062 ## 메주?

107062 @ 예.

107062 ## 콩 두 말.

107062 @ 예, 두말예. 두 말에는 장물 빼젠허민 장을 몇 되들이?

107062 ## 거 메주 그거어 경 헝영계. 메주를 잘 므를 때는 그 항에 담아도 곤 장이 쪼 쪼고.

107062 @ 예.

107062 ## 메주를 잘 아니 몰라게. 만약에 초승에 이제 초닷세 꼬비에 그 메주 를 쭈영 돌아 메면은 이제 셋 들 그믐 헝면은 곤장이 싹 그거시 잘 몰르니까.

107062 @ 빨아먹어.

107062 ## 빨아 먹으면은 곤장이 죽고.

107062 @ 죽고 예예.

107062 ## 이제 초승에 못 헤서 보름고비나 쏘아 가지고 이제 뒷 헤서 그믐에 뒷젠헝면은 헝솔 덜 몰랐는가 장말이, 장물이 뒷 돼가 죽아지여.

107062 @ 예예.

107062 ## 경 헝거 뿐이주. 뒷 얼마 무시거 어떻 헝는거.

107062 @ 가늌 허지 안허여예. 삼춘 소금은 어떻 조절 헝니까?

107062 ## 소금은 헝 허벅에 요세 소곰 어떻헝건 짜고 어떻헝건 싱겁고.

107062 @ 싱겁고.

107062 ## 으, 경 허난 어떤 때는 이제 혼 허벅에 석 돼도 노코, 어떤 때는 짜민 짜민 물을 하영 먹엄시시카 혼민 물을 하영 노민 두 돼 반 해질 때도 혼 허벅에.

107062 @ 예예.

107062 ## 경 해영 봐저.

107062 @ 아, 소금은 혼 허벅에예. 예, 허벅으로예.

107062 ## 허벅으로 허난 그자 난 물박으로오.

107062 @ 예.

107062 ## 물박으로 열 개면 혼 허벅이다. 옛날에 허벅으로 혼민게. 열 돼 여산 혼는거 아니 열 돼.

107062 @ 예예.

107062 ## 열 돼가 혼 허벅이난.

107062 # 혼 허벅 혼 말을 여산 해가지고.

107062 ## 혼 허벅이 열 돼로 여산해영. 그 물박 요센 즈락 돈은 물박 잇잔여.

107062 @ 예.

107062 ## 그걸로 열 게 여산 해영으녕이 바갓스에 몇게 봐보민 우리 물 바갓스엔 죽으난산디. 일 곱게 뱃긴 안들어.

107062 @ 아.

107062 ## 경 혼민 그거 계산 해여그네 그자 낱 허곡. 어떤 떼 그자 그냥 황드레 담양 호스테영 그자 팡팡 담양 봐불곡.

107062 @ 혼끔 허다그네 보면은 이게 찢건가 싱거울건가 간음을 해살될거 아니 우짜? 경 헐 떼 무시걸로 간음을 해신고예? 늬들은 계란 독세기나 봐그네.

107062 ## 아니 나는 게랄도 안 해보곡 그자 손찜작으로 영 해봐. 먹어봐 예에 돼건돼고 말민 말라해영 네벼도. 안직깃장은 장 념세. 나거나 무시거 해보진 안헛주. 안직깃장은.

107062 @ 예예 경 헛구나예.

107062 # 저 데충해사 맛잇주우. 맛잇어 데충 안혀면 까다로우민인. 그게 더 문제가 생겨.

107062 @ 대충 할 수 있는 능력이엔 헛게예. 판단력이엔 헛게예 자기가 뚜렷히 게 잇이난에 숨씨도 좋고 허난에.

107063 @ 삼춘 예 마지막으로예. 장 담글 때에 금기 허는거 잇지 안우짜?

107063 ## 으.

107063 @ 어떤 거를 멍심 행 금기 허는고예?

107063 ## 아이, 멍심 행 금기허는건 난 아니보난에 몰라. 그자 텅기다그네 아, 멧칠 날 이제.

107063 # 톨날만 담가 이딘.

107063 ## 저 이녁냥으로 모르 어떻영 웨리지 못 흘펜 하르방굴아 어느 때 모
날이파 영허민 아무 때 모날이여 허민 게민그자 모날 웨민.

107063 @@ 몰 날?

107063 ## 예예.

107063 @ 아시날에.

107063 ## 아시날 그자 황 확 하게 시리 행 네불고. 메주 행 네벗다그네 그날.

107063 @ 그날.

107063 ## 그자 씻으멍 들이청. 그자 일주일 잇당 소곰 들이쳐그녕이.

107063 @ 예예. 일주일 잇당 소곰합니까?

107063 ## 그자 물에 물에 저 메주에 듬강.

107063 @ 예.

107063 ## 황에에 경 행 일주일 네벗당. 이제 소곰 이제 그자 챗번 흘펜 두 웨
냥 크꼭. 잘리에 듬양.

107063 @ 예.

107063 ## 저 광목잘리 행 두 겹, 광목잘리 두 겹 헤그녕이 그것에 헤영허민 아
쟁이 그레 안 느려감니다게.

107063 @ 예예 예.

107063 ## 경 허난에 광목잘리 두 겹 행으녕에 그레 두 게 행 초담은 크꼭. 따
시 두 번찬 혼 웨씩 헤그네 맛 보멍.

107063 @ 아아, 소곰물을 장만 안헤그네.

107063 ## 예 소곰물 곶양허질 아녕.

107063 @ 곶양 허질 아녕 예. 이거는 또 또 아, 옛날어른덜이 영 헛구나예.

107063 ## 예, 옛날에 옛날에 우린 듬을 떼 경 행 듬아나난. 우린 그 식으로 헤
집니다게.

107063 @ 예예, 옛날 자루헤그네 헤난거 나도 봐나수다 뭐.

107063 ## 예예 자루 헤영 소곰헤영 커그네 헨디 요세들은 소곰물 행. 게랄 무
신 오백원짜리 동전 마니.

107063 @ 예 맞수다. 물 맞추기 어려우니까는.

107063 ## 예 경 헨.

107063 @ 혼 혼 꺼번에 예.

107063 ## 경 허영 혼텐 헤도 경 아니합니다게. 경 허난 그 추룩헤영. 장을 듬
아나질 안 헤부난. 경 헐거 생각을 안 헤저. 그자 자루에 켜 헤나나난 그자. 경 행
흔번 헤나민 그 자루 뵈싸그네 께끗이 뵈앙 널엇다그녕이. 그자 경 허민 따시 이제
흔 일주일 잇이민 그거 노꼭. 두 번차 놀 떼 또 혼 일주일 잇당 뵈당. 서너 번차 놀
떼게 혼 보름도 잇당 노코게. 경 허민 장이 더 빨리 우러나꼭 맛이 더 있어.

107063 @ 아아, 경 헛구나예.

107063 ## 게난 거 소곰물에 곧 듬근거는 츄츄 이 차 헤그녕에 오래 우러나주

만은 이거는 양. 경 행 허문 빨리 우리남네께.

107063 @ 삼촌 무사 모날에 꼭 저기 장을 담감 신고예?

107063 ## 아니 게난 개날은 아방 본맹일이고, 돼지날은 이제 손지털 본맹일이고, 이제 득날은 이제 죽은 아돌 본맹일이고, 경 흥난에 그자 딸이 몰헤치가 잇수다.

107063 @ 예예.

107063 ## 경 헤도. 또 시집 가분거 부난에 경 헤부난에 모날에만 됴가그네.

107063 @ 딸이 이서도 모날에 허지 안헤수과예?

107063 ## 예, 딸은 게 시집 가부난에.

107063 @ 게난, 시집 가기전에도 모날 허지 안헤수과예?

107063 ## 으.

107063 @ 겐디 무사 모날은경, 다 헤신고 예? 제주도 어른들은 모날에 험디다. 모날예.

107063 ## 모날에 됴므민 그 숭폐가 엇텐허영 모날예.

107063 @ 숭폐가 엇텐예.

107063 ## 으, 게난 그 숭폐가 이제 엇텐 헤그넹에 모날에 헤 됴읍니다게. 영 보면은 모날에 헤 됴아.

107063 @ 옛날에 다예. 하영들 거이 다 모날에 제주어른들은 저기 모날에예 험디다 뭐. 예. 경 허곡 여기에 장항 옆에예. 그 삼촌이 멍심하게 허는건 엇입니까? 그냥 그냥 장뚜경 잘 열고 닫고.

107063 # 으응.

107063 @ 예예.

107063 ## 난 그자 장 됴므민 소쿠리 하나 탁 덮영 네병. 그자 비나 완젠헤사 무시거 황뚜께도 덕끄고 허주. 그거 경 원 안 헤 봐수다.

107063 @ 예예.

107063 ## 그자 소코리 장 됴는 날로부터 소쿠리 앓아당 덕끄민 그자 지데로 불려나불지 안 허민 그데로 낫당. 저 소곰 놀때 올양 소곰 다 녹으민 또 덮영 네벳당. 또 소곰 놀때민 올고.

107063 @ 맞수다 예예.

107063 ## 예, 경 험주 거.

107063 @ 예, 혹시나 저기 그 사이에 빗물이라도 하나라고 튀면은 또.

107063 ## 비 오젠 흙인 덕끔주게.

107063 @ 멍심 험예.

107063 ## 비 옴 웅 흙인게 덕끔주게.

107063 @ 맞수다 게. 아이고 맞수다.

107063 ## 비 옴 전이 덕끔주게 날 졸 떼만 올암주게.

107063 @ 예, 아이고 고맙수다. 십 분 딱.

107063 # 꾹난?

107063 @ 예, 오늘은 그만?

107063 # 꾹난?

107063 @ 예, 오늘은.

107063 # 게민 강 미깡이라도.

107063 @@ 엇수다 엇수다.

107063 # 무시겨 무시것에 앳앙 강. 저 비니루 큰거 헤다그네 됴아.

제2절 어휘

-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데맹이, 데가리
201002	대가리	데망생이
201003	크다[大]	큰
201004	숫구멍	숨굴
201005	제비초리	독 풀랭이
201006	머리털	머리카락
201007	머리카락	머리꺼럭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쫓르다
201010	빗[梳]	빗
201011	얼레빗	얼레기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땀다	땀다
201014	비녀	낭저, 비네
201015	고수머리	꼭쓸머리
201016	가마[旋毛]	상가메
201017	쌍가마	쌍가메
201018	가르마	가르메
201019	이마	이맹이
201020	넓다[廣]	넙직 흥다
201021	이마빠기	이맹덩이
201022	숨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놋
201024	낯[面]	놋
201025	웃다[笑]	얼굴
201026	그리다[寫]	그린다.
201027	세숫대야	장탱이
201028	씻다[洗]	씻다.
201029	거울	맹경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불타가리
201032	뺨따귀	불타가리

201033	때리다[打]	후리다, 두드린다
201034	불	불
201035	불따구니	불타가리
201036	불거리	불거리
201037	광대뼈	*
201038	보조개	보지개
201039	주름살	주름쌀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자, 눈자
201042	검은자위	검은 눈자
201043	눈꺼풀	눈두꺼
201044	거적눈	덧게눈
201045	눈썹	눈터럭
201046	길다[濃]	꺼다
201047	속눈썹	속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
201049	수침(垂針)	푸린줄
201050	거머리	*
201051	폐롭다	*
201052	눈곱	눈꼽제기
201053	눈초리	*
201054	사팔눈	옥밤눈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직다
201058	콧마루	콧등
201059	세다[強]	쎄다
201060	콧구멍	콧고망
201061	코딱지	콧닥지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씻다
201064	콧수염	콧수염
201065	인중	인중
201066	입	입, 주둥아리
201067	쓰다[苦]	쓰다
201068	참말	춤말
201069	거짓말	거짓말

201070	바르다[正]	바로
201071	답달하다	답달
201072	입술	입술
201073	헐다[毀]	헐다, 헛사지다
201074	입놀림	입놀림
201075	말하다	근다.
201076	입방아	빼닷지
201077	허풍	허풍
201078	뇌다	죄세김, 토세김
201079	침[唾]	구침
201080	삼키다[吞]	숨지다.
201081	가래침	가래춤
201082	뱉다[吐]	뱉다
201083	느침	늘치름
201084	턱받이	턱받이
201085	혀	셋바닥
201086	활다	활르다
201087	헛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이빨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송곳니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버든니
201093	어금니	어겹니
201094	사랑니	스랑니
201095	옥니	웅니
201096	옥다[曲]	작박지다
201097	돋다[出]	나다
201098	옥물다	무질다
201099	턱	아굴탁
201100	턱살	아굴탁술
201101	뿔다[稍峽]	뿔아지다
201102	수염	수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귓썩
201105	귓볼	*
201106	귓구멍	귓고망

201107	귀청(고막)	귓청
201108	귀지	귓밥
201109	귀이개	귀화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귀턱
201112	구레나룻	털
201113	목	야가지
201114	굶다[飢]	크다, 슬지다
201115	모가지	야가지
201116	먹살	목아지
201117	잡다[執]	비틀다
201118	뒤통수	뒷통수
201119	꼭뒤	뒷데가리
201120	뒷덜미	뒷야가지

상체

201121	어깨	웃둑지
201122	어깨뼈	둑지뼈
201123	어깨죽지	부채짱
201124	겨드랑이	젓쟁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뚝
201127	새기다[刻]	세기다
201128	팔심	폴뚝심
201129	힘줄	심줄
201130	답살	득슬
201131	팔꿈치	폴꼭지
201132	팔목(=손목)	홀모게기
201133	뼈	짱
201134	뼈다귀	뼈다귀, 뼈데기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웬손
201137	오른손	오른손, ㄴ단손
201138	왼손잡이	웬손쟁이, 웬쟁이
201139	손등	손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콥

201142	들다[擧]	들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손거슴
201145	할퀴다	곡집다
201146	손가락	손꼬락
201147	엄지손가락	엄지손꼬락
201148	검지손가락	쥼게손꼬락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꼬락
201150	약손가락	약손꼬락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꼬락
201152	손살	손거름
201153	가슴	가슴
201154	뛰다[跳]	뛰다
201155	젓가슴	젓가슴
201156	명치	오목가슴
201157	명자리	복장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꼭지
201160	젓명울	젓명얼
201161	짜다[搾]	빠다
201162	울다[鳴]	저들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배뜨롱
201167	옆구리	윙가리
201168	갈비뼈	갈빗데
201169	등	등페이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매기	등망머리
201173	가렵다[癢]	ㄱ랍다
201174	긁다[抓]	글따
201175	걸리다	시큰ㅎ다
201176	등목(=목물)	등물
201177	찬물	언물
201178	등마루	등ㄱ루

201179	등뼈	등뼈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콩무니짱
201182	가늘다[細]	ㄱ늘다
201183	엉덩이	엉치, 참치폐기
201184	살집	슬집
201185	볼기	엉덩이 슬
201186	엉덩이뼈	엉치뼈, 부체짱
201187	궁둥이	엉덩이
201188	궁둥이뼈	갈머리
201189	살	슬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똥구멍
201191	더럽다[汚]	더럽다
201192	가볍다[輕]	게볍다
201193	무겁다[重]	무겁다
201194	살	강알, 살툼
201195	가래툼	살툼명울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산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넙적다리
201200	무릎	동무릎
201201	무릎뼈	절벙짱
201202	빠다[𪚩]	ㄱ뭇끄다
201203	정강이	정갱이
201204	정강뼈	쟁갱이뼈
201205	종아리	종아리
201206	장딴지	장딴지
201207	오금	오곰
201208	복사뼈	귀마리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다
201211	긋다[𪚩]	긋다
201212	헛발질	헛발질
201213	발목	발모가지

201214	겹질리다	고무끄다
201215	발등	발등
201216	발바닥	발창
201217	발부리	발꼬락 꺾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근지롭다
201220	간지럼	제그름
201221	발가락	발꼬락

201221-1	엄지발가락	상발가락, 큰발가락
201221-2	둘째발가락	둘째발가락
201221-3	가운데발가락	가운데발가락
201221-4	넷째발가락	*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

201222	발살	발거름
201223	까치눈	발눈
201224	티눈	뺨이점
201225	고린내	고린네
201226	발톱	발굽
201227	발뒤축	발 뒷치기
201228	쓸개[膽]	실개
201229	허파	폐
201230	마음	마음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창자
201232-1	큰창자	대창자
201232-2	작은창자	막은창
201233	목숨	땡
201234	빼앗다[脫]	빼앗다
201235	한숨	한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서다
202002	시다[酸]	시름지다

202003	기쁘다[喜]	짓브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낳다[娩]	낳다, 몸 갈르다
202006	태(胎)	붓, 예기방석
202007	탯줄	베딇롱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두리다
202010	터울	몇나 우 아레
202011	갓난아이	물에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두린아이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202015	계집아이	제집아이
202016	아깁다	아깁다
202017	아이보개	예기엿게
202018	업저지	도살이
201019	품다	안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항아리, 오줌단지
202022	오줌버캐	오줌정쟁이
202023	오줌싸개	오줌썰기
202024	누다[便]	싸다
202025	나무라다	나무레다
202026	지린내	지렁네
202027	마렵다	므롭다
202028	꾸지람	욕
202029	배넛저고리	붓디옷
202030	기저귀	기저귀
202031	배두렁이	배불레기
202032	포대기	지생기
202033	보자기	보제기
202034	보따리	보따리
202035	풀다[解]	풀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쳐네	뜨데기
202038	띠	걸레
202039	개구멍바지	강알튼 바지

재롱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좀비
202041	곤지곤지	연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섯메섯메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덩강
202046	걸음마	걸음
202047	걸리다	걸리다
202048	곤두박질	진주왁삼
202049	곤두서다	곤주왁서다
202050	가동가동	텅강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언주아 안디다
202053	목말	정게고게
202054	흥내	숨, 흥네, 뿐
202055	흥내질하다	뿐따다. 흥네네다
202056	엄살	검풍
202057	쌈	게심
202058	자라다[成長]	걸다
202059	부아	부에
202060	참다[忍]	춤다
202061	심술	심
202062	밉다[憎]	긋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구슬치기
202066	딱지치기	딱지치기
202067	통차기	통차기
202068	숨바꼭질	굽질락
202069	숨다	굽다
202070	소꿉놀이	소꿉놀이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뜨기
202073	풍계물이	굽질락
202074	줄넘기	줄뛰기, 뱃틀락

202075	줄다리기	줄등길락
202076	수수께끼	수수께기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깃돌
202079	던지다[投]	땃기다
202080	고누	끈 놀
202081	땅뺏기	땅먹기
202082	사금파리	사그막지
202083	말놀음질	말타기, 물탈락
202083-1	생말타기	*
202083-2	죽은말타기	*
202084	대말[竹馬]	*
202085	달음박질	들음박질
202086	겨루다[競]	경쟁하다
202087	제기차기	제기차기
202088	혜엄치다	휘다, 휘어가기
202089	웃놀이	웃놀이
202090	웃가락	웃

202090-1	도	한 짝만 젓혀졌을 때	토
202090-2	개	두 짝 젓혀졌을 때	게
202090-3	걸	세 짝이 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젓혀졌을 때	웃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혼지, 녀지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혼 지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두 지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셋 지
202091-4	녀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녀 지

202092	막동	녀지
202093	보리웃	보리웃
202094	줄목	울목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싱갱이
202097	싸우다[鬪]	사우다
202098	패싸움	패걸이
202099	모다기령	모다들다

202100	편백하다	펜백하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드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방패연
202107	가오리연	가오리연
202108	연달	연데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머릿달
202108-2	꽂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가운데
202108-3	귓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인 대	귀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

202109	방구멍	브름구멍
202110	꼭지	꼭지
202111	갈개발	*
202112	벌이줄	벌이줄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
202112-3	꽂줄	연의 꽂구멍에 꿰어서 꽂달에 잡아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

202113	얼레	얼레
202114	두모얼레	*
202115	네모얼레	*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사금파리
202118	퇴김	조정
202119	그네[鞦韆]	그네
202120	밀신개	그네판
202121	굴렁쇠	돌췌
202122	구르다[轉]	굴르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도레기, 자전거

202125	키[身長]	키
202126	키다리	전봇대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엄
202128	선하품	하염
202129	기지개	질트다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경기하다
202132	놀라다[驚]	놀레다
202133	졸음	즘, 즈름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졸리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지픈잠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소리
202140	잠귀	귀눈이 밝다
202141	잠꾸러기	즘탱이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하다
202144	트림	케틀레기
202145	딸꾹질	툄구질
202146	재채기	제취기
202147	개치네췌	제취기
202148	방귀	똥꾸움
202149	방귀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복쟁이
202151	구린내	구렁네, 똥네, 똥꾸움
202152	노린내	끄렁네
202153	사레들다	살레들다
202154	감기	코뿔
202155	기침	기침, 핫쟁이
202156	홍역	홍역
202157	학질	낫걸이, 터러기
202158	천연두	마마
202159	곰보	엷베기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충	기계충
202162	독창	허물
202163	두부백선	머릿버즘
202164	옷	칠올름
202165	버짐	버즘
202166	마른버짐	마른버즘
202167	진버짐	진버즘
202168	주근깨	검은사막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사마귀
202171	여드름	여드름, 낫싸움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퍼렇ㅎ다
202174	굳은살	캘이진술
202175	부스럼	비리
202176	종기	허물
202177	습종	종지
202178	나다[生]	낫다
202179	붉은발	불근발
202180	다대	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에옥
202183	낫다[癒]	고완, 구완, 낫다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허물그르
202186	생인손	생손알
202187	앓다[痛]	울울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떼기
202190	소경	봉서
202191	청맹과니	봉스
202192	면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웨눈이
202194	사팔뜨기	사팔뜨기
202195	다래끼	다레끼
202195-1		계썸

202195-2		둘룻
202196	언챙이	언챙이
202197	외언챙이	웨언챙이
202198	쌍언챙이	언챙이
202199	귀떡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막시
202201	병어리	버버리
202202	말더듬이	버버리
202203	혀짤배기	세다드레기
202204	입비뚫이	입토레기
202205	구안괘사	와살풍
202206	가납사니	주책
202207	곰배팔이	폴엇인 사람
202208	곱사등이	곱썰
202209	절뚝발이	절뚝이
202210	얏은뱅이	아즌뱅이
202211	문둥이	문둥병, 궂인병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버지, 아방
203002	어머니	어머니, 어멍
203003	아비	애비
203004	어미	애미
203005	할아버지	하르버지, 하르방
203006	할머니	할머니, 할망
203007	남편	서방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부부간, 두 갓, 두가시
203010	싫다[厭]	궂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스나이 새끼
203012-1	큰아들	큰놈

203012-1	큰아들	큰 놈
203012-2	둘째아들	셋 놈
203012-3	셋째아들	말쑥 놈
203012-4	막내아들	족은 놈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 놈
203012-6	둘째아들	셋 놈
203012-7	셋째아들	세 번째 놈
203012-8	넷째아들	네 번째 놈
203012-9	막내아들	족은 놈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친아들
203014	의붓아들	~(지역을 붙여)똥 아들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친딸
203017	의붓딸	다슴딸
203018	자식	아들 · 딸, 자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손
203021	어비딸	에비 딸
203022	어비아들	에비 아덜
203023	닮다[相似]	답따
203024	어이딸	애세끼
203025	어이아들	애세끼
203026	말이	큰놈, 못이
203027	막내	막네, 막녕이
203028	형	형, 성
203029	누님	누님, 누나
203030	누이	누이동생
203031	언니	성님
203032	아우	아시, 동생
203033	외아들	단아들, 웨아들,
203034	외딸	웨동딸
203035	쌍둥이	쌍둥이
203036	다르다[異]	틀리다

203037	같다[如]	판백이, 똑같다.
203038	양자	양자, 양제
203038-1		들다
203038-2		계출, 겨자
203039	처녀	처녀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인
203042	날[日]	흔나절
203043	사주보다	사주보다
203044	중신	중신
203045	권당	켄당
203045-1		덤덜, 집안, 폐거리
203045-2		방상, 친척
203046	얹은잔치	안팎잔치
203046-1	암창개	신랑없이 하는 잔치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메느리
203049	시아버지	시아버지, 씨아방
203050	시어머니	시어멍
203051	장인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멍
203053	외할아버지	웨하르버지
203054	외할머니	웨할머니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동네삼촌, 동네어른
203056	아주버니	아주방
203057	아주머니	삼촌, 고모, 이모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어른, 늙신네
203060	꾸정꾸정하다	정정하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콜랑팔십
203063	병추기	병주시
203064	거동하다	오몽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딸손지
203067	친손자	친손지, 성손지

203068	외손자	웨손지
203069	친탁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웨탁,
203071	내척	켄당
203072	외척	웨척
203073	종내기	종네기
203074	시누이	씨누이
203075	올케	아지망
203076	큰아버지	큰아버지, 큰아방
203077	큰어머니	큰어머니, 큰어멍
203078	작은아버지	삼촌, 족은삼촌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삼촌
203080	조카	조케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삼촌
203084	이모부	이모부, 삼촌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하르방
203087	넋할머니	넋할망
203088	넋손자	넋손자
203090	홀어미	홀아방
203091	친아버지	친아방
203092	친어머니	친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의붓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새어멍, 다슴어멍
203095	웁딸	비룬딸
203096	누구	모른사람
203097	남[他]	느, 느네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ㄱ슴
204002	끓다	본믈 른다
204003	명주	멩지, 비단

204004	명주실	멩지썰
204005	명주옷	멩지옷
204006	줄다[縮]	줄다
204007	무명	무명
204008	무명실	무명실
204009	닷새무명	*
204010	옛새무명	*
204011	생목	생멩지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삼,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숨	숨
204017	풀숨	멩지숨
204018	숨틀	숨틀
204019	숨틀집	숨틀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네열매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누에판
204024	번데기	번데기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잎
204027	뽕나무	뽕나무
204028	산뽕나무	산뽕나무
204029	오디	오디, 뽕나무열매
204030	다듬잇돌	다듬엿돌
204031	다듬잇방망이	방멩이
204032	펴다	폐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거품
204035	물거품	물거품
204036	빨랫돌	빨레팡
204037	빨랫방망이	세답막게
204038	빨랫바구니	테바구니
204039	행구다	행구다, 해우다
204040	빨랫줄	빨렛줄

204041	마르다[乾]	몰르다
204042	바지랑대	빨렛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걷다
204045	바래다[褪]	바래다
204046	형겘	헌벽
204047	찢다[裂]	보리다
204048	나부랭이	꼭게기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달
204051	저고리	저구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멧자락
204054	풀치마	깍치마
204055	옷고름	저고리금
204056	옷깃	저고리깃
204057	옷섶	앞섶
204058	단추	단추, 별모작
204059	매듭단추	별모작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소매
204062	중의	정뱅이
204063	갈중의	갈중이
204064	적삼	젓삼
204065	도포	도포, 도복
204066	두루마기	후르메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쟁이, 굴중이
204069	토시	폴띠
204070	누더기	헌옷, 두데기
204071	거지	동냥바치
204072	구두쇠	각쟁이
204073	잠방이	정뱅이
204074	허리띠	허리띠
204074-1		허리끈

204075	주머니	주머니
204076	호주머니	보곰지
204077	넣다[入]	놓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통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뒤꿈치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볼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뽕족한 부분	앞봉지

204079	길목버선	질목보선
204080	버선발	보선발
204081	대님	다님
204082	감발	(일본말)
204083	홀옷	훗
204084	겹옷	접옷
204085	숨옷	숨옷
204086	얹다	얹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깃
204091	홀이불	훗이불
204092	겹이불	접이불
204093	사이	새
204094	누비이불	꿀레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푸스
204097	홀청	이불안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요수건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포
204103	방석	방석, 자부동
204104	앉다[座]	아지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갯니
204107	베갯머리	베갯머리
204108	베갯모	베갯머리
204109	목침	목침
204110	삿갓	데페랭이
204111	페랭이	페랭이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병거지
204114	밑짚모자	밑짚페랭이
204115	미사리	*
204116	짚신	초신
204117	제충박이	깍신
204118	판충박이	삼신
204119	미투리	미투리, 승메신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남신, 나막신
204122	가죽신	가죽신
204123	부르트다	부물다, 헤싸지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설피
204126	문수	몽수
204127	부채	부채, 선
204128	미선	선제
204129	부치다[扇]	부치다, 선제질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짢고리	바놓쌈지
204131	가위	ㄱ세
204132	마르다[裁]	ㄱ르다
204133	골무	도메
204134	실	썰
204135	실꾸리	실테
204136	실패	실패
204137	바늘	바놓
204138	찌르다[刺]	찌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놓줄레
204140	바늘귀	바놓귀

204141	궤다	궤다
204142	깎다	쭈다, 준다
204143	실밥	실밥
204144	접다	접다
204145	곱치다	곱치다
204146	휘갑치다	감치다
204147	재봉틀	손미승
204148	다리미	다리미
204149	다리다[𢶏]	다리다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윤디판
204152	누르다[壓]	눌르다
204153	씨아	물레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썰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깔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얹는 얹을개	*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
204153-5	씨아손	손잡이	*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

204154 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204155 자세 *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 황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부끄다
205007	빠다[渴水]	빨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팔밥	팟밥
205012	반지기	반제기
205013	고두밥	선밥, 고디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렁이
205016	눌은밥	누렁밥
205017	더운밥	뜨순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톨밥
205019-1	패밥	페밥, 너페밥
205019-2	파래밥	프레밥
205020	밥보	밥보, 쉼창지
205021	밥술	순가락
205022	밥알	밥알
205023	끼니	끼니
205024	늦다[晚]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공밥
205027	눈다	눈다
205028	송냥	송냥
205029	화독내	끄렁네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낙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춧냉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지, 건데기
205036	국물	궁물
205037	굶다[飢]	굶다, 켈식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흰죽, 곤죽
205041	팔죽	풋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갱이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반찬, 출레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짐치
205050	배추김치	배추김치
205051	무김치	무수김치
205052	열무김치	애기늑물김치
205053	물김치	물김치,
205054	나박김치	물짐치
205055	갯김치	갯김치
205056	파김치	파김치
205057	깍두기	깍두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덥다
205060	간장	곤장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웬장
205063	소금	소곰
205064	소금버캐	소곰덩어리
205065	소금장수	소곰쟁이
205066	간	곤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근보다
205069	콩나물	콩늑물, 콩주름, 콩지름
205070	숙주나물	녹디늑물
205071	무나물	무늑물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늑물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밥
205075	썬다[切]	క్క다
205076	곳[場所]	지경
205077	고비	독고달
205078	미나리	민네기
205079	부추	세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치
205082	푸성귀	푸습세
205083	오이	웨
205084	물외	웨
205085	참외	츄웨
205086	수세미외	수세미
205087	말물	맛물
205088	끝물	끝물
205089	개똥참외	도난츄웨
205090	원두막	움막, 웨막
205091	갯잎	웨잎
205092	고추	꽃추
205093	풋고추	파랑꽃추, 풀꼬추
205094	고춧가루	고춧ㄹ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족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잘 익은 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잎
205100	시들다	시들다
205101	더덕	던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205105	아감젓	아가미젓, 알갱이젓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초

별식

205108	흰떡	제떡, 제펜
205109	백설기	제펜
205110	부스러기	부시레기
205111	송편	송펜
205112	소[떡소]	고물
205113	고물	고물
205114	도래떡	돌레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밀만두
205117	가루	ㄹ루
205118	국수	국수
205119	칼국수	밀국수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수제비
205122	물다[淡]	알루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게역
205125	볶다[炒]	볶다
205126	붕지	붕지
205127	과줄	과질
205128	옛기름	콜
205129	감주	감주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탁베기
205133	붓다[注]	냥
205134	기울다[傾]	잔주리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먹다
205137	준(罇)	허백이
205138	엮다	엮다
205139	술고래	술푸데

205140	술독	술독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이키다
205146	갑시다	곡끼다
205147	지짐이	지지미
205148	누름적	파전
205149	산적	적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205151	부엌문	셋문, 정지문
205152	불때다	습다
205153	불등걸	불망굴
205154	불뚝	불뚝
205155	부엌비	정지비, 비치락
205156	내[煙氣]	네
205157	낮다[低]	놋다
205158	높다[高]	높다
205159	그을음	그스름, 그스렁
205160	검댕	검뎡
205161	아궁이	솔 강알
205162	채	불치
205163	모으다[集]	모다
205164	부뚜막	전
205165	붓돌	숫덕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동숫
205168	무쇠솔	쇄숫
205169	끓다[沸]	펜물
205170	솔뚜껑	숫뚜껑
205171	솔귀	숫귀
205172	솔전	숫전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숫알

205175	솔검정	솔검뎡
205176	부삽	갈레, 부삽
205177	군손	헛손
205178	군일	헛일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깽이	부르뎡이, 부짓뎡이
205181	짚방석	방석
205182	성냥	화각
205183	성냥개비	화각살
205184	성냥갑	화갑
205185	부시	부들
205186	부싯돌	부싯돌
205187	부싯깃	부시게
205188	부시쌈지	주뎡기
205189	부시통	부시통
205190	등잔	등잔
205191	관술	술카지, 술각
205192	호롱	등잔
205193	남포등	호야
205194	접싯불	접싯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숯가마
205199	뜯숯	숯
205200	솔검정	솔검뎡이
205201	불타다	불난
205202	탄내	끄끄렁네
205203	불태우다	불 부치다
205204	불티	불데미, 불치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청동화리
205209	봉당	부섭
205210	화룻불	화리불
205211	불찌다	불찌다

205212	화상(火傷)	불에 데다
205213	부손	부삽
205214	부젓가락	불저뽀
205215	다리쇠	삼발이
205216	석쇠	석쇄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205217-2		
205218	담배	담배톨레
205219	피우다	피우다
205220	용고뚜리	골초
205221	담뱃대	담뱃통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뿌리
205224	담배통	담뱃곽
205225	담배설대	담뱃데
205226	담배쌈지	담배쫄지
205227	재떨이	재털이
205228	벼루	벼루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빈
205232	주발	돛그릇
205233	사발	사기그릇
205234	뚜껑	뚜껑
205235	접시	접시
205236	굽달이	굽신그릇
205237	대접	테사발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종제기
205241	숟가락	숟가락
205242	젓가락	젓가락통
205243	수저통	숟가락통
205244	설거지	씻기
205245	구정물	구짚물
205246	도시락	밥차반지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넴비
205249	바가지	국박세기
205250	박	콧
205251	뒤옹박	두렁박
205252	조롱박	콧박
205253	쪽박	족은바가지
205254	양푼	낭푼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단지
205257	뚝배기	지지는 그릇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밑	시리고냥
205260	시룻번	시리막게
205261	경그레	도들
205262	함지박	남박
205263	바구니	차반지
205264	소쿠리	소쿠리
205265	대[竹]	수럿데
205266	이대	수리데
205267	왕대	왕데
205268	숨대(분죽)	*
205269	제주조럿대	조럿데
205270	굳은대	굳은데
205271	무른대	물른데, 축신
205272	항아리	황
205273	물동이	물허벅
205274	뒤주	뒤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정제칼
205278	빼다[拔]	빼다
205279	무디다[鈍]	묵이다
205280	갈다[磨]	글다
205281	숫돌	숫돌
205282	날카롭다	늘세다
205283	행주	상빼

205284	번철	정철
205285	국자	국자
205286	밥주걱	밥자
205287	죽젓광이	남죽
205288	수세미	수세미
205289	떡살	떡본
205290	밀판	밀판
205291	밀개	밀데
205292	소줏고리	술고소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소소리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술통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술코
205292-4	(받이甁)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술병

205293	빚다	담다
205294	풍로	풍귀
205295	삼발이	삼발이
205296	달이다	달이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짓터
206002	초가	초집
206003	길[路]	길, 신작로
206004	골목	올레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낡다[古]	오랜집
206007	기와집	지워집
206008	흙집	흙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움막
206011	외채	웨집
206012	안채	안거리
206013	바깥채	밖거리
206014	안팎채	안밖거리

206015	문간채	문간 이문간
206016	결채	조왕간, 불চিত간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황
206019	덮다[蓋]	덕끄다
206020	장독대	장황간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막
206023	잃다[失]	일러먹다
206024	마구간	물막
206025	변소	통시
206026	부춘돌	디들팡
206026-1	부출	나무팡
206027	기척	인기척
206028	맞서다[拮]	다데기다
206029	냄새	냄세
206030	맡다[臭]	맡다
206031	울담	울담
206032	울안	울안
206033	터알	우영팻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릿눌
206036	짚가리	~눌 등,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스이
206038	가리다[積]	눌눌다
206039	사닥다리	사다리
206040	이엉	노람지
206041	주저리	주지
206042	엮다[編]	엮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채
206043-1		풍채
206043-2		지작, 지직문
206044	디딤돌	팡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상방
206047	마루문	데문, 상방문
206047-1	‘호령창’	창문
206048	마룻널	마루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한지, 종이
206052	얇다	얇다
206053	구들직장	구들지기
206054	큰방	큰방, 안방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웃목
206057	아랫목	아랫목
206058	천장	천장
206059	닿다[觸]	다데기다
206060	옷바람	우풍
206061	안방	족은방
206062	방문	창문
206063	비[帚]	비자락
206064	빗자루[柄]	즈룩
206065	쓸다	쓸다
206066	버리다[棄]	땃기다
206067	바람벽	벽
206068	걸다[掛]	들아메다
206069	벽장	벽장
206070	시렁	선반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간지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알	귀알
206075	풀비	풀비
206076	찾방	찾방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놓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간수ㅎ다
206081	안뒤결	안뒤에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양철
206084	지붕물매	지붕물메
206085	이다[蓋]	인다
206086	평고대	거왕데
206087	처마	처마
206088	처맛기슭	집가지
206089	낙숫물	지순물
206090	댓돌	잇돌
206091	흙	흑
206092	진흙	즌흑
206093	찰흙	진흑
206094	흙덩이	흑덩이
206095	새벽	흑질 흑
206096	흙질	흑질
206097	이기다[浹]	흑달루다, 이긴다
206098	산자(撒子)	테기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상기둥
206101	뿔기둥	포기둥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마루
206106	보	덕리
206107	대들보	대들보
206108	반자틀	천아반틀
206109	귀틀	마루귀틀
206110	외(椗)	테기
206111	인방	계위
206112	문설주	문설주
206113	문곶도리	문도리
206114	문얼굴	문도절귀
206115	문틀	문틀
206116	문머리	문머리
206117	문흙	문흙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구돌셋문
206120	닫다[閉]	닫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2	잠그다	중그다
206123	창호지	창호지
206124	뛰창문	창금
206125	구멍	금
206126	미단이	미단이
206127	여단이	양단이
206128	살문	쌀문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덧문
206131	문틈	문트멍
206132	돌쩌귀	걸췌
206133	암톨쩌귀	암도줄기
206134	수톨쩌귀	숫도줄기
206135	문고리	도줄기, 문고리
206136	배목	*
206137	괘	괘
206138	열다[開]	올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췌
206141	열쇠	열췌
206142	부수다[碎]	부쉬다
206143	서랍	서랍, 빼단이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양날툽
206146	거도	큰툽
206147	툽툽	툽툽
206148	툽밥	툽밥
206149	자귀	금자귀
206150	옥자귀	극세
206151	노루발장도리	못빼기망치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두드리다

206154	배척	췌게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막게
206158	대패	데페
206159	개탕대패	홈베기데페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뚫다
206162	굽자	고분당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실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흙손	흑손
206167	쇠흙손	쉐손
206168	나무흙손	남손
206169	흙받기	흑바디
206170	돌물레	돌물레
206171-1		호랭이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농스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에염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밭토갱이
207006	병작(竝作)	반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잠데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중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나간 나무	쟁깃정에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한마루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성에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설치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쇠조각	보습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쇠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몽쿨
207008-9	‘뚝’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벧끈

207009	육보다	속앗저
207010	겨리	*
207011	벧밥	병댕이
207012	곰방매	곰방
207013	밭머리	밭명에
207014	밭두둑	밭두덕
207015	밭고랑	밭고랑
207016	밭이랑	밭이랑
207017	거웃	관이
207018	극쟁이	쟁이
207019	씨레	*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뾰족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번지
207021	쟁이	쟁이
207022	곡쟁이	곡쟁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쉐스랑
207025	삽	갈레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종자
207030	알씨	알씨
207031	백씨	백씨
207032	뿌리다[撒]	뿌다
207033	망태기	맹태기
207034	꾸게	끄서기
207035	남태	남태
207036	돌번지	돌테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벌매기
207040	두벌매기	두벌매기
207041	세벌매기	식벌매기
207042	가다[去]	간다
207042-1		가게
207043	호미	골갱이
207044	홍아기	검질메는 소리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삯	품, 품삯
207048	비싸다	비싸다
207049	결두리	중참, 길손
207050	품앗이	수눌음
207051	삼태기	골체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자락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
207052-3	낫갱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낫탱기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뜸못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늘등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날

207053	베다[刈]	빈다
207054	새뺨기	미쟁이
207055	새끼	노

207056	꼬다[索]	노꼬다
207057	매듭	모작
207058	노	노
207059	끈	끈
207060	참바(바[索])	탄줄
207061	짐바	베
207062	질빵	베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쉐질메
207066	말길마	몰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질메가지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둥산 모양의 나무	질메앞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질메뒤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
207066-5	둥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
207066-6	경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가리석
207066-7	경거리끈	경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가리석줄
207066-8	경거리막대	경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가리석대
207066-9	배땃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오랑줄

207067 명에 명에

207067-1	목대	멍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접 꿰
207067-2	봇줄	멍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부줄
207067-3	한태	봇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등줄
207067-4	(오리목)	봇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
207067-5	비겨미	봇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봇줄에 꿰는 막대기	*

207068 지계 지계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게다리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뻗어 나간 가지	지겟가지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방석
207068-5	지게꼬리 (밀뻐)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베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작대기

207069	바지게	지게
207070	발채	바작
207071	물지게	물지게
207072	이삭	고고리
207072-1		이삭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클테
207076	벼훑이	홀트기
207077	그네	홀테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

207078	타작하다	마당질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식은 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힘
207083	겨를	저르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즈록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살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꼭지

207085	여물	으물
207086	쭉정이	줄랭이
207087	꼴	출

207088	꿀밭	꿀왓
207089	꿀꾼	출군
207090	꿀단	출단
207091	신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물마차
207093	복두	쉐앗베, 드레기베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덕석
207096	거적	명석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 체)	ㄴ는체
207099	끓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물총체
207101	챗바퀴	체바퀴
207102	챗다리	챗드리
207103	어레미	얼멩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체질
207106	까불다	푸는체질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솔박’	솔박
207109	풍구	보름드레기
207110	홉	홉
207111	홉되	홉제기
207112	되	뒤
207113	관되	관뒤
207114	사샷되	짐쟁이뒤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통말
207115-2	모말	모말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다
207118	고무래	날레군데
207119	불당그래	굴묵군데
207120	떡등구미	멕
207121	가마니	가멩이
207122	끗다[引]	끗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홀다[散]	홀치다
207125	자루[袋]	잘리
207126	부대(負袋)	푸데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게으름	간세다리
207129	노라리	한량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밭
207132	누리다[黃]	노랑
207133	끓다	끓다
207134	까끄라기	ㄱ스락
207135	보리쌀	보리쌀
207136	보릿겨	보릿체
207137	겉보리	눌우리
207138	쌀보리	동보리
207139	맥주보리	주냉이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릿짚
207141	매끼	깨
207142	깜부기	검은사막
207143	귀리	데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슌다	슌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숙(黍粟)	서숙
207151	비비다	비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수아비
207153	좁쌀	좁쌀
207154	조짚	조칩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고고리
207157	범씨	나룩씨
207158	못자리	*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딴코고리
207161	밭벼밭	산딴밭
207162	밭벼쌀	산딴쌀
207163	밭벼짚	산딴짚
207164	멧돌	정그레

207164-1	멧돌 짝	멧돌의 위아래 돌	짝
207164-2	윗돌	멧돌의 위짝	윗돌
207164-3	아랫돌	멧돌의 아래짝	아랫돌
207164-4	매암쇠	멧돌 위짝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돌쫓
207164-5	멧수쇠	멧돌의 아래짝 한가운데 박힌 물건	암것쫓
207164-6	멧손	멧돌의 손잡이	그레즈록

207165	멧방석	그멧방석
207166	매함지	드그리
207167	풀멧돌	풀그레
207168	풀매	풀메
207169	썰기	썰기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두콜방에
207171-1		세콜방에
207171-2		네콜방에
207171-3		
207172	방아확	방아혹
207173	방앗간	방앗
207174	븀비다	물리다
207175	방앗공이	방앗공기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물그레
207178	방앗돌	방앗돌
207179	연자멧간	물그렛황
207180	절구	절구콩
207181	절굿공이	절굿공이
207182	뺨다	뺨다
207183	늪	늪
207184	고르다[擇]	글리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잎
207189	기름콩	기름콩
207190	콩각지	콩짚
207191	콩짚	콩데
207192	꼬투리	각지
207193	두부	두부
207194	두붓물	두붓물
207195	뜨겁다	데불다
207196	비지	비지
207197	찌꺼기	찌끄레기
207198	완두	보리콩
207199	강낭콩	두불콩
207200	동부	뚝비
207201	팥	팥
207202	팥알	팥알맹이, 팥방울
207203	팥밥	팥밥
207204	녹두	녹두
207205	깨(참깨)	깨
207206	들깨	들깨
207207	참기름	참기름
207208	갯묵	팻주시
207209	고소하다	코시롱ㅎ다
207210	메밀	모믈
207211	메밀밭	모믈밭
207212	나깨	느쟁이
207213	메밀껍질	체
207214	메밀국수	모믈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모믈수제비
207216	메밀칼국수	메밀칼국수
207217	메밀떡	돌레
207218	메밀묵	솔청묵
207219	무르다[軟]	익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베떼기
207222	찌다[蒸]	치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207225	마늘	곱데산이
207225-1	마늘대	마농데
207225-2	마늘밑	곱데산이
207225-3	마늘종	쫑동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지시
207227	파	파, 폐마농
207227-1	파밑동	빨리
207228	무	무수
207229	무청	무썰
207230	시래기	시래기
207231	장다리무	쫑
207232	열무	에기무
207233	배추	배추
207234	고갱이(배추)	배추속
207235	나물	송키
207236	채소	늑물
207237	겉대	거폴
207238	다듬다	톳다
207239	값	깎
207240	옥수수	강냉이
207240-1	옥수수	강냉이
207241	수수	데축, 세당데축
207242	쌀수수	데축썰
207243	비목수수	세당데축
207244	사탕수수	세당데
207245	수수깡	데축데

어업

207246	잠녀(潛女)	잠네
207247	물질	물질
207248	물옷	속옷
207249	물안경[水鏡]	눈
207249-1		큰눈
207249-2		족은눈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작소살
207254	어부	보제기
207255	뜯채	죽서달
207256	그물	그물
207257	돛단배	돛단배
207258	이물	이물
207258-1	이물간	이물간
207258-2	이물사공	이물사공
207259	고물	고물
207259-1	고물간	고물간
207259-2	고물사공	고물사공
207260	돛	돛
207261	마룻대(돛대)	돛데
207262	마룻줄(용충줄)	용돛줄
207263	활대	활데
207264	외대박이	웨돛
207264-1	두 대박이	쌍돛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노
207266	결노	젓네
207267	상책(노착)	노착
207268	노잎(노깃)	노네
207269	노앞	노앞
207270	노뒤	노뒤
207271	노손	노손
207272	놋구멍	놋구멍
207273	놋줄	네톡
207274	돛	돛
207275	돛가지	돛가지
207276	돛줄	돛줄
207277	돛돌	돛돌
207278	돛걸이	돛돌이
207279	키[舵]	키
207280	킷구멍	킷구멍
207281	키잡이	키잡이
207282	강다리	강다리

207283	상앗대	상앗데
207284	떼[浮筏]	테우

기타

207285	이웃	동네
207286	더불다[與]	더불다
207287	마을	동네
207288	고을[村]	골
207289	누리[世]	*
207290	윗마을	웃드르
207291	옮다[移]	옮다
207292	아랫마을	아랫믈
207293	마을가다	믈갈다
207294	밤마을	밤믈, 놀레
207295	가게	점방
207296	구멍가게	구멍가게
207297	다녀오다	다녀오다
207298	심부름	심부름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즌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거스름돈
207302	있다[有]	있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거스름돈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나머지
207307	홍정	홍정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이자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미
207313	풀무	풀무
207314	손풀무	풍구
207315	모루	목돌
207316	모루채	메루채

207317	갓양태(양태)	갓테
207318	망건	맹경
207319	망건골	*
207320	탕건	탕건
207321	결다[編]	엮다
207322	사냥	사농
207323	사냥개	사농개
207324	사냥꾼	폐장, 장역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핑잡이	핑 폐장
207327	고	고
207328	올가미	코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나눔, 분깃
207331	갯다[持]	갯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헉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208001-4	(4)	넷
208001-5	(5)	다섯
208001-6	(6)	으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으덥
208001-9	(9)	아흐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일흔
208004-7	(80)	오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 돼	흔 말
208005-2	(2/두)	두 돼	두 말
208005-3	(3/서, 석)	석 돼	식 말
208005-4	(4/너, 녀)	너 돼	녀 말
208005-5	(5/닷)	닷 돼	다숫말
208005-6	(6/엿)	으숫 돼	으숫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 두개	흔 두돼	흔 두말
208006-2	(2-3/두세)	두 세개	두 세돼	두 세말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넉개	두서넉돼	두서너말
208006-4	(3-4/서너)	서너개	서넉돼	서네말
208006-5	(4-5/네댓)	네댓개	네댓돼	네댓말
208006-6	(5-6/대여섯)	대으숫개	대으숫돼	대으숫말
208006-7	(6-7/예닐곱)	예닐곱개	예닐곱돼	예닐곱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으듭개	일고으듭돼	일고으듭말
208006-9	(8-9/여덟아홉)	으돌아홉개	으돌아홉돼	으돌아홉말

208007 여남은 예남은

208008 서른남은 서른남은

단위

208009 뽕 뽕
 208010 집게뽕 조리뽕
 208011 발[單位] 발

208012 밍다 밍고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스물테자
208014-2	명주	서른두자
208014-3	광목	마흔자
208014-4	베	서른석자~ 두자

208015 마지기(평) 한 말 한 마지기

208015-1 300평

208016 뭇 단

208017 뭇다[束] 뭇다

208018 나르다[移] 나르다

208019 동 단

208019-1 단

208020 조짐 졸레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소 30

208021-1	보리	30
208021-2	조(이삭 있음)	30
208021-3	콩	80
208021-4	밭벼	20
208021-5	꿀	30
208021-6	띠	30
208021-7	각단	30
208021-8	어욱	*

208022 모금 굴레

208023 섬 섬

208023-1 열닷말

208024 덩이 덩어리

208025 포기 포기

208026 그루 그루

208027 돌이(양태) 돌음

208028 마리 므리

208028-1 두[頭] 두

208028-2		두
208029	축	줄
208030	궤미	궤미
208031	쌍(돼지)	쌍
208032	채(집)	채
208033	장(무덤)	위
208034	컬레(신)	베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못	단
208037	죽	죽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사리
209002	아이서다	아이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성할망
209004	깃저고리	봇에저고리
209005	배넛머리	배슬머리
209006	돌	챗들
209007	새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스방
209009	가마	가메
209010	시집가다	시집간다
209011	시집보내다	시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가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가보내다
209014	함	홍세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데반
209017	신부상	새각시상
209018	휘다[樺]	부러지자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지
209021	사돈	사돈
209021-1	안사돈	안사돈

209021-2	바깥사돈	바깥사돈
209022	겹사돈	곶사돈
209023	상갓집	초상집
209024	수의	호상옷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주상
209028	맡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마
209031	상장(喪杖)	상장대
209031-1		머귀낭
209031-2		왕데
209032	짚동	북시미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문상하다
209035	뿔자리	뿔자리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췌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여
209040	보장(寶帳)	화단
209041	계(契)	접
209042	상두꾼	상두꾼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산터
209045	광중	개광
209046	횡대	개관
209047	호충	척호
209048	무덤	봉분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석공, 석취,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산역시
209053	마치다[終]	못끄다
209054	벌초	소분
209054-1	소분	성묘

209055	묘위전	소분밧
209056	고충	골충
209057	제사	식께
209058	제삿집	식께집
209059	편틀	편틀
209060	퇴물	퇴물
209061	메	메
209062	갱(羹)	갱국
209063	제육	제숙
209064	제편	제편
209065	인절미	인절미
209066	절편	절편
209067	웃기떡	웃주시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놓다
209070	몫	몫
209071	먼례(緬禮)	천리

세시풍속

209072	설날	멩질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멩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금줄
209077	매다[結]	메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장귀
209080	팽과리	팽과리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래찜질
209085	추석	추석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코시, 철갈이,
210004	당	본향, 올레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판
210008	명두	멩디칼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사르다[燒]	살다
210012	살(煞)	막은방
210013	삼살방(三煞方)	막은방, 튼방
210014	도깨비	도체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체비
210016	허깨비	허께비
210017	어둑서니	그슨새귀신
210018	무섭다	무섭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토신제, 문전제
210021	고수레	코시, 코사
210022	포제	포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벵디
211002	풀[草]	검질, 푸습세
211003	방화(放火)	방에, 들불
211004	불다[點火]	놓다
211005	내[川]	네
211006	넷가	넷가
211007	물가	못가
211008	따르다[從]	따라

211009	건너다[渡]	넘어가다
211010	낭떠러지	굴렁지
211011	다리[橋]	다리
211012	가깝다[近]	보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검불, 더월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불, 가시더월
211015	돌무더기	머들, 돌동산
211016	갈림길	세거리
211017	묻다[問]	묻다
211018	비탈길	거뼩이길
211019	벼랑길	소릿길
211020	내리막길	동산질
211021	오르막길	오르막길
211022	길가	질곳
211023	큰길	큰길
211024	분화구	굽부리
211025	꼭대기	산봉오리
211026	오르다[登]	오르다
211027	기슭	기슭
211028	산바람	산브름
211029	산꼬대	산고데
211030	상고대	상고데
211031	구렁	구렁챙이
211032	고랑창	고랑챙이
211033	건너가다	건너가다
211034	넘어지다	씨러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211036	천상수	못
211037	숲	곳
211038	성(城)	성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해변
211041	바닷물	바당물
211042	바닷바람	바닷브름

211043	깊다[深]	깊다
211044	얕다[淺]	얕다
211045	물먹다	복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밭
211048	자갈	먹돌
211049	갯가	갯것
211050	펼	펼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돏소리	절치는 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늘
211056	굼뉘	*
211057	물결	절
211058	잔물결	잔절
211059	무수기	물끼

	무수기	방언형	날짜(음력)
211059-1	한무날	흔 물, 조금	9일, 24일
211059-2	두무날	두 물, 조금	10일, 25일
211059-3	서무날	서 물, 조금	11일, 26일
211059-4	너무날	너 물, 조금	12일, 27일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13일, 28일
211059-6	여섯무날	으섯물	13일,
211059-7	일곱무날	일곱 물, 웨살	14일, 29일, 30일
211059-8	여덟무날	으덟 물, 웨살	1일, 15일
211059-9	아홉무날	아홉 물, 웨살	2일, 16일
211059-10	열무날	조금	3일, 17,
211059-11	열한무날	조금	4일, 18,
211059-12	열두무날	조금	5일, 19.
211059-13	(열서무날)	다섯물	6일, 20일
211059-14	아끈췌기	*	*
211059-15	췌기	*	*
211059-16	한조금	*	*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곶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들물
211064	물써다	쌀물
211065	쌀물	쌀물

시후

211066	오늘	오늘
211067	내일	네일
211068	모레	모레
211069	내일모레	네일모레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제장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저께
211074	그끄저께	그끄저께
211075	새벽[曉]	동틀
211076	꼭두새벽	동새백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붉음
211079	아침	아침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즈낙
211082	저녁거리	즈낙거리
211083	초저녁	초어스름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푸리다
211090	별	별
211091	은하수	은하수
211092	달	달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달갓쓰다
211095	초승달	초승달
211096	보름달	보름달

211097	그믐달	그믐달
211098	햇무리	햇무리
211099	무지개	무지개
211100	쌍무지개	쌍무지개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가을
211104	겨울	겨울
211105	입춘	입춘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하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그믐

211110-1	하루	흐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세
211110-6	엿새	웃세
211110-7	이레	일뤼
211110-8	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더댓새	너닷세
211113	대엿새	대웃세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삭제, 망제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들
211119	선달	정월들
211120	올해	금년
211121	내년	내년
211122	내후년	내내년
211123	작년	작년
211124	재작년	제작년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살
211127	따스하다	뜨뜻ㅎ다
211128	땡볕	생벧
211129	가을별	ㄱ슬벧
211130	양지받이	해
211131	아지랑이	아지랭이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그늘지게
211134	나무그늘	나무그늘

211135	쉬다[休]	쥬다
211136	그림자	굴메, 그리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브름위
211137-2	바람아래	브름알
211138	맞바람	맞브름
211139	바람받이	브름바디
211140	바람살	브름살
211141	회오리바람	드깁이주쟁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갈브름
211144	서풍	하늬브름
211145	북풍	북풍
211146	비[雨]	비, 주제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빗줄기
211149	장마	장마
211149-1	봄장마	고사리장마
211149-2	가을장마	ㄱ슬장마
211150	곰팡이	곰생이
211151	소나기	스네기 주제, 스네기
211152	여우비	여우비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시원ㅎ다
211156	도롱이	우장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뭄	ㄱ뭄
211159	흉년	송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안개
211162	번개	편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내친다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함박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쓰레기눈
211170	도둑눈	도둑눈
211171	내리다[降]	내리다
211172	희다	희다
211173	춡다	춡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고드름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곶다	고삐다
211180	진눈깨비	눈비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결	죽꿇디
211185	옆	옆
211186	위	우
211187	아래	아래
211188	밝다[明]	밝다
211189	어둡다[暗]	어둡다
211190	왼쪽	왼쪽
211191	오른쪽	오른쪽
211192	밑	밑
211193	흐르다[流]	흐르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밖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서리
211198	가[邊]	에엌
211199	가장자리	꼬명에
211200	가운데	한가운데
211201	곧다[直]	곧장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부랭이, 솟소
212005	췌소	숙췌
212006	불까다	불까다
212007	불알	불알
212008	황소	밧갈췌
212009	얼룩소	식췌
212010	부리망	췌망울
212011	쇠고삐	췌녹데
212012	끌다	등기다
212013	송아지	송에기
212014	배넛소	반짱췌
212015-1	하릅~열릅	

		소	말
212015-1	하릅(1)	금송	금송
212015-2	이듭/두듭(2)	다간	이수
212105-3	사릅(3)	사릅	삼수
212015-4	나릅(4)	나릅	*
212015-5	다듭(5)	다듭	*
212015-6	여듭(6)	으솟슬	*
212015-7	이릅(7)	일곱슬	*
212015-8	여듭(8)	으답슬	*
212015-9	아듭/구릅(9)	*	*
212015-10	열릅/담불(10)	*	*

212016	작두	작두
212017	쇠죽	여물
212018	구유	남도ㄴ리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즈메
212023	수말	몸메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가라말
212026	청충마/충이말	청충메/충이메
212027	절따말/적다마	적다물
212028	얼룩말	얼룩말
212029	유마	유마
212030	백마	벙메
212031	고라말	고라말
212032	곰배말	곰세물
212033	조랑말	조랑물
212034	달리다[走]	들리다
212035	마소	우마, 므쉬떼
212036	글경이	쉐창빋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빠	말고빠
212039	당기다	둥기다
212040	낙인	낙인, 넥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짖꾸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컷
212045	암캐	암컷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드랭이
212048	비루먹다	드랭이 오르다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숫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녕이
212053	살쾅이	식고녕이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장득
212057	멀떠구니	멀턱
212058	산맥	산맥
212059	닭의어리	득텅에, 득수룽이, 득시렁
212060	닭장	득장
212061	달걀	득세기

212061-1	노른자위	노란알, 노린자
212061-2	흰자위[卵]	흰알
212062	끓다[腐]	고린다
212063	빙아리	빙아리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드세기, 돛
212066	수돼지	숫돛
212067	암돼지	암돛
212068	추렴하다	추렴ㅎ다
212069	가르다[分]	분육ㅎ다, 가르다
212070	고기[肉]	추렴궤기
212071	일숨씨	일숨씨
212072	생둥이	손제공
212073	새끼 돼지	도세기새끼
212074	돼지우리	도세통시
212075	돼지고기	추렴궤기
212076	적	적
212077	적꼬치	적고쟁이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무판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지룽이
212081-1	둘암소	지지렁이췌
212081-2	둘암말	지지렁이믈
212081-3	둘암돼지	지지렁이돛
212081-4	둘암개	지지렁이개
212082	거위	거위
212083	오리	오리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버랭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취	취
212087	취슬다	취사다, 취슬다
212088	가시	가시, 장베랭이
212089	구더기	구더기
212090	취파리	취프리

212091	쇠파리	쉐프리
212092	똥파리	똥프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극다귀
212096	장구벌레	ㄱ노리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훅이	쉬챙빃
212101	지렁이	게우리
212102	회충	게수에
212103	거머리	거말
212104	바구미	*
212105	콩바구미	궁쟁이, 붕 탕이, 톱디에기
212107	땅강아지	땅강생이
212108	그리마	검수에기, 소금바치
212109	쥐며느리	쥐메누리
212110	노래기	노린제
212111	지네	지냉이
212112	진딧물	진쉬
212113	진딧물내리다	진쉬일었다
212114	하루살이	헝루살이
212115	눈에놀이	하루살이
212116	달팽이	들뽕이
212117	민달팽이	들뽕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염지
212120	왕개미	왕게염지
212121	불개미	붉은게염지
212122	메뚜기	믈축
212123	방아깨비	*
212124	여치	궁쟁이말축
212125	사마귀[螳螂]	곡주베기
212126	귀뚜라미	궁쟁이말축
212127	풍뎅이	새각시

212128	장수풍뎡이	*
212129	무당벌레	심방
212130	쇠똥구리	쉐똥구리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접제기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노린제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나비
212137	날다[飛]	날다
212138	사슴벌레	쉐똥구리
212139	잠자리	오쟁이자리
212140	고추잠자리	고치오징에
212141	장수잠자리	장오쟁이
212141-1		
212142	매미	뽕자리
212143	매미허물	옷벗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자리
212145	쓰르라미	고기약자리
212145-1		
212146	소금쟁이	소곰쟁이
212147	방개	*
212148	반딧불이	불한지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벌
212151	꿀	꿀
212152	땅벌	*
212153	말벌	말벌
212154	붓다[腫]	부스다
212155	진드기	진독
212155-1		
212155-2		부글이
212156	송충이	소왕베렝이
212157	개구리	가게비
212158	올챙이	강베룩, 고노리, 멘주기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212160	두꺼비	가게비

212161	뱀	베미
212161-1	뱀띠	베염띠
212161-2	뱀허물	뱀옷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혜치
212163	도마뱀	장쿨레비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폐기

들짐승

212166	여우	여우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쇄
212169	토끼	토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쟁이
212172	값다	쓰물다
212173	쥐구멍	쟁이고냥
212174	박쥐	박쥐
212175	다람쥐	다람쥐
212176	오소리	오소리
212176-1		오소리굴
212177	지달(이)	지달이
212178	지달피	지달이가죽
212179	멧돼지	산돏
212180	원숭이	원생이
212181	원숭이띠	원생이띠
212182	호랑이	호랑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띠
212184	꼬리	꼴랭이

날짐승

212185	새[鳥]	세
212186	꿩지	꼴리
212187	깃[羽]	세털
212188	새총	새총, 고무총
212189	새가슴	새가슴

212190	참새	밥주리 생이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
212193	매	매천이
212194	참매	*
212195	솔개	똥수레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메기
212198	딱따구리	남도로기세
212199	빼꾸기	빼꼭췌
212200	종달새	종다리
212201	올빼미	옥밤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암꿩조치
212204	장끼	웅치, 솥꿩
212205	꿩알	꿩득색
212206	꺼병이	꿩빙액
212207	두루미	두루미
212208	기러기	기러기
212209	갈매기	갈매기

바다 동물

212210	고둥	고둥
212211	개울타리고둥	참보말, 코토데기
212212	명주고둥	뎡쟁이
212213	눈알고둥	돌보말
212214	밤고둥	먹보말
212215	팽이고둥	수두리
212216	각시고둥	심방고메기
212217	두드럭고둥	맹옹이, 메옹세
212218	대수리	마타살
212219	타래고둥	가마귀보말
212220	대롱뿔고둥	웬보말
212221	제주개오지	고녕이넛발
212222	애기삿갓조개	쟁베리, 강베
212223	거북손	데스왈
212224	따개비	베체기, 따까비

212225	군부	군벗
212225-1		물군벗
212226	진주담치	가마귀부리
212227	소라	구쟁기, 고동
212227-1		
212228	전복	전복
212228-1		암뿔, 암전복
212228-2		숫전복
212229	전복갑	전복껍데기
212230	오분자기	오분작
212231	게	쟁이
212232	바위게	지름강이
212233	부채게	돌쟁이, 돌강이
212234	엽낭게	도롱강이
212235	참게	참강이
212236	꽃게	놀강이
212237	소라게	*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접제발
212240	갯강구	밥게
212241	말미잘	막미줄, 물문주리
212242	성게	귀살, 귀
212243	말뚝성게	숨
212244	군소	굴멍이, 군수
212245	새우	세우
212246	불가사리	고냉이방석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득발, 간발
212248	해파리	물췌기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뽕게
212251	서대	섯
212252	해삼	해섬
212253	멍게	*
212254	바닷물고기	바당퀴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어둑다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석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폐싸다
212261	생선(生鮮)	생선, 늘거
212262	미끼	니껍
212263	갯지렁이	물니껍
212264	납시	납시
212265	납싯대	첨데
212266	만들다[造]	멘들다
212267	납싯줄	납시줄
212268	봉돌	봉뜰
212269	참대	왕데, 수리데
212270	납다	납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지느레미
212274	아가미	아가미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꼰멜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
212279	베도라치	브들락
212280	말뚝망둑어	죇벌레기
212281	별망둑	덤벌치, 덤부지
212282	매통이	에이리
212283	고생놀래기	코생이
212284	용치놀래기	술맹이, 푸린술, 흰술맹이
212285	어렁놀래기	어렁이
212286	실놀래기	썰어렁이
212287	옥돔	솔레니
212288	흑돔	웡이
212289	돌돔	돌돔
212290	감성돔	감은돔
212291	벙에돔	구럿
212292	황돔	돔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거리다

212294	고등어	고등에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초기
212297	보구치	백조기
212298	가오리	강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에
212299-1		부치다
212300	불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농어
212303	쥐치	책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손치, 솔치
212307	독가시치	따찌
212308	방어	제립
212309	재방어	가다리
212310	상어	상에
212311	가래상어	우굼, 가래죽상어
212312	개상어	즌다니
212313	팽이상어	도랭이
212314	귀상어	양지기, 무끼상어
212315	돌묵상어	막쟁이, 모드리, 쥐소도리
212316	수염상어	비깨
212317	두툽상어	빅다리
212318	별상어	벨상어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곰수기, 수웨기, 곰세기
212321	귀돔	도벙쟁이, 벳돔, 조방장,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무남, 무낭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물풀
--------	-----	----

213002	갈대	글데
213003	억새	어웁
213004	새품	어웁꽃
213005	화승(火繩)	화심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밭
213008	길차다	질기다
213009	빨기	뽕이
213010	사초	새각시
213011	천일사초	제완지
213012	김의털	*
213013	쇠무릎	막작풀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
213016	조개풀	고누게풀
213017	방동사니	*
213018	마디풀	*
213019	솔새	*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팽이밥	생이풀
213023	원추리	*
213024	메꽃	메마쭈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비늬
213027	쇠비름	췌비늬
213028	개비름	*
213029	참비름	비늬
213030	땅빈대	독자굴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조밥
213033	여우구슬	*
213034	질경이	배채기
213035	쭈	쭈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쭈떡	쭈떡
213038	토끼풀	고름풀

213039	개자리	*
213040	냉이	난생이
213041	방울새풀	보리풀
213042	무릇	못
213043	여뀌	고치풀
213044	오이풀	*
213045	영경귀	소앵이
213046	췌기풀	찔췌
213047	수크령	제완지
213048	망초	천장풀
213049	별꽃	*
213050	병풀	함박풀
213051	깨풀	해바래기풀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파리	푸개
213054	땅파리	*
213055	피막이풀	*
213056	도깨비바늘	*
213057	도꼬마리	게부레기
213058	모시풀	모시풀
213059	왕모시풀	찔췌
213060	천남성	처남상
213061	맥문동	맥문동
213062	밀나물	멜순
213063	살갈퀴	꽃개기풀
213064	차풀	자굴풀
213065	결명자	결명자
213066	까마중	믹오줌남
213067	하눌타리	천도레기
213068	노랑하눌타리	*
213069	부처손	부채손
213070	방가지뚱	*
213071	닭의장풀	고느게풀
213072	배풍등	*
213073	췌	꼭
213074	췌덩굴	꼭줄
213075	췌뿌리	꼭뿌리

213076	땡땡이덩굴	정당풀
213077	노박덩굴	번지낭
213078	새박덩굴	*
213079	호자덩굴	실모작풀
213080	한삼덩굴	삼수세기
213081	함바기	*
213082	담쟁이	담쟁이
213083	송악	홍악
213084	인동	운동꽃
213085	멸꿀	넉줄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등계풀
213090	수영(승아)	계술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싸리
213093	땡싸리	*
213094	명아주	젯남비늪
213095	갯	갯늪물
213096	달래	뽕마농, 드룻마농
213097	썸바귀	ㄱ름풀
213098	고들빼기	고들빼기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방풍
213104	구릿대	민네기스춘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잉모초
213107	피마자	*
213108	뉴질랜드삼	피만지
213109	양하	양에
213110	파초	*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당막계

213113	개구리밥	물웃
213114	줄	세계에기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

꽃

213117	꽃	꽃
213118	꽃봉오리	꽃봉오리
213119	채송화	채송화
213120	민들레	고름풀
213121	봉선화	봉숭아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할미꽃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
213127	맨드라미	*
213128	해바라기	해바리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쭉부쟁이	*
213133	수국	사발꽃
213134	산수국	도체비고장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문주란

나무

213141	뿌리	빨리
213142	잔뿌리	즌발
213143	줄기	데
213144	가지	가지
213145	잎	잎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하다
213148	삭정이	삭은기,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썰
213151	솔가리	솔잎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멜감	멜곰
213154	마디다	저지다
213155	갈퀴	글쟁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팽낭,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돛박남
213160	붉다[赤]	빨갓다
213161	멀구슬나무	물쿠치남
213162	버드나무	버디남
213163	녹나무	녹남
213164	아카시아	웨가시남
213165	은행나무	은행남
213166	음나무	똥낭
213167	삼나무	숙테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벗낭
213170	왕벗나무	*
213171	사옥	사오기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
213173	주목	노가리
213174	종려나무	남충남
213175	윤노리나무	윤유리남
213176	비목나무	베염푸기
213177	구상나무	구상남
213178	굴거리나무	굴거리남
213179	생달나무	사다기남
213180	굴나무	유지남
213181	따다[摘]	따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남

213183	유자나무	팽귤남, 등남
213184	비자나무	피즈남
213185	치자나무	치즈남
213186	비파나무	비파남
213187	오동나무	오동남
213188	조롱나무	조례기남, 조롱남
213189	배롱나무	백일홍, 조금타는낭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
213192	팥팥나무	*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때죽나무	종낭
213195	마가목	마계낭
213196	말채나무	말마계낭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
213199	향나무	상낭
213200	옷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
213202	솔비나무	*
213203	층층나무	마디목
213204	닥나무	*
213205	돈나무	가마귀똥남
213206	무환자나무	모과낭, 몰축남
213207	쥐똥나무	*
213208	섬쥐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남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종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
213214	돌가시나무	감은가시낭
213215	제주가시나무	주제비낭
213216	꾸지뽕나무	꿇가시낭
213217	덜꿍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좁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
213222	말오줌때	물오줌낭, 물오동낭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복닥낭
213225	참식나무	신남, 식낭
213226	까마귀쪽나무	구럼비낭
213227	천선과나무	빈독낭
213228	실거리나무	*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
213231	풍개나무	폭낭
213232	먼나무	*
213233	박달나무	*
213234	떡갈나무	*
213235	상수리나무	*
213236	참나무	춤낭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제피낭
213239	국수나무	생이폭낭
213240	사철나무	*
213241	겨우살이	저슬사리
213242	모람	*
213243	누리장나무	*
213244	아왜나무	*
213245	순비기나무	순비기낭
213246	불나무	*
213247	협죽도	*
213248	담팔수	*

열매

213249	과일	을메
213250	껍질	껍질
213251	깎다	깎다
213252	벗기다	벗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게미탈

213255	명석딸기	*
213256	복분자딸기	탈
213257	줄딸기	*
213258	산딸기	한탈
213259	가시딸기	가시탈
213260	검은딸기	*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조밤
213263	머루	멀리
213264	개머루	고냉이멀리
213265	까마귀머루	*
213266	산머루	*
213267	상동나무	삼동남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시레미, 시르미
213270	다래	드레
213271	개다래	블레
213272	보리수나무	볼레낭
213273	보리수	볼레
213274	보리장나무	마께볼레낭
213275	앵두나무	*
213276	앵두	*
213277	매실	*
213278	매화나무	메실남
213279	밀감	유지
213280	밀감나무	유지남
213281	탱자	통지
213282	탱자나무	통지남
213283	감	감
213284	떨다[柿]	꼭잡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시
213287	풋감	푸린감
213288	청미래덩굴	멩게남
213289	맹감	멜레기, 가시남
213290	찔레나무	세우레비남, 가시남
213291	영실	도꼬리

213292	사과나무	*
213293	사과	*
213294	배나무	배나무
213295	배	배남
213296	돌배	*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
213299	구실잣밤나무	조밤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붓
213302	복숭아나무	도실낭
213303	복숭아	복숭아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남
213306	으름	유름
213307	오미자	넉출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넉메역
213310	미역쇠	메역세
213311	김	김
213312	파래	꼭레
213313	톳	톨
213314	패	페
213315	넓패	넉페
213316	지충이	*
213317	다시마	넉메역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테
213320	모자반	몐
213321	청각	전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도박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